• 第41回(2022年) 東洋史學會 冬季研究討論會 •

동유라시아 세계의 물품이동과 문화변용

- 일시: 2022년 1월 13일(목)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ZOOM)
- 주최: 동양사학회,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동양사학회 ·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일 정

10:00~12:00 신진연구자 소개

▸개회사: 차혜원 회장(연세대)

▸신진연구자 소개 사회: 손성욱(선문대)

13:00~15:40 제1부: 발표 및 지정 토론 사회: 김용찬(전북대)

13:00-13:25 [제1발표] **고대 동아시아의 물품이동과 그 영향: 한경의 사례**

▸발표: 고일홍(서울대)

▸토론: 송 진(공주대)

13:25-13:50 [제2발표] **物品의 전래와 문화 변동 사이 – 印度像의 流入에서 印度風의 출현까지, 그 과정에 개입하는 '힘'과 媒材 연구 –**

▸발표: 소현숙(덕성여대)

▸토론: 정재균(성균관대)

13:50-14:15 [제3발표] **원제국 외래 藥物의 유입과 카안의 賞賜**
– 南海海上 생산 香藥을 중심으로 –

▸발표: 조 원(부산대)

▸토론: 조원희(한중연)

14:15-14:25 휴식

14:25-14:50 [제4발표] **타나(tana)와 니추허(nicuhe)**
– 淸初 만주인의 진주 채취와 소비 문화 –

▸발표: 임경준(동국대)

▸토론: 김선민(고려대)

14:50-15:15 [제5발표] **17~19세기 조선관련 오라이모노(往来物)의 제작·유통과 일본 서민의 조선인식**

▸발표: 허지은(서강대)

▸토론: 이기원(강원대)

15:15-15:40 [제6발표] **기호품의 수입과 도시문화의 변화**
– 청말민초 상하이의 정백당·커피 수입액 변화를 중심으로 –

▸발표: 정영구(안동대)

▸토론: 강진아(한양대)

15:50~17:50 제2부: 종합토론 좌장: 서인범 (동국대)

17:50~18:00 우호논문상 시상

목 차

신진연구자 발표

▸ 1950~60년대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유행과 기층 의료문화의 형성
– 홍콩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 ····· 김 민 서 1

▸ 秦漢地方司法運作與官制演變
– 以官府的集權化現象爲中心 – ····· 김 종 희 5

▸ 유배형의 시대(配流刑の時代)
– 청대 유배형의 諸相을 둘러싸고 – ····· 김 한 밝 9

▸ Renaissance Man From Amdo
– The Life and Scholarship of the Eighteenth-Century
Amdo Scholar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1704-1788) –
····· 김 한 웅 12

▸ 헤이안 귀족사회의 신분질서와 가격의 형성과정 ····· 김 현 경 15

▸ 근세 후기 조정의 부흥 이념과 조정-막부 관계 ····· 김 형 진 19

▸ 명대 明-스페인 교섭 연구
– 명 지방당국과 루손 마닐라政廳 교섭 과정을 중심으로 – ····· 남 민 구 22

▸ 미일 개전 외교의 재검토
– 미국의 적극적 극동정책을 중심으로 – ····· 안 재 익 26

▸ 東北人民政府의 위생행정과 국가-사회관계(1949-1953) ····· 이 은 주 30

▸ 唐代 灌溉 水利 研究
– 地理的 特性과 地方의 開發 樣相을 中心으로 – ····· 이 준 형 33

▸ 근세 조일관계와 유서
– 쓰시마번의 언설·역사서술을 통하여 – ····· 이 해 진 37

▸ 중원왕조와 돌궐1제국(545~630) 관계 연구 ····· 임 정 운 41

▸ 청대 월해관과 관세 대리 징수 구조
– 海關兩의 기원과 관련하여 – ····· 주 형 준 46

▸ 清代江南城市的醫療環境與成藥資源研究 ····· 최 지 희 50

발표 및 지정 토론

[제1발표] **고대 동아시아의 물품이동과 그 영향: 한경의 사례** ····· 고 일 홍 53

▸토론 ····· 송 진 75

[제2발표] **物品의 전래와 문화 변동 사이**
－ 印度像의 流入에서 印度風의 출현까지, 그 과정에
개입하는 '힘'과 媒材 연구 － ····· 소 현 숙 79

▸토론 ····· 정 재 균 99

[제3발표] **원제국 외래 藥物의 유입과 카안의 賞賜**
－ 南海海上 생산 香藥을 중심으로 － ····· 조 원 103

▸토론 ····· 조 원 희 127

[제4발표] **타나(tana)와 니추허(nicuhe)**
－ 淸初 만주인의 진주 채취와 소비 문화 － ····· 임 경 준 131

▸토론 ····· 김 선 민 149

[제5발표] **17~19세기 조선관련 오라이모노(往来物)의 제작·유통과**
일본 서민의 조선인식 ····· 허 지 은 153

▸토론 ····· 이 기 원 177

[제6발표] **기호품의 수입과 도시문화의 변화**
－ 청말민초 상하이의 정백당·커피 수입액 변화를 중심으로 －
····· 정 영 구 181

▸토론 ····· 강 진 아 205

【신진연구자 발표】

1950~60년대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유행과 기층 의료문화의 형성

― 홍콩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

김민서(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취득대학: 연세대학교
지도교수: 박경석
학위 취득 연월: 2022년 2월

20세기 들어 신종 감염병이 연이어 유행하며, 감염병에 대한 대중적·학문적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인플루엔자 또는 독감(流行性感冒)의 경우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급격한 변이에 따라 20세기만 해도 세 차례의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발생했는데, 그중 '아시아 인플루엔자(H2N2)'와 '홍콩 인플루엔자(H3N2)'는 각각 1957~8년, 1968~9년 약 10년의 터울을 두고 확산했다. '홍콩'은 중국(대륙)에서 기원했다고 여겨진 두 변종 인플루엔자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확산의 연결고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팬데믹에 대해서는 세계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한 일부 연구 이외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로서, 특히 두 인플루엔자의 확산이나 감시가 홍콩과 동아시아를 연결고리로 하고 있음에도 홍콩 의학사에서 1950~60년대 '인플루엔자'라는 주제는 아예 누락되거나, 심지어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당시 홍콩은 물론 식민본국 영국에서조차 인플루엔자는 법정감염병이 아니어서 신고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독감에는 딱히 예방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홍콩은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 팬데믹에 대해서는 직접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최초로 분리했을 정도로 세계적인 인플루엔자 감시·통제에서 직접적인

행위 당사자로서 활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필자가 보건데 두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홍콩 보건의료체제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주도하의 세계적 규모의 감염병 감시체제의 신기원을 여는 서막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1950년대 홍콩에서 생산된 독감에 대한 다양한 중의학 문헌과 1950~60년대 홍콩에서 독감 대유행 시 중의약의 소비는 홍콩의 기층 의료문화가 서양의학 소위 서의 중심의 공식적인 체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식민지 홍콩에서는 공식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서의였으나, 그와 동시에 비공식적으로 중의의 자율성을 용인했고 중의가 성행했기에, 서의만을 다루는 것은 의료문화 전체상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1950~60년대 냉전기 발생한 두 차례 인플루엔자 팬데믹에 대한 홍콩과 세계의 대응을 통해 홍콩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홍콩 기층 의료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홍콩의 보건의료 관련 법제의 입안과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홍콩 식민당국이 어떤 의도와 지향 속에 홍콩의 보건의료 모델을 만들어갔는지 알아보았다. 이어 두 차례의 팬데믹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을 세계보건계, 홍콩 보건당국, 그리고 기층 중의 세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 1부는 전후 20여년 홍콩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변화가 추동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국공내전이 발발하였고 신중국이 수립되었으며,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동아시아 냉전이 심화되었다. 중국 남부 광동성과 국경을 맞댄 홍콩은 이러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홍콩과 중국 간에 관계가 단절되었고,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인구 구성은 물론 사회 성격이 크게 변화되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단연 공공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였다. 홍콩의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 과밀화로 인해 주거와 위생의 문제가 악화되면서, 제한적인 의료자원의 대부분이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을 지나며 홍콩과 중국 간에 상호 실리적인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후 홍콩 식민당국은 안정적인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당국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공고화하기 위해 이전의 임기응변적 대응에서 점차 벗어나 독자적인 공중보건과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의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근대 서양의학(서의)을 중심으로 의료인과 병의원 관리 및 통

제가 이루어졌고, 비공식 영역에서 전통의학(중의)의 자율성을 용인하면서 중의와 서의가 공존하는 홍콩의 보건의료 모델이 만들어졌다.

제 2부 1~2장에서는 냉전기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 홍콩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며 범세계적으로 유행한 1957년의 '아시아 인플루엔자'와 1968년의 '홍콩 인플루엔자'를 살펴봄으로써 홍콩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그간 홍콩 의학사에서 두 인플루엔자 팬데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홍콩에서 인플루엔자는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고 홍콩 보건당국의 언설 속에서 사소한 질병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1957년 아시아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경험하며, 홍콩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인플루엔자 감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 1968년 변종 '홍콩 인플루엔자'가 다시 한번 출현했을 때, 최초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성취를 이루었다. 따라서 WHO 인플루엔자 감시체제의 성격과 발전을 홍콩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일은, 홍콩이 어떻게 인플루엔자와 관련한 '방역의 불모지'에서, 공산세계 중국의 인플루엔자 발생을 감시하는 '감시초소'로 거듭났는지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가 될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과 자유세계간의 공식적 단절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과학계는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통해 영국 및 자유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인플루엔자 팬데믹 감시를 위한 비공식적 연결망과 전염병 확산과 대응에서 나타난 자유세계의 아시아 인식도 함께 살펴보았다.

제 2부 3장에서는 홍콩 중의의 '독감(流行性感冒)'인식 속에 나타난 중의와 서의의 혼종적 양상과 특성을 검토했다. 홍콩에서는 불시에 닥친 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환자가 급증하였지만, 홍콩 보건당국의 역내 방역 조치는 1957년과 1968년 모두 미진했고, 만성적인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가 겹쳐지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홍콩의 기층 주민들은 중의를 통해 예방과 치료를 강구하였다. 특히 홍콩의 명의와 '國醫'를 자임한 홍콩 중의단체의 독감 인식을 통해 중의와 서의의 혼종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기 중의의 활약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홍콩으로 수입된 중의 매약을 비롯한 중의약의 공급/소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홍콩에서 근대의학의 균열지점과 기층 의료문화의 재편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홍콩 식민당국의 의료 관련 정책과 인식, 민간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홍콩 정부문서보관소의 자료와 함께 대학도서관 및 홍콩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신문·잡지 자료(香港舊報紙)와 홍콩 역사법률 데이터베이스(Historical Laws of

Hong Kong Online), 그리고 중의약 관련 출판물을 주요하게 활용하였다. WHO 인플루엔자 프로그램의 성립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WHO에서 발행한 1차 문헌 자료를 주요하게 참고하였고, 1957년, 6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과 관련하여, 식민본국인 영국과 주요 이해당사자인 미국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영국과 미국의 내셔널 아카이브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밖에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 신문자료와 기존의 연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신진연구자 발표】

秦漢地方司法運作與官制演變

— 以官府的集權化現象爲中心 —

김종희(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취득대학: 北京大學
지도교수: 陳蘇鎭
학위 취득 연월: 2021년 6월

본 논문은 秦漢시기 지방행정조직과 주요 사법권의 특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集權化의 추세가 治獄·覆獄 및 민사소송 등 주요 사법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고찰하였다. 먼저 司法·訴訟·治獄의 범위를 비롯해, 권력의 중심을 표현하는 글자로 "廷"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廷"은 일종의 庭院으로서 건물내 공간을 지칭한다. 하지만 廷의 지칭범위는 확대되어 특정 건물 혹은 건물군을 나타내는 동시에 권력의 중심을 상징하였다. 朝廷·宮廷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廷의 개념은 지방행정에도 반영되었다.

縣廷·都官廷은 縣內 중추기관이었고, "廷"의 각종 기능 중 司法權(특히 治獄權)이 외부의 屬官조직을 통제하는 핵심권한이었다. 이 점은 당시 獄史의 특수성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秦代 縣廷내의 각종 曹조직은 외부 鄉·官嗇夫조직에서 작성한 문서를 검토했는데, 曹조직 중 獄曹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獄曹令史(獄史)가 개입한 범위도 다른 曹의 令史에 비해 넓었다. 秦代 都官은 縣官과 마찬가지로 廷-外部屬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都官廷도 獄史를 통해 外部의 屬官을 통제하였다. 하지만 前漢初 都官廷은 治獄權을 상실하고 後漢시기에는 太守府에 속하게 되어 郡守府 권력강화의 한 요소로 되었다.

주지하듯이 秦漢初 縣官은 嗇夫중심의 관료체제였으나 兩漢시기를 거치며 嗇夫의

비중은 줄고 曹조직의 비중이 커진다. 이는 縣官업무의 초점이 생산·관리 중심에서 감시·감찰의 사법 중심으로 전환되어 감을 시사한다. 예컨대 後漢代가 되면 獄史의 秩級은 상승하고 縣廷內外 史계통 屬吏의 종류가 늘어났다. 또한 縣廷內의 史가 외부로 파견되어 순찰하기도 하고, 일부 史는 주로 縣廷밖에서 업무를 보면서 감시 혹은 소송중재 등의 사법활동에 종사했다. 그 밖에 秦代 治獄관련 업무의 경우 屬吏 중 獄曹令史(獄史)에게 권한이 집중되었지만, 後漢시기가 되면 賊曹·辭曹등으로 분산되어 한 부서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았다. 동시에 後漢시기 문서행정 중 특정 상황에 대한 縣令의 비준을 상규화 함으로써, 秦代와 비교했을 때 縣令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다. 史계통 屬吏가 늘어나며 각종 사법활동에 종사한 점, 특정 曹조직의 비대를 억제한 점, 縣令의 역할이 더욱 부각된 점 등은 縣내 중심권력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추세를 보여준다. 본고는 이를 縣廷의 집권화 경향으로 이해했다.

상술한 경향은 縣단위 治獄 등의 사법활동에도 반영되었다. 본고는 劾書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았다. 劾書는 治獄을 공식화하는 文書 혹은 단계로서 , 그 내용이 점차 길어지고 작성과정이 점차 엄밀해졌다. 劾書에 반영되는 감시·감찰관련 용어도 늘어나 사법활동에서 감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診”·“訊”·“問”은 治獄내 절차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절차는 사실 治獄전에도 있을 수 있으며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 사법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되었다.

縣官구조의 변화 및 사법적 특징은 郡단위에서도 나타난다. 秦代 郡三府체제는 後漢시기 一府체제로 통합되어 郡守府(太守府)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비록 秦代 郡守府는 執法官으로서 이미 상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권력강화는 前漢중기 이후였다. 郡의 權力강화는 豪族등을 통제함으로써 朝廷의 의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다. 郡守府는 治獄 및 教化활동을 수단으로 통제의 효율성을 提高하고자 했으며, 後漢시기에 이르면 郡尉의 軍事權과 都官의 생산활동까지 흡수함으로써 그 권한을 더욱 확대하였다. 아울러 기층에서 활동한 督郵가 郡의 親民性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刺史를 설치한 처음 목적은 이러한 郡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범법행위에 대한 朝廷의 소극적인 처벌 및 통제약화 속에 刺史도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여 권력화되었다. 즉 郡守府의 권력화는 朝廷의 의도(호족통제 등 지방 장악력 강화)속에서 이루어졌다면, 刺史의 권력화는 朝廷의 통제약화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郡級이상 기구가 주도한 사법운용에 관해서는 覆獄에 주목하였다. 覆獄은 下級官

이 처리한 獄案을 재검토하여 새로 작성하는 활동으로 再治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覆獄은 縣官을 감시·감찰하는 수단이 된다. 覆獄은 시작되는 원인에 따라서, 上級기관의 명에 의한 覆獄, 乞鞫覆獄, 死罪·過失·戱殺覆獄으로 나눌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지방행정의 집권화 추세에 따라 覆獄을 처리하는 관원 및 구체적인 진행방식이 다양화되었으며 신속하게 관련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死罪안건에 대해서는 최종 비준권한이 점차 위로 올라가 皇帝에게 집중되고, "死罪覆奏"과정에서 覆獄과 奏讞의 요소를 흡수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秦代 疑獄上讞절차는 漢代에 비로소 "奏讞"으로 불리었다. "奏讞"이라는 명칭자체는 漢代에 형성되었고 疑獄上讞은 절차상 覆獄과 다르지만, 이후 死罪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합되었던 것이다.

秦代 鄕嗇夫조직(鄕部)은 部內에서 기층 民의 생활에 관한 여러 분야를 관리하였다. 다만 "田部"·"亭部"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縣이라는 같은 공간(鄕部·田部·亭部가 관리하는 공간범위는 다름)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鄕嗇夫조직이 단독으로 권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鄕嗇夫조직을 권력기구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秦통일전후 鄕嗇夫조직의 司法기능은 監視에 집중되었다. 예컨대 民의 범법여부를 사법수사하고 ,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縣廷에게 보고했다. 이러한 감시의 성공여부는 民(黔首)과 鄕嗇夫조직사이 얼마나 유기적 관계를 형성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遷陵縣의 사례를 보면 鄕嗇夫조직(鄕部)은 新地吏정책의 영향으로 대부분 外地人으로 구성되었고 , 當地의 特殊性 및 업무숙련도 등의 문제로 民(黔首)사이에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秦帝國시기 鄕嗇夫조직(鄕部)의 사법기능은 시·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前漢시기 기층에 三老·孝悌·力田을 설치하고 鄕嗇夫조직의 교화 및 분쟁조정 기능을 강조시켰다. 秦代 이미 현지인으로 鄕嗇夫조직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불완전했으며, 漢代 이것이 보편화되며 鄕嗇夫조직과 民사이 유대관계가 강화되었다.

분쟁조정 기능은 治獄전의 診·問단계에 해당하며 秦代에도 이미 존재했다. 前漢후기이래 공문서에 治獄前의 診·問단계(특히 진술부분)를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그 중 재산분쟁 등 民事분쟁에 관련된 내용을 民事訴訟으로 이해할 수 있다. 秦漢시기의 民事訴訟은 治獄前 診·問단계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 鄕嗇夫조직은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後漢시기를 거치며 鄕嗇夫조직(鄕部)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鄕部의 부정부패 문제가 부각되고 각종 史계통 屬

吏가 縣廷밖에서 활동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後漢시기 두드러진 訴訟사회(好訟사회)현상은 訴訟을 受理·처리하는 官吏를 늘림으로써 訴訟이 악화되거나 治獄으로의 발전(冤案발생까지 포함)을 막으려는 국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이는 無訟의 전통적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縣廷·太守府가 史조직 및 督郵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추세를 보여준다.

상술한 특징을 종합하면, 縣廷·郡府·刺史는 중추조직의 확대 및 권력강화라는 측면에서 집권화 추세를 보여주지만, 그 속도는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상급기관일수록 변화의 정도가 더 크고 변화의 속도도 더 빠르다. 이는 아마도 상급기구로 올라갈수록 황제를 비롯한 조정과 소통하는 기회가 늘어나며 정책을 영향을 더 깊이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끝으로 각 행정단위 官府가 집권화되는 원인으로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는 하급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황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자연촌 증가 등 권력이완작용에 대한 국가 대응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사법권력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의 집권화 추세는 황제지배체제의 또 다른 표현이며, 조정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어떠했는지가 집권화의 성공여부를 결정하였다.

【신진연구자 발표】

유배형의 시대(配流刑の時代)

― 청대 유배형의 諸相을 둘러싸고 ―

(清代配流刑の諸相をめぐって)

김한밝(교토대학)
박사학위 취득대학: 京都大學
지도교수: 나카스나 아키노리(中砂明德)
학위 취득 연월: 2021년 3월

본 논문은 "유배형의 시대"라는 문구로 청대의 형벌제도를 설명하고, 그것이 정착해가는 과정과 그 가운데 발생한 제문제에의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청이라는 왕조가 지니는 전통중국의 계승자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근세기 들어 신청사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연구조류하에, 사법제도의 측면에서는 內地와 藩部의 분리지배가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인 중화의 영역으로『大清律例』의 지배를 받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理藩院을 통해 관리되며『理藩院則例』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원적 사법질서의 존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내지 사법체계의 특성이 간과되었다는 점이다. 청대의 내지 사법제도는 省例의 편찬, 실형 중심의 형벌집행, 구금형의 시작, 유배형의 대두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중국왕조와 크게 구별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이러한 특색은 서구의 근대법을 수용하는 내재적 동기, 혹은 준비과정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까닭에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청제국에 관한 논의는, 그 다원성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수정, 보완될 여지가 있다.

전근대 중국 형벌제도에 있어 유배형은 명목상 사형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지만, 실효의 의문이나 집행의 번잡함으로 인해 실제로는 다른 형태로 집행되는 경우

가 빈번했다. 그런데 청대에는 五刑의 하나인 “流刑”은 물론, 명대에 군호 유지를 위해 정비되었으나 청대 들어 유형과 다름없게 된 “充軍”, 입관 이전의 노예제도에 유배형의 요소를 더하여 구현된 “發遣”, 본디 노역형이었으나 사실상 省內의 단기 유배형으로 기능했던 “徒刑”에 이르기까지, 원적지로부터 이격한 지역에 죄인을 보내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유배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되었다. 이러한 유배형의 전례 없는 돌출을 고려하면, 청대를 “유배형의 시대”라고 칭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유배형은 집행하는 순간 종료되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인에게 일회성의 고통을 가하는 笞杖刑이나 집행과 동시에 생명을 빼앗는 사형과는 구별된다. 즉, 유배형은 죄인을 配所로 보내는 비용과 교통망은 물론, 이미 배소에 보낸 죄인의 관리까지 요구되는 수고스러운 형벌이었다. 또한 청대의 유배형 체제에서는 군대나 일부 변경지대를 배소로 삼던 종전과는 달리, 내지의 일반주현이 대다수의 유배범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는 범죄자와 일반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청대의 유배형은 내지 주현의 치안이나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되었다. 유배형을 실형으로 광범위하게 집행함으로써, 그에 부수하는 형벌의 경제성이나 죄인의 관리가 문제화한 것이다. 유배형의 시대의 결말은 유배형의 종언으로 나타났고, 청말 유배형이 폐지된 한 원인은 유배형의 시대를 거치며 확인된 유배형의 제문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청대의 유배형에는 세 가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유배형이 광범위하게 실형으로 집행되었고, 둘째, 그 과정에서 내지 주현이 대다수의 죄인의 유배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셋째, 유배범의 관리문제를 비롯한 유배형의 문제의 노출로 이후 유배형, 나아가 전통적 오형제도가 폐지되는 내재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본논문은 상기한 인식 위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기존에 존재했던 형벌들, 충군, 유형, 도형이 원래 그것의 존재의의가 되었던 구성요소를 잃고 원적지로부터의 유배거리라는 단일한 기준하에 재편성되어 가는 모습을 다루었다. 그 결과, 청대 유배형의 구조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비되었다. 성내의 유배형인 도형, 2천리 이상의 유형, 3천리 이상의 충군이 그것이다. 이는 더 이상 형벌 고유의 특성--충군의 경우 군호로서의 복역, 도형의 경우 노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형벌간의 차등방법으로 거리가 새롭게

부상한 것을 보여준다.

후반부에서는 내지유배의 과정, 혹은 그 결과 발생한 문제들과 그것에 대처하는 청조의 방법을 다룬다. 기존처럼 죄인을 특정지역에 보내는 것이 아니게 되면서, 사형 바로 아래의 중죄를 범한 이들이 일반주현 가운데 관리되게 되었고, 이들에게 노역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죄인들은 생계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청조는 세 방향에서 해결을 시도하였다. 첫째, 배소현지에서 유배범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배소의 유배범을 사면하여 이들이 양적으로 미치는 부하를 감소시키는 것, 셋째, 신강과 煙瘴지구를 활용하여 배소의 유배범을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것이었다.

충군의 유형화를 기점으로 내지의 주현에 보내진 유배범은 수용시설이나 孤島가 아닌 일반사회 가운데 갱생을 도모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청조의 황제가 강조한 好生之德의 실천과 같은 것이 아니며, 단지 적절한 사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배범에게 요구된 自新이란 하나의 명령이자 목표였지만, 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그 결과 죄인은 불안정한 생활 가운데 잠재적 범죄자로, 민중은 죄인의 관리책임을 지는 동시에 그로부터의 횡포에 고통받는 이로, 관은 그것을 묵인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기묘한 형태로 유배형의 시대는 운용되었다.

요컨대, 유배형은 청조가 상속한 중국역사의 경험과 모순의 한 덩어리였다. 청조는 정비된 형법과 행정제도, 지방조직과 동시에, 기존의 난제 역시 물려받았다. 十惡과 같은 도덕률까지 형법이 침투하는 고대의 법치관념, 인구의 증가나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한 지방통치조직 가운데, 청조가 선택가능한 방법이란 최소한의 수정을 거듭하는 것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청대의 형벌제도에 있어 그 전제가 된 것은 명대의, 그리고 중국전통형벌제도의 유지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진연구자 발표】

Renaissance Man From Amdo

― The Life and Scholarship of the Eighteenth-Century Amdo Scholar 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1704-1788) ―

김한웅(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취득대학 : Harvard University
지도교수 : Leonard W. J. van der Kuijp
학위 취득 연월 : 2018년 5월

본 논문은 18세기 암도(Amdo)라 불리는 동북 티베트 지역 출신 승려인 쑴빠켄포 예셰뻴졸(Sum pa Mkhan po Ye shes dpal ’byor, 1708-1788)의 傳記와 학문 세계를 조명함으로써 티베트 불교문화가 티베트고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내륙아시아와 동아시아에 퍼져나가게 된 요인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쑴빠켄포는 티베트 불교의 轉生 라마이자 학승으로서 중앙 티베트의 학문과 문화 전통을 암도 및 몽골 지역으로 전파하는 데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또한 이러한 문화전파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티베트 불교문화의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적극적 혁신자로서 그 문화에 지역적·민족적 특색을 가미함으로써 내륙아시아에서의 티베트 문화 저변화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논문의 도입부는 쑴빠켄포라는 개인에 대한 분석에 앞서 거시적인 역사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논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티베트 불교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문화현상, 즉 1) 轉生 제도, 2) 사원 설립의 규모, 3) 티베트 문집의 저술 및 출판을 주제로 삼아 중앙 및 동북 티베트 지역의 관련한 통계 자료를 대조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라싸를 위시한 티베트 문화의 중심지가 18세기부터 동북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자는 이를 ‘암도 르네상스(Amdo

Renaissance)'라 명명하였으며, 이 현상이 향후 淸-몽골-티베트 문화권이 중첩되는 광범위한 동북 티베트 지역에서 어떤 역사적 유산을 낳게 되었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후 논문의 주요 장절들에서는 도입부의 통계에 의거한 양적 지표가 각각 어떠한 질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는지를 쑴빠켄포의 사례를 통해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600 페이지 분량의 쑴빠켄포의 티베트어 자서전을 중심으로 그의 문집에서의 각종 문헌들을 주요 관련 자료로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쑴빠켄포의 자서전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존에 쑴빠켄포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었던 그의 행적들을 새롭게 구성하고, 특히 쑴빠켄포가 淸 황실 및 몽골 지도층과 맺었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티베트 문화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있어서 당시 정치적 배경이 어떠하였는지 파악하였다. 둘째, 쑴빠켄포의 전기에 나타난 티베트 轉生活佛制度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티베트 전생 라마 제도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폈고, 아울러 전생 제도가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에서 점차 정통 인도-티베트 전통의 종교적 체제로 정착되었음을 논증하였다. 쑴빠켄포는 스스로가 轉生라마로서 자신의 轉生系統에 대한 상세한 역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또한 새로운 轉生라마를 선발·확정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쑴빠켄포의 학문, 師承 관계, 후학 양성 및 저술 활동 방식을 추적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암도 및 몽골 현지의 요구에 부응하며 중앙 티베트의 학문 전통을 전파해나갔는지를 구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쑴빠켄포는 전통적인 인도-티베트 학문체계를 계승하면서도 그를 이용하여 지역과 대중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기 위한 자세를 견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부분에서 본고는 밀교 의례와 같은 대중적인 종교 행위가 어떻게 티베트 불교의 전파 과정에서 활용되었는지를 쑴빠켄포의 사례를 통해 논의하였다. 넷째, 티베트 불교 전파의 주요 매개체인 불교사원의 설립과 사원들 사이의 관계 맺음에서 쑴파켄포의 역할을 분석하여 그의 활동이 당시 티베트 불교 사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직을 자신의 활동 기반으로 삼았음을 구명하였다. 이러한 관계의 기반에는 표준화된 티베트 불교 겔룩파의 사원규율문헌("차익" bca' yig)의 사원들 사이의 공유가 큰 역할을 했는데, 쑴빠켄포 자신의 "차익" 저술 및 사원들의 住持職 담당과 이를 위한 계속된 사원들의 방문이 사원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그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몽골 지역의 관련 활동에 있어

서는 쑴빠켄포 자신의 몽골혈통 배경이 다른 차원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라싸를 중심으로 했던 중앙 티베트의 학문 및 문화 전통이 근세시기에 동북 티베트, 淸-몽골 변경 지역으로 전파된 양상과 그 문화사적 유산에 대하여 논의한 성과이다. 이를 통하여 18세기 중앙-내륙 아시아 지역 역사의 층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정치·사회·문화 헤게모니의 이동에 있어서 티베트 불교문화 전통과 그것을 수용한 현지 지식인 계층이 기여한 바를 살피고자 하였다.

【신진연구자 발표】

헤이안 귀족사회의 신분질서와 가격의 형성과정

(平安貴族社会の身分秩序と家格の形成過程)

김현경(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취득대학: 京都大學
지도교수: 요시카와 신지(吉川眞司)
학위 취득 연월: 2021년 3월

본 연구는 일본 역사 속에서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하는 시기로 평가되는 헤이안 시대에 있었던 귀족사회 신분질서의 전환과 가격(家格)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서장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과 신분, 가격의 문제>에서는 고대 율령국가 이후 국가체제의 변화와 중세 성립기의 시대구분에 관한 논의를 파악하고, 중세로의 전환에 대하여 고찰한 다음, 신분과 가격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과 그 논점을 제시했다. 율령관인사회가 천황과 관인 개인의 군신관계를 바탕으로 규정되었던 데 반해, 헤이안 귀족사회에서는 권문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관계에 따라 계층의 고정화가 진행되었고, 공경으로 승진하는 루트와 관련된 관직을 축으로 하여 귀족의 가격이 성립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고대 및 중세의 신분질서와의 관계, 그리고 가격의 성립과정을 논하여 가격과 그 성립을 중세화의 지표로 삼는다. 그 연구 방법으로는 신분과 가격에 관련된 사료용어, 특히 '귀종(貴種)', '긴다치(公達)', '양가(良家)'라는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신분개념의 변천과 가격의 형성을 파악한다.

제1장 <고대의 '종(種)' 관념과 그 변천>에서는 고대 사료에 보이는 '귀종', '장종(將種)' 같은 단어에 나타난 신분관념과 그 변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고대의 '종' 관념은 헤이안 귀족사회가 재편되고 신분질서가 고정화

되는 데 영향을 받아 불교적인 재해석을 거쳐 11~12세기에는 중세의 종성관념으로 전환되어 갔다.

제2장 <헤이안 귀족사회와 '귀종'>에서는 제1장에서 다룬 '종' 표현 중 '귀종'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귀종은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학술용어로서 자주 사용되었지만, 고대와 중세 양쪽의 '귀종' 개념의 정합성을 갖고 논의되지는 않았다. 이 장에서는 고대에서 중세 전기까지의 '귀종'의 사료상 용례를 검토하였다. 9세기에 등장한 '귀종'이라는 말은 3위 이상 내지는 공경의 자손이라는 관위질서에 입각한 고위고관의 집안을 의미한다. 사료상의 공백기를 거쳐 11세기 후반에는 대신, 공경 가문 출신자를 '귀종'이라 부르는 사례가 더러 보이는데, 그 대상이 되는 인물은 후지와라 북가(藤原北家)와 미나모토씨(源氏) 중에서도 몇몇 가문에 한정된다. 이러한 '귀종' 가문은 11세기 중엽 이전에 대신, 공경을 지속적으로 낸 가문에 해당하며 그 외의 비귀종 가문에서 훗날 공경 진출이 가능해져도 그들을 '귀종'이라 부르지는 않았다.

제3장 <가격으로서의 긴다치의 성립>에서는 '귀종'과 마찬가지로 상급귀족 가격의 명칭으로 이해되어 온 '긴다치'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긴다치는 원래 귀족의 자식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섭관가, 공경의 자식이 그 대상이었다. 11세기에는 긴다치라 불리는 사람들의 가계가 후지와라노 다다히라(藤原忠平)의 자손과 우다 천황(宇多天皇) 이후의 미나모토씨에 한정되었으나, 가문에 따라 긴다치와 긴다치가 아닌 사람(가문)을 구별하는 가격으로서의 긴다치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가격과 관련된 개념으로서의 긴다치는 11세기 중엽부터 확인되는데, 공경의 지위를 계승한 집안 출신이기는 하나 공경 관직과는 연관이 없게 된 '지게노 긴다치(地下公達)'의 존재가 그들이었다. 섭관가에 종사하는 제대부 집단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권문에 봉사하는 새로운 집단으로서 지게노 긴다치가 포섭되었고, '귀종' 가문에 대비되는 긴다치의 가격이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제4장 <원 근신(院近臣)과 귀족사회의 신분질서: 실무관료계 근신을 중심으로>에서는 원정기 상황의 측근인 원 근신의 대두, 그리고 원 근신이 헤이안시대 신분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원 근신 중에서도 인재 등용의 사례로 여겨지는 실무관료계 근신의 실태를 살펴, 가격의 형성기인 원정기의 역사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무관료계 중에서 공경으로 승진 가능한 것은 후지와라씨 다카후지류(高藤流)와 간무 헤이시(桓武平氏) 다카무네류(高棟流) 정도였으며, 변관(辨官) 코스는 다카후지류

에 의해 거의 독점되었다.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 상승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기존의 신분질서에 편입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신분질서의 '타파'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원정기 귀족사회 신분구조의 고착화를 돕는 존재가 되었다.

제5장 <헤이안시대의 사원사회와 '양가'>에서는 사원사회에서 '양가', '양가자'로 불리는 사람들과 그 신분에 대하여 논하였다. '양가'는 헤이안시대 이전 사료에서는 5위 이상의 위계를 가진 귀족관인의 집안을 대상으로 하였고, 9세기에는 3위 이상을 '양가'라고 보는 인식도 추가되었으며, 9세기 '귀종' 개념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10세기에 들어 5위 이상의 귀족층의 성격이 변화하며 '양가'라는 말도 대신(大臣), 공경의 가문에서 수령(受領)층에 이르는 범위의 귀족 집단을 가리키게 되었다. 같은 시기 귀족층 출신자의 출가도 늘어나 11세기 후반에는 범인(凡人) 승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류기(竪義)에 진출하고 사원사회의 상층부에 오르게 되는데 이들을 '양가', '양가자'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12세기에는 사원사회에서 양가 승려 중에 수령층 귀족 자제가 사라지게 되는 데 반해 귀족사회에서는 수령층 제대부에 한하여 '양가자'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

제6장 <헤이안 후기 무사의 계층 이동: 에치고 조씨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양가자'를 자칭한 조 스케모토(城助職)가 속한 에치고 조씨(越後城氏) 가문을 사례로 하여 귀족으로서의 무사의 신분, 무사사회 내부의 계층질서, 그리고 12세기 무사의 계층 변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씨는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세력 확대의 기회를 얻었고, 나아가 '양가자', 즉 수령층 제대부의 지위를 자처하기에 이르렀다. 지쇼(治承)-주에이(壽永) 내란에서 기요모리 세력의 편에 서서 반란군에 저항한 조씨의 스케모토는 에치고노카미(越後守)에 임명되었는데, 조씨 같은 지방 세력들은 내란을 계기로 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기회를 얻었다. 원정기는 가격의 형성기로 여겨지지만, 중세 사회 신분질서의 전체적인 틀은 그다지 바뀌지 않으면서, 가마쿠라 막부의 수립에 이르는 시기에는 개인의 신분과 계층이 아직 유동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종장에서는 각 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헤이안 귀족사회의 신분질서와 가격의 성립에 대하여 밝혀낸 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고대적인 관인(官人)질서에서 중세적인 신분질서로 사회의 질서가 전환되었다. 두 번째, 가격과 관련된 신분 명칭을 통해 본 가격의 성립 시기는 11세기 후반이며, 권문을 중심으로

한 신분구조와 가격의 원형은 10세기 후반에 나타나며 이때를 중세로의 전환기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고대에서 사용된 관위질서에 기반을 둔 신분 용어는 중세적인 가격의 명칭으로 다시 활용되었고, 당시 일본 사회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신분으로 인식되었다. 단, 가마쿠라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원권문과 무가권문이 정착됨에 따라 상대화가 진행되었다.

【신진연구자 발표】

근세 후기 조정의 부흥 이념과 조정-막부 관계

(近世後期朝廷の復興理念と朝幕関係)

김형진(도쿄국립박물관)
박사학위 취득대학: 東京大學
지도교수: 村 和明
학위 취득 연월: 2021년 3월

幕末期의 천황은 어떻게 그토록 신속히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가. 그에 선행하는 도쿠가와 시대에 천황의 위상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는 일본 근대국가의 정치적 기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 해답을 찾아온 연구사의 흐름은, 조정 운영과 조정-막부 관계(이하 '朝幕關係'로 표기)의 실태를 검토한 정치사 분야의 성과, 그리고 천황·조정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을 검토한 사상사 분야의 성과로 나눠볼 수 있다.

다만 정치사 연구는, 현실의 정치과정이 천황을 둘러싼 사고의 변용과 결부되는 양상을 명료히 포착하기 쉽지 않았다. 사상사 연구는 주로 언설 속에서 인식되는 존재로서의 천황을 다루기에, 현실 속 조정의 동향이 구체적으로 고려되기 힘들었다. 조정 연구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간의 틈새와 한계가 해소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도쿠가와 후기 조정 구성원의 사고, 그리고 조정 외부와의 문화적 교류가 조정 운영 과정과 결부되는 양상을 명료히 밝히고, 2) 조막관계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며 막부 관계자와 무가사회의 천황·조정관을 재고하려 하였다.

조정 연구의 기본 사료는 公家日記이지만 당사자들의 이념적 변용은 일기류만으로

는 포착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념적 논점을 현실 정치과정 속에서 고찰하기 위한 재료로서, 기존에 거의 주목되지 못한 일련의 學藝史料를 활용하였다. 조정 구성원의 학문적 영위를 보여주는 사료군, 그리고 조정 구성원과 문화적 교류가 있던 외부인의 기록이 이에 해당한다. 완성된 저술보다는 초고나 비망록의 성격이 강한 사료들이, 기존 연구에서 덜 검토되었으면서도 당사자들의 사고 변화와 정국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에는 유용하다고 예상되었기에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제1부에서는 조정 구성원의 이념적 변용에 주목하며 조정 내부 운영과정을 검토했다. 우선 닌코 천황(仁孝天皇)이 궁중에서 개최한 서적 학습회의 실태를 분석하며, 六國史와 令義解 등 율령국가의 관찬 서적(攝關期 이후의 사찬 일기 등이 아닌)이 중시되었음을 지적했다. 율령제 封祿(位田·職田 등)의 재흥 추진 과정에서 關白 다카쓰카사 마사미치(鷹司政通)가 남긴 메모와 계획안 등을 통해, 그가 당시 막 조사가 시작되던 正倉院文書 등 많은 자료를 열정적으로 검토했으며, 唐에서 일본이 君子國으로 불렸다는 전승 등 율령국가 전성기의 事績에 관심이 컸음을 논했다. 또한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를 계승한 학숙 古義堂(고기도)의 當主가 남긴 사료를 통해, 古義堂과 마사미치의 친밀한 관계, 1840-41년의 天皇號·漢風諡號 재흥 때 마사미치가 행한 자문과 古義堂 당주의 시호 추증 관여 등 조정 측 사료에 기록되지 않았던 움직임들을 새로이 밝혀냈다.

제2부에서는, 주로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의 太政大臣 승진(1827년)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조막관계의 변화를 검토했다. 對 조정 정책에 관한 막부 내부의 사료가 그다지 체계적으로 남아있지 않기에, 본 연구는 공가의 문하생으로서 服飾에 관한 막부와 각 藩 관계자들의 자문에도 응했던 마쓰오카 도키카타(松岡辰方)·유키요시(行義) 父子의 비망록 등을 활용하며 막부 주변에서 유통되던 조정 관계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다. 현직 쇼군의 첫 태정대신 승진을 허락한 대가로 조정이 어떠한 요구들을 막부에 제기하며 스스로의 위상 강화를 도모했는지, 한편 막부 관계자들은 그러한 조정의 움직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승진 의례 개최를 계기로 무가사회에서 성립한 언설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조정 권위와 현실 속의 조정·공가사회에 대한 인식이 분리되고 있음도 논했다.

스스로의 위상 강화를 노린 조정의 움직임이 과거의 유산을 復古·再興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전체를 통해서는 이러한 조정의 지향성을 '復興 理念'이라 평가하였다. 부흥이념이 투영된 19세기 초 조정의 움직임들이 조정 외부의

사상문화적 동향과 여러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며, 당시의 막부가 조정의 부흥 이념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억누르지도 않은 듯하다는 사실은 훗날의 역사를 조망하는 데도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진연구자 발표】

명대 明-스페인 교섭 연구

― 명 지방당국과 루손 마닐라政廳 교섭 과정을 중심으로 ―

남민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취득대학: 연세대학교
지도교수: 차혜원
학위 취득 연월: 2021년 8월

서론

16세기 중엽 이후 17세기 사이, 명조는 스페인인이 점령한 '여송(呂宋, 루손 Luzón)'과 교역을 매개로 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명 조정과 '여송국(呂宋國)'은 지방당국을 매개로 간헐적으로 교섭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양자간 공식 외교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스페인측이 명조측에게 일방적으로 정주항 할양과 통상 및 선교 요구를 조건으로 한 외교 관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며 명조는 이를 거절하고 민간 교류만을 지속하였다는 것이었다. 본고는 양자간 관계에 대하여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는 입체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양자간 교섭 중에 작성된 스페인어 문서 내 '우호(amistad)'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교섭에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1582년 알론소 산체스(Alonso Sanchez) 신부 파견을 다뤘다. 1575년 신부 마르틴 데 라다(Martín de Rada) 사절단 파견 당시, 복건(福建) 당국은 류큐(琉球, Lequios)와의 3년1공 조공 관계를 '우호' 사례로 언급하였고, '佛郎機國王'의 表文이 있으면 '우호'가 성사될 수 있다고 전하였다. 1580년 스페인국왕 펠리페2세(Felipe II)는 서신과 선물을 만력제(萬曆帝)에게 보내려 하였지만 중단되었다. 1582

년 루손은 알론소 산체스(Alonso Sánchez) 신부를 광동(廣東)에 파견하였다. 복건을 경유하여 광주(廣州)에 도착한 산체스 일행은 양광총독(兩廣總督) 진서(陳瑞) 등과의 교섭에서 정주항 할양과 통상 및 선교 허가를 요구하였다. 광동당국은 '呂宋은 중국과의 通貢 논의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밝히고 스페인인들은 중국에 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당시 동남 연안 사회에는 스페인인들과 포르투갈인들을 '묘아안(猫兒眼, ojos de gato)'라고 칭하고 조공을 하지 않는 무례한 존재로 인식하였다는 점 등에 입각하여, 광동당국은 조공 의례를 따르지 않는 '불랑기(佛郎機)'의 교섭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2장에서는 1593~1594년 복건당국과 여송과의 교섭을 다뤘다. 임진전쟁 중인 1593년, 필리핀총독 고메스 페레스 다스마리냐스(Gómez Pérez Dasmariñas)가 중국인 선원에게 살해당하였다. 이를 계기로 마닐라당국은 사절단을 광동에 파견하였다. 복건당국은 황문영(黃文英) 등 초관(哨官) 3명과 진신(陳申) 등 상인 4명을 마닐라에 파견하였다. 스페인 사료에 '7명의 중국관원(siete mandarines)'이라 지칭된 이들은 중국인들을 송환하여 일본과의 결탁을 막는 한편 현지를 정탐하려 하였다. 또한 후임 총독 루이스 페레스 다스마리냐스(Luis Pérez Dasmariñas)에게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루이스는 제안을 거절하였지만 중국과의 교역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7명은 상인 황복(黃復) 등의 선박 52척을 대동하여 교역을 실시하였다. 이는 임진전쟁 발발 이후 명조가 출항 무역을 중지시키자, 복건순무(福建巡撫) 허부원(許孚遠) 등이 건의를 통하여 출항 무역을 복구시킨 시도였다. 당시 52척이 판매한 화물의 액수는 77만여 페소(peso)였으며, 여기에서 거둔 23,000페소는 모두 루손 병사 봉급에 충당되었는데, 이는 봉급 세원 전체의 36.7%에 달하였다. 임진전쟁 중 양자는 교역 수입으로 군비를 충당하여 일본 침략을 대비하려고 하였다.

3장에서는 1598년 엘피냘(el Piñal) 교섭을 다뤘다. 1594년 이후, 중국선박의 화물량이 100만 페소에 달하고 중국상인들이 가격을 농단함으로써 무역에서 큰 손실을 입음에 따라, 1598년 총독 프란시스코 테요(Francisco Tello)는 광동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광동 낭백오(浪白澳, Lampacao) 인근 호도문(虎跳門)으로 추정되는 엘피냘(el Piñal) 섬을 정주항으로 할양받으려는 교섭을 시도하였다. 광동당국은 통공(通貢)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스페인인들에게 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광동세감(廣東稅監) 이봉(李鳳)은 스페인인들과의 교섭을 시도하였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스페인인들이 거절하였다.

4장에서는 1603년 기역산(機易山) 조사단 파견을 다뤘다. 1603년 복건 상인 장억(張嶷) 등이 루손섬 기역산(機易山, 카비테Cavite)에 금이 난다는 거짓을 상주하였고, 만력제는 복건세감(福建稅監) 고채(高寀)에게 조사단 파견을 위임하였다. 고채는 심복 Au參將(Auchamchiam)을 필두로, 왕시화(王時和), 간일성(干一成), 장억 등을 마닐라에 파견하였다. 총독 페드로 데 아쿠냐(Pedro de Acuña)는 처음 이들을 환대하였지만, 이들이 체류 중국인들을 체포하고 재판하자, 아쿠냐는 이러한 월권 행위를 만류하였다. 장억은 총독에게 명조가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기만하였다. 귀환 후 장억은 기만죄로 처형당하였고, 마닐라는 중국 침공의 공포에 휩싸였다. 이 파견은 같은해 루손에서 발생한 중국인 대학살의 한 촉발제가 되었다.

5장에서는 1605년 복건당국의 교섭을 다뤘다. 대학살 사건 이후, 복건순무 서학취(徐學聚), 복건순안어사 방원언(方元彦), 고채 3명은 상인 Guansan(Guansam)을 통하여 아쿠냐에게 서신을 보내었다. 방원언이 보낸 서신은 스페인어 서신으로 남아 있고, 서학취가 보낸 서신은『皇明經世文編』‘報取回呂宋囚商疏’ 내 격문(檄文)으로 남아있는데, 두 서신은 내용상 일치한다. 두 서신을 살펴보면, 만력제는 학살사건을 용서하였으며, 명과의 ‘우호(amistad)’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명측이 먼저 루손당국에 ‘우호’를 제시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학취 격문에서는 우호를 ‘投款’이라고 표현하였다. 특히 두 서신에는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명조가 보호해준 ‘중국의 통치를 받는 朝鮮(la Corea que es del gobierno de China)’의 사례를 들어, 명으로의 ‘投款’을 권유하였다. 이는 임진전쟁을 전후로 일본의 영향력이 류큐, 대만도, 루손섬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려가 작용하였다. 루손당국 역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한 ‘반역자(traidor)’ 네덜란드인들이 17세기 초 동남 연안 해상에 출몰하고 침략과 해적 행위를 통한 교역 방해 행위에 대비해야 하였다. 아쿠냐는 명조의 ‘우호’ 제안은 거절하였지만 네덜란드와 일본 등의 문제를 위하여 명과의 협력 관계를 약속하였다.

16~17세기 명과 스페인은 각각 복건·광동과 루손이라는 지방당국을 매개로 교섭을 진행하였다. 스페인국왕은 루손을 통해 명조에 서신을 전하려 하였지만 중지되었고, 이후 대 중국 교섭은 루손당국이 주도하였다. 루손당국은 ‘우호’ 관계 형성을 통하여 정주항 할양 및 통상·선교 허가를 요구하였다. 명조는 일관되게 조공 관계를 요구하였다. 명조는 복건당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루손 스페인인들과의 관계 유지에 우호적이었다. 명측 자료에서 여송을 ‘속국(屬國)’ 혹은 ‘기미속국(羈縻屬國)’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의 배경에는 명조와 여송과의 모호한 관계가 있었다. 임진전쟁을 전후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명조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송을 포섭하려 하였다. 특히 지방 경제에 있어 루손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였던 복건당국은 여송과의 우호 관계 유지를하여 주도적으로 교섭을 수행하였다.

【신진연구자 발표】

미일 개전 외교의 재검토

― 미국의 적극적 극동정책을 중심으로 ―

(日米開戦外交の再検討 ― アメリカの積極的極東政策を中心として ―)

안재익(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취득대학: 도쿄대학
지도교수: 野島(加藤)陽子
학위 취득 연월: 2021년 4월

본 논문에서는 중일 전쟁의 시작에서부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는 시기에 걸친 미일관계의 변화를, 주로 미국 정부의 극동정책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미일 양국이 지닌 동아시아 정책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당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극동정책이 지닌 특징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1941년의 미일 교섭 과정에서,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제 관계의 여러 원칙과, 무역 관계에 있어서 각국 간에 공평한 대우를 약속하는 통상 관계상의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것을 수용할 것을 일본정부에게 요구하였다. 태평양 전쟁 종료 후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가 독립하고, 새로운 국제 관계가 형성되고, 안정적인 통상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태평양 전쟁 이전 미국이 주창한 여러 원칙들이, 전후 아시아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태평양 전쟁의 개전 과정에서 미국이 주장한 여러 원칙의 내용과, 그에 기반을 둔 극동정책이 지닌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당시 미일관계의 특징을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의 아시아 사회가 구성된 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전쟁 전 미국 정부의 극동정책이 지닌 목표는, 단순히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거나,

일본을 적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하고, 대서양 방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위기가 확산되지 않고 안정화되길 바라고 있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태평양 지역에 개방적이고 평등한 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이 지역의 여러 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공평한 무역 관계를 확립시키는 것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이 가능해지고, 미국의 국익이 증진될 것이라는 구상이었다. 그를 위해 미국 정부는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일본과 같은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일본 정부가 중일 전쟁을 통해 획득한 중국의 점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하는 것을 최후까지 거부했다.

미국 정부의 극동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당시 국무부 극동국(極東局)을 이끌던 전문가인 스탠리 K. 혼벡(Stanley K. Hornbeck: 1883-1966)이라는 인물의 활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극동국장과 정치 고문으로서,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미국의 극동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혼벡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그가 일본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해서, 일본에 대한 유화적(宥和的) 태도를 유지한 그루(Joseph C. Grew: 1880-1965) 주일 대사와 비교하는 관점을 취해왔다. 혼벡이 중일 전쟁에서 중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항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고, 또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 경제 제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의 바탕에는, 태평양 지역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침략적인 대륙 정책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미국이 나서서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적극적인 극동정책은 점차 미국 정부 내에서 동의를 얻어 갔다.

본 논문은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혼벡이 주장한 적극적 극동정책이 미국 정부 안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지지를 얻어 갔는지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미국 정부의 중일 전쟁에 대한 개입 정책이 어떻게 강화되어 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중일 전쟁 발발 직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 정부는, 1939년의 미일통상 항해 조약의 폐기를 통고하고, 일본의 대륙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극동 문제에 대한 개입의 정도를 높여갔다. 1940년 일독이(日獨伊) 삼국동맹의 체결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철강 원료와 석유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대일 경제 제재를 실시했다. 1941년 7월에 시행된 대일

자산(資産) 동결 조치와, 그에 따른 사실상의 전면 금수(禁輸) 조치는,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시행한 대표적인 경제 제재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혼벡을 비롯한 국무성의 관료들에 의해 충분히 논의되었고, 헐 국무장관(Cordell Hull: 1871-1955)과 루즈벨트 대통령(Franklin D. Roosevelt: 1882-1945)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한 같은 해 4월부터 시작된 미일 교섭(美日交涉)의 과정에서 국무성의 관료들은 중일 전쟁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일관적으로 비타협적인 태도를 유지해, 일본에 대해 양보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헐과 루즈벨트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미일 양국의 국교 조정은 실현되지 못한 채 태평양 전쟁의 개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극동 정책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이다. 중일 전쟁의 발발 이후, 일본 정부는 점령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는다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일 전쟁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일 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일독이(日獨伊) 삼국동맹을 체결한 것은 영미와의 관계 악화에서 비롯된 국제 관계상의 위험성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유럽의 전쟁과 중일 전쟁을 연동시켜, 전쟁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시킬 위험성을 높이게 되었다. 미일 교섭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삼국 동맹 조약을 자주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 독일을 위해 미국에 대해 개전할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게 중일 전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미국 정부에 의해 거부되어, 미일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되었고,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를 포함한 연합군에 대한 개전을 결정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미일간의 외교 교섭 속에서, 표면상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중일 전쟁 문제의 해결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은 단순히 중국 대륙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일 전쟁과 유럽의 2차대전이 종식된 이후 동아시아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둘러싼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일본이 원한 동아시아 질서는, 이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는 것을 통해 태평양

지역의 안정화를 꾀하고, 독일에 대한 대응을 우선시한다는 전략을 취했다. 그리고 중일 전쟁의 종료 후, 일본군의 완전한 철병을 통해 일본의 영향력을 제한하려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가(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소련, 중국 등)가 평등하게 참여해서 새로운 태평양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대해 지니는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미일 양국은 당시 진행 중이던 전쟁이 종료된 후, 새롭게 구축될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대해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국의 근본적 질서관의 차이에 주목하여, 당시의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역사상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후의 동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신진연구자 발표】

東北人民政府의 위생행정과 국가-사회관계(1949-1953)

이은주(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취득대학: 서울대학교
지도교수: 유용태
학위 취득 연월: 2022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역사상 국가의 행정 체계와 권력을 사회 기층까지 가장 깊숙이 침투시켰고, 그 힘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어떻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 권력을 기층 사회에까지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 본고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유용한 해답을 얻고자 시작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특히 1950년대에는 사회의 적극적인 호응, 즉 군중의 적극성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신생 국가가 정권의 기틀을 비교적 빨리 확립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군중은 지역별 자치 조직과 각계 단체를 결성하여 국가의 행정에 협조하였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등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국가-사회의 관계는 여러 정책 분야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개인의 건강, 수명과 직결된 문제였던 위생은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 중 하나였다.

특히 동북 지역은 중국공산당이 가장 먼저 점령한 大區였고, 만주국의 통치 경험이 남아 있는 곳이었기에 일찍이 위생 행정 체계를 갖추고, 군중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위생 정책을 추진하였다. 게다가 동북은 소련식 모델을 흡수하는데 좋은 실험 지역으로서 중국 최초의 의학전문 출판사인 '동북의학도서출판사'가 설립되어 소련의 '선진 경험'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은 물론 소련 방역대의 경험이 동북 인민해

방군의 위생 행정으로 이어지는 등 그 통치 경험은 중앙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1949년 8월 동북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동북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던 위생행정은 점차 통일적으로 정비되어 갔다. 동북인민정부 衛生部를 중심으로 6개의 성에 衛生廳을 설립하고, 시에는 衛生局을 두어 위생 행정을 총괄하였고, 각 실험현과 실험구에는 衛生院을 두고, 그 아래 區, 街, 村屯에는 각각 衛生所를 설치하였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지역 내 치료 및 예방의 중심 센터가 된 위생원과 위생소는 신민주주의 시기 경제 운영의 방식에 따라 합작성질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私人合營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었다. 그래서 사인 개업의는 직접 자본을 투자하고,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한편 그 운영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위생행정 체계의 건립과 더불어 각 지에는 군중 자치 위생 조직이 만들어졌다. 도시에서는 몇 개의 호를 묶어 衛生小組長을 선출하였고, 각 가마다 衛生委員會를 두었다. 그리고 향촌에서는 촌과 구에 각각 衛生委員과 衛生助理를 두었다. 위생위원회는 행정, 공안, 교육, 위생원(소)를 대표하는 자들로 조직되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정부의 위생 정책 추진을 도왔다. 직접 주민과 대면하는 위생위원과 위생소조장은 거민조 등의 군중 자치 조직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들로,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하였다. 이들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생 선전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의 위생 상태를 검사하였으며, 전염병 발생 상황을 정부 기관에 보고하였다.

이때 이들 군중 자치 위생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부의 위생 정책을 집행한 것이 衛生工作者協會, 婦女聯合會, 行業衛生委員會, 학생, 교원 등의 각계 단체였다. 위생공작자협회는 동북인민정부의 지시 아래 기존에 동북 각지에 결성되어 있던 의사공회, 중의분회, 의약연합회 등을 해체하고 동북 전역의 의료인을 하나로 묶은 연합체로서 각지의 위생원(소) 조직, 책임의사제 추진 등에 참여하였다. 위생공작자협회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위생 정책을 선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군중 자치 위생 조직의 협조를 얻었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부녀연합회는 모자위생에 관한 선전은 물론 산파를 개조하고 조산사를 훈련시키는 일을 행정 기관의 협조 하에 추진하였으며, 각 지에 설치된 모자 위생 센터인 부영보건참의 운영에 개입하였다. 또한 탁아소, 유치원 등의 보육 사업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부녀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위생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모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 경제 건설과 국방 강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위생 정책에 참여하는 대가로 당시 혼인법 개정, 여성의 사회 진출 등 여성의 권리 시장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행업위생위원회는 지역별 혹은 업종별로 조직된 단체로 업주, 종업원, 그리고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업주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위생 상식을 가르치는 훈련반을 운영하거나 위생 공약을 세워 업주와 종업원이 업소 내 청소, 방역 등의 위생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위생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대가로 업소 관련자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었다.

학생과 교원은 학교 안팎에서 정부의 위생 행정을 돕는 유력한 조수였다. 교내에는 학생과 교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위생위원회가 조직되어 교내 위생 선전은 물론, 校舍의 청결 유지, 학생 개인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이들은 정부의 역동적인 위생선전원이 되어 위생 상식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쥐잡기, 종두 사업 등의 위생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로서 학생과 교원은 지역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군중 자치 위생 조직과 각계 단체의 협조 하에 동북인민정부는 방역, 보건, 의료 등의 위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을 중앙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층 사회는 정부가 시행하는 위생 정책에 따르는 것이 개인과 가정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세균전이라는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 믿고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신진연구자 발표】

唐代 灌漑 水利 硏究

― 地理的 特性과 地方의 開發 樣相을 中心으로 ―

이준형(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취득대학: 고려대학교
지도교수: 김택민
학위 취득 연월: 2022년 2월

기존의 唐代 水利史, 특히 관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는 宋代 이후와 비교해 그 성과가 많지 않은 편인데, 일차적인 원인으로는 후대에 비해 관련 사료의 양이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시대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 연구가 주를 이루는 한편, 사료의 양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몇 시도들이 모색되었다. 우선 민간 주도의 지역공동체적 수리 개발을 설명하는 소위 '水利共同體論', '水利社會論'의 입장에서 唐代의 관개 수리 개발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고 후대의 지방지를 이용하여 사료를 보완하기도 하였다. 또한 근년에는 환경사의 영향을 받은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로 당대 관개 수리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나, 남송 이후의 사회경제적 제반 요인 하에서 생성된 '水利共同體'라는 개념을 唐代에 이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후대의 사료를 인용할 때에는 당대 사료와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간과한 연구도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아직도 비트포겔(K. A. Wittfogel)의 소위 '水力社會(Hydraulic Society)論'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주장한 수력사회론이나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는 이미 오래전에 논박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중앙정부가 수리 개발에 강하게 개입하거나, 수리 관련 법규를 통해 관료

를 통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여전히 고대 중국에서 일찍이 전제군주제와 치밀한 관료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수리 시설의 축조와 관리를 지방에 대한 국가 권력의 지배력 강화라고 해석하는 관점을 견지하여 수리 시설의 축조와 관리가 국가의 통치력을 지방에 관철시키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석한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에 의문을 가지고, 당대의 사료 자체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당대 관개 수리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관개 수리 시설은 크게 보아 수로형 수리 시설과 畜水·排水형 수리 시설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개 수리 시설의 축조는 여러 요건들이 부합되어야 가능하였다. 우선 水源이 확보되어야 했으며, 동시에 적절한 표고차와 경사면이 필요하였고, 토양의 투습도와 비옥도 및 재배 작물의 종류도 고려되어야 했다. 사료를 통해 이러한 지리적 요건들의 필요성은 唐代 사람들도 이미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정도의 인구와 재정, 그리고 기술력도 확보되어야 했다.

이상의 여러 조건들의 제약으로 인해 당대에 관개 수리 사업이 주로 진행된 곳은 일부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지리적 조건은 각기 상이하여, 관개 수리 시설의 유형은 분명한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었다. 황하 유역은 거대한 引水渠道를 설치하여 관개에 이용하였으며, 서북 지역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융설수를 이용한 소규모 渠를 중심으로 수리 시설이 만들어졌다. 장강 유역은 하천과 湖沼가 밀집하여 수로와 제방이 이곳의 전형적인 수리 시설이 되었다. 동남 연해 지역은 海潮의 침범을 받기 쉬워, 염분을 막고 담수를 보존하는 시설이 주류가 되었다. 남방의 구릉지대는 평원과 달라, 蓄水와 引水를 위한 陂塘과 堰, 水門의 축조가 농업 생산력 제고를 위한 과제가 되었다. 淮水 및 漢水 유역은 남과 북의 중간에 위치하여 渠와 塘을 병행하여 건설하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의 수리 사업을 통해 동양적 전제주의가 성립한다는 비트포겔의 견해는 전혀 온당치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唐代 關內道의 관개 수리는 前代에 건설된 대규모 시설을 개보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이 당 후기에 시행되었다. 河南道는 황하 이남, 회수 이북을 중심으로 과거의 수리 시설을 수복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수리 사업의 반수 이상이 당 전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河東道는 전체적으로 당 전기의 사업이 후기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지역적 요건에 따라 汾水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河北道는 安史亂과 藩鎭 할거의 영향으로 당 후기에는 수리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고,

太行山 山麓과 漳河 일대에 대부분의 수리 시설이 밀집되어 있었다. 山南道는 장강과 漢水를 경내에 두고 있음에도 관개 수리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는데, 이는 낮은 인구로 인해 인력과 재원의 확보가 쉽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淮南道는 경내에 관개 시설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漕運用 수리 시설을 관개에 이용하기도 했다. 江南道는 당대에 가장 많은 관개 수리 사업이 시행된 곳으로, 당 전체 수리 사업의 4분의 1이 강남도에서 시행되었고, 시기적으로는 전체 수리 사업의 80%가 당 후기에 편중되어 있다. 장강 하류 델타 지역에서 관개 시설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대규모의 수리 시설도 많았다. 이에 반해 江西福建 일대는 저조한 인구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관개 수리 개발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劍南道의 관개 수리 개발은 주로 成都 평원을 중심으로 하여 都江堰의 보수와 그를 보조하는 부수적 시설의 축조가 주를 이루었으며, 涪江 유역에도 일부 관개 시설이 개착되었다. 隴右道의 경우 사료에 기록된 바는 적으나 출토 자료를 통해서 소규모의 관개 시설이 다수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嶺南道의 경우 靈渠의 보완, 수리를 중심으로 적게나마 수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당대 관개 수리 개발은 안사란과 그로 인한 경제 중심의 南移 현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인구의 대이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증가로 인해 강남의 관개 수리 개발이 폭증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당대의 지방관이 관개 수리 시설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산출하여 이를 중앙 조정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工役을 시작하거나, 혹은 계상한 인력이나 물자가 실제와 달랐다면 해당 지방관과 담당자는 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다. 또한 지방관들이 시행하는 기존의 관개 수리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보수 및 관리 역시 법적 규정에 따라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였다. 아울러 상급 지방관과 감찰 담당 관료는 이러한 법적 절차 위반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당대 지방관들의 고과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구와 조세의 증가 여부였으며, 관개 수리 시설을 개발한 지방관 가운데 일부는 포상을 받거나 승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개 수리 개발이 곧 지방관의 포상을 좌우하지는 않았으며, 이들의 포상과 승진을 가능케 한 결정적 요인은 관개 수리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인구와 조세 수입의 증가였다. 또 많은 경우 수리 시설의 개발은 대규모의 인력과 재원이 요구되어 縣 단위의 지방 관서에서 주도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수리 시설의 보수와 개발이 중앙의 稅收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도리어 중앙으로 납입될 세액의 결손을 야기한다면 이는 지방관 자신이 처벌되는

상황으로 직결될 수 있었기에, 대개의 지방관들은 관할 경내에서 수리 시설의 축조를 주저하였을 것이며, 이를 굳이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방의 자체적인 재원을 조달하여 중앙으로 보내지는 세수가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결국 중하급 지방관들은 현실적인 권한과 재정의 문제로, 고급 지방관들은 조정의 시각과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설령 지리적으로 관개 사업이 가능한 곳이라도 쉽사리 관개 수리를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료에 기록된 일부 소규모의 수리 시설 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州 단위 이상의 지방관들이 주체가 되어 관개 수리 시설을 개발하였을 것이며, 그 역시 대개는 그다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시행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제한들로 인해, 지방관들이 시행할 수 있었던 관개 수리 관련 업무는 수리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 혹은 약간의 보수 정도에 그쳤을 것이며, 그와 더불어 수리 시설의 用水 분쟁에 대한 판결이 일부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당대의 관개 수리 사업은 비교적 빈번한 횟수로 시행되었으나 그것이 곧 당조가 수리 사업을 중시하였다는 논지로 연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아울러 수리 개발에 필요한 엄격한 법적 절차는 수리 사업에만 특별히 적용된 것이 아니라 당대 행정 전반에 걸쳐 구축된 정치한 제도적 규범의 일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 수리 개발을 국가 권력의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해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지방의 수리 공사를 제한한 것은 인민의 수월한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수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수리 분쟁이나 水法 또는 水令의 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후대만큼 빈번하지도 않았으며, 이 역시 수리 시설이 위치한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지역적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당 후기에 들어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 유력자들에 의한 소규모 수리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우 건설의 주체는 민인가 민관 공동인가, 그리고 개발에 소요되는 인력과 물자는 어떻게 조달되었는가, 그리고 이를 보는 중앙정부의 인식은 어떠하였는가는 아직 더 규명을 요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北宋 대에는 정부가 지방관의 수리 개발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료들도 산견되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도 하나의 문제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을 유지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천착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수리 개발을 통해 황제 권력의 일면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진연구자 발표】

근세 조일관계와 유서

― 쓰시마번의 언설·역사서술을 통하여 ―

(近世日朝関係と由緒 ― 対馬藩の言説·歴史叙述を通じて ―)

이해진(교토대 일본사연구실)
박사학위 취득대학: 교토대학
지도교수: 미야케 마사히로(三宅正浩)
학위 취득 연월: 2022년 1월

일본 중·근세사에서 유서(由緒)란 어느 집단이 특정 정치 권력과의 관계를 기점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장하는 유래나 사유(事由)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쓰시마번의 언설과 역사서술 속에 보이는 유서를 분석하여 근세 전기 조일관계의 성격과 전개 양상을 논하였다.

서장에서는 근세 일본의 대외관계와 조일관계에 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 대외관계를 중개하는 번이 상대국 혹은 막부와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선택해야만 했던 '실태'적 산물로서 유서에 주목하려 하는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❶막부의 이목이 미치지 않는 대외관계의 현장에 쓰시마번의 독자적인 입장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근세 조일관계의 구조를 도출하고, ❷번이 주장한 유서의 문맥적 구조를 파악하고 그 형성 및 표출 배경과 결과를 조선·쓰시마번·막부의 삼자 관계 속에서 이해하며, ❸선행연구가 주목하는 17세기 말~18세기 초 일본의 대외관계 체제 변화를 언설상의 전환으로부터 재고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제1장 「근세 조일 통교의 '기원'에 관한 역사서술의 전개」에서는 조선외교에 대한 근세 일본의 인식을 개관하기 위하여 조일 국교회복에 관한 역사서술의 성립·변화를 통시적으로 검토하였다. 에도시대의 사서가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치적

중 하나로 서술하고 있는 강화교섭은 실제로 일본군이 철수한 1598년 말부터 시작되었지만, 기록상의 연대는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초기 기록의 공백으로 인해 막부의 사서는 쓰시마번의 기록을 전거로 삼아 편찬되었는데, 17세기에 번이 제출한 기록들은 1600년의 세키가하라 전투를 막부 창업의 계기로 간주하는 역사관에 맞춰 이에야스의 강화교섭 지시를 그 후의 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교회복 당시의 외교문서를 인용한 사서들이 막부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서술상의 불일치와 막번 간의 인식 충돌이 생겨났기 때문에 19세기에 이르러 고증의 대상이 되었다.

제2장「'무위' 외교의 허실 : 1636년 통신사의 닛코(日光) 참배와 그 기억」에서는 통신사의 이에야스 사당 참배가 막부의 지시에 따른 강요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역사서술에 주목해 그 실제 경위를 1차 사료를 통해 재검증하였다. 그 결과 막부의 입장은 대외적인 무위의 발휘보다는 쇼군의 덕을 일본 국내에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오히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쓰시마번이 막부 권력에 접근하고자 통신사의 설득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서에 적힌 통신사에 대한 강요는 1682년 통신사 때 제기된 번 내의 구전에서 유래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막부는 번의 유서가 설명하는 강요의 교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종래 계속되던 닛코 참배도 폐지해 조선과의 외교적 분쟁을 가능한 한 회피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제3장「역관사의 역할 확대와 반쇼인연석(万松院宴席)」에서는 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조일관계의 비항상성을 보완하는 존재였던 역관사(問慰行)에 주목하였다. 역관사는 본래 쓰시마번주에 대한 이른바 '사적'인 명목의 사절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 막부의 경조사에 대한 축하 혹은 위로를 전달하는 '공적'인 임무를 겸하게 되었다. 그런데 역관사가 쇼군 가문의 조사(1653년)와 경사(1706년)를 처음으로 담당하게 된 경위를 검토한 결과, 막부보다도 오히려 중개자인 쓰시마번 측의 내부적 상황에 따라 기획된 것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역관사가 쓰시마에서 실시한 반쇼인연석의 실태를 고찰하였는데, 본래는 번주의 선조에 대한 의례로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쇼군의 선조에 대한 배례가 추가되었으며,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외교의례로서의 성격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전자는 간소화되었다. 그런데 역관사는 표면적인 임무와는 별개로 조선과 쓰시마번 사이의 외교 현안을 비밀리에 해결하는 교섭 창구로서도 기능하였는데, 이러한 역관사의 양면성이야말로 조일외교의 양지와 음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제4장 「조일무역을 둘러싼 쓰시마번의 외교 전술 : 권현당송사(權現堂送使)의 신설 교섭을 중심으로」에서는 17세기 중엽부터 쓰시마번이 이에야스에 대한 공양을 명목으로 조선에 사선(使船)을 요청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계획은 막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송사에 부여된 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번이 독자적으로 꾀한 것이었다. 한편 쓰시마번의 끈질긴 요청 끝에 무역 지출을 우려하던 조선도 송사 신설을 허가하였으나, 조선이 책정한 무역 규모는 번이 내세운 명목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따라서 쓰시마번은 결국 계획을 포기하였으나, 이후에도 조선에 권현당송사에 대한 턱없이 많은 무역량을 요구하는 교섭을 계속했다. 사실 번이 노리던 바는 해당 안건을 전면에 내세워 번에게 필요한 다른 요구사항(왜관 이전, 공작미 지급) 쪽으로 조선의 양보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즉 막부의 입김이 닿지 않는 외교 일선에서 막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명분이 오로지 번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철저히 활용된 사례였다.

제5장 「17세기 말의 조선·쓰시마번·막부 관계 : '난후(亂後)의 여위(餘威)'에 대한 재고로부터」에서는 쓰시마번의 유학자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강조한 조일관계의 변화를 3자 간의 관계와 각각의 입장을 중심으로 재고하였다. 17세기 말의 대외적 안정 하에 대일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여유를 얻은 조선은 막부와는 우호를 유지하는 가운데 쓰시마번에 대해서는 왜관 운용이나 사무역에 통제를 가하면서 과거의 폐단을 바로잡아 갔다. 한편 조선외교의 충실한 수행을 막부에 증명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쓰시마번은 울릉도 쟁계 때 조선을 압박해 상대의 잘못된 외교 자세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막부는 1682년 통신사 때에도 외교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울릉도 쟁계 때에도 번의 독단적 행위를 억제해 분쟁을 회피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즉 호슈가 언급한 '난후의 여위'의 쇠퇴란 해당 시기 조선과 막부 양측의 외교 자세 변화를 실감한 쓰시마번의 자조적인 표현이었다.

제6장 「'조선 제어의 역' 언설의 형성」에서는 18세기 이후 쓰시마번이 막부에 무역상의 특권이나 경제적 원조를 청원하기 위해 활용하였던 언설의 형성·발전을 검토하였다. 17세기 말 막부가 단행한 은 개주 정책은 조선 무역에 타격을 가하여 번의 재정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쓰시마번은 무역의 유지가 통교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주장해 막부에 특혜를 요청하였다. 한편 17세기 말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은 일본의 대외적 경계의식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번 내에서도 이러한 정세를 주시

하여 쓰시마의 역사·지리적 조건에 입각한 '번병(藩屛)'이라는 자기인식이 등장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번은 조선 통교의 본 목적이 일본의 '위광'을 통해 조선을 안정시켜 대륙 방면의 방파제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펴나간다. 이후 아메노모리 호슈는 저서『隣交始末物語』속에서 '이국 제어'와 '번병의 무비(武備)'를 통교와 마찬가지로 이에야스가 하달한 '역'으로 설정하여 번의 논리에 역사적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종장에서는 서장의 과제에 다음과 같은 해답을 도출했다. ❶근세 일본의 대외관계 구조는 중개자인 번의 자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데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며, 번의 입장을 인정하는 가운데 막부를 주체로 한 외교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막부가 인지한 조선외교의 양상과 외교 현장의 실태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극이 존재하였다. ❷본고에서 살펴본 쓰시마번의 유서는 이에야스의 강화교섭 지시를 계기로 조선 관계의 제반사가 고유의 역할로 정해졌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무위'의 발현을 통해 막부 내지는 일본의 '위광'을 보이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부는 대외관계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기에, 유서상의 모범을 실천에 옮기려는 번에 때때로 제동을 걸었다. ❸17세기 후반 동아시아 세계의 전환 속에서 조선은 대청 외교의 안정에 따른 여유를 얻었으나, 일본은 대륙의 침략에 대한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18세기에 접어들면 막번체제의 공고화와 조선 무역의 부진 속에서 막부에 대한 쓰시마번의 정치·경제적 의존도는 점차 높아져 갔다. 기존 유서의 문맥이 변형된 '번병'과 '조선 제어의 역' 언설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었다.

【신진연구자 발표】

중원왕조와 돌궐1제국(545~630) 관계 연구

임정운(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취득대학: 고려대학교
지도교수: 김택민
학위 취득 연월: 2022년 2월

본 논문은 545년부터 630년까지, 격변의 시기의 중국에 가장 위협적이었던 돌궐을 어떻게 방어하였는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돌궐은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을 갖춘 유목 제국이어서 동쪽과 서쪽에 여러 개의 거대한 세력을 이루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중원왕조와 적극적 외교 관계를 맺은 대가한을 중심으로 중원왕조와 돌궐1제국과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또, 585년 돌궐은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리되었는데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한 곳은 주로 동돌궐이었다. 630년 동돌궐이 붕괴되어 당의 기미지배를 받다가 687년 독립하여 다시 제국을 세우는데 학계에서는 630년까지를 돌궐1제국이라 하고 687년부터의 돌궐을 돌궐2제국이라고 명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원왕조와 돌궐1제국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돌궐이 중국 사료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545년이며, 토문이 본인을 이리가한으로 칭하며 본격적인 국가의 틀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 552년이다. 교류의 장을 먼저 연 쪽은 중국이었다. 당시 북중국은 서위와 동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외교적으로 동위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서위의 승상 우문태가 먼저 돌궐에 사신을 보냈다. 중국 측 사료에 의하면 돌궐 역시 서위와의 통교에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고 한다. 이를 기점으로 약 80년의 시간에 걸쳐 돌궐은 중국에게 주요 적국이 되었다.

돌궐이 흥기할 당시 북중국은 분열 상태였기에 군사력이 막강한 돌궐을 군사적으로 방어할 수 없었다. 이에 북중국의 서위·북주 그리고 동위·북제는 막대한 물자를

돌궐에 제공함으로써 돌궐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막았다. 돌궐 역시 북주와 북제의 갈등 상황을 십분 활용하여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고 둘 사이를 끊임없이 저울질 하였다. 수가 건국되기 이전의 중국의 돌궐 정책은 사실 특별할 것 없이 그저 통혼을 통하여 우호를 다지거나 혹은 끊임없이 재물을 돌궐에 지급하여 돌궐을 도발하지 않는 데에 그친 정도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돌궐이 북중국의 분열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많은 재화를 획득하는 '以華制華'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가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또 돌궐 지도층에 내분이 발생하였는데 수문제는 이러한 돌궐의 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한들 사이의 분열을 꾀하였다. 이 때 돌궐 대책에 대단한 활약을 한 사람은 돌궐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던 장손성이었다. 그는 돌궐 내부 사정을 완전히 간파하여 때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내어 놓았으며 또 이것이 성공을 거두어 돌궐 가한들 중 한 명인 계민가한을 수의 세력권 내에 두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원왕조의 돌궐의 관계는 잠시나마 진정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수양제가 즉위한 후 무리한 대외정책을 펼침으로 수는 혼란한 국면에 빠지게 되었고 돌궐은 이 기회를 틈타 다시금 중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였다. 이후 당 건국 초기까지 돌궐은 끊임없이 중국 영토를 침략하여 중국을 위협하였다. 그런데 627년 돌궐에게 극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 돌궐의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어 돌궐 내부에 큰 혼란이 일게 되었다. 당태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궐을 공격하였으며 630년 돌궐의 힐리가한을 생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80년 동안 지속되었던 외교 관계가 종결을 맺게 되었다.

돌궐1제국 시기 동안 중국은 무려 왕조가 3번 바뀌었고 이 격변의 시기에 중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돌궐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돌궐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돌궐 역시 그들 나름의 전술이 있었는데 중국과 돌궐의 관계는 이러한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며 전개되었다. 또한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양국의 외교 노선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주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볼 때 현재까지 중국과 돌궐의 관계사 연구의 방향이 다소 지엽적이라는 부분이 아쉽다. 특히 중국과 돌궐의 양자 사이를 연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중국이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이 연구 본연에 깔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그간의 연구 방향이 '중국은 어떻게 돌궐을 함락하고

지배하였는가'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돌궐1제국 시기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 돌궐의 관계사를 연구한 성과가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과 돌궐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통찰하지 않고 그때그때 들어서는 중원 왕조가 돌궐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만 연구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중국과 돌궐1제국의 관계를 서술함에 있어서 '돌궐의 중국 중심적 질서 체계로의 편입'이란 관점을 기저에 깔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545년부터 630년까지 80여 년 동안 중국과 돌궐의 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져있던 때에는 계민가한이 수의 국경 안에 들어와 있을 때뿐으로 그 이외의 기간은 돌궐이 중국을 위협하고 중국은 재물로써 이를 무마하는 양상이 반복되었다. 630년에 결국 돌궐이 항복을 하긴 하였으나 돌궐의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627년경부터이며 이전까지는 당은 항상 돌궐로 인하여 곤란에 빠졌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중국과 돌궐의 관계를 논할 때 많이 나오는 '중국 중심 질서 체계로의 편입'이란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 일단 당에 대한 돌궐의 태도를 보면 돌궐은 오로지 중국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중국 중심의 질서'에 대하여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돌궐1제국 시기의 중국은 여러 번 교체되는 왕조로 인하여 국내 질서를 바로잡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수양제가 '중국 중심의 질서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도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수는 패망하고 중국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 중국과 돌궐1제국의 관계는 돌궐은 공격하고 중국은 방어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즉 이 둘은 '공수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장은 돌궐이 등장하기 시작한 545년부터 중국의 남북조 시기가 막을 내리기까지의 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돌궐은 국력을 키운 뒤 강력한 적수인 유연을 꺾고 초원의 강자로 군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세력을 확장하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돌궐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위협이 되기 시작하였다. 돌궐이 흥기할 당시 중국의 북쪽은 北魏가 西魏와 東魏로 나뉘어 갈등 중에 있었으며 남쪽에는 梁이 있어 3나라가 대치중인 상태였다. 이 중 돌궐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곳은 국경이 맞닿아 있던 북중국이었으며 돌궐은 북중국의 분열 상태를 이용하여 본인들이 필요한 물자를 적극적으로 취하였다. 1장의 1절은 서위가 돌궐과 접촉하게 된 배경과 돌궐에 의한 유연의 멸망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돌궐의 모습을 보면서 돌궐이 중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훑어본다. 2절에서는 서위

와 동위의 뒤를 이은 북주와 북제의 갈등 그리고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돌궐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564년 북주와 북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는 북주·북제·돌궐의 삼각관계와 돌궐의 외교 노선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564년 전쟁을 중심으로 3국의 외교 관계를 둘러본다. 3절은 지도층의 부패와 혼란으로 인하여 멸망한 북제의 부흥운동을 돕는 돌궐에 대한 내용으로 돌궐의 목적성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2장은 북중국을 隋가 통합하면서 변화하는 돌궐과의 관계를 조망해 본다. 북중국의 분열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돌궐로서는 새롭게 들어서는 수에 대해 대비를 했어야 했으나 가한들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 이에 용이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한들의 내부 분열은 향후 수와 돌궐의 외교 노선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2장에서는 이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외교 흐름의 변화에 대해 서술한다. 1절에서는 隋文帝시기 돌궐 가한의 분열이 두 나라의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또 이것이 초래한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수에서 실시한 가한 분열정책을 돌궐의 가한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했는지를 알아보고 이로 인하여 수와 돌궐의 외교 노선이 소강상태로 들어가는 국면을 고찰해 본다. 2절은, 隋煬帝시기에 대해 알아본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수와 돌궐 관계의 이면과 양제의 적극적인 외정 정책으로 인한 수의 상황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무리한 고구려 원정은 수와 돌궐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문제시기와 비교하여 확연하게 변한 돌궐의 태도와 이에 대비하는 수의 돌궐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더불어 이 당시 펼친 돌궐 가한에 대한 분열책이 문제시기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배구가 행한 가한 분열정책의 실태에 대해 조망하였다. 양제의 폭정으로 수는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저기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할거세력과 돌궐의 연계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당초의 상황에 끼치는 영향의 전말에 대해 기술하였다.

3장은 당초부터 갑작스럽게 동돌궐이 붕괴되는 630년까지의 형세에 대한 것이다. 당이 건국한 것 618년부터 12년 동안, 당과 돌궐의 관계 양상은 상당히 가파르게 변화하였다. 당초의 돌궐 가한들은 상당히 호전적이어서 당에게 많은 곤란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627년 돌궐은 거대한 자연재해를 맞이하게 되고 이 때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져 630년 돌궐의 힐리가한이 결국 당에 귀부하게 된다. 이로써 중국과 돌궐 1제국의 외교 관계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절에서는 수말의 할거세력들과 돌궐이

연계하여 당에 혼란을 주는 양상을 그려 보았다. 2절에서는 돌궐과 당 관계의 변화의 시작을 서술한다. 당에 대하여 돌궐은 상당히 강경한 노선을 전개하였는데 이에 당도 서서히 돌궐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절에서는 태종의 돌궐에 대한 대책과 동돌궐 마지막 가한인 힐리가한의 몰락 그리고 붕괴에 관하여 살펴본다. 태종은 나름의 이간책을 발휘하였는데 이것이 돌궐에 어떻게 작용 하였는지와 동돌궐이 결국 당에 귀부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의 전개에서 중심으로 삼은 것은 중국과 돌궐의 외교 노선의 흐름이다. 아울러 사료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양국이 외교정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사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함으로써 그 관계 양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과 돌궐 사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돌궐의 중국 중심적 질서로의 편입'이란 개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원왕조와 돌궐1제국의 관계의 실체를 파악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 지향점이었다.

【신진연구자 발표】

청대 월해관과 관세 대리 징수 구조

— 海關兩의 기원과 관련하여 —

주형준(강원대학교)
박사학위 취득대학: 서울대학교
지도교수: 김형종
학위 취득 연월: 2021년 8월

학위논문은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구조와 관세의 대리 징세 구조를 분석한 연구이다. 기존의 청대 해관에 대한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은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광동체제가 해체되고, 외국인 세무사가 관리하는 '근대 해관'(이하 "신식 해관"으로 약칭)이 출현한 것으로 본다. 양자를 이해하는 방식은 분절적이고, 단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학위논문은 신식 해관을 광동체제下 월해관이 갖고 있었던 구조적 결함을 수정·보완한 결과물이자, 청조의 대외 무역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라 본다. 양자의 관계는 분명 연속적이고, 계승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필자는 청대 해관의 공통적 특징을 관세의 대리 징세 구조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대 해관의 연속성과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신식 해관은 차후 연구로 두고, 우선 광동체제下 월해관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광동체제가 성립한 이후 월해관은 청조가 승인한 유일한 對서양 무역항이자, 대외무역을 관리·감독했던 징세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것은 월해관이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월해관은 貴州清吏司에서 관할하는 戶關으로서 전국에 설치된 수많은 榷關 중 하나로 관리되었다. 호부는 전국의 각관을 동일한 운영 체계 속에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필자는 이를 "榷關體制"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각관체제는 명·청 시대 재정 운영

의 특징 중 하나인 定額主義를 각관에 적용한 운영 체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각관체제에서 호부는 '규정한 할당액(定額)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하게 결산'하는 데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였고, 엄격한 결산제도와 고핵제도를 통해 일률적으로 관리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관리와 통과세를 징수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대외 무역항인 월해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였다.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상품은 풍흉에 영향은 있었지만, 그 증감은 일정 범위에 있었다. 하지만 월해관은 내지 무역 세관과 달리 불확실성이 컸다. 대외 무역의 교역량은 증감에 제한이 없었고, 이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다. 내지 무역 세관과 달리 대외 무역 세관은 태생적으로 정액주의에 근간한 청조의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요소를 갖고 있었다. 강희 연간처럼 대외 교역량 자체가 크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옹정 연간 재정개혁을 거치면서 월해관의 세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각관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각관에 할당한 正額銀을 초과한 징수분(盈餘銀)이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광동체제의 성립은 대외 무역의 안정성을 높여 교역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對서양 무역 루트를 월해관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월해관의 세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영여은은 할당된 정액은을 훨씬 웃돌기 시작하였다(건륭 말 기준으로 20배 이상). 정액주의의 운영에 최적화된 각관체제에서 영여은의 증가는 호부의 입장에서 매우 성가신 것이었다. 호부는 전국의 각관의 행정을 완벽히 장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여은의 증가는 그 자체로 각관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였다. 호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둘 중 하나였다. 월해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정액주의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월해관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영여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호부의 선택은 후자였다(이 문제는 '건륭 31년분 월해관 세수 결손 사건'과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의 두 케이스를 통해 검토함).

광동체제 시기 월해관은 유일한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그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각관체제로의 통일성을 강요받았다. 그 결과 월해관은 대외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 공백을 민간의 징세 청부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호부의 입장은 월해관의 대리 징세 구조를 因地制宜에서 인정하지만, 각관체제에서 벗어난 절차와 비용을 승인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부담은 징세 청부업자에게 전가되었다. 행상은 월해관의 관세 행정에 참여하는 반대급부로 對서양 무역에 관한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들은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징세 당국을 대신하여 외국인의 관리 사무와 관세의 과세와 징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관세 행정을 행상이 전담함으로써 월해관은 징세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 기능을 갖추지 못한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粵海關監督署는 관세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 부서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관세의 과세와 징수를 행상에게 전적으로 의존한 형태가 바로 광동체제 시기의 대리 징세 구조의 특징이었다.

재미있는 점은 월해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호부의 정책 방향성은 의외의 지점에서 대리 징세 구조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바로 가·도 연간 행상의 연쇄 도산 사태가 그것이다. 각관체제의 구심력 강화는 결과적으로 징세 청부업자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던 이권의 축소와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세수 운용 기한의 축소는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당시 행상은 징수한 관세를 자신들의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것도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영세한 금융 환경을 생각한다면 상당한 이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호부는 이를 각관체제에서 규정한 3개월까지 축소하였고, 행상들의 현금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행상의 도산을 무역 수입 감소-소비 증가라는 수지 악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달리, 학위논문은 각관체제의 구심력 강화가 행상의 유동성을 경색시킨 측면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관세의 대리 징세 구조는 월해관의 독자적인 화폐 단위를 출현시켰다. 이론상 호부, 월해관, 징세 청부업자가 사용하는 화폐 단위는 庫平銀으로 모두 동일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庫平 저울추의 무게가 모두 달랐다는 점이다. 광동체제에서 월해관의 고평은(이하 "粵海關銀")은 호부 고평은과 구별되는 화폐 단위로 자리 잡았고, 외국 상인에게 월해관은이 곧 고평은으로 인식되었다. 제1차 아편전쟁 이후 조약을 통해 월해관은은 공식적인 화폐 단위로 인정받았고, 신설 해관의 화폐 단위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潮州關, 瓊州關, 北海關의 케이스를 통해 연속성을 확인하였다. 바로 이 월해관은은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출현한 신식 해관에서 "Haikwan Teal(海關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었다.

대리 징세 구조는 대외 무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를 대

비하기 위한 주요한 장치였다. 해관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크게 과세와 징세의 두 측면에 존재하였다. 우선 과세 업무였다. 과세는 단순한 세칙의 적용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징세 당국이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종류, 품질, 가격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였다. 그래야만 세칙에 맞게 정확히 과세할 수 있었다. 행상이 징세 청부업자로 적합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다음으로 징세 업무는 리스크가 더더욱 컸다. 징세 당국은 외국인이 납부하는 은화의 순도와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 교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정밀하게 작업하더라도 징세 과정에서 오차와 변수로 인한 손실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대리 징세 구조가 필요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이질적인 화폐 체계에 있었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아편전쟁은 대리 징세 구조의 형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기존에 행상에 의존해 오던 관세 행정을 징세 당국이 직접 처리하게 되었다. 청조는 海關銀號를 신설하여 징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과세 업무였다. 청조의 해관 시스템에서 징세 당국은 이를 위한 행정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고, 해본 적도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구 통상 시기는 청조가 기존에 월해관의 모델을 수정·변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 관리 제도를 수립해 가는 과도기였다. 그리고 이것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해관의 과세 능력 부재에 있었다. 그 공백을 채운 것은 바로 외국인 세무사였고, 외국인 세무사제도가 큰 거부감 없이 청조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자가 갖는 친화력 덕분이었다. 관세 행정을 민간에 위탁해 처리했던 징세 청부의 관행과 과세와 징수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해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필자가 신식 해관을 이해하기 위해 광동체제로 돌아간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진연구자 발표】

清代江南城市的醫療環境與成藥資源研究

최지희(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취득대학: 南開大學
지도교수: 余新忠
학위 취득 연월: 2021년 6월

이 논문은 청대 강남 도시사회의 질병 대응을 의료사의 시각에서 의료 환경과 매약(賣藥)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청대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학(醫學)과 혜민약국과 같은 의정(醫政)기구 정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지방 醫官의 지위하락과 他職化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재해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면 정부가 지방의 의료구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았다. 청대 지방사회 신사층의 동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국가가 지방 의정(醫政)을 방치하는 대신 민간자선단체와 官民合作 자선기구의 의료자선이 발달하여 국가의 의료공백을 메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청대 의료사 연구에서는 당시 의학이론의 발달과 세분화, 전염병 연구에 대한 관심증가, 각종 의학서적과 처방서(方書)의 출판 등 민간 의료자원이 발전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강남지역은 이러한 의료자선의 활동이 활발하고 인적, 물적 의료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전염병의 발생과 官民의 대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였지만, 청대 강남사회의 의료 환경과 일상의 질병에 대응하였던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주로 이 지역 의학의 발달과 의학지식의 보급, 의서 출판, 方書 보급 등의 문제에 집중하였고, 의약자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또한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던 醫藥局과 施藥활동에 대한 연구에 비해, 의약 자원을 제공하는 또 다른 장소였던 약포(藥鋪)와 매약(賣藥)생산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대 강남 도시의 의료환경과 매약(賣藥)자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특히 당시 강남 도시의 약포업과 의약시장의 성장 및 매약(賣藥)의 상품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사회 배경과 의료사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당시 청대 사회의 지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를 기대할 수 없었으나, 紳士나 관민합작의 의료자선기구, 민간의학지식과 방서(方書)와 같은 실용적인 의학서적 등의 자원을 통해 일상의 질병에 대응하였다. 혹은 주변의 평판에 의지하여 믿을만한 의사를 찾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청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엉터리 의사가 만연했다는 것이다. 청대에 이러한 '엉터리 의사' 들이 만연하게 된 것은 의학시험의 부재와 의호(醫戶)제도 폐지가 일차적인 요인이었지만, 의학지식의 보편화와 의료자원의 사회화가 전개되어 다양한 통로로 의학지식을 습득하여 의사가 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흔히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의사 계층 내부의 경쟁과 정체성, 권위 확립 등의 욕구가 '엉터리 의사'에 대한 비난을 증가하게 했다는 점을 밝혔고, 의료사고의 발생 시 지방관이 '庸醫殺人律'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민들은 의사 외의 다양한 의료자원에 의지하였고 당시 성장하고 있던 약포업과 매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청대 중후기 이후에는 상인계층이 약포를 운영하고 매약을 제조, 판매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래 중국의 의학 전통에서 약을 제조하는 것은 의사들이었으나, 점차 의사의 매약제조 비중이 줄고, 약방에서 전문적으로 매약을 생산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명대 이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의사들이 儒醫를 숭상하고 의학이론과 本草學 등에서 철학적 탐구를 추구하는 풍조가 유행했으며 점차 손기술을 사용하는 매약제조를 기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당시 대중의 賣藥 지식의 증가와 값비싼 명산지 약재(道地藥材)의 선호 경향, 까다로운 賣藥 제조 공정의 발달 등으로 점차 매약은 개인 의사보다 상업자본을 투자한 상인들의 약포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대 강남 도시에서는 의약 시장이 상업화되고 매약이 상품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유명 약포의 창업과 발전과정에서 매약의 제조와 판매가 약포의 시작과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매약은

단순한 약품을 넘어서 약포의 대표적인 상품이 된 것이다. 또한 논문에서는 약포에서 출판한 약품목록인 '藥目'자료와 비각자료를 통해 당시 판매된 매약의 구체적인 종류와 가격, 약포의 운영방식과 경쟁, 매약의 상품화 등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논문에서는 명대 말에 출판된『胞與堂丸散譜』와 강남지역의 張同泰堂, 葉種德堂, 胡慶餘堂, 勞松壽堂의 약목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같은 지역 약목 사이의 유사성과 구체적인 약품목록, 가격, 광고 책략 등을 확인하였다. 약목에는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증상에 맞는 매약은 물론 당시 대중의 욕구가 반영된 약이 포함되었다.

강남지역의 비각 자료에서는 유명 약포의 이름이 도용당하거나 대표 매약상품을 베낀 유사약, 가짜약이 시장에 횡행했으며 이를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의약시장이 발달하고 의약소비가 활발한 강남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도용와 모방에 대해 강남지역의 유명 약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소송도 불사하였고, 관에서 공포한 도용금지의 명령을 비석에 새겨 약포를 오가는 고객에게 알리거나 약포에서 생산한 약품에 약포의 상징을 새기거나 찍어 假品과 구분하였다.

아편전쟁이후 중국 시장에 서양 약국이 설립되고 서양 약품이 소개된 이후에도 중약포의 매약생산과 대중의 매약소비는 쉽게 위축되지 않았다. 19세기 말 20세 초의 신문광고와 사설, 上海에서 출판된 약목을 분석하여 당시 중국에 소개된 서양약품이 중국의 소비자에게 영합하기 위해 현지화 광고전략을 사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 말의 의약시장에서 중약과 서약은 서로 각축하고 공존하는 관계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당시 의료환경에 존재했던 다양한 요소와 대중의 의약지식의 향상, 의약자원의 풍부함, 의약시장의 상업화, 매약 상품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대 강남 도시사회에서 민간의약시장의 발달과 매약자원은 일상생활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역량은 청말 서양의약이 들어온 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주었다.

【제1발표】

고대 동아시아의 물품이동과 그 영향: 한경의 사례

고 일 홍*

1. 머리말
2. 물질문화를 연구하는 고고학적 시각과 방법론
3. 대동강 유역 평양 일대에서 한경의 수용과 변용
4.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한경의 수용과 변용
5. 맺음말

1. 머리말

선사시대 이래로 한반도에는 중원 지역의 다양한 물품이 유입되었고, 그중 일부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스며들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漢鏡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의 수용 및 변용 과정에 대해 추적하고자 한다. 한경은 기원전 1세기 무렵 낙랑군으로 유입되었고, 그 이후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전달되었다. 당시 대동강 유역의 평양 일대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초기철기시대의 공통된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정치·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전자의 지역에서는 선진문물과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후자의 지역에서는 의례적 권력기반을 공고히 한 공동체 수장들이 정치적·경제적 권력기반을 새롭게 다져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반도 주민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한경을 활용하였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현실에 직면했던 이들이 어떻게 한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신과 사회를 만들어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발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 물질문화를 연구하는 고고학적 시각과 방법론

고고학은 과거의 물질문화를 매개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과거의 물질문화를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과거 인간의 자취를 찾아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과거의 물질문화를 – 그것을 흔히 '고고학 자료'라고 부른다 – 인간의 행위가 반영된 化石으로 보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이 담겨있는 텍스트로 보기도 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호작용의 대상물로 보기도 한다.[1] 본 발표에서는 이 세 가지 시각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나, 특히 세 번째의 관점에서 한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즉, 한반도 주민들이 어떻게 한경이라는 물품과 상호작용했으며, 그러한 상호작용이 개인 정체성의 재생산, 나아가 사회의 재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인간과 물품의 상호작용은 산 자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고고학자가 다루는 자료는 과거 사람들의 물품 중 땅속에 묻히고, 큰 변형 없이 보존되고, 운 좋게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되는 자료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많은 고고학 자료는 '무덤'이라 부르는 죽은 자의 영역에서 발견되는데, 한경 역시 그러하다. 그렇다면 무덤에서 발견된 한경을 통해 어떻게 사람과 물품의 상호작용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은 무덤 내 한경의 출토 정황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한경과 공반되는 유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출토 정황과 공반 유물을 통해 고고학자는 당시 사람들이 한경이라는 물품을 어떻게 범주화했는지, 그것에 부여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한경이라는 외래 물품의 '수용와 변용'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경의 출토 정황과 공반 유물을 검토하였고, 필요한 경우 그 양상을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3. 대동강 유역 평양 일대에서 한경의 수용과 변용

3.1. 중국대륙에서 동경[2]의 사용

---

1) 고일홍, 「고고학 해석의 지평 넓히기 -"고고학 자료"에 대한 다양한 인식 검토-」, 『인문논총』 68, 2013, 291-312쪽.

2) 본 발표문에서는 '한경'이라는 용어와 '동경'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한경'은 연구

물품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주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물품이 원래 사용되었던 지역에서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동경은 齊家文化에서부터 사용되었다.[3] 戰國時代 고분에서부터 그 출토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漢代 고분에서는 지금까지 1만 여 점의 동경이 출토되었다.[4] 한대에 들어 동경의 사용이 활발해졌음은 河南省 漢墓의 한경 부장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前漢 전·중·후기, 後漢 전·중·후기를 각각 거치면서 하남성 한묘의 거울 부장 비율은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5.88%→20%→56.76%→42.86%→66.67%→33.33%.[5]

위와 같은 수치는 한대에 들어 동경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잘 보여주는데, 한대에는 方格規矩鏡을 중심으로 동경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6] 한대 사회 내에서 활발히 유통되었던 동경은 치장 시 모습을 비추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고, 허리춤에 매달아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용도는 한묘에서 확인되는 한경의 서로 다른 출토 위치에도 – 즉, 화장품 곽 내부 혹은 피장자의 허리춤 근처 – 반영되어 있다.[7] 그렇다면 한대의 동경은 누구에 의해 소비되었는가? 한경이 매우 귀한 물품으로 사회의 엘리트만 보유할 수 있었다는 관점과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사치품' 정도의 물건이었다는 관점이 공존하는데,[8] 최근 들어 후자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羽林郎》에 등장하는 동경 관련 구절이 제시된 바 있다.[9]

자의 관점에서 특정 종류의 동경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다. 즉, 한대 이전의 동경과 구분하고자 잘 때, 아니면 토착 장인들이 제작한 精文鏡이나 倣製鏡과 구분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 있다. 반면 당시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물품의 소비를 이야기 할 때에는 '동경'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한경' 중에는 동경이 아닌 철경도 포함되어 있고, 낙랑고분 중 전실묘에서 철경이 출토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낙랑고분 중 목곽묘 출토 한경만을 다루고 있어서, 철경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다.

3) 홍인국, 「동북아지역 초기 동경의 기원과 전개」, 『白山學會』 104, 2016, 35-6쪽.

4) Guo, Y., "Affordable Luxury: The Entanglements of Metal Mirrors in Han China (202 BCE-220 C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hD Thesis, 2016, 12쪽.

5) Guo, 앞의 논문, 2016, 14쪽.

6) Tseng, L., Representation and Appropriation: Rethinking the TLV Mirror in Han China, *Early China* 29, 2004, 164쪽.

7) Guo, 앞의 논문, 2016, 56-84쪽.

8) Guo, 앞의 논문, 2016, 103-104쪽.

9) Guo 앞의 논문, 2016, 109쪽. 昔有霍家奴/姓馮名子都/依倚將軍勢/調笑酒家胡/胡姬年十五/…/翠蓋空踟躕/就我求清酒/絲繩提玉壺/就我求珍肴/金盤鱠鯉魚/貽我青銅鏡/結我紅羅裾/不惜紅羅裂/何論輕賤軀.

앞서 언급했듯이 한묘에서 1만여 매의 동경이 출토된 만큼, 동경의 무덤 내 부장 양상에 대한 유형화가 가능해졌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한묘에서의 동경 부장에 대한 큰 그림을 보면, 동경이 대체로 한 매씩 부장되었고, 파쇄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부장되었으며, 주로 시신이 안치된 관 내부에 부장되었다고 한다[그림-1 참고]. 또한 남성의 관에서만 출토되는 검과 달리, 남녀의 관에서 비슷한 비율로 출토되었다. 공반 유물을 보면 동경이 빗, 帶鉤, 무기, 악기, 대나무 용기, 방석, 베게, 부채, 수저, 동전, 인장 등과 함께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물품들은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것들로, 生器를 부장하는 장례 풍습의 일환으로 동경이 고분에 매납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 물론 한묘에서 동경 부장 양상에 대해 더 정치하게 시기별, 계층별로 검토하면 이와 같은 유형화가 늘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전한 후기부터 상위계층의 무덤에서는 동경을 별도의 부장곽에 부장하였고, 또한 왕후의 무덤에서는 대형화된 동경 혹은 복수의 소형 동경들을 부장하였다.[11] 그러나 한경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본 발표의 목적을 위해서는 동경 한 매를 관 내부에 부장하는 것을 '전형'으로 여기고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Site	Inside Coffin					Outside Coffin	Total
	Head	Chest	Waist	Foot	Other		
Luoyang Shaogou Hanmu	28	3	?	3	?	?	127
Luoyang Xijiao Hanmu	✓✓✓					✓	175
Huixian Lugu Hanmu	20	1	1		61	17	100
Huixian Liulige Hanmu	3	1	1				
Shaanxian Dong-Zhou Qin-Han mu	✓			✓			11
Xi'an Dong-Han mu	25	4	0	2	11	40	82
Guangzhou Hanmu	32			✓			157
Luzhongnan Hanmu			✓				

表一　　铜镜出土状态分期表

状态 / 时代		棺内										墓室			墓顶（壁）	宗教建筑
		头	胸	腹	胯	腰	手握	足	面罩	腰下	棺壁	排水孔	天井下	悬挂		
夏				√		√		√								
商																
西周																
东周	春秋	√	√	√		√										
	战国															
秦		√	√	√		√	√	√	√							
西汉																
新莽																
东汉																
三国	魏	√	√	√	√	√		√		√				√		
	蜀															
	吴															
北朝																
南朝																
隋																
唐																
五代		√	√	√						√	√	√	√		√	√
宋																
辽																

[그림-1] 한묘 부장 동경의 위치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표.
Guo, 앞의 논문, 2016, 315쪽

10) Guo, 앞의 논문, 2016, 99-101쪽, Thote, A., "Burial Practices in the Chu Kingdom in the Light of Recent Discoveries: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Exploring China's Past: New Discoveries and Studies in Archaeology and Art*, Saffron, 1999, 89－204쪽.

11) 홍인국, 「고대 한·중 출토 한경(漢鏡)의 부장배경 비교」, 『선사와 고대』 64, 2020, 15쪽.

중원 지역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던 동경이 기원전 2-1세기 무렵부터 한반도 서북부의 대동강 유역 평양 일대의 고분에도 매납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동경이라는 물품만 유입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삶과 죽음의 영역에서 동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함께 소개되었던 것인가? 대동강 유역 평양 일대의 한경 출토 고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3.2. 대동강 유역 평양 일대에서 한경의 사용 - 이른 시기 목곽묘를 중심으로

평양 일대에서는 청동기시대 이래로 支石墓와 石棺墓가 조성되다가, 기원전 4세기에는 石槨墓가, 기원전 3세기 후엽 이후부터는 土壙墓가 등장하였다.[12] 초기의 토광묘는 추가적인 시설이 없는 구조였으나, 순차적으로 木棺, 木槨 시설이 부가되었다.[13] 목곽 시설 내부에 목관이 들어있는 토광묘를 '목곽묘'라고도 부르는데, 기원전 2세기에 등장한 목곽묘는 기원전 1세기부터 활발하게 조성되었으며, 기원전 1세기대의 '單葬木槨墓' 단계부터 한경이 부장되었다.

평양 일대에서는 대략 157기의 단장목곽묘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26기에서 한경이 출토되었다. 한경의 출토 정황을 보면 토성동 486호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경이 한 매씩만 副葬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유물의 출토 정황이 분명한 고분에 있어서는 정백동 49호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경이 목관 내부에만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경이 목관 내부에서 출토된 경우에는 동경이 관의 중앙부에서 대구나 검과 함께 부장된 사례(정백동 36호분, 정백동 107호분)와 동경이 관의 머리 쪽 모서리에서 방형의 칠기 화장곽 안에 수납된 채 부장된 사례(정백도 92호분)가 모두 확인되었다.

이러한 단장목곽묘는 두 기씩 나란히 조성되기도 했으며, 이를 '異穴合葬木槨墓'라 부른다. 이혈합장목곽묘로 확인된 평양 일대의 고분은 약 40기(20쌍)로, 이 중 7기에서 한경이 출토되었다. 정백동 3호분과 정백동 37호에서는 남녀 곽 모두에서 동경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출토 정황이 분명한 고분에 국한해 볼 때 정백동 3호분 서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관 내부에만 동경이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백

12) 박선미, 「고고학 자료로 본 위만조선의의 문화 성격 –평양 일대의 고분을 중심으로 -」, 『東洋學』 53, 2013, 248쪽.

13) 오영찬, 『낙랑군 연구』, 사계절, 2006, 76-79쪽; 박선미, 앞의 논문, 2013, 248쪽.

동 37호를 제외하고는 동경이 한 매씩만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경이 목관 내부에서 출토된 경우에는 칠기 거울 받침대 위에 놓인 채로 동경이 매납된 사례(정백동 37호 남곽)와 칠기 통 안에서 대구, 빗, 벼루 등의 생기와 함께 동경이 매납된 사례(정백동 37호 북쪽 북곽) 모두 확인되었다.

[표-1] 대동강 유역 평양 일대의 이른 시기 목곽묘에서 보이는 非전형적 동검 부장 양상

	동경 목관 외 부장	동경 2매 부장
단장목곽묘	정백동 49호	토성동 486호분
이혈합장목곽묘	정백동 3호분 서곽	정백동 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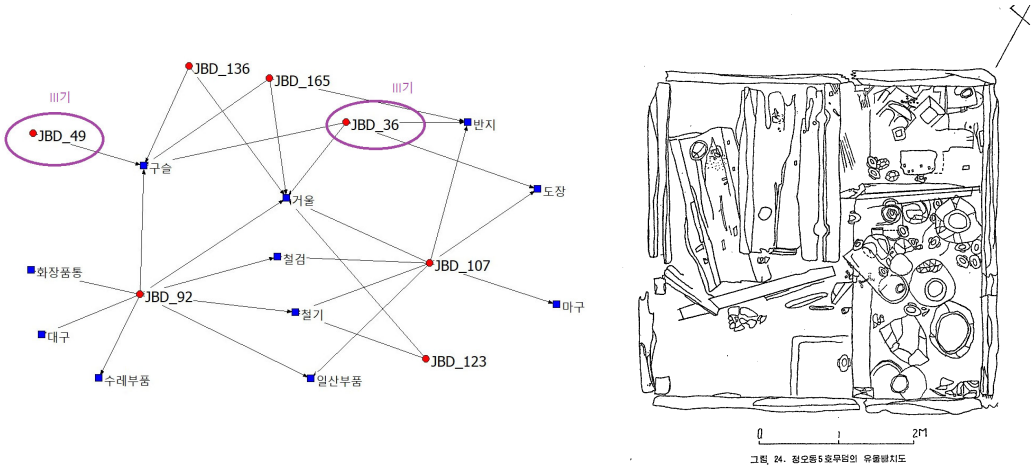
기원전후 무렵이 되면 단장 목곽묘나 이혈합장목곽묘 대신 두 개 이상의 관을 동일한 공간 안에 배치한 '同穴合葬木槨墓'가 유행하게 된다. '귀틀무덤' 혹은 '귀틀묘'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종류의 고분은 평양 일대에서 대략 92여 기가 조사되었으며, 그중에 60기 이상에서 한경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동혈합장목곽묘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서 동경의 부장 위치는 목관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였다. 또한 동경이 두 매 이상 부장 된 사례가 동경 출토 고분의 1/3에 달하게 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동혈합장목곽묘에서 보이는 동경 부장 위치의 변화가 목관을 목곽의 한쪽 벽면으로 치우치게 배치하는 새로운 관습의 도입과 맥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목관의 측면 배치가 華南地方에서 보이는 전통인 만큼, 결국 동경 부장 위치의 변화도 華北地方 고분에서 화남지방 고분으로의 계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14]

매장의 공간에서 일어났던 부장 행위의 변화가 목곽 건축 계보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의 기저에는 과거 인간이 관습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존재였다는 관념이 깔려 있다. 그러나 부장품의 위치를 정하는 행위는 관습의 틀 안에서도 '선택'과 '실천'을 동반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해당 관습이 선택되지도 실천되지도 않았던 非전형적 동경 부장의 사례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가령, [표-1]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백동 49호분와 정백동 3호분 西槨에서는 목관

14) 타카쿠 겐지,「樂浪古墳出土의 銅鏡」,『考古歷史學志』15, 1999, 59쪽.

이 중앙에 있었으나, 동경은 목관 외부에 부장되었다. 또한 토성동 486호분은 목관이 한쪽 벽면에 치우치게 배치되었으나,[15] 두 매의 동경이 목관 내부에 배치되었다. 물론 정백동 49호분의 경우, 화남지방의 고분 계보가 유입된 이후에 조성된 늦은 시기의 단장목곽묘이므로 동경의 관외 부장이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역시 늦은 시기의 단장목곽묘인 정백동 36호에서 보이는 동경의 관내 부장을 非전형적 부장의 사례로 여길 수가 있다[그림-2, 왼쪽 참고]. 또한 동혈합장목곽묘 중에서 목관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정오동 5호분에서는 동경이 비녀, 옥구슬, 은가락지, 청동팔찌, 분통과 함께 東棺의 내부에서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2, 오른쪽 참고]



[그림-2] (왼쪽) 단장 목곽묘에서의 관내 유물의 네트워크 시각화 그래프; (오른쪽) 정오동 5호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非전형적 부장의 사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단장목곽묘와 이혈합장목곽묘에서 관찰되는 '목관 내부에 동경을 한 매씩 부장하는 행위'가 단순히 관습을 따르는 '당연한 행위'였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선택과 실천의 행위'였음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의도된 행위에 대해 다시 한

15) 토성동 486호분에서는 이와 같은 동경의 非전형적인 부장 양상과 함께 무려 네 점의 세형동검, 한 점의 촉각식동검, 그리고 다수의 '고조선계' 유물이 출토되어 북한 학계와 일부 남한 연구자들은 위만조선시대의 무덤으로 보고 있다. 윤광수, 「토성동 486호 나무곽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4-4, 1994.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내에서 출토된 동경은 피장자의 허리띠에 매달린 채로 매납되기도 했고, 화장곽 안에 수납되어 매납되기도 했고, 거울 받침대와 함께 매납되기도 했고, 대구, 빗, 벼루 등의 生器와 함께 매납되기도 했다.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한묘에서 확인되는 동경의 부장 방식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경 부장 사례들은 당시에 대동강 유역 평양 일대의 주민 중 일부가 중원지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경을 인식·사용하였고, 또한 중원에서 통용되던 '거울을 부장하는 옳은 방법'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실천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덤에서는 그 지식이 실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실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피장자가 낙랑군 설치 이후 내지에서 이주해 온 자였다면 그것은 고향의 매장 풍습을 실천하는 행위이자, 내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장자가 原토착주민이었다면 낙랑군 설치 이후에 유입된 새로운 지식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대동강 유역 평양 일대의 기원전 1세기 무렵의 한경 출토 고분을 보면 낙랑군에 거주했던 당시 주민들이 내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경을 인식하고 사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 후 변용 없이 동경이 사용되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 주민들의 필요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중원에서 이주해 온 이들은 한경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재생산하였고, 原토착주민은 한경과 같은 외래 사치품의 구입과 '올바른' 사용을 통해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4.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한경의 수용과 변용

4.1.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한경의 사용

한경은 한반도 남부지방의 모든 지역에서 출토된 바 있다.[16] 다만 한경의 출토 빈

도는 지역마다 다른데, 이는 한경의 유입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반도 서남부 지역은 대동강 유역과의 가장 인접한 곳이나, 이곳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한경의 출토 사례가 미미하다. 사실 중원의 문물이 도달하기 가장 쉬운 곳이 서남부 지역이었다. 東周式銅劍이 서해안을 따라 출토된다는 사실이나 전국말-전한초로 비정된 반리문경이 익산 평장리 토광묘에서 세형동검 등과 함께 출토된 사실 등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낙랑군 설치 이후에는 한동안 이 지역으로 한경이 유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확인된 한경으로는 보령 명천동 토광묘 출토 博局鏡(기원후 2세기 후반), 공주 공산성 토광묘 출토 虺龍文鏡(新代-후한초), 부여 하황리의 圈規矩過文鏡(후한 중기), 익산 연동리의 盤龍鏡(후한 중기),[17] 파주 독서리 원삼국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連弧文鏡(內行花文鏡) 추정 동경편, 그리고 제주 건입동(산지항)에서 五銖錢, 貨泉, 大泉五十, 貨布과 함께 출토된 한경 파편 등이 있다.

서남부 지역에 이처럼 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의 한경이 부재한 이유는 한반도 남부지방의 정치체들이 낙랑으로부터 한경을 확보했던 방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낙랑과 남부지역의 정치체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교역의 방식을 두고 使行 교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18] 이러한 사행 교역도 본질적으로는 '본거지 호혜교환(home base reciprocity)', 즉, 바다 건너에서 필요한 물자를 그 원산지에 거주하는 집단들과의 물자교환을 통해 얻어오는 교환 방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거지 호혜교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환의 대상이 출항 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교환의 상대에게만 물자를 제공하는 독점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이다.[19] 기원후 2

16) 강원도 지역에서는 춘천 중도와 율문리에서 한경이 출토되었고, 평창 도암면에서는 방제경 네 매가 수습되었으나, 한경에 대한 인식이나 그것의 활용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니, 향후 이 지역에서 더 많은 한경 및 방제경 자료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본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17) 하황리 한경은 박물관 소장품으로 전해진 것으로, 연동리 한경은 박물관에서 입수한 것이라서 출토 정황은 알 수 없다.

18) 김병준,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네트워크와 使行 교역」, 『한국상고사학보』 106, 2019.

19) 본거지 호혜교환의 독점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고대 키프로스섬을 출발한 지중해 지역의 후기 청동기시대 선박들이 그리스 본토에 위치한 미케네 문명의 항구도시 티린스(Tiryns)에 도착하여 키프로스산 구리를 하역한 다음에, 미케네의 고급 토기와 직물을 다시 키프로스로 가져간 것을 들 수 있다. 티린스와 키프로스를 잇는 해로상에는 로도스(Rhodes)라는 중요한 정박지점이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로도스에서는 미케네 토기가 확인되기는 하나, 그것은 키프로스에서 확인되는 고급 미케네 토기와 전혀 다른 종류이다(고일홍, 「고대 한반도 해상교류의 새로운 이해 –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5(2), 2016, 150-151쪽).

세기 후반까지는 낙랑과의 사행 교역에 참여했던 집단들 중에 서남부 지역 정치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에 한경을 비롯한 사행 교역의 대상물을 싣고 낙랑과 남부지방 모처의 교역 거점을 오고 가던 선박들이[20] 서해안·서남해안의 정박지점들에서 토착 집단들과 물품을 주고받았을지라도,[21] 한경은 교역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서남부 지역의 정치체들은 그나마 2세기 후반 이후부터 낙랑과 교섭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유입된 것이 명천동, 하황리, 연동리 출토 한경일 가능성이 높다.[22] 한편, 서남부 지역의 3세기 이후 무덤들에서는 傳世品 倣製鏡이 확인된다. 서산 기지리 21호 분구묘에서는 四乳虺龍文鏡의 방제경이 출토되었고, 천안 화성리 B-2호묘에서는 문양을 알 수 없는 방제경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傳世 방제경의 유입 경로는 모호하다. 훼룡문경 계열의 방제경이 기원전후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 부산·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부에 원시적 온돌구조가 설치된 하남 미사리 유적의 呂자형주거지(한양대 A-1 호 주거지)에서 후한 만기 무렵으로 비정된 방제경이 출토된 바 있어서 서남부 지역 방제경의 제작지에 대한 판단은 현시점에서는 보류하도록 하겠다.[23]

그렇다면 한경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서남부 지역에서 이 유물은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기지리와 화성리에서는 방제경마저 전세되었다. 아울러 기지리의 방제경이 마침내 매납되었을 때, 피장자의 가슴 부위에 청동환, 청동방울과 함께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경이든 그것을 모방한 방제경이든 매우 소중하게 간직되었으며, 어쩌면 제의적 상징물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광 수동 유적의 초기철기시대 토광묘에서 방제경 두 매가 매우 특이하게 생긴

---

20) 당시에 그와 같은 선박들의 존재했다는 사실은 王莽代 地皇年間(20~22)의 廉斯鑡 기사 중 從芩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구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항해의 과정에서 선박들이 난파되기도 했는데, 난파선의 간접적인 증거로 여수 거문도 앞바다에서 출토된 오수전 꾸러미를 들 수 있다.

21) 상운리 나지구의 1호 墳丘墓 2호 粘土槨 半兩錢, 광주 신창동의 낙랑토기 1점와 銅鏃, 해남 군곡리의 화전, 제주 종달리의 화천, 제주 산지항의 화천·大泉五十·오수전, 전남 해남 흑천리 마등 4호 토광묘의 화천, 광주 복룡동 1호 토광묘의 화천 등이 모두 이와 같은 교역의 흔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22) 성정용, 「마한세력의 성장과 중국 군현과의 관계」, 『마한의 성장과 경기지역』, 경기도, 2017, 42쪽.

23) 특히 최근에 춘천 중도, 율문리에서 한경이 출토된 바 있어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기를 기다리며 판단을 보류하도록 하겠다.

새무늬 청동기, 357점의 유리구슬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는 사실이 역시 동경의 제의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세형동검 단계에도 정문경과 청동의기를 부장한 무덤들이 서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결국 서남부 지역에서는 세형동검 단계부터 동경에 부여되었던 제의적 의미가 기원후까지 한경과 방제경으로 이어져 내려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만 보면, 이러한 제의적 가치가 내포된 한경/방제경이 서남부 지역 엘리트 집단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영남 내륙지방이나 일본에서의 한경 활용의 사례들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4.2.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 한경의 사용

영남지역에서는 서남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수의 한경이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5여 개소의 유적에서 한경이 출토되었으며, 한경의 총 매수는 파편을 포함하면 30여 매에 이른다. 기원전 1세기대에는 낙동강 중하류 지역으로 이어지는 수직축과 대구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수평축을 따라 한경이 소비·유통되었으며, 기원후 1세기 후반-2세기 초반 이후부터는 동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경의 소비·유통이 진행되었다. 흥미롭게도 각각의 소비·유통 권역 내에서 한경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중하류 권역에서 한경의 사용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한경 출토 무덤들은 창원과 밀양에서 확인된다. 창원 다호리 1호묘에서는 腰坑의 대나무 바구니 안에서 星雲文鏡, 대구, 오수전, 붓, 칠기, 동탁, 청동제 및 철제 무기, 그리고 鑄造鐵斧가 출토되었고, 유리구슬도 출토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동경+대구+오수전+붓+칠기+철제 무기'의 매납은 평양 일대의 한경 출토 목곽묘에서도 확인된 부장 양상이므로, 다호리 1호묘를 조성했던 이들이 낙랑의 부장 풍습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참고로 이 무덤은 낙랑과의 교역을 관장함으로써 경제적 권력기반을 구축한 토착 수장의 무덤으로 해석된 바 있다.[24] 한편, 1호묘보다 시기가 늦은 다호리 119호묘에서는 家常富貴鏡

24) 이희준,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영남고고학보』

이 관 내부에서 유리구슬[25]과 함께 출토되었다. 외래 물품인 유리구슬은 다호리에서 조사된 150여 기의 무덤 중 5기에서만 출토되었는데, 그중 2기에서 한경도 공반되었다.

창원에서 낙동강을 따라 올라가면 밀양에 도달하게 되는데, 밀양 교동 유적의 무덤에서는 3호묘[26]와 17호묘[27]에서 한경이 출토되었다. 두 무덤은 이 유적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지만 부장품으로는 한경 외에는 토기, 철기, 그리고 소량의 청동기만이 확인되었다. 또한 17호에서는 관 내부에 동경이 매납된 것과 달리, 3호에서는 관 외부에 동경이 매납되었다.

낙동강은 대구에서 그 지류인 금호강과 합류한다. 합류 지점에서 금호강을 따라 20여 킬로미터 올라간 곳에 경산 임당, 신대리, 갑제동 유적이 이웃하고 있다. 이중 갑제동에만 (추정) 완형의 한경이 출토되었다.[28] 그 외의 신대리 75호묘에서는 방제경[29]이, 그리고 신대리 37호묘, 임당 A-I-12호묘, E-58호묘, E-138호묘에서는 재가공된 한경 파편[30]이 출토되었다. 또한 금호강을 따라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 영천 용전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곳의 무덤에서도 재가공 흔적이 있는 한경 파편[31]이 출토되었다.

이처럼 위와 같이 낙동강 중하류 지역을 관통했던 하나의 한경 유통망을 설정할 수가 있다.[32] 그런데 이 유통망 속에 사행 교역을 주도했던 세력의 거점인 창원 다호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서 무덤 내 한경의 출토 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발표자는 그 이유가 한경이 낙

58, 2011.

25) 보고에서는 '유리구슬'이라고 나와 있으나, 구슬의 형태나 색조를 보면 수정구슬일 가능성도 있다. 박준영 개인 교신.

26) 성운문경이 출토되었다.

27) 昭明鏡이 출토되었다.

28) 경산 갑제동에서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 신고된 소명경이 수습되었다(김권구, 권순철, 황종현, 「경산 갑제동 발견유물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 51, 신라문화연구소 2018).

29) 훼룡문경 방제경이다.

30) 성운문경과 소명경을 재가공한 파편들이다.

31) 연호문 주연이 관찰되는 한경 파편이다.

32) 다호리 유적이 위치한 곳이 대구·성주·경산·영천으로 이루진 낙동강 중류 지역과 가장 가까운 낙동강 하류 지역의 초입부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다(이청규, 「"茶戶里遺蹟의 靑銅器와 辰弁韓」, 『茶戶里 遺蹟 發掘 成果와 課題』, 국립중앙박물관, 2008, 68쪽.)

동강 중하류 지역에서는 중원지역이나 낙랑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치품'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고분에서는 진귀한 부장품이 종종 출토되는 관계로, 우리는 어느덧 과거 사람들이 땅속에 귀한 물품을 매납하는 행위가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귀한 물품을 무덤에 부장하는 행위는 동시에 그것을 폐기하는 행위이기도 한다. 물론 해당 물품의 가치가 '상징적'일 경우에는 땅속에 들어가서도 그 물품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거나 심지어는 더 배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의 경우에는 땅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가치도 사라지게 된다. 물론 장례 의례의 일환으로 물품을 매납하면서 생기는 정치적·상징적 가치가 그것의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능가하게 된다면, 충분히 부장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위신재'가 아닌 단순한 '사치품'이었던 물건은 굳이 부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경을 사치품으로 인식했던 영남지역 중하류 지역에서는 그것을 무덤에 부장하는 행위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무덤에서의 출토 빈도가 낮은 것일 수도 있다. 참고로, 낙동강 해안가 지역에서는 드물게 산 자의 영역에서도 한경 파편이 발견되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33] 이 파편들은 당시 산 자의 영역에서 유통되었던 한경 중에서도 '깨지고 그 파편이 땅에 묻힌 이후 발굴자에게 발견되기까지' 우연적 계기들을 통해 고고학자에의 손에 들어오게 된 유물인 만큼,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한경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한편, 임당과 신대리에서 온전한 한경이 아닌 재가공된 파편만 주로 출토된 사실과 관련하여, 이것이 상품 유통의 방식 중 하나인 '노선하향식 교역(down-the-line trade)'의 특징적인 '減衰 현상'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여러 호혜교환의 지점들을 통해 물품이 전달되는 노선하향식 교역방식에서는 흔히 교역선상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물자의 양이 줄어드는데, 이를 두고 '감쇠 현상'이라고 부른다. 낙동강 하류 지역으로 유입된 한경 중 임당과 신대리 유적이 위치한 중류 지역까지 도달한 제품은 많지 않았고, 그 대신 파손되어 사치품으로서의 의미는 이미 상실했지만, 그 황금빛 반짝거림이 여전히 매력적이었던 한경 파편들이 고급 금속 재질로 인식되어 유입, 활용되었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33) 사천 늑도 교역항, 고성 동외동 패총에서도 한경 파편이 발견되었다.

금호강-동남해안 권역에서 한경의 사용

한반도 동남부 지역의 대구-경산-영천-포항·경주로 연결된 권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는 또 다른 한경에 대한 인식과 활용양상이 포착된다. 일찍이 대구 평리동에서는 훼룡문경이, 그리고 지산동에서는 銘帶鏡 6매가 출토되었으나 신고품·기증품인 관계로 정확한 소비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2017년에 경산 양지리에서 지역 수장의 무덤인 1호 목관묘에서 劍·劍鞘 세트 4개, 칠기 부채 3점, 銅鐸, 虎形帶鉤 등과 함께 한경 3매[34]가 출토되었는데, 경주 조양동 38호묘에서 역시 한경 4매,[35] 그리고 울산 창평동 2호묘에서 한경 2매[36]가 출토된 바 있어서, 금호강-동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이 축을 따라 한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매장 전통이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탑동 20-1번지묘[37]나 포항 성곡리 12호묘[38]에서와 같이 한경이 1매만 부장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방제경을 활용해서라도 많은 수의 동경을 부장하고자 했던 소비욕구가 이 권역의 무덤들에서 포착된다. 경주 탑동 21-4,5번지 무덤에서는 일광경 1매와 일광경 방제경 1매가 함께 부장되었고, 경주 사라리 130호묘에서는 일광경 방제경 4매가 부장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구 평리동에서는 훼룡문경와 함께 방제경 5매가 수습되었다.

방제경 1매가 출토된 포항 성곡지구 II-8호묘가 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비정된 바 있는 만큼,[39] 낙동강 중하류의 수직축을 따라 유통되지 않았던 방제경이 금호강-동남해안의 수평축을 따라 보이는 이유는 '시기'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축을 따라 방제경이 유통되었음은 동일한 거푸집에서 제작된 방제경이 대구 평리동과 영천 어은동 출토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사되어 자세한 정황을 할 수 없는 영천 어은동 유적에서는 한경 3매[40]와 함께 무려 12매의

---

34) 소명경을 비롯한 명대경 2매와 성운문경 1매가 출토되었다.

35) 일광경 2매, 소명경 1매, 가상부귀경 1매가 출토되었다.

36) 일광경 2매가 출토되었다.

37) 현재 발표자가 가지고 있는 보고 자료로는 경주 탑동 20-1번지 1호 목관묘 출토 한경의 문양을 파악할 수가 없다.

38) 성운문경 1매가 출토되었다.

39) 이양수, 「연호문(連弧文)의 제도와 삼한경(三韓鏡)의 기술 계보」, 『문화재』 54(1), 2021, p. 172.

40) 일광경 2매, 훼룡문경 1매가 출토되었다.

방제경이 수집되었고, 그중 4매의 방제경이 동일한 거푸집에서 찍어낸 제품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은동이 이 지역 방제경의 주요 유통 거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금호강-동남해안 지역에서는 관찰되는 이와 같은 한경의 부장 양상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기원후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엽 무렵에 조성된 사라리 130호 목관묘는 그 우월한 입지, 묘광의 크기, 부장 유물의 수적 및 질적 우월성[41] 등을 근거로 지역 내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수장의 무덤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양동 38호묘와 양지리 1호묘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금호강-동남해안 지역에서는 한경이 단순히 '사치품'이 아니라, 피장자의 정치적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위세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낙동강 중하류 권역에서는 한경이 '상업적 유통망' 속에서 전달되었다면, 금호강-동남해안 권역에서는 한경이 '위세품 공급망' 속에서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자의 권역에서 보이는 오수전[42]이 후자의 권역에서는 – 두 권역의 교차지점인 경산 양지리에서 오수전이 칠기 검집의 표면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 부재한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43]([그림-3] 참고).

그렇다면 금호강-동남해안 권역으로 한경을 비롯한 낙랑의 다양한 물품들이 유입되었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이곳의 '위세품 공급망'은 기원전 1세기[44]에 구축되었으며, 기원전후[45]를 지나, 기원후 1세기 말-2세기 초엽[46]까지 유지되었다. 일각에서는 기원전 1세기 한경 보급의 시작을 위만조선의 멸망과 그 유이민의 남하와 연관시키기도 한다.[47] 이는 한경을 비롯한 중원 지방의 물품이 육로를 통해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흥미로운 해석이기는 하나, 기원전후 이후의 낙랑 물품

41) 이곳에서는 70매의 판성철부가 부장되었다.

42) 창원 다호리, 경산 임당, 경산 신대리, 영청 용전리에서 오수전이 출토되었다(고일홍, 「고고학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외래유물유통망 검토: 영남지역 무덤 출토 오수전의 해석을 위한 융복합적 시도」, 『아시아리뷰』 11(1), 2021).

43) 한경 출토 유적들을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 '변한', '진한'으로 규정한다면, 다호리와 교동은 변한의 유적으로, 임당, 신대동, 용전리는 진한의 유적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오수전의 분포를 고려하면, 본 발표에서와 같이 낙동강 중하류 지역과 금호강이 하류 지역으로 연결된 하나이 網을 상정할 수가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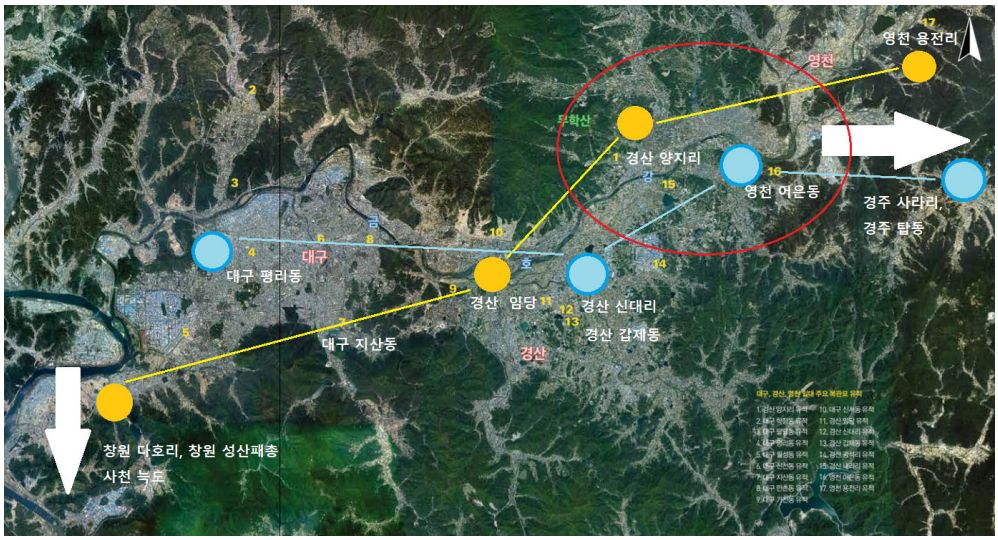
44) 경주 조양동 38호묘가 기원전 1세기로 비정된다.

45) 대구 평리동, 영천 어은동 유적이 기원전후로 비정된다.

46) 경주 사사리 130호묘가 1세기 말-2세기 초엽으로 비정된다.

47) 이청규, 「남한지역 청동기 철기문화 전환에 대한 논의」, 『신라문화』 51, 신라문화연구소, 2018.

공급 메커니즘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요구되는 해석이기도 하다. 참고로, 王莽代 地皇年間(20~22)의 廉斯鑡 기사에는 漢人 1500명이 辰韓에 내려와 벌목하다 잡혀 3년간 억류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48] 이 사료의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한편, 한경을 비롯한 낙랑의 물품들이 낙동강 하류 지역을 통해 유입된 이후, 영남 내륙까지 도달하고, 멀리 경주까지 유통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49]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낙동강 하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주 지역을 연결했던 유통망이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어떻게 조성되어 작용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3]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 작동했던 2개의 외래 상품 유통망

동남부 해안 지역에서 한경의 사용

앞서 살펴본 금호강-동남해안 지역에서는 늦어도 기원후 2세기 초엽부터는 동경을 무덤에 부정하는 전통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대신 기원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부터 동남부 해안 지역에서 한경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은

48)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 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49) 金鉉珍, 『영남지역 출토 한식경의 제작과 교역』,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진한 사회의 내부적 변화나 한반도 남부지역 정치체들과 낙랑 간의 국제 관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동남부 해안 지역에서 전한경이 확인된 사례는 김해 회현리 패총의 훼룡문경 파편이 유일하다. 또한 수대경 파편이 출토된 고성 동외동 패총을 제외하면, 후한경도 이 지역에서는 김해와 부산의 대형 고분군에서만 출토되었다.

김해 내덕리 19호묘에서는 방격규구경이 요갱 안에 매납되었는데, 이 무덤은 기원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로 비정된다. 또한 김해 양동리에서는 수습품인 방격규구경 외에도 162호묘에서 內行花文鏡과 四乳鳥文鏡이 출토되었다. 162호묘에서는 후한경과 함께 8매의 방제경도 부장되었는데, 이와 같은 방제경의 부장행위는 양동리의 다른 무덤들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방제경은 양동리 55호묘에서도 1매, 427호묘에서 3매, 그리고 수습품으로 6매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부산 복천동의 끝자락에 위치한 부산 복산동 12호묘에서도 방제경이 출토되었다.

3세기 이후가 되면서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한경의 부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호묘에서는 방격규구경편이, 23호묘에서는 방격규구사신경이 출토되었고, 14호묘에서는 재가공하고 구멍을 뚫어 마치 펜던트와 같은 모습을 한 연호문경편이 출토되었다. 이 무덤들의 연대는 기원후 4세기 후반 혹은 5세기 전반으로 비정된다. 따라서 이 무덤들에 부장된 한경을 전세품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50]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는 한경을 전세하는 전통이 없고 왜계 유물과의 공반양상이 포착되는 만큼, 일본에서 다시 수입한 제품이라는 시각도 있다.[51]

동남부 해안지역에서는 금호강-동남해안 권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경을 위신재로 인식하고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두 권역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한경과 방제경을 위신재로 사용하는 전통이 단절되었다. 그 단절의 원인이 한경 확보의 어려움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제경 생산 시스템이 이미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필요하면 한경 모방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웃하는 일본열도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전략이 채택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 방제경은 애초부터 한경의 '모방품'이라기 보다는 한경 문양 모티프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종류의 동경'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

50) 정인성, 「弁韓伽倻의 對外交涉」,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2003.

51) 이재현, 「남한출토 낙랑관련 유물의 현황과 성격」, 『낙랑의 고고학』, 제33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2005.

인다.[52] 한반도 동남부 지역 출토 방제경 중 그 지름이 15cm 정도 되는 대구 평리동과 용천 어은동의 내행화문 방제경을 제외하고는, 방제경의 지름이 대체로 5cm 내외라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경의 지름은 그 종류마다 다르지만 가장 작은 일광경도 방제경보다는 크고, 방격규구경은 그 지름이 10cm 가 넘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렇다면 앞선 세형동검 단계에는 정문경의 부장이 거의 행해지지 않았던 한반도 동남부 지방에서 기원전 1세기부터는 '한경'도 아닌 '동경'이 한동안 수장의 정치적·경제적 권위를 나타내는 위신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동경은 정치적·경제적 권위를 표현하는 상징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김해 대성동에서도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아주 '먼 곳'으로부터 동경을 가져와 위신재로 사용하다가, 그러한 행위 또한 어느 순간부터 종식되었다. 이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 수장들이 이제는 대체 물품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권위를 충분히 표출하고 또한 재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한경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현상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발표의 요점이다. 낙랑고분에서 내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경을 부장한 행위나, 기원후 어느 순간부터 한반도 동남부 지역의 수장들이 동경을 더 이상 위신재로 사용하지 않은 행위나 모두 의도된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것들이 '의도된 선택'이었음은 그와는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가령 일본에서는 야요이시대의 舶載鏡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세되다가 고분시대가 되면서 부장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방제경을 제작할 경우에는 지름이 40cm 넘는 대형경과 10cm 이하의 소형경을 모두 제작하여, 이를 선별적으로 하사하기도 했다. 이때 방제경이든 박제경이든 더 큰 거울일수록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53] 일본열도에서와 동일한 한경의 수용 및 변용의 과정도 있을 수 있었으나, 한반도에서는 그와

52) 이양수, 「연호문(連弧文)의 제도와 삼한경(三韓鏡)의 기술 계보」, 『문화재』, 2021.

53) 시미즈 야스지, 「거울의 階層性 : 日本列島 古墳時代 前期」, 『청동거울과 고대사회』, 복천박물관, 2010, 105-109쪽.

같은 궤적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당시 한반도 각 지역의 주민들이 직면했던 그들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몇몇 곳에서 동경 부장 전통의 명맥이 끊긴 이후에 일본열도로부터 왜경을 수입하면서까지 고분에 동경을 부장한 사례들[54] 역시 그 집단들의 필요에 따른 선택의 결과였을 것이다.

한경은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원-낙랑-한반도-일본열도 간 연결고리를 재생산하는 중요한 매개물이었다. 따라서 한경을 소비와 유통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한다면 당시 집단들 간의 관계나 정치적 역학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경의 실제 사용방식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한다면 당시 집단들 사이에서 이 유물에 대해 어떠한 필요와 인식이 존재했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경에 대한 연구는 물품의 수용과 변용의 과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 세계 내에서 일어났던 물품 수용과 변용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가능하게 해준다.

54) 전남도, 경남, 경북지역의 11개소에서 이것이 확인되며, 이 무덤들이 중에 내륙에 위치한 것들도 있다(이유진, 「5~6세기 한반도 출토 왜경(倭鏡)의 성격」, 『청동거울과 고대사회』, 복천박물관, 2010. 161쪽)

참고문헌

<국문>

고일홍, 「고고학 해석의 지평 넓히기 -“고고학 자료”에 대한 다양한 인식 검토-」, 『인문논총』 68, 2013.

고일홍, 「고대 한반도 해상교류의 새로운 이해 —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5(2), 2016.

고일홍, 「고고학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외래유물유통망 검토: 영남지역 무덤 출토 오수전의 해석을 위한 융복합적 시도」, 『아시아리뷰』 11(1), 2021.

김권구, 권순철, 황종현, 「경산 갑제동 발견유물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 51, 2018.

김병준,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 네트워크와 使行 교역」, 『한국상고사학보』 106, 2019.

金鉉珍, 『영남지역 출토 한식경의 제작과 교역』,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박선미, 「고고학 자료로 본 위만조선의의 문화 성격 -평양 일대의 고분을 중심으로 -」, 『東洋學』 53, 2013.

성정용, 「마한세력의 성장과 중국 군현과의 관계」, 『마한의 성장과 경기지역』, 경기도, 2017.

시미즈 야스지, 「거울의 階層性 : 日本列島 古墳時代 前期」, 『청동거울과 고대사회』, 복천박물관, 2010.

오영찬, 『낙랑군 연구』, 사계절, 2006.

윤광수, 「토성동 486호 나무곽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4-4, 1994.

이양수, 「연호문(連弧文)의 제도와 삼한경(三韓鏡)의 기술 계보」, 『문화재』, 2021.

이유진, 「5~6세기 한반도 출토 왜경(倭鏡)의 성격」, 『청동거울과 고대사회』, 복천박물관, 2010.

이재현, 「남한출토 낙랑관련 유물의 현황과 성격」, 『낙랑의 고고학』, 한국상고사학회, 2005.

이청규, 「“茶戶里遺蹟의 靑銅器와 辰弁韓」, 『茶戶里 遺蹟 發掘 成果와 課題』, 국립중앙박물관, 2008.

이청규, 「남한지역 청동기 철기문화 전환에 대한 논의」, 『신라문화』 51, 2018.

이희준,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영남고고학보』 58, 2011.

정인성, 「弁韓伽倻의 對外交涉」,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2003.

타카쿠 겐지, 「樂浪古墳出土의 銅鏡」, 『考古歷史學志』 15, 1999.

홍인국, 「동북아지역 초기 동경의 기원과 전개」, 『白山學會』 104, 2016.

홍인국, 「고대 한·중 출토 한경(漢鏡)의 부장배경 비교」, 『선사와 고대』 64, 2020.

<영문>

Guo, Y., “Affordable Luxury: The Entanglements of Metal Mirrors in Han China (202 BCE-220 C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박사학위논문, 2016.

Thote, A., “Burial Practices in the Chu Kingdom in the Light of Recent Discoveries: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Exploring China’s Past: New Discoveries and Studies in Archaeology and Art,* London: Saffron, 1999.

Tseng, L., Representation and Appropriation: Rethinking the TLV Mirror in Han China, *Early China* 29, 2004.

【토론문】

“고대 동아시아의 물품이동과 그 영향: 한경의 사례”에 대한 토론문

宋 眞*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여 집단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주지 주변에 경계를 만들어 스스로와 ‘他者’를 구분하였다. 신석기시대 사람들도 자신의 공동체의 외연에 垓字나 담을 만들어 외부와의 경계로 삼았는데, 陝西省 姜寨 유지의 외연에 環壕가 확인되는 점은 그 예이다. 초기 취락 주위의 경계는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의 공동체를 방어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경계를 통과하는 문을 중시하고 궁전의 문에 犧牲이나 무기를 묻고 악귀의 침입을 막는 의식을 거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초기사회의 경계 역시 단순한 방어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상이한 집단이나 지역을 구분하는 한계로서의 경계는 문화·언어·인종·종교 등의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성격을 띠게 될 뿐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지리 공간에 형성된 정치적 경계는 각 왕조의 지배 영역 변화에 따라 결정되고, 경계의 성격 역시 그에 따라 좌우된다. 정치적 경계는 때로 문화적 혹은 민족적 경계와 일치하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본 연토회의 주제는 ‘동유라시아 세계의 물품이동과 문화변용’인데, 지리 공간에 형성된 정치적 경계를 넘나드는 물품의 ‘교류’와 그에 따른 문화변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 중 인적 교류는 경계를 둘러싼 두 집단, 혹은 두 세계가 실질적으로 만나야 하지만, 물품·정보·기술 등은 ‘침묵의 교역’과 같이 실질적인 인적 접촉이나 경계 출입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1] 가령 경계를 넘는 물품의 이동 문제를 고찰할 때 서로 다른 집단이 어떤 형태로 물품을 주고받았는지, 전달 주체와

* 공주대학교

1) 金秉駿, 「古代中國의 西方 전래문물과 崑崙山 神話」, 『古代中國의 理解』 5집, 2001 참조.

수용 주체는 확인 가능한지, 물품이 아닌 제작 기술이나 정보만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만, 동시기 문자 기록이 없는 고대 사회의 경우 고고 조사를 통한 물질자료 분석을 통해 그 양상을 추정하는 수밖에 없기에 교류의 구체적 실상을 밝히기는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발표자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중국계 銅鏡 중 漢代 동경(이하 '漢鏡')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인간이 '스스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호작용의 대상물로서 漢鏡이라는 물질문화를 이해하고자 했다. 곧 한반도 주민들이 漢鏡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으며, 그러한 상호작용이 개인 정체성의 재생산, 나아가 사회의 재구성에 기여한 바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크게 세 지역, (1) 대동강 유역 평양 일대 (2) 한반도 남부지방: 서남부 지역 (3) 한반도 남부지방: 동남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漢鏡의 실제 사용방식을 비교하였다.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확인되는 漢鏡의 사용방식에 대해 발표자는 한반도 각 집단, 혹은 개인의 漢鏡에 대한 필요와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 '의도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발표자는 최근 영남지역 무덤 출토 오수전의 이해를 위해 고고학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외래유물 유통망을 검토하였다. 영남지역 발견 오수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래유물인 중국계 銅鏡, 곧 漢鏡 역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유통망을 시각화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2] 본 발표문에서는 漢鏡의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으나, 漢鏡은 영남지역 발견 외래유물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유통되었으며 漢鏡이 출토된 유적은 외래유물 유통망에서 '연결 중앙성'이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전 논문의 분석 결과는 한반도 발견 漢鏡을 이해할 때 본 발표문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주요 성과이다. 다만, 기발표 논문에 비해 본 발표문은 전체 주제에 맞추어 한반도에서의 '한경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비교적 큰 주제를 세부적인 시기 구분 없이 서술하였기 때문에, 다소 성급하게 유형화하거나 일반화한 면이 없지 않다. 이후 발표자가 본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까 하여 이하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외래물품의 변용을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물품의 전형(혹은 원형)을 바르게 설정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논의 진행을 위해 한경의 전형적인 사용방식을 "(중국 중원 지역에서) 동경 한 매를 관 내부에 부장하는 것"으로 설정하

2) 고일홍, 「고고학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외래유물 유통망 검토: 영남지역 무덤 출토 오수전의 해석을 위한 융복합적 시도」, 『아시아리뷰』 11-1, 2021.

고, 한반도의 (1)~(3) 지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였다. 그중 (1) 지역의 경우 대체로 전형적인 사용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非전형적 사례도 병존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차이는 한반도 (1) 지역 구성원인 중원 이주민 혹은 토착민의 '선택과 실천의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곧 (1) 지역 구성원들이 한경의 전형적 사용방식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정체성을 재생산하기 위한 또는 자신의 새로운 지배체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선택'으로서 한경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우선 발표자가 설정한 (1) 지역은 고조선 멸망 후 한 郡縣이 설치된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사실상 중국 왕조의 변군에 속한다. 최근 발견된 진한시대 간독 자료에 근거하면 전국 말 이래 진에서는 비록 변경에 위치한 縣일지라도 내지와 동일한 군현 지배를 적용하였고, 이는 한 대 낙랑군 역시 마찬가지였다.[3] 이런 점에서 (1) 지역은 발표자가 설정한 '중국'에 해당한다. 그리고 진한제국은 선사시대부터 각 지역에서 상이하게 발전한 문화 전통이 잔존한 상태에서 그 다양성과 통합성을 기초로 성립되었고, 그 결과 한대 각 지역에는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이 온존하였다. 따라서 銅鏡의 '비전형적' 사용 사례는 한대 중국 내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다. 가령 陝西省 安塞縣 王家灣 漢墓에서 발견된 銅鏡은 발견 당시 양분되어 반쪽은 남성 묘주의 머리 부분에, 나머지 반쪽은 여성 묘주의 머리 부분에 각각 놓여있었다.[4] 아울러 발표자도 인정하듯 중원 지역에서도 시기와 사용 계층에 따라 '비전형적' 사용 사례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중국 내지에서 확인되는 銅鏡의 '비전형적' 사용 사례 역시 개개인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선택과 실천 행위'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둘째, 분석한 외래물품은 문화변용 현상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분석 대상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수전과 달리 銅鏡은 개인의 선호와 기호에 따라 그 용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시기 국가에서 정한 제도나 규정이 아닌 장례 문화나 풍속에 영향을 받아 제작·사용하였던 물품이기에 이를 분석하여 문화변용 현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무덤에서 출토된 한경은 기본적으로 한대 死後 내세관에 기초한 장례

3) 李成珪, 「秦 帝國 縣의 組織과 機能: 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3-1, 2014; 김병준,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邊縣과 군현지배」, 『韓國古代史硏究』 78, 2015, pp.144-159.

4) 楊宏明·謝妮婭, 「陝西安塞縣王家灣發現漢墓」, 『考古』 1995-11.

용품이다. 전국시대 死靈이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였던 용구를 明器로서 부장하거나 조상이 후손에게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厚葬하는 풍습이 생겨났다. 이러한 내세관은 冥界에 보내는 문서 형식을 띤 다양한 형태의 告地書·買地券·鎭墓文에도 반영되었다.[5] 그런데 이러한 한대 喪葬 문서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문화적 편차가 확인된다.[6] 비단 告地書·買地券·鎭墓文과 같은 한대 喪葬 문서뿐 아니라, 明器의 일종으로 부장된 漢鏡 역시 시기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 '전형'을 일반화하여 그 '변용'을 찾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동시기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나 사회의 문화변용 현상을 물질자료만으로 고찰하는 경우, 화폐와 같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해 형태와 용도가 정해지는 물품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

셋째, 외래물품을 수용하는 주체는 해당 사회의 특징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는가의 문제이다. 발표자는 漢鏡의 수용 주체를 '한반도 주민'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전술한 대로 적어도 (1) 지역의 구성원은 동일선상에서 '한반도 주민'으로 범주화할 수 없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지역인 (2)·(3)에서 외래유물이 출토된 유지의 묘주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추정한다면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발표자는 기발표 논문에서 영남지역 무덤에서 출토된 외래유물의 유통망을 네트워크 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각 유지의 연결 중앙성과 위세 중앙성 값을 추출하여 유통망에서 해당 유지가 갖는 위상을 설명하였다. 외래유물 유통망에서 연결 중앙성과 위세 중앙성이 나타내는 의미는 해당 유지의 묘주가 갖는 사회적 대표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발표자의 추가 설명을 듣고 싶다.

---

5) 李成九, 「漢代 死後世界觀」, 『中國古中世史硏究』 38, 2015.

6) 尹在碩, 「중국 고대 <死者의 書>와 漢代人의 來世觀-鎭墓文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90, 2014

【제2발표】

物品의 전래와 문화 변동 사이

— 印度像의 流入에서 印度風의 출현까지, 그 과정에 개입하는 '힘'과 媒材 연구 —

蘇 鉉 淑*

Ⅰ. 머리말
Ⅱ. '印度風 출현과 玄奘 전래 佛像의 관계' 再思
Ⅲ. 印度使行團에 의한 視覺資料의 流入과 流布
Ⅳ. 勅撰『西域志』의 유포와 문화 변동
Ⅴ. 문화 변동과 皇權: 맺음말에 대신하여

Ⅰ. 머리말

당은 정관 14년(640) 투루판 분지의 麴氏高昌國을 병탄한 이래, 안사의 난이 발발하는 천보 14년(755)까지 실크로드 동부의 경영에 매진했다. 이 과정에서 서방의 정보와 문물이 다량으로 당에 전래되었다. 불교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많은 구법승들이 인도를 다녀왔으며, 서역 경영과 관련하여 많은 사행단이 서역을 왕래했으며, 또 소그드인 등 많은 서역 호인들이 유입되었다. 그들과 함께 인도의 불교 聖物이 전래됨으로써 새로운 불교 도상과 양식이 출현하는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도풍[1]의 시각문화가 개화했다.

7세기 후반부터 불교 시각문화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인도풍의 주요 요인으로 정

* 덕성여자대학교 연구교수

1) 본고에서 말하는 '인도풍'은 미술사 영역에서 말하는 양식은 물론, 새롭게 전래된 도상도 포함한 총칭으로 사용한다.

관 19년(645) 17년의 인도여행을 마치고 장안으로 귀국한 玄奘(602~664)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즉, 그가 귀국할 때 가지고 온 7구의 소형 불상 등이 새로운 인도풍의 유행을 이끌었다고 본 것이다.[2] 그런데 이 7구에 대한 중국 내 모사나 유행 관련 기록이 7세기 후반 저록에 전혀 출현하지 않고 관련 도상으로 추정할 만한 유물도 거의 없는 점, 그리고 불교 시각문화에서 장안 이외의 東都 낙양이나 기타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도풍의 본격적인 확산은 670년대부터야 이루어지는 점 등은 이런 주장을 재고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3] 심지어 7구 가운데 하나인 立像 형식의 우전왕상이 650년대부터 낙양에서 다량으로 출현하는 倚坐 형식의 우전왕상과 전혀 다르다는 점은 현장이 가지고 온 7구의 불상이 '과연 새로운 시각문화의 창출에 중요한 기여를 했을까'라는 의문조차 불러일으킨다.

현장이 가지고 온 7구의 불상은 당에서 적극적인 문화 변동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번역경전이 황권과 결합하여 천하에 널리 유포된 것과 달리 시각문화의 영역에서는 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걸까? 여기에 상의 유포를 막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6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인도풍의 시각문화는 어떤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그리고 어떤 물품의 유통에 의해 가능했던 걸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문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인도풍 출현의 또 다른 요인으로 왕현책의 역할도 지적되었다. 그는 태종 정관 17년(643)부터 고종 때까지 사신으로서 20여 년 동안 서너 차례 인도를 다녀왔다. 그

---

2) 대표적인 사례가 龍門石窟 敬善寺洞 부근에 표현된 인도풍의 優塡王像을 현장과 관련시키거나, 장안성 일대에서 출토된 '인도불상'의 명문을 가진 소형 塼佛을 현장의 將來品으로 보는 것이다. 우전왕상에 대한 논의는 본고 Ⅱ장을 참조. 전불의 인도풍을 현장과 관련시킨 연구로는 肥田路美, 『初唐佛教美術の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11, pp.55-90; 배재호, 「玄奘의 귀국과 摩訶菩提寺 正覺像: 西安 출토 善業泥 佛像을 중심으로」, 『美術資料』95, 2019, pp.193-211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전불은 왕현책 등의 사행단에 의해서도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현장의 공로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3) 돈황 막고굴의 경우 정관 16년(642)의 제기가 있는 제220굴 벽화에서 '육체 표현에의 의지와 허리를 비튼 움직임이 강한 보살상, 풍만한 얼굴 등 서역과 인도 영향이 강하게 출현하고 있다. 과거와 전혀 다른 대화면의 구도와 새로운 제재, 인도 및 서역풍이 강한 인체 표현 등의 돌연한 출현은 장안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642년 현장의 귀국 이전 장안에 이미 인도풍이 등장했으며, 장안의 인도풍과 현장이 반드시 대응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준다. 한편, 220굴에서 보이는 새로운 경향은 막고굴에서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돈황에서 대화면의 구도, 인도 및 서역풍이 강한 인체 표현은 무측천시기의 당대 굴, 즉 7세기 말에 이르러 비로소 출현한다(百橋明穗, 「敦煌莫高窟の繪畵」,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 第3卷 三國·南北朝』, 東京: 小學館, 1999, p.197).

의 西行은 현장의 개인적인 인도구법행과 달리 칙명에 의한 使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서역에서 가져온 물품은 현장의 그것보다 훨씬 다양했을 것이다. 게다가 사행단에는 뛰어난 화공들이 포함되어 서역의 불상과 풍물 등을 모사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 사행단에 의해 서역 물상을 모사한 2차원적 시각 자료들도 함께 유입되었다. 현장이 가져온 7구 불상의 유포 관련 기사가 거의 없는 반면, 왕현책이 인도에서 베껴 그려온 불상은 당 안팎에서 널리 모사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드가야 正覺像과 인도 摩伽陀國의 佛足이다. 정각상은 '사람들이 다투어 모사'했으며, 불족은 장안의 普光寺와 오대산, 나아가 일본까지 유포되었다. 두 사례는 7세기 후반 새로운 시각문화의 출현에 왕현책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화 변동의 공로를 왕현책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그의 사행이 칙명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간과한 것이다.

왕현책 등 서역 사행단에 의해 기록되고 모사된 시각자료들은 칙명에 의해 총100권으로 집대성되었다. 고종의 명으로 666년 여름 '최종적으로' 완성된 『西域志』60권과 圖40권이다. 도세가 『법원주림』(668)에서 '『서역지』에서 언급한 인도의 불교 聖跡이 너무 광대해 한 권으로 간추렸다'고 한 데서 보듯, 『서역지』는 편찬 이후 바로 유포되었다. 또한 敦煌과 일본의 <瑞像圖>에 보이는 공통적인 도상의 존재는 그 연원으로서 칙찬 『서역지』의 존재와 그 유포를 시사한다. 문화 변동을 유발한 媒材로서 왕현책의 모사도와 그것을 토대로 편찬된 『서역지』의 특이점은 이것이 현지에서 가지고 온 직접적인, 혹은 3차원적인 물품이 아니라, 인간의 시지각을 통해 재현된 2차원적 그림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발표에서는 화가에 의해 재현된 2차원적 이미지, 즉 圖畵가 재현 및 이동의 용이성으로 인해 문화 변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印度風 출현과 玄奘 전래 佛像의 관계' 再思

일반적으로 7세기 중반부터 출현하는 인도풍의 등장 배경을 현장 등 인도구법승의 귀향에 의한 상의 전래, 왕현책으로 대표되는 칙명에 의한 인도사행단의 활동, 셋째, 당의 서역경영으로 인한 서역인의 활발한 유입 등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현장과 왕현책의 서국행으로 추정하지만,[4] 연구는 장안 塼佛과 낙양 優塡王像을 토대로 현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왕현책 등 서역사행단과 그들의 활동을 집대성한 『서역지』의 역할은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간과되었다. 심지어 보드가야 정각상 유행의 공로를 이 상을 모사해온 왕현책이 아니라 『大唐西域記』의 저자인 현장에게 돌리는 등, 현장의 역할이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

현장은 645년 정월 25일, 629~645년까지 17년의 인도와 서역의 구법여행을 마치고 장안성에 도착했다. 당시 그는 인도에서 150립의 불사리, 7구의 불상, 520상자 657부의 경전을 가지고 귀국했다. 이것들은 먼저 雀街大路의 남쪽에 진열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곧바로 弘福寺에 안치되었다.[5] 당시 현장이 가지고 온 7구의 불상은 '擬摩揭陀國 前正覺山龍窟留影金佛像, 擬鹿野苑 初轉法輪檀像, 擬憍賞彌國 出愛王思慕如來刻檀寫眞像, 擬劫比他國 如來自天宮下降寶階銀像, 擬摩揭陀國 鷲峯山說『法花』等經金像, 擬那揭羅曷國 伏毒龍所留影檀像, 擬吠舍釐國 巡城行化檀像' 등이다. 재료는 금은 등의 금속과 檀木을 사용했다. 크기는 1척~4척 사이며, 대부분 3척 이상이다.[6] 7구의 상은 현장의 『대당서역기』(646년), 慧立과 彦悰에 의한 『大慈恩寺三藏法師傳』(688년. 이하 『慈恩傳』으로 약칭)[7], 그리고 불전목록인 『開元釋教錄』(730년)[8]과 『貞元新定釋教目錄』(799년)[9]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4) 肥田路美, 『初唐佛教美術の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11, p.68

5) "時, 帝在洛陽. 勅西京留守梁國公元齡脩有司迎待, 是日宿于漕上. 十九年春三月, 景子留守自漕, 奉迎於都亭. 有司頒諸寺帳輿花幡, 送經於宏福. 翌日大會於朱雀街之南, 陳列法師於西域所得經像舍利等. 其梵文凡五百二十夾, 六百五十七部, 以二十馬負而至. 自朱雀至宏福, 十餘里, 傾都士女, 夾道鱗次, 若人非人, 曾不知幾俱胝矣." 「大唐三藏大遍覺法師塔銘(并序)」, 『玄奘三藏師資傳叢書 卷上』, 『卍新纂大日本續藏經』 第88冊, No.1651-2, p.376ab.

6) "請得如來肉舍利一百五十粒; 金佛像一軀, 通光座高尺有六寸; 擬摩揭陀國前正覺山龍窟影像金佛像一軀, 通光座高三尺三寸; 擬婆羅疐斯國鹿野苑初轉法輪像刻檀佛像一軀, 通光座高尺有五寸; 擬憍賞彌國出愛王思慕如來刻檀寫真像刻檀佛像一軀, 通光座高二尺九寸; 擬劫比他國如來自天宮降履寶階像銀佛像一軀, 通光座高四尺; 擬摩揭陀國鷲峯山說《法花》等經像金佛像一軀, 通光座高三尺五寸; 擬那揭羅曷國伏毒龍所留影像刻檀佛像一軀, 通光座高尺有三寸; 擬吠舍釐國巡城行化像" 『大唐西域記』 권12, T51, No.2087, p.946; [唐]慧立 本, 彦悰 箋,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권6, T50, No.2053, p.252b. 한편 현장 입적 후 곧바로 저술된 冥詳 撰, 『大唐故三藏玄奘法師行狀』 권1에서는 7구의 상을 모두 거론하지 않고 "於西域請轉法輪像等七軀, 經論六百五十七部, 佛肉舍利一百五十粒."이라 하여 '녹야원의 전법륜상을 비롯한 7구'로 간단히 서술했다(T50, No.2052, p.218. T는 『大正新修大藏經』을 지칭한다. 이하 동일).

7) 『자은전』은 慧立이 5권을 지어서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그의 말년에 발굴한 것을, 혜립 사후인 688년에 彦悰이 다시 대폭 보완하여 10권으로 완성시킨 것이다.

8) [唐]智昇 撰, 『開元釋教錄』 권8, T55, No.2154, p.558.

9) [唐]圓照 撰, 『貞元新定釋教目錄』 권11, T55, No.2157, p.858.

648년 황태자(훗날의 고종)가 모친 문덕황후를 위해 건립한 자은사가 완성되자 7구의 불상은 현장이 가지고 온 경전과 불사리, 그리고 200여 구의 繡像과 畵像 , 2구의 금은불상 등과 함께 자은사로 이전되었다. 이 때 황제는 九部樂을 보내고, 또 경성의 여러 사찰에서 幡蓋와 음악을 보내어 이 날 행사를 축하하도록 했다. 그리고 황태자 등과 함께 安福門 누각에 올라 향로를 집고 의식에 참여했다. 이날 '불법 동전 이후 최고의 성황이라는 찬탄'을 받은 장면을 보기 위해 도로 양 옆에는 수만 명이 운집했다.[10] 永徽 3년(652)년에는 經像을 안치하고 화재에 방비하기 위해 현장이 고종에게 大雁塔 건립을 주청하였으며, 그 해 塼塔이 완성되자 그가 가져온 불경, 불상, 사리 등이 그 안에 안치되었다.

장안성에서 열렬하게 환영 받았던 7구의 상은 자은사 안치 이후 황제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하다. 현장의 神話化가 상당히 진전된 시기에 저술된『자은전』(688)에도 이 상들의 모사와 유포 기록이 없으며, 7세기 중반과 후반의 다른 저작들에서도 7구의 행방과 영향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8세기 초 惠詳의 저술인『弘贊法華傳』에서 '현장이 가져온 마가다국 영취산 설법상이 중국에서 널리 모사되었다'라고 한 것이 유일하다.[11] 8세기 초는 현장의 신화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이므로,[12] 이 기록이 7세기 중반의 정황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7구의 상과 달리 현장이 번역한 경전은 황제의 칙령에 의해 초사되어 전국적으로

---

10) "(十二月)己巳 , 旦集安福門街 , 迎像送僧入大慈恩寺。至是陳列於通衢 , 其錦綵軒檻 , 魚龍幢戲 , 凡千五百餘乘 , 帳蓋三百餘事. 先是內出繡畫等像二百餘軀 , 金銀像兩軀 , 金縷綾羅幡五百口 , 宿於弘福寺 , 并法師西國所將經像舍利等 , 爰自弘福引出 , 安置於帳座及諸車上 , 處中而進. 又於像前兩邊各嚴大車 , 車上竪長竿懸幡 , 幡後即有師子神王等為前引儀. 又莊寶車五十乘坐諸大德 , 次京城僧眾執持香花 , 唄讚隨後 , 次文武百官各將侍衛部列陪從 , 大常九部樂挾兩邊 , 二縣音聲繼其後 , 而幢幡鐘鼓訇磕繽紛 , 眩日浮空 , 震曜都邑 , 望之極目不知其前後. 皇太子遣率尉遲紹宗、副率王文訓領東宮兵千餘人充手力 , 勅遣御史大夫李乾祐為大使 , 與武侯相知撿挍. 帝將皇太子後宮等於安福門樓手執香爐目而送之 , 甚悅. 衢路觀者數億萬人."『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권7, T50, No.2053, p.259bc.

11) "以貞觀之初, 發迹西邁, 周旋往返一十七年. 所獲經論, 具如別記. 於彼中天竺國, 請得擬摩揭陀國鷲峯山說法花經金像一軀, 通光座高三尺. 色相超挺, 妙絶人功, 頂戴瞻仰, 實萬恒倍. 至止之後, 摸寫無窮矣." [唐]惠詳 撰,『弘贊法華傳』권1, T51, No.2067, pp.13ab.

12) 남동신은 현장이 신화화되는 양상을 편찬 연대가 다른 세 개의 저술『대당서역기』,『자은전』, 도선의『續高僧傳·玄奘傳』을 통해 살펴보았다(「玄奘의 印度 求法과 玄奘像의 추이-西域記, 玄奘傳, 慈恩傳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불교학연구』20, 2008, pp.191-241) 그는 그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료로 인식되어온『자은전』이 현장 사후 20여년이 지나면서 현장의 신화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저술된 것으로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p.192-193).

유포되었다. 정관 22년(648) 『瑜伽師地論』 100권이 번역되자 태종은 담당관리에게 새로 번역한 경론을 9본 베껴서 雍州, 洛州, 相州, 兗州, 荊州, 楊州 등 9州에 분여하여 널리 유포하게 했으며,[13] 현장의 청을 받아 『유가사지론』의 서문을 써주었다. 이것이 <大唐三藏聖教序>로, 태종은 이 글을 직접 필사하고, 그때까지 현장이 번역한 모든 경전의 앞머리에 삽입하도록 詔를 내렸다. 황태자(고종) 역시 태종의 <대당삼장성교서>를 읽고 <述聖記>를 써주었다. 황권은 현장의 경전 번역을 매우 중시했지만, 그가 인도에서 갖고 온 불상과 사리에 대한 황권의 개입은 찾을 수 없다.

현장과 동시기에 활동했던 道宣(596~667)과 그의 同門으로 서명사에 함께 거처했던 道世(?~668)의 기록에서도 현장이 갖고 온 7구에 대한 설명이나, 이 상들의 모사와 유포에 대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도선과 도세는 護法의 목적에서 인도와 중국의 瑞像과 靈像을 다수 집록하고 그 상들의 유포를 다수 거론했지만, 현장이 가져온 7구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이다. 심지어 도세는 『법원주림』 권76에서 『王玄策行傳』을 인용, 7구 가운데 하나인 吠舍釐國(毘耶離國, 즉 바이샬리국) 巡城行化檀像 관련 고사를 언급했지만, 현장이 이 상을 중국에 갖고 왔다는 사실은 적지 않았다.[14]

이런 현상이 출현한 배경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실제 이 상들이 모사·유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며, 둘째는 유포되었으나 기록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도선은 중국과 인도를 직접 연결하는 호법상으로 '중국에서 창안된' 阿育王像을 숭배했으므로,[15] 인도에서 새롭게 전래된 불상에 호의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세는 『법원주림』에서 왕현책이 인도에서 그려온 불상의 고사 및 그것들의 중국 내 유포를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즉 두 사람이 현장이 가져온 7구 불상의 확산을 고의로 싣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장이 가져온 불상은 실제로 유포되지 못하고, 자은사탑 안에 사리와

---

13) "貞觀二十二年幸玉華宮, 追奘至, 問翻何經論. 答正翻瑜伽. 上問, 何聖所作明何等義. 具答已令取論自披閱. 遂下勅, 新翻經論寫九本, 頒與雍洛相兗荊楊等九大州. 奘又請經題. 上乃出之名大唐三藏聖教序. 於明月殿, 命弘文館學士上官儀, 對群僚讀之." [唐]道宣 撰, 『續高僧傳』 권4 「玄奘傳」, T52, No.2060, p.456a; [唐]道宣 撰, 『廣弘明集』 권22, 玄奘, 「重請三藏聖教序啟」, T52, No.2103, p.262c.

14) [唐]道世 撰, 『法苑珠林』 권76, T53, No.2122. p.855a. 이 상은 돈황 막고굴 제231굴, 237굴, 454굴 등에 서상으로 그려져 있다. 현장은 이 상을 가져왔지만, 『대당서역기』 권7 '吠舍釐國'조에는 이 상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張小剛, 『敦煌佛教感通畵研究』,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15, pp.42-48).

15) 蘇鉉淑, 「唐 高宗의 阿育王像 複製와 流布-道宣의 역할 및 諸州官寺制의 기능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57, 2021.

함께 '조용히'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장이 갖고 온 인도상들이 유포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고종과 武周期에 낙양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조성된 우전왕상이다. 당시 장안성의 大興善寺에는 梁 武帝 때 인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荊州 大明寺의 우전왕상을 模刻한 우전왕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과 계통을 달리 하는 인도풍의 倚坐形 우전왕상이 영휘 6년(655) 용문석굴에서 처음 출현해 705년까지 낙양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이 상들은 동일한 粉本을 사용하여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

낙양 우전왕상의 분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현장이 가져온 7불 가운데 하나인 '憍賞彌國 出愛王思慕如來刻檀寫眞像'으로 보는 것과, 그것과는 다른 계통의 불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16] '교상미국 출애왕사모여래각단사진상'은 속칭 우전왕상으로 불린다. 출애왕, 즉 우전왕이 석가모니 재세 당시 도리천에 올라가신 석가모니를 사모하여 만든 것으로, 불교 역사상 가장 처음 만들어졌다고 전승되는 '제1불'이다. 전자의 관점은 이 상의 완연한 인도풍에 주목하고, 당시 현장과 황권의 밀접한 관계로 미루어 현장이 갖고 온 7불이 당대 인도풍의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17] 전자가 구체적 근거 없이 개연성에 기대고 있는 반면, 후자는 우전왕상 및 그 상이 조성된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기되었다. 『대당서역기』 권12에 瞿薩旦那國 媲摩城에 '인도 교상미국에서 날아 온 우전왕상'이 입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돈황 막고굴 제231굴과 237굴의 "中天竺憍焰彌寶檀尅(刻)瑞像" 방제를 가진 우전왕상은 모두 입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장이 가지고 온 교상미국의 불상은 낙양의 의좌형과는 달리 입상이 거의 확실하다.[18] 또 낙양의 우전왕상이 중인도 조각보다는 동남아조각과의 연관상이 큰 점,[19] 용문석굴 第429龕의 우

16) 낙양 우전왕상의 연원에 대한 논의는 濱田瑞美, 『中國石窟美術の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12, pp.207~208 참조.

17) 李文生, 「我國石窟中的優塡王造像-龍門石窟優塡王造像之早之多爲全國石窟之最」, 『中原文物』1985년 제4기, pp.102-106; 稻本泰生, 「優塡王像東傳考-中國初唐期を中心に」, 『東方學報』69, 1997; 曾布川寬, 「龍門石窟における唐代造像の研究」, 『東方學報』60, 1988, p.; 曾布川寬, 「隋·唐の石窟彫刻」,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 第3卷 三國·南北朝』, 東京: 小學館, 1999, p.184.

18) 肥田路美, 『初唐佛教美術の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11, p.36. 한편 張小剛은 『敦煌佛教感通畵研究』(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15, pp.14-15)에서 돈황 막고굴의 입상형 우전왕상이 인도 우전왕상을 충실히 모사한 게 아니라고 봤다. 그 근거로 『高僧傳』 권1에서 중국 최초의 우전왕상을 '釋迦倚像'으로 적은 데서 찾았다. 즉, '석가의상'을 '의좌형 불상'으로 잘못 안 것인데, 송대 이전까지 倚像은 의좌 형태가 아니라 立像을 의미했다.

전왕상감에 새겨진 『金剛般若經』이 현장 번역의 『能斷金剛般若波羅蜜經』이 아닌 구마라즙 번역의 『金剛般若波羅蜜經』을 채택한 점,[20] 그리고 '교상미국 출애왕사모여래각단사진상'과 조상기나 문헌기록에 보이는 '우전왕상'이라는 칭호 사이의 위화감 등,[21] 여러 가지 면에서 낙양 우전왕상에 대한 현장의 영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상이 황권에 기대어 유포되었다면, 낙양 이외의 장안과 기타 지역에서도 출현해야 하지만, 의좌형 우전왕상은 특이하게도 7세기 후반의 낙양 일대에서만 유행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인도풍에 대한 현장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찾기 어렵고, 7세기 중반과 후반 저록에서 이 7구 불상의 유포 관련 기록이 없는 반면, 동시기 서역 使行團이 현지에서 모사해온 불상은 장안을 넘어 오대산, 그리고 일본으로도 유포되었다. 왜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서역사행단이 모사해 온 도상은 어떻게 민간으로 확산하여 인도풍이라는 새로운 문화변동을 이끌어냈던 걸까.

Ⅲ. 印度使行團에 의한 視覺資料의 流入과 流布

도세는 668년 편찬한 『법원주림』에서 摩訶菩提寺, 佛影屈, 耆闍崛山, 열반지 등 석가모니 행적과 관련된 주요 聖地, 그리고 인도 불상(佛足을 포함하여) 등을 『대당서역기』, 『王玄策西國行傳』(이하 『왕현책행전』으로 약칭), 그리고 『西域志』 등을 전거로 자세히 서술했다. 『대당서역기』는 태종의 칙명을 받은 현장이 견문한 서역의 지리와 풍물 등을 기록한 것으로 646년 완성되었다. 『왕현책행전』은 태종과 고종 연간 서역 사행을 다녀온 왕현책이 661년 이후 편찬한 것으로, 『中天竺國行記』로도 불린다.[22] 인도의 산물과 풍속은 물론, 불교 관련 영이담과 불교조상 등을 글과 그

19) 岡田健, 「關于優塡王造像的若干報告-討論東南亞對中國唐代佛教造像的影響」, 龍門石窟研究所 編, 『龍門石窟一千五百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北京: 文物出版社, 1996.

20) 岡田健, 「龍門石窟初唐造像論-その二 高宗前期」 『佛教藝術』186, 1989.

21) 濱田瑞美, 『中國石窟美術の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12, p.207.

22) "中天竺行記十卷, 右此一部, 皇朝朝散大夫王玄策撰." 『法苑珠林』 권100, T53, No.2122, p.1024a; "中天竺國行記十卷, 王玄策撰." 『舊唐書』 권46, 「經籍志上」, p.2016.; "王玄策中天竺國行記十卷" 『新唐書』 권58, 「藝文志2」, p.1505. 『왕현책행전』은 661년 제3차 사행 귀국 이후부터 『法苑珠林』이 완성되기 이전인 668년까지 기간에 저술되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용삭과 인덕 연간(661~665)로 추정하기도 하며, 용삭 원년~3년(663)으

림으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며, 지금은 일실되었다. 『서역지』는 서역의 지리와 풍물 등을 집대성한 저작으로, 666년 고종의 칙명에 의해 완성되었다.[23] 이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왕현책은 643년 3월 朝散大夫衛尉寺丞 李義表의 부사로 서역사행단에 처음 참여해 647년 귀국했다. 이후 두세 차례 이루어진 사행에서 正使로 활동했다. 제2차 사행은 647년~648년에,[24] 제3차 사행은 10년 후인 현경 2년(657년)~용삭 원년(661)에 이루어졌다.[25] 도세는 왕현책이 모두 3번 사행을 다녀왔다고 했지만,[26] 용삭 3년(663) 6월~인덕 2년(665)까지 제4차 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27] 왕현책은 사행에서 서역의 지리와 물산 등의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불적을 순례하고 보드가야에 당 황제

로 추정하기도 하다. 한편 張彦遠은『역대명화기』권3「述古之秘畵珍圖」에서『왕현책행전』이 行記 10권과 그림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현경 3년 저작이라고 했는데("中天竺國圖, 有行記十卷, 圖三卷, 明慶三年王玄策撰."), 성서 연대는 오류로 추정한다.

23) "西域志六十卷, 圖畫四十卷, 右此二部合成一百卷, 皇朝麟德三年奉勅令百官撰." 『法苑珠林』 권100, T53, No.2122, p.1024a; "依奘師行傳·王玄策傳, 及西域道俗, 住土所宜, 非無靈異, 勅令文學士等總集詳撰, 勒成六十卷, 號爲西國志. 圖畫四十卷, 合成一百卷." 『法苑珠林』 권29, T53, No.2122, p.496c. 이어지는 문장에서 "至貞觀十九年冬初, 方達京師, 奉詔譯經, 兼勅令撰出西域行傳一十二卷" 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언급한 '奘師行傳'은『서역행전』12권, 즉『대당서역기』를 가리킨다.

24) 제2차 사행에 대해『新唐書』권221上「열전 46上」에서는 정관 21년인 647년으로 기록하였지만, 同卷의 또 다른 기록에서는 정관 22년(648) 왕현책이 인도로 간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마가다국의 정변과 이후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마가다국의 새 왕을 비롯한 포로들이 왕현책과 함께 당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래서 648년이 왕현책이 사행을 떠난 시기인지, 귀국한 시기인지 모호하다.『舊唐書』권3「太宗本紀」에는 제2차 사행에서 마가다국의 반란을 진압하고 새로 즉위한 왕을 포로로 한 왕현책이 귀국한 연대를 648년으로 적고 있다. 그러므로 상술한『新唐書』의 '정관 22년'은 왕현책이 사행을 떠난 시기가 아니라 귀국한 해가 되어, 제2차 사행은 647년~ 648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馮承鈞은 文獻通考에 제2차 사행이 646년으로 되어 있고 상술한 역사적 상황으로 미루어 제2차 사행을 646년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法]烈維(Sylvain Lévi) 等著, 馮承鈞 譯,『王玄策使印度記』,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13, p.2. 원글은『亞洲報』1900년 3·4月刊에 수록)

25) "王玄策西國行傳云, 唐顯慶二年, 勅使王玄策等往西國."『法苑珠林』 권16, T53, No.2122, p.405a; "又此東南往古王寺, 有佛頂骨一片.…至大唐龍朔元年春初, 使人王玄策從西國將來, 今現宮內供養."『法苑珠林』 권29, T53, No.2122, pp.497c-498a.

26) "大唐太宗文皇帝及今皇帝, 命朝散大夫衛尉寺丞上護軍李義表副使前融州黃水縣令王玄策等二十二人, 使至西域, 前後三度. 更使餘人, 及古帝王前後使人, 往來非一. 皆親見世尊說經時處伽藍聖迹, 及七佛已來所有徵祥, 靈感變應具存西國志六十卷內. 現傳流行, 宰貴共知." 『法苑珠林』 권55, T53, No.2122, p.703c.

27) 孫修身, 「唐朝杰出外交活动家王玄策史迹研究」,『敦煌研究』 1994년 3기, pp.20-25.

의 비석을 세우기도 했으며,[28] 수행한 장인들에게 불교 聖像 등을 베껴 그리게 했다. 당시 모사한 것들은 귀국 후 당에서 유통되었으며, 멀리 일본까지 확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드가야 정각상과 불족이다.

보드가야 정각상은 석가모니 성도처인 보드가야 마하보리사의 대탑 안에 안치된 항마촉지인의 좌상으로, 미륵보살이 만들었다고 전승된 塑造像이다. 현장은 『대당서역기』에서 이 상에 얽힌 흥미로운 고사를 상세히 서술했지만, 막상 이 상의 복제상은 갖고 오지 않았다. 도세도 『법원주림』에서 이 상의 고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는데, 그가 주요 전거로 한 것은 『대당서역기』가 아니라 『왕현책행전』이다.[29] 도세는 정각상의 신비로운 제작 경위를 설명한 후, 모든 도속들이 이 상을 모사하고자 했으나 그 때마다 상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각상의 복제상이 현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데, 현장의 7구 상 가운데 정각상이 포함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3차 사행에서 왕현책은 일행과 함께 마하보리사 승려들에게 상의 모사를 간청했으며, 여러 날 동안 지성으로 行道와 懺悔를 함으로써 결국 허락을 얻어 모사에 성공했다. 당시 수행했던 宋法智 등의 장인들이 매우 흡사하게 베껴 그렸으며, 이 모사본이 '京都에 이르자 道俗이 앞 다투어 모사'함으로써, 정각상은 널리 유포되었다.[30]

왕현책이 모사해 온 다른 불상들도 3차원 조형으로 변용되었다. 왕현책의 지휘 아래 제작되어 궁중에 봉안되었던 樹下彌勒菩薩塑像은 왕현책이 인도에서 모사한 그림을 粉本으로 했으며, 인덕 2년(665) 낙양의 황실사찰 敬愛寺로 이전되었다.[31] 왕현책

---

28) "又依王玄策傳云, 此漢使奉勅往摩伽陀國摩訶菩提寺立碑. 至貞觀十九年二月十一日, 於菩提樹下塔西建立, 使典司門令史魏才書."『法苑珠林』 권29, T53, No.2122, p.503a.

29) "依王玄策行傳云, 西國瑞像無窮. 且錄摩訶菩提樹像云,…又金剛座上尊像, 元造之時, 有一外客來告大眾云, 我聞募好工匠造像, 我巧能作此像. 大眾語云, 所須何物. 其人云, 唯須香及水及料燈油支料, 既足. 語寺僧云, 吾須閉門營造, 限至六月愼莫開門, 亦不勞飮食. 其人一入即不重出. 唯少四日, 未滿六月, 大眾平章不和各云, 此塔中狹迮, 復是漏身, 因何累月不開見出. 疑其所爲, 遂開塔門. 乃不見匠人, 其像已成. 唯右乳上有少許未竟. 後空神驚誡大眾云, 我是彌勒菩薩. 像身東西坐, 身高一丈一尺五寸, 肩闊六尺二寸, 兩膝相去八尺八寸, 金剛座高四尺三寸, 闊一丈二尺五寸.…其像自彌勒造成已來, 一切道俗規模圖寫, 聖變難定, 未有寫得. 王使至彼請諸僧眾, 及此諸使人至誠殷請累日行道懺悔兼申來意. 方得圖畫, 髣髴周盡. 直爲此像出其經本, 向有十卷, 將傳此地. 其匠宋法智等, 巧窮聖容圖寫聖顔, 來到京都道俗競摸."『法苑珠林』 권29, T53, No.2122, pp.502c-503a. 이어지는 문장에서 『대당서역기』를 인용해 미완성 부분을 보석으로 장식한 사실, 그리고 이 상이 보인 영험을 간단하게 서술했다.

30) 주29 참조.「 」『 』

은 그해 9월 용문석굴에도 미륵상 1구를 조성했는데,[32] 현재 상은 일실되었지만 경애사 미륵상과 동일한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경애사와 용문석굴은 궁중과 달리 개방적인 공간이므로, 이곳에 안치된 인도상의 模像은 민간에서 인도풍의 확산을 촉진했을 것이다. 한편, 보드가야에서 정각상을 모사했던 송법지는 664년 임종을 앞둔 현장의 요청으로 菩提像骨, 즉 정각상의 골조를 제작하기도 했다.[33] 당시 현장은 황실사찰 玉華寺에 머물렀고,[34] 송법지가 官匠이었으므로, 그가 현장을 위해 보리상을 만드는 데는 황제의 허가가 전제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사행단이 인도에서 모사해 온 불상은 현장이 가져온 7구의 불상과 달리, 황권의 지지 아래 3차원 상으로 제작되거나 그림으로 모사되어 유포되었다.

왕현책이 모사해 온 佛像의 동아시아 확산을 보여주는 것은 佛足圖이다. '정관 23년(649) 사행단이 마가다국 파탈리푸트라성에 있는 佛足石을 그려왔으며',[35] 이 모사본은 당에서 복제를 거듭하며 장안과 五臺山, 그리고 일본까지 확산되었다. 838~847년 당을 여행한 일본 승려 圓仁은 開成 5년(840) 오대산에 들렀다가 불족 그림을 보았다. 이것은 "장안에 있는 것을 모사한 그림이며[轉畫], 장안의 원본은 정관 연간 태종이 보낸 인도사행단이 阿育王寺의 돌 위에 있는 불족을 탑본해온 것[打得]"이었다.[36]

---

31) "敬愛寺佛殿內菩提樹下彌勒菩薩塑像, 麟德二年自內出, 王玄策取到西域所圖菩薩像為樣(原注:"巧兒張壽、宋朝塑 , 王玄策指揮, 李安貼金)" [唐]張彦遠 撰, 谷口鐵雄 編, 『校本 歷代名畵記』 권3, 東京: 中央公論出版, 1981, p.54.

32) 명문은 다음과 같다. "王玄策□□□□/□□□下及法界/(衆)生敬造彌勒像/一鋪麟德二年九月十五日" 李玉昆, 「龍門石窟新發現王玄策造像題記」, 『文物』1976년 제11기, p.94.

33) "其日又命塑工宋法智於嘉壽殿竪已. 因從寺眾及翻經大德并門徒等乞歡喜辭別"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권10, T50, No.2053, p.277a.

34) 옥화사의 전신은 옥화궁이며, 고종 영휘 연간(650~655)에 사찰로 바꾸었다. 현장은 만년에 고종의 윤허를 받아 옥화사에 머물며 번역 작업을 했으며, 이곳에서 입적하였다.

35) "(마가다국 파탈리푸트라성)其側精舍中有大石, 是佛欲涅槃. 北趣拘尸, 南顧摩揭. 故蹈石上之雙足迹, 長尺八寸, 廣六寸. 輪相華文, 十指各異. 近爲惡王金耳毁壞佛迹, 鑿已還平, 文采如故, 乃捐殑伽河中, 尋復本處. 貞觀二十三年有使, 圖寫迹來." 『法苑珠林』 권29 「感應篇·聖跡部」, T53, No.2122, p.502a. 小野勝年을 비롯해 대다수 학자는 기록 속 '정관 23년' 사행단을 왕현책의 제2차 사행단으로 추정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に見える佛教美術關係の記事について」, 『佛教藝術』44, 1960, p.6).

36) "亦有畫脚迹千輻輪相. 并書跡之根申云, 貞觀年中, 太宗皇帝送袈裟使到天竺. 見阿育王古寺, 石上有佛跡. 長一尺八寸, 闊六寸. 打得佛迹來, 今在京城. 轉畫來此安置."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3, 『大藏經補編』第18冊, No. 95, p.75b. 그러나 이 불족은 탑본이 아니라 모사되었을 것이다. 『法苑珠林』에 사행단이 불족석을 보았을 때 나쁜 왕이 불적을 훼손하

오대산 불족도의 분본이 된 장안본은 普光寺에 있었다. 奈良 藥師寺에는 天平勝寶 5年(753) 불족을 선각한 돌이 있으며, 돌의 남면 제기에 불족의 연원이 언급되어 있다.

> 당나라 사신 왕현책이 인도 녹야원의 전법륜처에서 불족을 모사하였으니, 이것이 제1본이다. 일본 사신 黃文本實이 보광사에서 모사하였으니, 이것이 제2본이다. 그것은 (京都)右京四條 一坊의 선원에 있었는데, 선원의 壇에서 신묘한 불적을 보고 삼가 모사하였으니 이것이 제3본이다. 천평승보 5년 계사년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 동안 이것을 제작했다.[37]

왕현책이 모사한 불족도가 장안 보광사에 있었으며, 이것을 黃文本實이 모사해 일본 京都 禪院에 안치했으며, 753년 이것을 다시 모사한 것이 현재 藥師寺 강당에 안치된 佛足石이다. 黃文本實은 天智天皇 8년(669) 일본의 제7차 견당사에 畵師로 참여한 인물이다. 제7차 견당사의 귀국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671년 黃文本實이 천황에게 건축과 토목에 사용하는 水臬, 즉 水準器를 헌상했다고 했으므로,[38] 그가 보광사에서 불족석을 모사한 시기는 대략 669년~671년이 된다. 보광사는 정관 5년(631) 장안성 서쪽 頒政坊에 건립된 황실사찰이다.[39] 『長安志』와 『唐會要』 등 송대 저록에서는 보광사 창건자로 태자 承乾(619~644)을 거론했지만, 고종이 황태자 시절 紀國寺 上座로 있던 승려 慧淨을 보광사 寺主로 임명하며 쓴 <諭普光寺僧衆令>에 의하면 건립자는 태종이다.[40] 보광사에는 사찰의 위상에 어울리게 당시 曇藏, 玄琬, 法

여 불족의 요철이 사라져 평평해졌다고 했기 때문이다. 주36 『法苑珠林』 권29 「感應篇·聖跡部」(T53, No.2122, p.502a) 참조.

37) "大唐使人王玄策, 向中天竺鹿野園中轉法輪處, 因見跡, 得轉寫, 搭(拓)是第一本. 日本使人黃文本實向大唐國, 於普光寺得轉寫, 搭(拓)是第二本. 此本在右京四條一坊禪院, 向禪院壇, 披見神跡, 敬轉寫, 搭(拓)是第三本. 從天平勝寶五年(753)歲次(공란)巳七月十五日, 盡廿七日, 並一十三箇日作了.(後略)"이 불족석 명문의 線圖는 祁姿妤, 「東亞佛足跡的樣式·圖像結構與風格問題」, 『藝術設計研究』 2021년 4기, p.12의 도2를 참고했다. 한편, '鹿野園' 부분의 마손이 비교적 심하며, 혹자는 이를 '丘玆國'으로 읽기도 한다. 小野勝年, 『中國隋唐長安·寺院史料集成』(京都: 法藏館, 1988)의 『史料篇』에서는 丘玆國으로(p.211), 『解說篇』에서는 '鹿野園'으로 적었다(p.136).

38) 『日本書紀』, 「天智天皇」10年 3月3日조.

39) [宋]宋敏求, 『長安志』 권10(小野勝年, 『中國隋唐 長安·寺院史料集成-史料篇』, 京都: 法藏館, 1988, pp.208-209에서 재인용)

40) "皇帝以神道設教, 利益群生. 故普建仁祠, 紹隆正覺, 卜茲勝地, 立此伽藍." 李治(高宗),

常, 明淨, 明解 등 저명한 승려들이 운집해 있었으며, 중종대에는 보광사가 장안의 官寺로 지정되어 신룡 원년(705)에는 中興寺로, 707년에는 龍興寺로 이름을 바꾸었다.[41] 한편, 태종은 631년 보광사와 함께 승건의 병 치유를 위해 道觀 西華觀을 지었으며, 이곳은 보광사와 마찬가지로 중종대에 官館이 되어 중흥관과 용흥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42] 인도에서 모사해온 불족도가 보광사에 안치되었던 것은 황실사찰의 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약사사 불족석과 동일한 불족도는『大正藏·圖像部』卷12 別紙45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그림은 일본 京都 東寺 觀智院 舊藏의 불족 도상으로, 그림 아래 제기에 이 불족석의 원류를 '정관 연간 인도 사행을 한 왕현책이 모사해 온 것'임을 밝혀놓았다.[43] 이 그림의 분본은 도당유학승 圓珍(814~891)이 858년 귀국할 때 갖고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4] 그림 제기에 '坐(地)'의 측천문자가 있어, 圓珍이 베껴온 것은 武周期(690~704), 혹은 바로 그 뒤의 짧은 기간에 제작되었던 게 된다. 7세기 말~8세기 초에도 왕현책이 모사해 온 불족이 여전히 모사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인도의 원본을 그림으로 재현한 2차원적 시각자료가 官本으로서 당에 유입되고, 이것을 다시 모사한 것들이 민간으로, 심지어 해외까지 유포되었다. 모사된 물품은 이동의 용이성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당대 불교문화에서 인도풍을 확산시킬 수 있었으며, 나아가 7~8세기 동아시아에서 통일적인 인도풍의 불교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666년 칙찬된『서역지』다.

<諭普光寺僧衆令>, [淸]董誥 等 編,『全唐文』권11, 北京: 中華書局, 1987, p.135:1 ;『續高僧傳』권3,「慧淨傳」, T52, No.2060, p.445a.

41) 小野勝年,『中國隋唐 長安·寺院史料集成-解說篇』, 京都: 法藏館, 1988, pp.136-139.「」『』

42) [淸]徐松 撰,『唐兩京城坊攷』권4(小野勝年,『中國隋唐 長安·寺院史料集成-解說篇』, 京都: 法藏館, 1988, p.139에서 재인용)

43) "(前端缺文)河神, 還安舊處, 是諸佛神力, 不可思議. 愚癡之人妄生憎惡, 種坐(地)獄業, 斷見佛因, 可悲之甚. 朝散大夫王玄策, 貞觀年中奉使婆羅門國, 於彼禮拜, 圖寫將來. 其人敦信之士, 睹跡稀奇, 願言流布, 今日得見, 斯其力也. 跡雖至此, 不見之人猶眾, 廣饒益未若圖將長廊, 令瞻仰之人生如在之敬. 其修短闊狹, 一依石本, 無所增減." 李靜杰, 佛足迹圖像的傳播與信仰(下)-以印度與中国爲中心,『故宮博物院院刊』pp.60-61에서 재인용.

44) 小野勝年,『中國隋唐 長安·寺院史料集成-解說篇』, 京都: 法藏館, 1988, p.138.

Ⅳ. 勅撰『西域志』의 유포와 문화 변동

666년 여름, 고종의 칙령으로 서역 각국의 物象을 글과 그림으로 구성한『서역지』100卷이 완성되었다.[45] 『서역지』는『西國志』로도 불렸으며, 현장의『대당서역기』,『왕현책행전』을 비롯한 사행단의 기록, 그리고 서역의 道俗이 가지고 온 것 등을 기초로 편찬되었다.[46] 이보다 앞서 소정방의 돌궐 원정으로 서역 평정이 이루어지자 고종은 서역에 사신을 파견했으며, 이들의 보고를 토대로 658년 60권의『西域國志』를 편찬케 했다.[47] 이 책은『西域圖志』,[48]『西域圖』[49] 등으로도 불렸으며,[50] 書名과 당시 '서행을 다녀온 사신이 그림으로 바쳤다'는 기록[51] 등을 통해 志와 圖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顔世明의 고증에 의하면,『서역국지』에는 康國, 吐火羅國, 罽宾, 史國 등을 포함해 11개 나라의 풍속과 물산 등을 집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소그드인의 강역인 사마르칸드 지역에 중점을 두었다.[52] 한편, 용삭 원년(661) 吐火羅道에 州縣을 설치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王名遠이『西域圖記』를 바쳤으며, 당

---

45) "西域志六十卷, 圖畫四十卷, 右此二部合成一百卷, 皇朝麟德三年奉勅令百官撰." 『法苑珠林』 권100, T53, No.2122. p.1024a; "當時奉勅令京城巧匠至中臺, 使百官諸學士監看, 令畫西國志六十卷, 圖有四十卷."『法苑珠林』 권14, T53, No.2122, p.392c.

46) "依奘師行傳·王玄策傳, 及西域道俗 住土所宜, 非無靈異, 勅令文學士等總集詳撰, 勒成六十卷, 號爲西國志. 圖畫四十卷, 合成一百卷."『法苑珠林』 권29, T53, No.2122, p.496c; "大唐太宗文皇帝及今皇帝, 命朝散大夫衛尉寺丞上護軍李義表副使前融州黃水縣令王玄策等二十二人. 使至西域, 前後三度. 更使餘人, 及古帝王前後使人, 往來非一. 皆親見世尊說經時處伽藍聖迹, 及七佛已來所有徵祥, 靈感變應具存西國志六十卷內. 現傳流行, 宰貴共知."『法苑珠林』 권55, T53, No.2122, p.703c.

47) "西域國志六十卷, 高宗遣使分往康國·吐火羅 , 訪其風俗物產 , 畫圖以聞. 詔史官撰次 , 許敬宗(592~672)領之 , 顯慶三年上."『新唐書』 권58, 「藝文志」48, p.1506.

48) "然自貞觀後 , 論次諸書 , 自晉盡隋 , 及東殿新書·西域圖志·姓氏錄·新禮等數十種皆敬宗總知之 , 賞賚不勝紀."『新唐書』 권223上, 「許敬宗傳」, p.6338.

49) "永徽初 , 拜著作郎. 與許敬宗等撰西域圖."『舊唐書』 권189上, 「儒學上·敬播傳」, p.4955.

50) 『西域志』의 편찬시기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顔世明, 「許敬宗《西域圖志》研究拾零-兼議道世《法苑珠林》的成書時間」,『圖書館理論與實踐』 2017년 2기, pp.59-72; 劉全波, 「唐《西域圖志》及相關問題考」,『中華文化論壇』 2011년 5기 참조.

51) "(현경)二年六月, 上製元首前星維城股肱論, 令敬宗等注釋, 名曰天訓 . 至三年正月五日, 修新禮成, 一百三十卷, 頒于天下 . 其年五月九日, 以西域平, 遣使分往康國及吐火羅等國, 訪其風俗物產, 及古今廢置, 畫圖以進 . 令史官撰西域圖志六十卷, 許敬宗監領之 . 書成, 學者稱其博焉 . 十月二日, 許敬宗修文館詞林一千卷, 上之."『唐會要』 권36, 「修撰」, p.656.

52) 顔世明, 「許敬宗《西域圖志》研究拾零-兼議道世《法苑珠林》的成書時間」,『圖書館理論與實踐』 2017년 2기, p.62.

시 그는 고종에게 于闐國과 페르시아 사이의 16국에 都督府와 州縣, 그리고 軍府 등 모두 319곳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53]

666년 완성된 『서역지』 100권은 선행한 두 서역지의 결정판이라 부를 만 했다. '우전국에서 페르시아 사이의 영토에 설치된 당의 都督府, 州縣, 折衝府 등 모두 378所 및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물산은 물론,[54] 석가모니가 불경을 강의한 장소와 가람유적, 7佛 이래의 온갖 徵祥, 그리고 그 영감과 變應까지 사행단들이 인도에서 본 불교관련 유적'이 모두 기록되었다.[55] 선행하는 두 서역지에 비해 인도 관련 내용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 100권본에 3번에 걸친 왕현책의 인도 사행 및 그가 인도에서 모사해 온 불상들도 대거 수록되었을 것이다.

100권본 『서역지』의 편찬은 먼저 志60권이 완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圖40권이 편찬되었다. 益州 승려 慧昱의 고사에 의하면, 도40권의 편찬은 인덕 2년(665)부터 이미 中臺에서 진행되었으며, 당시 京城의 巧匠이 모두 동원될 정도로 방대한 사업이었다.[56] 666년 고종은 泰山 封禪을 실시하고, 諸州에 寺刹과 道觀을 각각 하나씩 설치하는 諸州官寺制度를 채택하는 등, 대내적으로 황제의 천하 지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런 시기에 100권으로 완성된 『서역지』는 그것이 섭렵하는 강역과 내용으로 미루어, 서역 경영과 관련하여 당조의 천하 지배를 선언한 표지성 저작이라고 할 만 했다.

먼저 완성된 지60권은 도세가 『법원주림』을 완성한 668년 당시에 널리 유포되어, 상층계급은 이미 그 내용에 익숙해 있었다. 도세 역시 『서역지』에 정통하여, 60권본

---

53) "龍朔元年六月十七日 , 吐火羅道置州縣 , 使王名遠進西域圖記 , 並請於闐以西 , 波斯以東十六國 , 分置都督府 , 及州八十 , 縣一百一十 , 軍府一百二十六 , 仍以吐火羅國立碑 , 以記聖德 , 詔從之."『唐會要』 권73, 「安西都護府」, p.1323.

54) "依奘師行傳·王玄策傳, 及西域道俗 住土所宜, 非無靈異, 勅令文學士等總集詳撰, 勒成六十卷, 號爲西國志. 圖畫四十卷, 合成一百卷. 從于闐國至波斯國已來, 大唐總置都督府及州縣折衝府, 合三百七十八所. 九所是都督府, 八十所是州, 一百三十三所是縣, 一百四十七所是折衝府. 四洲所宜人物別異者, 並簡配諸篇非此所明. 今之所錄者, 直取佛法聖迹住持, 別成一卷. 餘之不盡者, 具存大本. 冀後殷鑒, 知有廣略矣."『法苑珠林』 권29, T53, No.2122, p.496c.

55) "大唐太宗文皇帝及今皇帝, 命朝散大夫衛尉寺丞上護軍李義表副使前融州黃水縣令王玄策等二十二人. 使至西域, 前後三度. 更使餘人, 及古帝王前後使人, 往來非一. 皆親見世尊說經時處伽藍聖迹, 及七佛已來所有徵祥, 靈感變應具存西國志六十卷內. 現傳流行, 宰貴共知."『法苑珠林』 권55, T53, No.2122, p.703c.

56) "唐麟德二年(665)…當時奉勅令京城巧匠至中臺, 使百官諸學士監看, 令畫西國志六十卷, 圖有四十卷."『法苑珠林』 권14, T53, No.2122, p.392c.

이 다루는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고 여기고 그 가운데 불교 聖迹과 부처가 머문 곳만을 따로 취해 한 권(『법원주림』 권29 「感應篇·聖跡部」를 지칭)의 간략본으로 정리하기까지 했다.[57]

그림은 문자보다 이해가 쉽고, 또 3차원의 造像보다 이동이 쉬워 유포와 확산에 유리하다. 고종 때 편찬된 『서역국지』와 『서역지』를 분본으로 했을 그림들이 官匠에 의해 그려지고, 또 모사되었다. 畵技로 재상의 지위까지 오른 閻立本(601~673)이 <서역도>를 그렸으며,[58] 100권본 『서역지』 편찬에 참여했던 范長壽도 3丈 크기의 <서역도>를 그렸다.[59] 염립본의 <서역도>는 당의 안팎에서 다수 모사되었다.[60] 吳曾은 1162년에 편찬한 『能改齋漫錄』 권12에서 '중국에서 유전되는 염립본 <서역도>의 모사본들이 高麗에서 온 모사본들과 달리, 馬도 다수 빠져 있고 翦髮한 두 사람도 없음을 지적하고, 당대부터 염립본의 <서역도> 모사본이 외국에 존재했다'고 기록했다.[61] <서역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오증의 지적으로 미루어 그림의 연원은 서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물산 등을 수록했던 『서역지』로 보아도 무방할 할 것이다.

왕현책은 "西國에 瑞像이 무궁하다"고 했는데,[62] 상술한 것처럼 서역 사행단에는 장인들이 포함되어 인도의 서상을 모사해왔다. 이것들은 官匠들이 인도의 성상을 직접 보고 모사했고, 또 칙찬된 『서역지』에 수록되었으므로 표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널리 유포되었음은 이미 보드가야 정각상과 불족에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돈황과 일본의 <瑞像圖>다.

돈황 막고굴 藏經洞에서 출토되어 현재 인도 뉴델리국립박물관과 영국박물관 등에

---

57) "依奘師行傳·王玄策傳, 及西域道俗 住土所宜, 非無靈異, 勅令文學士等總集詳撰, 勒成六十卷, 號爲西國志. 圖畫四十卷, 合成一百卷.…今之所錄者, 直取佛法聖迹住持, 別成一卷. 餘之不盡者, 具存大本. 冀後殷鑒, 知有廣略矣." 『法苑珠林』 권29, T53, No.2122, p.496c.

58) 『宣和畵譜』 권1 「道釋」에 의하면, 이 그림은 염립본이 그린 <직공도>와 함께 송대 御府에 소장되어 있었다. 陳高華 編, 『隋唐畵家史料』, 北京: 文物出版社, 1987, p.44-45 『 』「 」『 』

59) "『志雅堂雜鈔』 卷上 「圖畵碑帖」: 胡存齋向有范長壽畵西域圖 三丈餘長 徽宗題". 陳高華 編, 『隋唐畵家史料』, 北京: 文物出版社, 1987, p.77.

60) "西域圖, 王知愼亦榻之" [唐]張彦遠 撰, 谷口鐵雄 編, 『校本 歷代名畵記』 권9, 「閻立本」, 東京: 中央公論出版, 1981,

61) "閻上品, 以西域圖在所錄. 又言王知愼亦拓之, 則傳世者非一本. 此弊刻諸馬多闕, 而翦髮二人全失之. 比見摹本自高麗來, 采筆殊惡, 而馬之瀝乳者與人之翦髮者皆全. 信外國自有唐時摹完本." 陳高華 編, 『隋唐畵家史料』, 北京: 文物出版社, 1987, p.61에서 인용

62) "依王玄策行傳云, 西國瑞像無窮." 『法苑珠林』 권29, T53, No.2122, p.502c.

분할 소장된 <서상도(Ch.xxii.0023)>는 인도, 간다라,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등지의 서상을 대략 21~22구 정도 모아놓은, 일종의 도상집이다.[63] <서상도>의 편찬 시기는 대략 7~8세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7세기 말~8세기 초로 추정하며,[64] 이 가운데는『대당서역기』,『왕현책행전』, 그리고『서역지』에서 유래하는 도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65]『서역지』가『대당서역기』와『왕현책행전』등을 토대로 저술되었고『대당서역기』에는 圖가 없었으므로, 이 <서상도> 안의 관련 도상은 전체적으로『서역지』에서 유래했다고 봐야 한다. 松本榮一도 일찍이 장경동 출토 <서상도>의 상들이 정확한 묘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물 앞에서 모사한 모사본을 분본으로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그 분본으로『왕현책행전』과『서역지』등을 들었다.[66]

흥미롭게도 이 도상집의 서상과 매우 유사한 두 구의 인도 상이 최근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京都의 모 사찰에 소장된 13세기 紙本墨畵에 수록된 9존의 白描 도상 가운데 寶冠을 쓴 여래상과 의자에 앉은 미륵불상이 상술한 장경동 출토 <서상도>의 그것과 일치한다. Ch.xxii.0023의 제기와 張小剛의 연구를 기초로 이 도상의 존명을 비정하면, 보관을 쓴 불상은 인도 '摩伽陀國 放光瑞像'이고, 의좌미륵불은 '天竺國 白銀彌勒瑞像'에 해당한다. 두 상 모두『대당서역기』에 언급되어 있다.[67] 이 작품을 처음 주목한 肥田路美는 일본 승려들이 당을 유력한 후 많은 불교회화를 모사해 왔으며, 일본에서 이 모사본('唐本圖像'으로 부름)을 다시 모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京都本 역시 그런 종류로 추정하고 있다.[68] 돈황과 일본에서 동일한 도상이 출현하는 것은 두 상의 분본이 당의 중앙에서 유래함을 시사한다. 두 상 모두『대당서역기』에 언급되었으므로, 그림의 분본은『서역지』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

63) <서상도>는 Aurel Stein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후 Alexander Soper, Benjamin Rowland, Roderick Whitfield , 榮新江, 肥田路美 등에 의해 복원 및 제작 시기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張小剛,은 러시아의 에르미타쥬박물관에도 <서상도>의 일부 잔편이 소장된 것으로 추정했다(張小剛,『敦煌佛教感通畵研究』,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15, p.294).

64) 張小剛,『敦煌佛教感通畵研究』,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15, p.301.

65) 張小剛,『敦煌佛教感通畵研究』,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15, p.303.

66) 松本榮一 著, 林保堯 等 譯,『敦煌畵研究(上)』, pp.190~192(원저『敦煌畵の研究』, 東方文化學院, 1937).

67)『대당서역기』에 기록된 두 상에 대한 연구는 張小剛,『敦煌佛教感通畵研究』,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15, pp.16~22 및 pp.28~30을 참조.

68) 肥田路美, 「西域瑞像流傳到日本-日本13世紀畵稿中的于闐瑞像」,『絲綢之路研究集刊』第1輯, 北京: 商務印書館, 2017, pp.207-214.

V. 문화 변동과 皇權: 맺음말에 대신하여

현장은 647년 5월에 시작한『유가사지론』100권의 번역이 일 년 만에 완성되자, 태종에게 서문을 요청했으며, 그 서문을 경전 앞머리에 실어 大郡과 名州에 각각 한 부씩 반포함으로써 도가 헛되이 행하지 않고 법이 정체됨이 없도록 해달라고 上表했다.[69] 번역 경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황제의 지지가 절대적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런 요청을 한 것이다.[70] 황권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어 경전이 유포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중인도 승려인 阿地瞿多가 중심이 되어 영휘 4년(653)부터 1년 동안 慧日寺에서 번역된 12권본『陀羅尼集經』이다. 경전 번역에 많은 고승이 참여하고, 李世勣과 尉遲敬德 같은 조정 중신의 원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칙령에 의한 번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664년 도선이 찬술한『大唐內典錄』에 수록되지 못했다. 天冊萬歲 원년(695) 10월 24일 佛授記寺 사주인 德感 등의 上表로 비로소 국가 장경목록에 오를 수 있었으며, 비로소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다.[71] 태종 치세 당시 칙령에 의해 대총지사 승려 智通이 한역한『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咒經』은 완성본 일부가 황제의 정식 반포 이전에 누설됨으로써 유포되지 못했으며, 무측천의 칙령에 의해 비로소 천수관음 도상과 함께 전국에 반포되었다.[72]

당대 황권은 경전 뿐 아니라 불상의 제작과 유통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태종은 불상과 道教 造像의 사전 제작과 매매를 금지하는 칙을 내렸으며,[73] 666년 諸州官寺制를 실시한 고종은 '度僧이 있을 때마다 衣物과 돈 외에, 경전 및 繡像, 織成像, 幡華 등의 물품을 공급했다.'[74] 무측천과 현종 역시 繡像이나 그림의 형식으로 제주 관사

---

69) "其見譯訖經論, 請冠御製三藏聖教序, 及皇太子述聖記. 宣布遠近, 咸使聞知. 大郡名州, 各施一本. 是則道不虛行, 法無留滯. 慧雲布於遐邇, 法雨澍於中外. 皇靈享法施之福, 永永無窮." 玄奘, <玄奘法師請經論流行表>,『寺沙門玄奘上表記』, T52, No. 2119, p.820a.

70) 李愛民,『隋唐長安佛教社會史』, 北京: 中華書局, 2016, pp.89-90.

71) 李愛民,『隋唐長安佛教社會史』, 北京: 中華書局, 2016, pp.89-96.

72) [唐]智通 譯,『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序」, T.1057a, p.83bc.

73) "佛道形像, 事極尊嚴. 伎巧之家, 多有造鑄. 供養之人, 競來買購. 品藻工拙, 揣量輕重. 買者不計因果, 止求賤得. 賣者本希利潤, 唯在價高. 罪累特深, 福報俱盡. 違犯經教, 並宜禁約. 自今已後, 工匠皆不得預造佛道形像賣鬻. 其見成之像, 亦不得銷除. 各令分送寺觀, 令寺觀徒眾, 酬其價直, 仍仰所在州縣官司檢校. 敕到後十日內使盡." 太宗, <斷賣佛像敕>,『全唐文』卷9, p.110:1.

74) "朕肅纂禎圖, 丕承寶歷.…今故於彼度人, 常滿七七. 各兼衣鉢錢二百貫, 絹二百匹, 蘇參拾斛, 繡像織成像, 新舊翻譯一切經一藏, 并幡華等物." 高宗, <攝山栖霞寺明徵君碑銘>,『全

에 특정 불상과 경전을 반포했다.[75] 황권에 의한 통일 경전과 통일 상이 전국적으로 반포됨으로써 '통일성'을 기조로 한 당대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

<大秦景教流行中國碑>(781년)에는 "황제의 호응과 지지가 없다면 진리는 널리 전파되지 못한다(惟道非聖不弘)"는 대목이 있는데,[76] 이는 문화 변동과 관련한 황권의 역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西國에서 새로운 物象이 전래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산되어 사회 전반에서 문화 변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황권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했다. '중천축 승려가 무덕 연간『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의 경문과 그 도상을 가지고 왔지만 황제가 이를 중시하지 않아 도상과 경전을 가지고 돌아간 사례, 그리고 '697년 무측천이 서역에서 유입된 천수관음 도상을 궁녀와 장인에게 繡像이나 그림의 형태로 만들도록 하여 천하에 유포시킨' 사례는 도상의 유포가 황권에 깊이 기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77]

왕현책이 모사해 온 보드가야 정각상과 불족은 모사를 통해 유포되었지만, 그가 661년 귀국할 때 카피시국에서 가져온 佛頂骨은 궁중에서 공양되었을 뿐, 공개되지 않았다.[78] 석가모니 진신사리로 전승되어온 法門寺 불사리가 659년 10월에 신이를 보였고, 660년 이 사리가 岐州에서 낙양까지 봉송되는 국가적 의례가 있었기 때문에 황권으로서는 왕현책이 가져온 사리를 굳이 공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현장이 가져온 불사리와 7구의 불상은 장안 입성 및 자은사 이전 당시 경전과 함께 대중에게 공개되었지만, 이후 황권에 의한 대형 공양이나 모사 등의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의 불경 번역이 국가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상술한 상황은 두 성물에 대한 황권의 소극적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왕현책 등 사행단의 성과물인 인도 불상의 모사도와 이에 기초한『서역지』100권은 당의 성공적인 서역 경영의 산물로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황권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유포되었으며, 경계를 넘어 일본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唐文』卷15, pp.183:2.

75) 蘇鉉淑,「唐代 武則天과 玄宗의 統一像 제작과 頒布-諸州官寺를 통한 반포 및 그 프로세스를 중심으로」,『東岳美術史學』30, 2021, p.

76) 번역은 우심화,「"大秦景教流行中國碑" 비문(碑文) 역주(譯註)」『ACTS 神學과 宣教』9(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5 p.231을 참조하였다.

77) [당]智通 譯,『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咒經』,「序」, T20, No.1057a p.83bc.

78) "城西北大河南岸古王寺中有佛弱齡齲齒, 長一寸餘. 又此東南往古王寺, 有佛頂骨一片. 廣二寸餘, 色黃白髮孔分明. 至大唐龍朔元年春初, 使人王玄策從西國將來, 今現宮內供養."『法苑珠林』권29, T53, No.2122, pp.497c-498a.

새로운 물품의 유입과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문화 변동의 사이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한다. 본고는 단지 황권의 입장에서만 살펴보았지만, 이밖에도 승단의 인식과 개입, 그리고 대중의 다양한 수용 양상 등 여러 계층의 인식과 반응이 복잡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토론문】

“物品의 전래와 문화 변동 사이”에 대한 토론문

정 재 균*

본 발표문은 7세기 후반 당에서 과거와 다른 인도풍의 불교 도상과 양식, 그 중에서도 낙양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한 倚坐形 優塡王像을 통해 새로운 물품의 유입과 그 결과로 일어난 문화변용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역과 인도를 유력하고 귀국한 玄奘의 역할이 과장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王玄策 등 서역과 인도 사행단에 의해 기록되고 모사된 시각자료들을 수록한『西域志』의 유포와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인도풍의 불교 도상의 유행이 물품의 실물이 아닌 화가에 의해 재현된 2차원적인 그림 또는 도안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한 점, 그리고 불상의 제작과 유통의 방면에서 황제 권력이 의좌형 우전왕상의 유행에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통일성’을 기조로 한 당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본 발표문은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논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하에서 본 발표문의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선행 연구에 의하면 현장이 서안에서 낙양으로 자리를 옮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는 657년 이후로 낙양에서 가장 이른 우전왕상인 655년보다 이후의 일이라는 점, 또 663년명 용문석굴 우전왕상 조상기와 함께 새겨진『金剛經』이 현장의 신역이 아닌 구마라집의 구역이라는 점, 그리고 현장이 鄔陀衍那王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고 우전왕은 명백히 잘못이다[1]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양 우전왕

* 성균관대학교

1) 우전왕상을 만들었다는 우전왕은 코샴비국의 왕이었으며, 한역불전에서는 出愛王 혹은 鄔陀衍那王이라고도 부른다. 玄奘은 우전왕에 대해 出愛라고 하며 舊譯에서는 優塡王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T.51, No.2087, p.898a.

상의 명문은 ‘우전왕’이라고 새기고 있다는 점 등에서 낙양의 의좌형 우전왕상이 현장이 가지고 온 우전왕상의 재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2]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세기 후반 유행하였다고 하는 의좌형 우전왕상이 현장이 가지고 온 우전왕상의 재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7세기 후반에 조성된 의좌형 우전왕상은 고종 永徽 6년(655) 및 顯慶 원년(656)의 기년의 명문을 가진 것을 필두로 龍門石窟에 42개소에 70여 구 鞏縣石窟에 4구가 확인되는 등 낙양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3] 또한 의좌형 우전왕상은 40~50년간 집중적으로 조성된 후 사라졌다는 점에서 우전왕상이 처음 전래된 장소가 낙양이라는 정통의식이 근저에 자리 잡은 결과로 돌발적이고 국지적으로 유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왕현책 등 사행단의 성과물인 인도 불상의 모사도와 이에 기초한 『서역지』가 황권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유포된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교 도상과 양식의 유행에는 국가권력의 측면으로만으로 볼 수 없고, 당시 승단의 인식과 개입, 대중의 수용 양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밝히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인도풍의 의좌형 우전왕상의 유행이 낙양 일대에서 그리고 40~50년이라는 단기적 유행에 그쳤던 점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 현장이 가져온 7구의 불상은 장안 입성 및 자은사 이전 당시 경전과 함께 대중에 공개되었지만, 황권에 의한 대형 공양이나 모사 등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 왕현책이 661년 귀국할 때 카피시국에서 가져온 佛頂骨은 궁중에서 공양되었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황권의 소극적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도풍의 우전왕상이 출현한 것은 현장이 서역과 인도를 유력하고 불상을 가지고 귀국한 645년과 불과 10여 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장이 가져온 인

---

2) 岡田健, 「長安初唐造像の展開」, 『佛教藝術』177(1988. 3), p.108; 濱田瑞美, 「中國初唐時代の洛陽周邊における優塡王像について」, 『佛教藝術』287(2006), p.45.

3) 李文生, 「我國石窟中的優填王造像-龍門石窟優填王造像之早之多爲全國石窟之最」, 『中原文物』(河南省博物館, 1985-4), pp.102-106. 우전왕상의 소재지 및 수량은 李文生의 조사를 따랐다. 우전왕상의 명문에 관해서는 「龍門石刻錄」(水野清一·長廣敏雄, 『龍門石窟の研究』, 東京: 右寶刊行會, 1941) 및 『中園石窟·鞏縣石窟』(平凡社, 1983) 참조.

도풍의 불상은 당시 국가 또는 승단, 대중에게 생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현장의 귀국을 계기로 인도 문화에 대한 동경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고려해 본다면[4] 이후 왕현책 등 사행단에 의해 모사된 불상 그림이나 도안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발표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2차원적인 그림, 즉 圖畫가 가진 재현 및 이동의 용이성이 이를 더욱 가능하게 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조부터 무측천에 이르기까지 불상과 경전의 유포 사례를 본다면, 상술한 상황을 단순히 황권의 소극적 태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기에 따른 황제 또는 국가권력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4) 曾布川寬, 「龍門石窟における唐代造像の研究」, 『東方學報』60, 1988; 岡田健, 「龍門石窟初唐造像論-その二 高宗前期-」, 『佛教藝術』186, 1989.

【제3발표】

원제국 외래 藥物의 유입과 카안의 賞賜

— 南海海上 생산 香藥을 중심으로 —

조 원*

Ⅰ. 머리말
Ⅱ. 몽골의 南海海上 진출과 香藥의 수입
Ⅲ. 藥物의 유통과 醫藥 기구를 통한 관리
Ⅳ. 몽골 궁정에서 외래 藥物 소비와 카안의 藥物 賞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13세기 몽골은 유라시아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유라시아 각 지역의 의료 인력들을 흡수했고, 정복 지역의 의료 지식과 醫政 제도를 활용했다.[1] 이 가운데 궁중의 의료인으로 중용되었던 자들은 출신 지역의 醫書, 진단 및 치료 방식, 그리고 藥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져왔다.[2] 일찍이 초원 생활에서 약재를 통한 전통적 치료 방식을 중시했던 몽골인들은 몽골제국이 확장되면서 유라시아의 다양한 藥物의 지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다 많은 외래의 藥物이 제국내에서 수입·유통되었을 것이다.

고대로부터 실크로드 교역을 통해 유통되던 藥物은 10세기 이후 해상 교역이 활

* 부산대학교

1) 조원, 「元 중후기 醫政제도의 변화와 실상-『至正條格』의 관련 條文을 중심으로」『역사와 세계』60, 2021, p.35.

2) Thomas T. Allsen,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성화되면서 해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유입되었다. 송대 香藥은 국제 무역에서 사치품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동남 해상 무역을 통해 중국에 유입되었을 뿐 아니라, 북방 왕조와의 대외 무역 과정에서도 거래·유통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3세기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한 이후 지역 단위로 존속해왔던 국제 교역망들이 연결되어 일원화된 교역망이 형성되었으며, 쿠빌라이 시기 해상 진출을 통해 아프리카·지중해에서부터 중국의 동남 연해에 이르는 해상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었다.[3] 이때 원에 유입된 무역 상품들 가운데에서도 香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유라시아 육상과 해상에서 이른바 “향신료 무역(Spice Trade)”의 전성시대를 구가했다.[4]

원대 地方志인『至正四明續志』에는 市舶 무역을 통해 유입된 상품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보석류와 香料, 藥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음식의 配料로서 藥用의 성격을 지닌 香藥와 藥材의 비중이 높아 당시 동남해상을 통해 상당한 양과 종류의 향신료 무역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04년 편찬된『南海志』에도 해외 교역품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수입품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향신료와 藥材가 30鍾 가량 소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몽골제국시기 아라비아반도,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해로에서 香藥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山田憲太郎은 香料가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에서 일찍이 사용되던 것으로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 동식물성 향료로 정의 내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용성분을 지니고 있는 肉桂, 乳香, 沈香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5] 香藥은 태워서 향기를 내는 薰香과 藥物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송원대 해상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해상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香藥 거래가 방대하게 이루어졌음이 방물지나 여행기에서 확인된다.[6] 香藥은 고대부터 지배층을 중심으로 거행되던 종교의식에 활용되거나 사치품으로 활용되면서 상당한 양이 소비되었다. 송원대 주로 남해 해상 정권

---

3) 재닛 아부-루고드, 박흥식. 이은정 역,『유럽 패권이전-13세기 세계체제』, (서울: 까치, 2009).

4) 향신료는 조미료와 약물로서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13-14세기 해상 무역을 통해 유입되었던 향신료들은 약용성분을 지닌 藥物로서 간주되며 중시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한 향신료는 香藥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藥物의 일종으로서 간주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5) 山田憲太郎,『東亞香料史』, 京都: 同朋舍, 1979, pp.15-16.

6) 兪爲洁,『中國食料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들 및 서방의 아랍과의 교역에서 거래되었던 주요 상품이 香藥이 유입되었으며 주로 황실 통치 세력과 지배 귀족들이 소비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7]

근래 유라시아 교역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원대 西域 藥物에 주목한 연구가 발표되어 주목된다. 한 연구에서는 원대 醫學 서적에 언급되어 있는 南乳香이 지중해 연안에서 생산이 되는 것으로 원제국에서 궁정과 상층 귀족들에게 진상되었으며, 서역의 약재에 관한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는 원대의 藥用書『飮膳正要』, 醫書『回回藥方』등에 "馬思答吉(Mastic)"로 소개되어 있음을 밝혔다.[8] 이외에도『飮膳正要』,『回回藥方』에 나와 있는 이슬람 약재들을 중심으로 원대 이슬람 의학과 약재를 개략적으로 소개한 글이 발표되었다.[9] 원제국의 외래 藥物 가운데에서도 동남아시아와의 藥物은 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원대 동남아시아의 藥物 교역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朝貢과 貿易을 통한 동남아시아 약물 수입 및 藥物 관리 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면서 교류의 배경으로 원대 海外貿易의 발전, 醫學의 중시, 잦은 전란과 疫病으로 인한 사회적 수요가 높았음을 지적하고 있다.[10]그런데 쿠빌라이 시기 남해 해상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이미 남해 해상의 藥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몽골의 남해 해상 진출로 인한 海外貿易 발전은 남해 해상의 藥物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에 대한 쿠빌라이의 큰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3-14세기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제 무역의 주요 상품으로서 거래되었던 香藥에 주목하여 그 유통 및 소비 양상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인도에 이르는 南海海上 일대에서 생산되어 원제국에 유입된 香藥들의 소비 현황을 살펴보겠다. 원제국의 市舶 규정에 따라 市舶港에 도달한 香藥들의 일부는 세금으로 징세되어 大都로 수송되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유통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본고에서는 궁정에서 활용된 藥物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제국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궁정의 풍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으며 카안의 통치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외래 '藥物'의 유통이 드러내고 있는 '팍스 몽골리카'의 일면을 밝혀보고자 한다.

---

7) 陳高華,『宋元時期的海外貿易』,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0, pp.46-50; 高榮盛,『元代海外貿易研究』,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8, pp.128-131.

8) 求芝蓉,「元代醫籍中的西域藥物 "南乳香"考」『西域研究』2020-2.

9) 蕭婷,「元代中國的回回醫學和回回藥」『歐亞譯叢』1, 2015.

10) 陣穎霞,「元朝中國與東南亞的藥物交流與貿易」暨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Ⅱ. 몽골의 南海海上 진출과 香藥의 수입

中統 원년(1260) 쿠빌라이는 안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조서를 전하면서 儒士·醫師 및 사치품과 더불어 蘇合油·光香·沈香·金·銀·朱砂·沉香·檀香·犀角·玳瑁·珍珠·象牙·綿·白磁을 3년 1貢으로 바칠 것을 명했다.[11] 香藥은 안남의 정통적인 조공품으로 일찍이 宋과의 朝貢 무역을 통해 犀角, 象牙, 玳瑁, 珍珠와 더불어 乳香, 沈香 등을 정기적으로 진상한 바 있었으며,[12] 이후로 카안에게 바친 진공품에는 藥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藥物이 어떠한 약물인지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島夷志略』에서 汪大淵은 交趾 즉, 안남의 토산품으로 沙金, 白銀, 銅, 錫, 鉛의 광물 자원과 더불어 肉桂, 檳榔의 약용 식물을 소개하고 있고,[13] 송대 편찬된 『諸蕃誌』에는 안남의 토산품으로 沈香과 침향의 일종인 蓬萊香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미루어[14] 안남이 원에 진공했던 藥物이 肉桂, 檳榔, 沈香의 香藥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쿠빌라이는 至元 10년(1273) 扎朮呵押失寒과 崔杓에게 명하여 금 10만냥을 가지고 가게 하여, 諸王 아바카(阿不合)에게 싱할라 왕국(獅子國, 現 스리랑카)에서 藥을 구입하도록 명했다[15]. 이는 남송을 정복하기 이전 사신들을 훌레구 울루스에 파견하여 대신 해상을 통해 인도 남부에 위치한 싱할라국에서 약재를 구입해 오도록 한 조치였던 것이다. 마르코 폴로는 이 지역에서 蘇方木이 많이 자란다고 기술했고[16]『島夷志略』에는 '不死의 藥'으로 알려져 있는 甘露水(amṛta)에 대해 언급했다.[17] 소방목은 전통적으로 지혈을 비롯하여 血液의 순환을 돕고 瘀血을 없애며, 붓기를 내리고 痛症을 완화할 때 사용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다.[18] 쿠빌라이가 어떠한 藥을 구해오도록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일찍이 남해 해상에서 거래되었던 藥材에 대한 정

---

11) 『元史』 卷209 「安南傳」(北京: 中華書局, 2019)

12) 『宋會要輯稿』蕃夷4, 交趾. 송대 沈香에 관해서는 이경희·최덕경, 「宋代 沈香 계통의 産地와 유통」『中國史硏究』104, 2016 참조.

13) 汪大淵, 『島夷志略』(北京: 中華書局, 2009), p.51

14) 趙汝适, 『諸蕃誌』(北京: 中華書局, 2008), p.1.

15) 『元史』 卷8 「世祖紀五」

16)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0), pp.440-441.

17) 『島夷志略』

18)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7078

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몇 일 앞서 그는 이슬람 醫藥 전담 기구인 京師醫藥院을 廣惠司로 개칭했는데, 이는 大都에 거주하고 있는 지배층에 국한되어 있던 이슬람 의료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훌레구 울루스를 통한 싱할라국의 藥材 구입 시도와 함께 쿠빌라이의 해외 藥物에 대한 큰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몽골은 남송을 병합한 후 본격적으로 해양으로 진출하여 동남해상의 나라들과 정치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쿠빌라이는 남해 해상 정권들을 초유하기 위해 사신들을 파견했는데, 이는 기존에 남송과 교역을 하던 남해 해상 정권들과의 通交를 통해 해상교역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으로 해상을 통한 해외무역 정책을 개진하기 위해서였다.[19] 至元 15년(1278) 쿠빌라이는 福建行省 사투(唆都)와 蒲壽庚을 남해 해상에 파견했다. 그 결과 南海 무역의 요충지인 참파(占城)의 귀부를 시작으로 몽골은 남인도에 위치한 마아바르(馬八兒, Ma'abar), 인도 서남안의 구람(俱藍, Quilon), 동인도 해상에 위치한 니코바르(那旺, Nicobar), 수마트라(蘇木都剌, Samud'ra)까지 진출했으며 1287년까지 남해 해상의 20여 개국이 臣屬했다.[20]

몽골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자 안남, 참파, 첸라(眞臘)를 비롯하여 자바[闍婆]가 격렬히 저항했다. 이 가운데 자바는 송과 더불어 동남해상 무역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조로 남해상에서 아라비아 반도 및 유럽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추에 위치하여 스리비자야에서 말레이반도까지 판도에 넣은 강국이었다.[21] 원제국은 남해 해상의 패권을 둘러싸고 자바의 가사리(信訶沙里) 왕조와 충돌하여 패배했으나 몽골에 투항한 土罕必闍耶는 결국 혼란을 틈타 신가사리를 무너뜨리고 마자파히트(麻喏巴歇) 왕조를 세운 후 몽골과 화친 관계를 맺었다. [22] 이로써 1295년부터 1332년까지 자바에서는 모두 11차례 사신을 파견하며 외교 관계를 이어갔으며, 경제적 교류도 활발해졌다.[23] 13세기 말부터 남해해상으로 진출한 몽골은 해상 무역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해상으로 진출했으며, 이때 군인, 관료, 상인 등 다양한

---

19) 고명수, 「쿠빌라이 정부의 南海정책과 해외무역의 번영」『史叢』 72, 2011, p.244.

20) 『元史』 卷134「迦魯納答思傳」, pp.3260-3261. 몽골의 남해 해상 진출에 관해서는 고명수, 「쿠빌라이 정부의 南海정책과 해외무역의 번영」, 245-246쪽; 조원, 「쿠빌라이 시기 安南과의 외교 교섭」『東洋史學研究』154, 2021, p.121 참조.

21) 王頲, 「元王朝與爪哇的戰爭和來往」『史林』, 2006.

22) 『元史』 卷131「亦黑迷失傳」; 高榮盛, 『元代海外貿易研究』, p.15.

23) 方駿, 「元初亞洲征伐戰爭的對外影响」, 『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14 , 2001, p.73.

출신자들이 해상 무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쿠빌라이는 남송 정복 이후 남해 해상 세력들에 대해 招諭 활동을 개시했을 뿐 아니라 泉州, 慶元, 上海, 澉浦의 네 곳에 市舶司를 설치하고 연해 항구를 중심으로 市舶 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후 廣州, 溫州, 杭州의 세 곳에 市舶司를 增設했다.[24] 至元 30년(1293), 溫州 市舶司가 慶元에 합병되었고, 大德 원년(1297)에는 澉浦, 上海가 市舶司가 慶元 市舶司에 합병되었고 이로써 원 중기 이후에는 慶元, 泉州, 廣州 3 곳의 시박사를 중심으로 해외 무역이 전개되었다.

원 至正 연간에 편찬된 慶元路의 地方志『至正四明志』 卷5「市舶物貨」에는 해외 각 지역으로부터 市舶 무역을 통해 수입된 상품들이 細色, 粗色으로 나뉘어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인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香藥뿐 아니라 서아시아에서 생산되는 乳香, 沒藥, 고려에서 수입된 高麗靑器, 高麗銅器, 新羅漆, 人蔘, 大小布, 毛施布, 茯苓, 茯神, 黃蓍, 松 등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에서 수입된 각양 각색의 상품들이 기록되어 있다.[25] 수입품은 모두 220 種(細色 134, 粗色 86)이며 이 가운데 香藥으로 파악되는 것은 모두 170여 種에 달한다. 해당 품목들은 아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至正四明志』「市舶物貨」중 외래 香藥

細色	**蘇合油** 檳榔 血竭 人參 鹿茸 膃肭臍 **丁香枝** 白豆蔻 **芯澄茄** 砂仁 細辛 五味子 桂花 訶子 大腹子 茯苓 茯神 黃蓍 松子 榛子 松花 黃熟頭 沒斯寧 吉貝花 **胡椒** 糖霜 大楓油 澤瀉 **黃蠟** 朱砂 天竺黃 鵬砂 **肉豆蔻** 梔子花 紅花 龍涎 碙砂 牛黃 雌黃 樟腦 赤魚鰾 鶴頂 黑腦香油 沙魚皮 **桂皮**
	丁香 木香 **舶上茴香** **沈香** 蟲漏沈香 蟹殼香 蓬萊香 登樓眉香 舊州香 生香 光香 阿香 委香 嘉路香 **八角茴香** 金顏香 降真香 檀香 苓苓香 麝香 腦香 篤耨香 烏黑香 搭泊香 水盤香 **乳香** 噴噠香 **龍涎香** 修割香 雞骨香 羅紋香 黃緊香 賴核香 軟香 馬鴉香 萬安香 交趾香 土花香 化香 羅斛香 **沈香** 暫香薆香 蟲漏香 桔梗塺香 銼香 黃熟香
粗色	草豆蔻, 倭枋板柃, 木鱉子, 丁香皮 良姜 蓬術 海桐皮 滑石 藿香 破故紙 射香撚木 烏木 蘇木 螺頭 鱔 瓊芝菜 硫黃 沒石子 石斛 **草果** 史君子 益智 香脂 花梨根 爐甘石 紅柴 螺殼 相思子 豆蔻花 三賴子 蕪荑仁 硫黃泥 五倍子 白術 甘松 花蕊石 合蕈 印香 鹿角 山馬角 牛蹄 香肺 椰子殼 生香粒 石決明 雲白香 黃丁 斷白香 暫腳香 杏仁 松香 細削香 條截香

24)『元史』 卷17「世祖紀十四」; 『元史』 卷91「百官志七」

25) 각 지역별 수입품목에 관해서는 陳高華, 『宋元時期的海外貿易』, pp.50-51.

위의 표를 통해 13-14세기 해상 무역을 통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해 諸島, 서아시아 각지의 상품들이 市舶 무역을 통해 원제국으로 유입되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香藥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위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香藥은 크게 細色과 粗色으로 나뉘는데, 細色은 진귀한 상품, 粗色은 일반적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 정부에서 市舶 抽分 규정에 따라 수입품 가운데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구분한 것이었다.

<표 1>에 나와 있는 香藥들 가운데 細色 상품들이 생산·공급지로 잘 알려진 곳들은 바로 몽골이 남송을 병합하고 해상으로 진출하여 초유했던 남해해상의 정권들이었다. 남해 해상에서 풍부하게 생산되었던 香藥은 공식 사절의 貢納品 및 국제 교역을 통한 상품으로 원제국에 유입되었다. 몽골이 남송 정복에 앞서 외교 관계를 수립했던 안남에서는 주기적으로 藥材를 貢納했고[26], 이후 몽골에 臣屬한 남해 해상 정권들도 藥을 진상했다. 마르코 폴로는 참파국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지역에서 "카안에게 매년 코끼리를 조공으로 바치는데, 코끼리<와 침향>만 많이 바칠 뿐 다른 것은 바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27]『諸蕃誌』에는 토산품으로 沈香, 速香, 黃蠟의 藥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값비싼 香藥들이 카안에게 진상되었을 것이다. 1282년 구람국 국왕은 사신을 파견해 표를 올리면서 寶貨와 黑猿 한 마리를 올렸고, 俱藍國에 거주하는 동방 기독교 主兀咱兒撒里馬라는 자 또한 표문을 올리고 七寶項牌와 藥物 2병을 올렸다.[28] 1285년 첸라(真蠟)와 참파에서도 악공 10인과 藥材등을 바쳤으며,[29] 1291년에도 咀喃番邦[30]서 金書, 寶塔, 黑獅子, 番布와 함께 藥物을 진공했다는 기록이 있다.[31]

『諸蕃誌』,『島夷志略』,『동방견문록』에 나와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남해 해상 정권들에서 생산되는 香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6)『元史』卷10「世祖七」, "安南國貢藥材"

27) 마르코폴로,『동방견문록』, p.425.

28)『元史』卷12「世祖九」, "也里可溫主兀咱兒撒里馬亦遣使奉表 , 進七寶項牌一·藥物二瓶."

29)『元史』卷13「世祖十」, "丙子 , 真蠟·占城貢樂工十人及藥材·?魚皮諸物"

30) 俱藍(쾰론)을 지칭한다.

31)『元史』卷16「世祖十三」, "咀喃番邦遣馬不剌罕丁進"

<표 2> 남해 해상 諸國 생산 香藥과 藥材

	『諸蕃誌』	『島夷志略』	『동방견문록』	기타
안남(安南)	沈香, 蓬萊香	肉桂, 檳榔		蘇合油(蘇合香), 光香, 沈香(『元史』)
참파[占城]	沈香, 速香, 黃蠟, 藥物		沈香	
자바[闍婆]	龍腦, 茴香, 丁香, 荳寇, 降眞香, 胡椒, 檳榔, 硫黃, 蘇木	靑鹽, 胡椒 片腦, 粗熟香, 肉荳寇,小丁皮(肉桂)	후추, 육두구, 감송, 방동사니, 쿠베브, 정향	
스리비자야(三佛齊)/ 수마트라(蘇木都剌)	腦子(樟腦), 沈速, 粗熟香, 降眞香, 丁香, 檀香, 荳寇, 乳香, 蘇合油	梅花片腦, 降眞香, 檳榔, 黃熟香頭, 金顔香, 黃蠟, 沈速	침향, 감송 등 여러 종류의 향료	
람브리(南浡里/喃嘸哩)	樟腦, 大黃, 黃蓮, 丁香, 腦子, 荳寇, 沈香	降眞香	소방목, 장뇌 등 값비싼 향료	
고아[東淡邈]		胡椒, 大檳榔		
구람(俱藍)	蘇木		소방목, 후추	
마아바르(馬八兒) / 코친[下里]	檳榔, 荳寇	胡椒	후추, 생강, 계피	-

<표 2>에서 나열한 지역들은 香藥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들로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서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香藥 교역이 이루어지는 중심 지역들이었다. 당시 해상 교역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었던 香藥 가운데 하나가 바로 胡椒였다. 후추는 조미료이자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약재로서 溫中·健胃·驅風·發汗에 효능이 있어 소화불량·反胃·구토 등에 사용되었다.[32] 후추의 주요 산지는 <표 1>에 나와 있듯이 자바와 인도 서남부의 고아와 마아바르이다. 당시 남해 해상의 해상 무역 제국이었던 "闍婆國"에서는 龍腦, 茴香, 丁香, 荳寇, 降眞香, 胡椒, 檳榔, 硫黃, 蘇木 등 각종 香藥과 더불어 매해 1만 斤의 후추가 산출되었다.[33] 해외 무역상[番商]들은 이를 한 곳에 모은 후 상선에서 5배의 이익을 얻어 정부에서 그 거래를 금지하기도 했다.[34]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상품들이 해외에서 온

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5777

33) 『島夷志略』, p.159

34) 『諸蕃誌』, p.55.

많은 선박과 상인들에 의해 거래되었으며, 특히 '막대한 재화'들을 가져간 상인들은 '차이톤[泉州]과 만지'의 상인들이었다.[35]

다음으로 다량의 후추가 생산되는 지역은 인도 서남부 마아바르에 위치한 항구도시 下里(現 Cochin)와 인근 도시 고아[東淡邈]였다. 汪大淵은 셀 수 없는 막대한 양의 후추가 생산된다고 기술했는데[36], 당시 이 지역은 국제적인 시장이 개설되어 후추가 거래되었다. 자바와 인도 남부에서 생산된 후추는 해상을 통해 동서 각지역으로 유통되었는데, 마르코 폴로는 당시 천주항에 들어오는 후추를 실은 배가 서방을 향해 항해하는 선박의 백 배에 달한다고 기술했으며, 이러한 배들이 원제국의 교역항을 쉴 새 없이 드나들었을 것이다. 또한 각 배에는 후추 1,000상자 정도를 실을 정도의 큰 보조선이 있었다.[37] 마르코 폴로의 서술에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양의 후추가 원제국으로 유입되었음은 분명하다.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생산되었던 각종 香藥, 그 가운데 후추 가운데 일부는 유럽으로도 수출되었다. 당시 동지중해로 유입된 香藥들은 이후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의 베이루트를 통해 유럽에 전해졌는데, 이때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던 것은 바로 마르코 폴로의 출신지였던 베네치아였다.[38]

<표 2>에 나와 있듯이 자바, 스리비자야, 람브리 등 말라카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던 香藥은 丁香이다. 마르코 폴로는 자바의 정향나무를 후추, 육두구, 쿠베브 등과 함께 '진귀한 향료'로 기술하고 있다.[39] 『諸蕃誌』에 따르면, 정향이 "大食과 자바에서 생산되며, 口氣를 없애는 [효능이 있어] 郎官이 이를 씹은 후 奏를 올렸다".[40] 실제로 정향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향이 강하여 구취제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에서 향신료로 사용했고 세균 억제와 살충에 효능이 있고 위를 튼튼하게 하고 콩팥을 보온하는 작용을 하여 오랫동안 약재로 활용되었다.[41]

---

35) 『동방견문록』, p.429.

36) 『島夷志略』, p.267.

37) 『동방견문록』, p.429, 414.

38) 『유럽 패권이전-13세기 세계체제』, 163-175쪽; 남종국, 「1395년 베네치아 향신료 무역」, 『동국사학』54, 2013, pp.347-348.

39) 『동방견문록』, p.427.

40) 『諸蕃誌』, p.180

41) 『Paul, Buell, *A Soup for the Qan: Chinese dietary medicine of the Mongol era as seen in Hu Szu-hui's Yin-shan Cheng*-yao, (New York, Kegan Paul International, 2000); 尙衍

唐代 이래로 동아시아에서 진귀한 香藥으로 주목받았던 것이 沈香이었다. 침향은 향료이자 약재로서 혈액순환, 소화기 장애, 뇌졸증·뇌질환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향은 중국의 廣西, 廣東, 海南島에서뿐 아니라 안남, 참파, 첸라의 동남아시아와 자바 일대에서 생산되었다. 『諸蕃誌』에 따르면, 첸라산 침향이 가장 우수하고, 참파산이 뒤를 잇고 상대적으로 수리비자야와 자바산 침향은 하등품으로 평가된다.[42] 宋代 침향은 동남아시아 왕국들의 조공품으로 진상되었고, 市舶 무역을 통해서도 큰 규모로 유통되었지만 황실과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소비된 것 처럼[43] 원제국에서도 안남, 참파 등 동남해상 정권들은 침향을 進貢品으로 진상했으며 市舶 무역을 통해 고급 상품인 細色으로서 거래되었음이 확인된다. 해외 무역을 통해 각종 香藥이 활발히 수입된 것은 그만큼 원제국내에서의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대한 양의 香藥은 어떻게 소비되었을까?

Ⅲ. 藥物의 유통과 醫藥 기구를 통한 관리

해외 무역선들은 泉州, 慶元 등의 항구에 도착한 후 市舶 抽分, 즉 관세를 지방정부에 납부하고 난 후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팔고 그 지역의 토산물을 구입한 후 다시 상해 등지에 가서 교역을 할 수 있었다. 마르코 폴로는 泉州 지역의 市舶抽分에 관해, “카안은 이 항구와 이 도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받는데, 그것은 인도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모든 물건이나 보석, 그리고 진주의 1/10, 즉 물건 열 개 가운데 하나를 바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는 1283년 당시의 市舶抽分에서 舶貨 중 精한 것은 1/10, 粗한 것은 1/15을 취하기로 했던 규정에 부합한다.[44] 그런데 이어서 “용선료로 작은 물건의 경우 3/10, 후추는 44/100, 침향과 백단, 기타 부피가 큰 상품은 4/10”를 납부하기 때문에 용선료와 관세를 제외하면 상인들은 수입품의 절반만 갖게 되는 반면 카안은 이 도시에서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기

斌『『飮膳正要』注釋』(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9); 최덕경, 『음선정요 역주』(세창출판사, 2021), p.180.

42) 『諸蕃誌』, p.173.

43) 이경희·최덕경, 「宋代 沈香 계통의 産地와 유통」, p.49.

44) 『元史』 卷94「食貨志二」

술했다.[45] 당시 천주 市舶司에서는 여타 교역항과 달리 1/30의 舶稅를 별도로 거두고 있었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록은 당시 원 정부에서 수입된 후추, 침향과 같은 香藥의 상당한 양을 세금으로 확보했음을 알 수 있으며, 香藥 자체에 대한 몽골통치자의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至元 30년(1293), 원 조정에서는 福建行省의 요구에 따라 市舶 抽分 규정을 완화하여 細色은 1/25를 취하고, 粗色은 1/30을 취했다. 이외에 泉州에서만 시행하던 1/30의 舶稅의 명목으로 모든 市舶司에 확대 실시되었다.[46] 이렇듯 원 정부에서 관세율을 완화하여 외래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해상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했음을 알 수 있다.

市舶司에서 매년 抽解한 물품들은 값비싼 "貴細之物"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품은 모두 매각한 후 대금을 납부하고, 진귀한 상품들[細品]은 大都로 운송되었다.[47] 운반된 물품은 專賣를 통해 원 정부의 財政 수입원이 되거나 궁정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宋代에는 香藥 및 象牙 등의 사치품의 판매를 통해 專賣된 수익이 전체 세수의 3% 정도를 차지했던 반면, 원에서 주요 歲入 항목에 蓄貨 專賣 수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물품들이 宋代에 비해 칸실에서 더욱 많이 소비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48] 그렇다면 위에서 마르코 폴로가 언급한 바대로 해상 무역을 통해 수입된 香藥의 40% 정도가 大都로 운송되고 나머지 60%는 민간에서 유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大都로 운송된 상당한 양의 香藥이 칸실에서 모두 소비되었던 것일까?

쿠빌라이가 남송을 정벌한 직후에 소금과 함께 藥材의 전매를 시도했다. 至元 12년(1275) 쿠빌라이는 아흐마드(阿合馬)에게 姚樞, 徒單公履, 張文謙 등과 함께 강남지역에 鹽法과 鈔法의 확대 시행과 "藥材 무역"에 관해 상의하도록 명했다. 대신들과 논의를 마친 후 아흐마드는 주를 올려 "북방의 소금과 藥材에 관해서 姚樞와 徒單公履은 백성들이 편한대로 팔고 사는 편이 옳다고 했습니다. 臣 등은 백성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질서가 혼란해질 것입니다. 南京路(汴梁路) 와 衛輝路에서 藥材를 모으고, 蔡州에서 鹽 12만 斤을 풀어 사람들이 사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십시오."

45) 『동방견문록』, p.407.

46) 『元典章』 卷22「戶部八·課程·市舶」'市舶則法二十三條' (陳高華, 張帆等 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 2011)

47) 『元典章』 卷22「戶部八·課程·市舶」'市舶則法二十三條'

48) 金瓚泳, 「元代 皇室의 物資 조달 과정과 그 특징」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28.

라고 했고, 쿠빌라이는 이를 승인하여 시행하게 했다.[49] 이 기록은 당시 인구 8000만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 지역을 병합한 후 원 정부에서 북방의 鹽과 藥材를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專賣를 실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된 기사가 발견되지 않아 藥材의 專賣가 원활히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 칸실에서도 몽골통치집단을 위해 세워진 의료 기구를 통해 藥材들이 관리·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中統 원년(1260) 쿠빌라이는 醫政 기구인 太醫院을 설치하여 의료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갔다. 太醫院은 正2品 기구로 의료 전반과 카안에게 진상하는 藥物을 제조하며 속해 있는 각 醫職을 맡은 자들을 관리했다. 그 산하에는 廣惠司, 御藥院, 御藥局, 御香局, 大都惠民局, 上都惠民司, 醫學提擧司의 기구가 설치되었다. 지방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설치된 醫學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醫學提擧司를 제외하고 廣惠司, 御藥院, 御藥局, 御香局, 惠民司는 모두 藥物의 조제와 치료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藥材를 취급했다. 특히 廣惠司, 御藥院, 御藥局, 御香局의 네 곳은 御用 의료 기구로 칸실에 공급할 藥의 조제와 관리 전반에 간여했다.

먼저 廣惠司는 正3品의 의료 기구로 御用 이슬람 藥의 조제와 처방 및 케식과 대도에 거주하는 孤寒者의 치료를 담당했으며, 그 산하에는 大都와 上都에 回回藥物院을 두 곳을 설치하여 아랍 약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했다. 回回藥物은 아랍과 페르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이슬람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藥物을 지칭한 것으로 元代 文人 許有壬은 廣惠司의 설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開闢이래로 영토의 넓이가 우리 朝 만한 곳이 없었다. 동으로는 三韓에 이르고 남으로는 交趾에 이르니 藥의 進貢이 한 해를 거르지 않는다. 서쪽으로 于闐을 넘고, 북쪽으로는 陰山을 넘으니 각각 몇 萬里에 달하는지 알 수가 없다. 驛傳으로 왕래함이 內地와 다를 바 없다……西北의 藥은 질병을 낫게 하는데 모두 (효능이) 좋고, 西域의 醫術 또한 우수하며 생산되는 藥도 실로 많으니 조정에서 官司를 설치하여 그것을 주관하게 하니 바로 廣惠司이다."[50]

이상의 내용을 통해 南海海上에서 진공한 藥材뿐 아니라 이슬람 지역의 藥材 또한

---

49) 『元史』 卷205「阿合馬傳」: "十二年 , 伯顔帥師伐宋 , 既渡江 , 捷報日至. 世祖命阿合馬與姚樞·徒單公履·張文謙·陳漢歸·楊誠等 , 議行鹽·鈔法于江南 , 及貿易藥材事…… 又奏, '北鹽藥材 , 樞與公履皆言可使百姓從便販鬻. 臣等以為此事若小民為之 , 恐紊亂不一. 擬於南京·衛輝等路 , 籍括藥材 , 蔡州發鹽十二萬斤 , 禁諸人私相貿易.' 世祖曰, '善 , 其行之.'"

50) 許有壬, 『至正集』 卷31「大元本草序」

몽골 통치자들에게 상당히 중시되어 이를 전담하는 관리 기구까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御藥院은 從5品의 기구로 각 路에서 鄕貢品으로 진상되는 藥材와 諸蕃에서 바치는 진귀한 藥品들을 관장하고, 조제하는 일을 담당했다. 御藥局은 從5品의 기구로 大都와 上都의 行箧藥餌, 즉 외부로 이동할 때 휴대하는 약들을 관장했다. 이후 大德 9년(1305) 行御藥局이 추가로 설치되어 카안이 이동할 때 복용하는 약을 전담하게 되면서 御藥局은 上都 藥倉만을 관할하게 되었다. 御香局은 從5品의 기구로 御用 香藥들을 관장했는데, 이 기구는 至大 원년(1308)에 처음 설치되었고, 그 이전에는 御藥院에서 모든 香藥들을 관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제국에 進貢되거나 수입된 외래 藥材들은 기본적으로 太醫院과 그 산하 기구들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太醫院에서 공급받았던 대부분의 藥材들은 陝西, 四川, 雲南 등에서 공급 받았던 것들이었다.[51]

한편, 원 정부에서는 大都와 上都에 각각 惠民局을 설치했다. 惠民局은 우구데이 시기부터 설치되어 약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했는데, 이는 단순히 백성에게 藥物을 제공하여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 기구는 아니라 官錢으로 이윤을 만들어내는 국영사업체로서 藥材를 판매했다.[52] 우구데이 시기에는 조정에서 銀 500錠을 출자하여 매달의 이자로 藥物을 구비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中統 2년(1261) 쿠빌라이의 명으로 大都와 成都 惠民藥局이 개설되었고, 2년 후 上都에 惠民藥局이 설치되었다. 쿠빌라이 전반기에는 中統鈔 100兩마다 1兩 5錢의 이윤을 내기도 했다. 이렇듯 원 정부에서는 大都, 成都, 上都에 설치한 惠民局을 통해 藥材를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국영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南宋 병합 직후, 화북의 藥材를 모아 강남 지역으로까지 藥材 전매를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 惠民局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쿠빌라이 시기 원 정부의 국영 藥材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고, 至元 25년(1288) 정부에서 출자한 자본금의 손실로 惠民局은 결국 문을 닫았다가 大德 3년(1299)에 다시 설치되었다. 이때 원 조정에서는 전국 여러 곳에 기구를 두고 寶鈔를 출자하여 운영하였다.[53]

---

51) 『元史』 卷23「武宗二」

52) 『元史』 卷88 「百官四」

53) 『元史』 卷96 「食貨四」. 원대 惠民局의 置廢에 관해서는 조원, 「元 중후기 醫政제도의 변화와 실상-『至正條格』의 관련 條文을 중심으로」, pp.51-52 참조.

Ⅳ. 몽골 궁정에서 외래 藥物 소비와 카안의 藥物 賞賜

1. 醫書·藥善書에 나타난 외래 藥物

몽골제국 초기부터 지배 영역이 유라시아로 확대되면서 몽골 통치자들은 정복지역의 새로운 의술과 의학 지식에 눈을 뜨게 되었다.[54] 쿠빌라이 시기 제국의 중심을 大都로 옮겨 카안 중심의 지배 질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醫政 제도도 지배 질서의 일환으로 체계를 갖추어 갔고, 정복 지역의 다양한 의학 지식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醫書들이 간행되었다.

원대 太醫院 提點을 역임했던 許國禎은 至元 4년(1267) 에는 內科, 外科, 婦人科, 兒童科, 五官科, 養生 등에 관한 풍부한 의학 지식을 담고 있는『御藥院方』을 집필했다.『御藥院方』에는 治風, 治傷, 治痰 등을 위한 각종 藥의 조제 방식과 효능을 담은 처방전이 수록되어 있다.『御藥院方』卷1「治風藥門」의 醫方에 나오는 외래 藥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御藥院方』「治風藥門」사용된 외래 藥材

藥名	藥材
활명금단(活命金丹)	貫衆 甘草 板藍根 乾薑 **龍腦 麝香** 牛黃 生犀 珠子末 川大黃 辰砂 靑黛 薄荷
모과호골환 (木瓜虎骨丸)	木瓜 騏 竭 **沒藥 乳香** 虎脛骨 **木香** 瓜子 **桂** 當歸
사물부자탕 (四物附子湯)	附子 **桂** 白朮 甘草
기린갈산 (麒麟竭散)	血竭 **南乳香 沒藥** 水蛭 **麝香** 白芍藥 當歸 虎脛骨
생서환(生犀丸)	生犀 天麻 敗龜 牛黃 茯神 遠志 **人參 肉桂** 龍齒 朱砂 **麝香 龍腦** 石菖蒲 金箔
서각수풍환 (犀角搜風丸)	牽牛頭末 乾生薑 車前子 **白茯苓** 生犀屑 通 **木香**
상청산(上淸散)	川芎 鬱金 芍藥 荊芥穗 薄荷葉 芒硝 **乳香 沒藥 腦子**

54) Thomas T. Allsen,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 pp. 141~142.

<표 3> 에 나와 있는 7種의 藥을 살펴보면 남해 해상에서 생산되는 龍腦, 麝香, 木香, 乳香, 腦子, 肉桂, 서아시아산 沒藥, 南乳香, 고려산 人蔘, 白茯苓 등을 藥材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 나와있는 7種 藥의 사례 이외에도『御藥院方』「治風藥門」에 소개되어 있는 87種의 湯藥, 丸藥, 丹藥, 散藥 대부분에서 외래 藥材들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55] 이를 통해 남해 해상 정권으로부터 進貢되거나 교역을 통해 수입된 香藥들이 몽골 통치집단에게 진상되는 藥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藥材로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래 香藥은 몽골 통치집단의 御膳에 사용되어 風味에 영양을 더했다. 1330년 文宗 톡 테무르 시기에 편찬된『飮膳正要』는 太醫院의 飮膳太醫 忽思惠가 카안을 위해 집필한 藥膳書이다.『飮膳正要』에는 食治, 즉 음식을 통해 치병을 하는 의학 지식들이 풍부하게 녹아 있어 풍부한 의학사상이 단긴 醫學書로서도 주목되어 왔다.[56]『飮膳正要』卷3에는 약 230여 종의 식재료들이 곡식, 육류, 조류, 어류, 조류, 어류, 과일, 채소, 향신료로 분류되어 소개되어 있고, '향신료(料物性味)'장에서는 28종의 향신료의 맛과 성질, 그리고 약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향신료들로는 胡椒, 小椒, 良姜, 茴香, 蒔蘿, 陳皮, 草果, 桂, 姜黃, 蓽撥, 縮砂, 蓽澄茄, 甘草, 芫荽子, 乾姜, 生姜, 五味子, 苦豆, 紅曲, 黑子兒, 馬思答吉, 咱夫蘭, 哈昔呢, 稳展, 胭脂, 蒲黃, 回回青이 있다. 이 가운데 <표 1>에서 소개한『至正四明志』「市舶物貨」중에 나오는 남해 해상 무역을 통해 유입된 것 4種과 서아시아산 香藥 4種으로 카안에게 진상된 御膳에 사용되었던 외국산 香藥 8종류가 있어 주목된다.

<표 4>『飮膳正要』'料物性味'에 나온 외래 香藥[57]

香藥名	효능
후추(胡椒)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주로 기를 내리고, 오장육부 중의 풍사와 냉기를 제거하며, 가래를 삭이고, 肉毒을 해독하는데 효능이 있다.
회향(茴香)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다. 주로 방광과 신장경맥의 냉기를 치료하며, 증초를 조화롭게 하고, 통증을 멈추고 구토를 그치게 한다.

55)『御藥院方』

56) 조원,『飮膳正要』「『飮膳正要』와 大元제국 음식문화의 동아시아 전파」『역사학보』233 (2017)

57) Paul, Buell, *A Soup for the Qan: Chinese dietary medicine of the Mongol era as seen in Hu Szu-hui's Yin-shan Cheng*-yao, (New York, Kegan Paul International, 2000); 尙衍斌『『飮膳正要』注釋』(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9); 최덕경,『음선정요 역주』(세창출판사, 2021).

香藥名	효능
초과(草果)	맛이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다. 심장과 배의 통증을 치료하고, 구토를 멈추며 위장을 보익하고, 기를 내리며, 酒毒을 해독한다.
계피(桂)	맛이 달고 매우며, (성질은) 매우 뜨겁고 독이 있다. 심복부의 한사와 열사, 冷痰을 치료나하고, 간과 폐의 기를 순조롭게 한다.
큐베브(荜澄茄)	맛이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다. 소화를 돕고, 기를 내리며, 가슴과 복부가 더부룩한 것을 제거하고 식욕을 돋게 한다.
흑자아(黑子兒)	맛이 달고 (성질은) 밋밋하며, 독이 없다. 식욕을 돋우고 기를 내리는데 효능이 있다.
매스틱(馬思答吉)/남유향(南乳香)	맛이 쓰고 향기로우며, 독이 없다. 邪惡氣를 제거하고, 중추의 비위를 따뜻하게 하며, 횡경막을 잘 통하게 하고, 기를 순조롭게 하며, 통증을 멈추고, 진액을 생기게 하며, 갈증을 풀고 입에서 향기가 나게 한다.
샤프란(咱夫兰)	맛이 달고 (성질은) 밋밋하며, 독이 없다. 주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서 응어리진 것, 기분이 답답하여 풀어지지 않는 것에 효능이 있다.
가즈니(哈昔呢, 아위)	맛이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다. 온갖 기생충을 죽이며, 악취를 없애고, 癥瘕를 풀어주며, 下惡를 내리게 하고, 邪氣를 없애며, 蠱毒을 해독한다.
남동석[回回青]	맛이 달고 (성질은) 차며 독이 없다. 모든 약독을 해소하고 열독으로 인한 부스럼을 치료한다.

이상의 고급 香藥들은 카안에게 진상되는 요리에 풍미를 더했을 뿐 아니라 藥材로서도 건강에 유익한 식재료들이었음이 분명하다. 『飮膳正要』 卷1의 마지막 편 '진귀한 요리(聚珍異饌)'에는 칸실에 진상되었던 95가지의 御膳이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표 4>에서 소개된 香藥들이 사용된 12가지 대표적인 요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8]

<표 5> 『飮膳正要』'聚珍異饌'에 사용된 외래 香藥

飮食名	材料
매스틱탕(馬思答吉湯)	羊肉 **草果** 官桂 回回豆子 香粳米 馬思答吉 芫荽葉
팔아불탕(八兒不湯)	羊肉 **草果** 回回豆子 蘿卜 **咱夫蘭** 姜黃 **胡椒** **哈昔泥** 芫荽葉
호로파탕[苦豆湯]	羊肉 **草果** 苦豆 兀麻食 **哈昔泥**
녹두탕(鹿頭湯)	鹿頭蹄 哈昔泥豆子 回回小油 **胡椒** **哈昔泥** 葦撥 牛奶子 生姜汁
잡탕(雜羹)	羊肉 **草果** 回回豆子 豆粉 蘑菇 杏泥 **胡椒** 入青菜 芫荽炒
삼하과(三下鍋)	羊肉 **草果** 良姜 **胡椒**
자라탕[團魚湯]	羊肉 **草果** 團魚 生姜汁 胡椒

58) Paul, Buell, *A Soup for the Qan: Chinese dietary medicine of the Mongol era as seen in Hu Szu-hui's Yin-shan Cheng*-yao; 최덕경, 『음선정요 역주』

飮食名	材料
곰탕[熊湯]	熊肉 **草果 胡椒 哈昔泥** 姜黃 縮砂 **咱夫蘭**
적양요(炙羊腰)	羊腰 **咱夫蘭**
하서폐(河西肺)	羊肺 韭 面 酥油 **胡椒** 生姜汁
어탄아(魚彈兒)	大鯉魚 羊尾子 生姜 蔥 陳皮末 **胡椒末 哈昔泥**
육병아(肉餠兒)	精羊肉 **哈昔泥 胡椒 葷撥** 芫荽末

『飮膳正要』 卷2의 '諸般湯煎'에는 칸실에서 御膳으로 진상되었던 湯類, 飮料, 煎餠 등 55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漿, 湯과 같이 끓여서 조린 음료들에 외래에서 유입된 香藥들이 재료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59]

<표 6>『飮膳正要』 '諸般湯煎'중 음료에 사용된 외래 香藥

飮料名	材料
계피장(桂漿)	生姜 **赤茯苓 桂** 曲末 杏仁 大麥蘗 白沙蜜
계침장(桂沉漿)	紫蘇葉 **沉香** 烏梅 沙糖
여지고[荔枝膏]	烏梅 **桂** 沙糖 **麝香**
매실환(梅子丸)	烏梅 白梅 干木瓜 紫蘇葉 甘草 **檀香 麝香**
선술탕(仙術湯)	蒼術 **茴香** 甘草 白麵 乾棗 鹽
사화탕(四和湯)	白面 芝麻 **茴香** 鹽
회향탕(茴香湯)	**茴香** 川楝子 陳皮 甘草 鹽
파기탕(破氣湯)	杏仁 **茴香** 良姜 **葷澄茄** 陳皮 **桂花** 姜黃 **木香 丁香** 甘草 鹽
귤피성정탕(橘皮醒酲湯)	香橙皮 陳橘皮 **檀香** 葛花 綠豆花 **人參 白豆蔻仁** 鹽

이상에서 소개한 御膳들은 칸실에서 몽골 통치자들만 향유했던 것은 아니다. 이는 몽골인들이 중시하고 즐겨했던 宴饗에 참석했던 親戚, 賓客에게도 제공되었다.[60] 1251년 뭉케 카안의 즉위 연회에서는 포도주와 쿠미스, 말·소 300두, 양 3000두가 1주일간 매일 수레 2000량에 실려 酒庫와 廚房으로 공급되었다.[61] 또한 몽골제국의 大朝會에는 后妃·宗王·親戚·大臣·將帥·百官과 四方에서 온 사신들이 모두 참석했다.[62] 이는 몽골제국에서 연회의 현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그 규모를 상상

59) Paul, Buell, *A Soup for the Qan: Chinese dietary medicine of the Mongol era as seen in Hu Szu-hui's Yin-shan Cheng*-yao; 최덕경,『음선정요 역주』

60) 몽골제국시기 宴饗에 관해서는 설배환,「蒙·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연구」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6 참조.

61) 라시드 앗딘『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5), p.319.

62)『經世大典輯校』(周少川等 輯校, 北京: 中華書局, 2020)

케 한다. 몽골이 남송을 병합하고 남해 해상으로 진출한 이후에 카안의 식탁에는 다양한 식재료로 조리된 다채로운 음식과 음료로 채워졌으며, 해상을 통해 進貢되거나 수입된 香藥들은 御膳의 맛과 영양을 더욱 풍요롭게 했을 것이다. 카안의 연회에 참석한 諸王, 公主 및 賓客들이 접한 연회의 음식들은 그들이 제국의 일원으로 享有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

2. 藥物의 賞賜

카안은 궁정에서 조제된 藥을 제국의 重臣에서부터 복속국의 왕이나 신하들에게 카안의 賞賜品으로 하사했다. 中統 4년(1263) 카안은 안남왕 光昺가 파견한 사신들에게 "玉帶·繒帛·藥餌·鞍轡"를 하사했고,[63] 至元 3년(1266)에는 안남의 成宗 호앙에게 "玉帶·繒帛·藥餌·鞍轡"를 하사했다. 쿠빌라이가 제위 초기 안남과의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안남의 국왕과 사신들에게 제조된 "藥餌"를 하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藥餌"는 조제된 "藥物" 또는 조리된 藥用 식품을 의미하는데, 몽골이 복속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藥餌"를 하사했다는 사실은 "藥餌"의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카안은 공로가 있는 重臣에게도 藥을 하사했다. 至元 10年(1273), 쿠빌라이는 남송 정벌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漢人 武將 史天澤이 병에 걸리자 尙醫편으로 藥을 보내며 위로를 전했다.[64] 카안이 어떠한 藥을 하사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쿠빌라이가 남송 정벌 과정에서 淮東 諸州를 함락하는 데 공을 세운 몽골 名將 망크테(忙兀台)에게 "西域藥·蒲萄酒·介胄·弓矢" 등을 하사하여 그 공을 치하했다.[65] 또한 쿠빌라이는 남송 전쟁에서 원제국에 새롭게 편입된 강남지역에 '荊南行省'으로 파견된 위구르 출신 大臣 廉希憲에게 그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해 "西域善藥"과 "高昌蒲桃酒"를 하사했다.[66] 이상의 사실을 통해 원제국에서 카안의 위로와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는 賞賜品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몽골이 남해 해상으로 진출하기 이전 서아시아산 藥이 진귀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

63) 『元史』 卷209「安南傳」: "光昺遣楊安養充員外郎及內令武復桓·書舍阮求·中翼郎范舉等奉表入謝, 帝賜來使玉帶·繒帛·藥餌·鞍轡有差."

64) 『元史』 卷155「史天澤傳」

65) 姚燧, 『國朝文類』 卷58「平章政事忙兀公神道碑」

66) 元明善, 『國朝文類』 卷65「平章政事廉文正王神道碑」

太醫院의 藥材와 조제된 藥들은 諸王·百官·케식 등 몽골 지배층들에게도 제공되었다. 天曆 원년(1328) 太醫院에서 다음과 같이 주를 올렸다. "諸王·百官·케식들이 우리에게 약재[生藥] 혹은 조제된 약[熟藥]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안께서 제위에 오르셨는데, 지급하라고 성지를 내리신 바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앞선 카안들이 제위에 계셨을 때에는 小藥들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 때를 따른다면 지급해야할 할 터인데, 우리 太醫院 官員들이 헤아린 바대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文宗 톡 테무르는 太醫院 관원들의 요청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했다.[67] 이를 통해 太醫院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귀한 藥材와 조제된 藥은 몽골 카안이 일족, 대신, 케식들에게 베푸는 은혜의 도구이자 지배 집단으로서의 공유 의식을 갖게 하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조제한 약들은『御藥院方』과 같은 궁정의 醫書에 나오는 藥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御藥院方』의 藥方에는 서아시아의 沒藥, 乳香, 南乳香과 남해해상의 麝香, 肉桂, 龍腦, 木香, 동아시아의 人蔘, 白茯 등의 약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진귀한 약재를 사용한 藥들이 몽골 지배층에게 두루 享有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몽골 통치자들에게 군인들의 건강과 질병의 치료 또한 상당히 중시되었다. 至元 21년(1284) 쿠빌라이가 조서를 내려 "軍前에 병이 깊은 군인들은 뛰어난 醫工들로 하여금 약을 써서 병을 낫게 하고 적합한 사람을 뽑아 파견하여 돌보게 하라."고 명했다. 武宗 카이산은 즉위 조서에서 변경에서 복무하는 군인에게 官에서 藥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大德 11년(1307) 카이산은 하라호름·甘肅·雲南·四川·福建·兩廣·海北海南·兩江에서 복무하는 한인 新附軍 가운데 병에 걸린 자들을 위해 官에서 藥을 제공하도록 명했다.[68] 또한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鰥寡孤獨 가운데 병든 자들에게 관아에서 醫藥을 지급하도록 했다.[69]

---

67) 『至正條格』 卷2 「醫藥」 '官員藥餌 '條, (韓國學中央研究院校註本, 서울: 휴머니스트, 2007)

68) 『元典章』 卷2「聖政一·撫軍士」: "和林·甘肅·雲南·四川·福建·兩廣·海北海南·左右兩江鎮守新附軍人 , 除常例外 , 今歲量賜衣裝……患病者 , 官給醫藥."

69) 『元典章』 卷2「聖政一·惠鰥寡」: " 鰥寡孤獨不能自存者 , 常加存問 , 合得衣糧依期支付 , 病者官給醫藥 , 毋令失所."

3. 지방사회에서의 藥物

외래 香藥의 소비가 궁정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원대 편찬되었던 類書『居家必用』송원대의 "인상생활의 지식"을 담고 있다. 특히 飮食編에는 醫藥· 養生과 관계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 지방 사회 사대부들의 식문화와 그에 관한 지식들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70]『居家必用』己 集 飮食編편에는 茶品類과 湯水類를 살펴보면 외래 香藥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음료들이 있다.

<표 7>『居家必用』己集 飮食編편에 나오는 외래 香藥

飮食名	香藥
뇌사향다(腦麝香茶)	龍腦 麝香
제해아향대법(製孩兒香茶法)	孩兒茶 白荳蔻仁 **沈香** 寒水石 藫澄茄 **麝香 梅花片腦**
수문탕(須問湯)	生薑 棗 丁香 木香 陳皮
두구탕(荳蔻湯)	肉荳蔻仁 甘草 丁香枝杖
건모과탕(乾木瓜湯)	乾木瓜 白檀 沈香 茴香 荳蔻 乾生薑 分草 縮沙仁
단향탕(檀香湯)	檀香 龍腦 麝香 生薑
정향탕(丁香湯)	丁香 龍腦 麝香 生薑
진사탕(辰砂湯)	辰砂 龍腦 麝香 生薑
후추탕(胡椒湯)	'胡椒 龍腦 麝香 生薑
축사탕(縮砂湯)	縮砂 龍腦 麝香 生薑
회향탕(茴香湯)	茴香 龍腦 麝香 生薑

<표 7>의 사례를 통해 원제국 지방 사회에서 士人들이 음용했던 藥用 음료에 丁香, 沈香, 후추, 茴香, 龍腦 麝香 등이 두루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居家必用』飮食編편의 茶品類는 송대의 茶學家 蔡襄의 茶錄을 轉載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해 외래 香藥이 이미 송대부터 풍부하게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식이 원제국의 지방 사회의 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던 지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飮膳正要』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제국 궁정의 음식문화 가운데 南海海上의 香藥이 사용되어 제조된 음료에 관한 지식은 강남을 통해 제국의 상층부로 전해져 제국 중심부에 있는 몽골 통치집단의 식문화를 더욱 다채롭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0) 오영균, 「『거가필용사류전집』의 저자와 편찬, 그리고 판본-사대부들의 백과사전」『조선 지식인이 읽은 요리책: 거가필용사류전집의 유입과 역사』,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Ⅴ. 맺음말

쿠빌라이 시기 몽골의 해상 진출은 남해 해상에서 막대한 양으로 거래되고 있던 香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남송을 병합한 후 본격적으로 해양에 진출한 몽골은 남해 해상에 있는 정권들을 招諭하고 臣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香藥 생산지로서 서방으로는 서아시아, 지중해, 아프리카, 동방으로는 송과 香藥을 비롯한 사치품들을 활발히 교역하고 있는 곳들이었다. 몽골이 해상으로 진출하면서 남해 해상에서 생산되는 香藥을 둘러싼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市舶司 체제를 비롯하여 본격적인 해외 무역 체제를 갖춘 후 막대한 양의 香藥이 남해 해상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쿠빌라이 시기 수입 총액의 20~40% 가량이 市舶 抽分으로 징수되었다. 수입된 香藥은 크게 細品과 粗品으로 나뉘었는데 이 가운데 진귀한 상품들은 모두 大都로 운송되었고, 운반된 물품 가운데 일부는 專賣되어 정부의 財政 수입원이 되기도 했으나 나머지는 카안의 궁정에서 소비되었다. 해외에서 수입된 香藥들은 카안에게 진상되는 藥의 재료로 활용되며 카안과 그 일족의 건강에 유익을 가져다주었으며, 御膳에도 활용되어 風味와 영양을 더했다. 그러나 이러한 香藥들은 카안과 그 일족만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해외에서 유입된 香藥을 비롯하여 진귀한 藥材로 조제한 藥은 복속국의 왕이나 사신들에게 賞賜品으로 下賜되었고 공훈이 있는 重臣에게도 내려졌다. 이는 카안의 은혜를 드러내는 상징이자 실용적 가치를 지닌 하사품이었다. 太醫院에서 조제된 藥들은 諸王·百官·케식들도 享有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는 몽골 카안의 은혜이자 통치집단이 향유했던 특권이자 문화였다.

마르코 폴로는 당시 강남 지역의 최대 도시였던 항주에서는 막대한 양의 후추가 소비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 도시에서 “후추의 하루 소비량이 43대의 수레에 실을 정도인데, 수레 한 대에는 223파운드를 실을 수 있다.”라고 했다.[71] 당시 지방 사회에서도 상당한 양의 香藥이 유통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기록이다. 당시 강남이 병합되고 해외 무역이 재개되면서 市舶 무역의 관할을 담당하던 “行省 관원, 行泉府司 관원, 市舶司 관원들 및 權豪 富戶” 들도 사적으로 해외 무역선을 운영하여 사무역에 가담하고 수입한 상품들을 은닉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市舶 질서

71) 『동방견문록』, p.393.

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원 조정에 보고 되기도 했다.[72]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더 방대한 양의 香藥들이 지방 사회에서 유통되었으라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72) 『元典章』 卷22「戶部八·課程·市舶」 '市舶則法二十三條', "議得：拘該市舶去處行省、行泉府司、市舶司、權豪勢要之家 , 興販舶船不依體例抽分 , 恃勢隱瞞作弊"

참고문헌

1. 사료

『宋會要輯稿』

『元史』(北京: 中華書局, 2019)

『元典章』(陳高華, 張帆等 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2011)

『至正條格』(韓國學中央研究院校註本, 서울: 휴머니스트, 2007)

『經世大典輯校』(周少川等 輯校, 北京: 中華書局, 2020)

許有壬, 『至正集』(『元人文集珍本丛刊』7, 臺北 : 新文豊出版公司, 1985)

趙汝适, 『諸蕃誌』(北京: 中華書局, 2008).

汪大淵, 『島夷志略』(北京: 中華書局, 2009).

『飮膳正要』明景泰七年內府刻本.

『居家必用事類全集』

尙衍斌『『飮膳正要』注釋』(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9)

라시드 앗딘『칸의 후예들』(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5),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0)

최덕경, 『음선정요 역주』(세창출판사, 2021).

Paul, Buell, *A Soup for the Qan: Chinese dietary medicine of the Mongol era as seen in Hu Szu-hui's Yin-shan Cheng-yao*, (New York, Kegan Paul International, 2000);

2. 저서

高榮盛, 『元代海外貿易研究』,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8.

山田憲太郎, 『東亞香料史』, 京都: 同朋舍, 1979.

陳高華, 『宋元時期的海外貿易』,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0.

兪爲洁, 『中國食料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재닛 아부-루고드, 박흥식. 이은정 역, 『유럽 패권이전-13세기 세계체제』, 서울: 까치, 2009.

주영하 등, 『조선 지식인이 읽은 요리책: 거가필용사류전집의 유입과 역사』,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Thomas T. Allsen, *Culture and Conquest in Mongol Eur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3. 논문

고명수,「쿠빌라이 정부의 南海정책과 해외무역의 번영」『史叢』72, 2011.

求芝蓉,「元代醫籍中的西域藥物 “南乳香”考」『西域研究』2020-2.

金瓚泳,「元代 皇室의 物資 조달 과정과 그 특징」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남종국,「1395년 베네치아 향신료 무역」,『동국사학』54, 2013.

설배환,「蒙·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연구」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6.

蕭婷,「元代中國的回回醫學和回回藥」『歐亞譯叢』1, 2015.

王頲,「元王朝與爪哇的戰爭和來往」『史林』, 2006.

이경희·최덕경,「宋代 沈香 계통의 産地와 유통」『中國史研究』104, 2016.

조 원,「元 중후기 醫政제도의 변화와 실상-『至正條格』의 관련 條文을 중심으로-」『역사와 세계』60, 2021.

조 원,「쿠빌라이 시기 安南과의 외교 교섭」『東洋史學研究』154, 2021.

조 원,「『飮膳正要』와 大元제국 음식문화의 동아시아 전파」『역사학보』233 (2017).

陣穎霞,「元朝中國與東南亞的藥物交流與貿易」暨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王頲,「元王朝與爪哇的戰爭和來往」『史林』, 2006.

【토론문】

“원제국 외래 藥物의 유입과 카안의 賞賜”에 대한 토론문

조 원 희*

조원 선생님의 발표문『원제국 외래 藥物의 유입과 카안의 賞賜 - 南海海上 생산 香藥을 중심으로』은 원제국에서 다양한 ‘약물’이 어떤 식으로 수입이 되고, 국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나아가 어떤 식으로 소비 및 하사 되었는지를 자세히 분석해주는 글이다. 본 연토회의 주제인 “동유라시아 세계의 물품이동과 문화변용” 에서 관심을 가지는 “물품” 중에서 특히 발표자가 원제국과 남방 국가들의 관계, 그리고 제국의 의약, 의술, 의학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나온 발표라고 생각을 한다. 또한, 주제에 적합한 발표자를 섭외한 주최 측의 기획력에 역시 감사의 말을 전한다. 본 토론문에서는 지정된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위주로 작성을 하였지만, 동시에 학술대회 주제 전체에 대한 몇 가지 사항도 겸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발표자의 논문에서는 먼저 몽골 제국에서 특히 남해해상에서 어떤 “香藥”이 수입되었는지를 자세히 분석해주시고, 이어서 그러한 약물을 어떤 식으로 각종 국가 기구를 통하여 관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약물들이 원제국의 궁정과 사회에서의 활용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미 2001에 고(故) 토마스 얼슨(Thomas Allsen)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몽골 제국이 단순히 각종 문화적인 요소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수동적으로 옮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한 행위자(Agent)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약재에 대한 전매를 시도한다거나, 혹은 서방에서의 약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기구를 신설한다거나, 혹은 혜민국을 통하여 약재를 통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였다는 것, 혹은 의서와 약선에서 보이는 각종 약재 및

* 한국학중앙연구원

‘요리’에 외래 향약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발표는 앞서 두 번째 발표(소현숙)와 네 번째 발표(임경준)와 여러 가지로 통하는 점 있다. 구체적으로, 외래 물품이 수용되어 국내에서 유통하는 과정은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인데, 무엇보다 이러한 물품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있어 최고 권력자인 “황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몽골 제국의 칸/칸실이 약재와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본 발표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러한 물품의 “하사”의 대상, 곧 황제권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지배층의 사료가 압도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당 - 원 - 청 제국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물품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결국은 또 ‘사람,’ 즉 인문학 연구자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간’에 대한 측면을 각 발표에서 모두 지적을 하였다고 본다.

물론, 사료의 한계 상, 고일홍의 고고학 발표는 물론, 전근대 시기의 연구의 주제가 제한적이며 동시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이동 뒤에 있는 타자에 대한 의식을 지적한 허지은의 연구, 그리고 비슷한 수입물에 대한 수용인의 차이를 강조한 정영구의 연구 역시 앞 시대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가령, 여러 가지 약재 중에서 유독 몽골 카안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러한 의시적인 선택이 보여주는 몽골 카안의 의식은 무엇이었을까? 임경준의 발표에서 보이는 동주=tana와 진주=nicuhe의 의미 차이를 통해서 뭔가 다른 의식을 읽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본 발표문은 물론, 이번 연토회에 발표된 내용과 물품의 기록이 본 학술대회를 후원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동유라시아 세계 물품의 문명·문화사” 사업단에도 이바지하고, 특히 가능하다면 사업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동유라시아 물품의 데이터베이스”에도 반영되고 차후 연구자들에게도 공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가령 임경준의 발표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던 진주(珍珠)의 경우는 (물론 임경준의 발표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몽골 제국 시기에도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로 지적한 최신 연구도 있으며, 정영구의 연구에서 분석한 커피와 설탕으로 대표되는 19세기 전후의 세계적인 “중독성 상품”의 유행 (소주를 비롯한 도수 높은 증류주, 특히 러시아 지역에서 유행한 보드카, 미국에서의 애플 사이다, 전세계적인 커피

의 유행,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중국의 아편 문제 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차후 시대, 지역을 넘는 연구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발표의 내용에는 크게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여, 따라서 이하의 질문 세 가지는 발표자의 생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첫째는, 사료의 한계로 보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목에도 있는 "남해해상 생산 향약"이 원제국의 각종 의학 관련 제도 혹은 정책 - 가령 의학 기구의 관리, 약물의 소비, 상사(賞賜) 등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 궁금하다. 본문의 Ⅱ 장의 내용을 보면, 원제국에서 분명히 상당한 양의 약물이 남해해상을 경유하여 유입된 것에는 의문이 없지만, 다른 한편 Ⅳ장에서 소개한 예시들에서 보이는 "약(藥)"이라는 용어는 다소 보편적이고 광의의 단어이기 때문에, IV 장의 예시들과 이른바 남해해상에서 수입된 약과의 관계를 조금 더 분명히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는, 학술대회 주제가 "물품 이동과 문화변용"이라는 점에서 착안할 때 "물품 이동"의 예시는 본 발표를 통해서 분명히 많이 볼 수 있었다. 다만, "문화변용"의 부분은 조금 부각이 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토론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보고자 한다.

셋째는, 이 질문은 임경준, 허지은, 정영구 발표에서 지나치게 많은 영감을 얻은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몽골 제국의 약물 유입, 소비, 하사 등의 과정에서 시기에 따른 변화, 이른바 시변성(時變性, change over time)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보충해줄 수 있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크게 보아서는 송과 원 사이에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원 제국 내부에서의 시대적인 차이가 보이는지 궁금하다.

소중한 발표를 해준 조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 특히 토론 좌장 서인범 선생님, 그리고 연토회를 기획 해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발표】

타나(tana)와 니추허(nicuhe)

― 淸初 만주인의 진주 채취와 소비 문화 ―

임 경 준*

제1장 문제의 소재
제2장 明末 여진~만주인의 互市와 진주
제3장 만주인의 진주 소비와 그 특징
제4장 만주인의 진주 채취와 국가 수취
제5장 맺음말

제1장 문제의 소재

진주(Pearl)는 조개류의 체내에서 패각 성분을 분비하는 외투막의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와 만들어지는 원형의 생체광물(biomineral)이다. 주로 탄산칼슘 결정과 콜키올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패각 안쪽 면의 무지개빛 광택이 응축되어 나타나는 까닭에 다른 보석과는 다른 독특한 색감과 질감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다이아몬드나 루비와 같은 보석광물류가 일정한 가공을 거쳐야 하는데 비하여 진주의 경우 조개에서 채취하는 즉시 보석으로서 가치를 갖는다는 점도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20세기 초 일본인 수산업자 미키모토 고키치(御木本幸吉)가 세계 최초로 인공 양식에 성공함으로써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진주는 역사적으로 고가의 위신재이자 사치재로서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널리 각광을 받아왔다.

진주의 종류는 산지에 따라 해수진주(Saltwater pearls)와 담수진주(Freshwater pearls)로 나뉘는데,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의 페르시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아만과 홍해 그리고 남인도 해역 일대에서 채취되던 해수진수다.[1] 해수진주의 가장 큰 특징은 표면의 광택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된 서식지가 서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일부에 국한되어 있던 데다가 채취를 위해서는 바닷속 깊이 잠수를 해야 하는 탓에 생산량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해수진주의 희귀성을 보완한 것이 담수진주였다. 담수진주는 해수진주에 비하여 광택이 떨어지고 모양이 일정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하천과 호수에 널리 분포할 뿐만 아니라 채취도 훨씬 수월했다. 그런 까닭에 해수진주의 서식지와 멀리 떨어진 유라시아 대륙 내륙지대에서는 해수진주보다도 담수진주 쪽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2]

동부 유라시아에서 담수진주의 특산지를 꼽는다면 滿洲 지역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측 사료에서 만주의 진주는 담비가죽과 함께 고대부터 줄곧 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자원으로 여겨져 왔다.[3] 만주지역에서 발흥한 女眞의 金朝는 주변국가와의 외교관계에서 진주를 증정품으로 사용하였다. 여진의 후신으로서 淸 제국을 건국한 만주인 역시 진주를 중시하였다. 만주인의 언어인 만주어에서 진주는 타나(tana)와 니추허(nicuhe)로 구별되고 漢字로는 각기 東珠와 珍珠로 표기된다.[4] 淸代의 만주인은 이 東珠와 함께 만주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자원이었던 人參(orhoda)·貂皮(seke)를 아울러 '三寶'라 칭하며 황실을 비롯한 소수의 지배층만이 향유하는 귀중품으로 엄격하게 통제하였다.[5]

淸代의 東珠에 관해서는 그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

1)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대표적인 진주 산출지로 마아바르(Maabar/현재의 인도 동남부 일대) 지방과 치핑구(Çipingu/현재의 일본) 섬을 거론하고 있다. 『동방견문록』, 416-417쪽 ; 442-443쪽.

2) 이상의 개괄적인 설명은 Thomas T. Allsen, *The Steppe and the Sea: Pearls in the Mongol Empi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9, 제1장을 참조.

3) 『後漢書』 권85, 「東夷」傳, 扶餘조. 於東夷之域, 最爲平敞, 土宜五穀. 出名馬·赤玉·貂豽, 大珠如酸棗. ; 『三國志』 권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扶餘조. 其國善養牲. 出名馬・赤玉・貂狖・美珠, 珠大者如酸棗. ; 『晉書』 권67 「四夷」傳 東夷조. 出善馬及貂豽·美珠, 珠大如酸棗.

4) 본고에서는 만주어 사료에 등장하는 타나(tana)를 東珠, 니추허(nicuhe)를 珍珠로 각각 옮기되 둘 다 가리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眞珠로 통칭하겠다.

5) 다만 여기서 말하는 '三寶'의 대상이 문헌과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三'이라는 숫자 역시 반드시 세 가지 물품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많다'라는 의미를 따서 '百寶'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叢佩遠, 『東北三寶經濟簡史』, 農業出版社, 1989, 295쪽.

叢佩遠이 선구적으로 淸代 진주의 생산과 용도 그리고 관리체계에 관하여 기본사료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6] 만주지역에서 東珠를 제도적으로 수취·관리하던 기구인 부트하 울라(butha ula) 총관아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여럿 제출되었다.[7] 대만에서는 莊吉發이 淸代의 관복제도 속에서 東珠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실제 관복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상세하게 고찰하였다.[8]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이라면 대부분이 政書적 관점에서 東珠의 수취제도와 활용방식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미국학자 조너선 슐레징어(Jonathan Schlesinger)는 환경사의 관점에서 淸代 만주지역의 자연자원을 논의하는 가운데 東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9] 이에 따르면, 청 황실은 만주지역의 자연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환경 파괴와 자연자원의 고갈로 귀결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김선민이 이와 같은 미국학계의 연구시각을 수용하면서 『內務府檔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 황실의 지배와 만주지역의 생태를 상호관계를 규명하였다.[10] 새로운 연구관점을 도입하는 동시에 그간 활용되지 않았던 檔案 사료를 구사하여 역사적 실태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주된 논의 시기가 청중기 이후로 설정되어 있는 까닭에 국가형성기의 상황은 연구사의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참조하면서 연구사의 공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진~만주인의 국가형성기에 해당하는 明末淸初 시기를 대상으로 진주가 어떻게 채취·소비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16세기 중반의 여진인이 주도하였던 明朝와의 互市 교역에서 진주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규명하겠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만주인이 진주를 어떠한 용도로 소비하고 있었는지를 사료를 통해 검증하겠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

---

6) 叢佩遠, 『東北三寶經濟簡史』, 農業出版社, 1989.

7) 趙雄, 「關於淸代打牲烏拉東珠採捕業的幾個問題」, 『歷史檔案』 1984 ; 王雲英, 「淸代對東珠的使用和採捕制度」, 『史學月刊』 1985-6, 1985 ; 王雪梅·翟敬源, 「淸代打牲烏拉的東珠採捕」, 『北方文物』 2012-2, 2012 ; 安寧, 「略述淸代東珠採捕與打牲烏拉」, 『黑龍江民族叢刊』 2015-3, 2015 ; 李新宇, 「淺析淸朝對東珠的使用: 以《康熙朝·黑圖檔》一份滿文檔案譯釋爲中心」, 『吉林師範大學學報』 2021-6.

8) 莊吉發, 「東珠生輝: 以東珠爲飾着淸朝冠服制度的特徵」, 『淸史論集 25』, 文史哲出版社, 2016.

9) Jonathan Schlesinger, *A World Trimmed with Fur: Wild Things, Pristine Places, and the Natural Fringes of Qing Rul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

10) 김선민, 「청대 만주족 황실과 만주의 자연자원」, 『명청사연구』 46, 2016.

는 국가형성기의 만주인 정권이 진주를 어떻게 국가적 수취의 대상으로 편입하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겠다.

제2장 明末 여진~만주인의 互市와 진주

청의 창업자 누르하치의 연대기인『滿洲實錄』의 서두에는 長白山에서 발원한 얄루(yalu/鴨綠)·훈퉁(hūntung/混同)·아이후(aihu/愛滸) 세 강에서 "보배인 東珠(boobai tana)"와 "밝은 珍珠(genggiyen nicuhe)"가 난다는 기사가 있다.[11]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강은 각각 오늘날의 鴨綠江·松花江·豆滿江을 가리키는데, 이로부터 吉林省 일대에 산재하는 크고 작은 하천과 호수에서 東珠=tana와 珍珠=nicuhe가 주로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주의 산출지에 관해서는 이외의 다른 기록에서도 "東珠는 混同江과 烏拉·寧古塔의 여러 하천에서 나온다"[12]라거나 "東珠는 盛京 동쪽 일대 하천의 대합[蛤]이나 말조개[蚌]는 다 진주가 난다. 吉林·黑龍江 경계내의 松花江·嫩江·艾琿의 각 강과 하천에서 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13]는 기록이 있어『滿洲實錄』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정리하자면, 여진~만주인이 주로 활동하던 이 일대에서 진주가 희귀한 특산품으로 인식되었고, 그 物名도 東珠=tana와 珍珠=nicuhe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東珠=tana와 珍珠=nicuhe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되었던 것일까. 일찍이 일본학자 和田淸은 東珠가 담수진주, 珍珠가 해수진주를 각각 가리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14] 그런데『五體淸文鑑』과 같은 淸代의 만주어 字書를 살펴보면, 東珠=tana는 물론 珍珠=nicuhe 역시 모두 tahūra에서 산출된다고 한다. 만주어 tahūra는 '蛤蜊'로 漢譯되고 현대 만주어사전에서는 담수조개로 가리키는 것으로 옮겨져 있다.[15] 따라

11)『滿洲實錄』권1,「長白山」(17-18쪽).

12)『滿洲原流考』권19,「東珠」조. 東珠出混同江, 及烏拉寧古塔諸河中.

13)『吉林外記』권7,「東珠」조(903쪽). 盛京以東, 各河蛤蚌, 皆産珠. 惟吉林黑龍江界內松花江, 嫩江, 艾琿各江河産者最佳.

14) 和田淸,「明初の滿洲經略(下)」,『東亞史硏究』, 東洋文庫, 1955, 464쪽 주66번 참조.

15) 河內良弘編,『滿洲語辭典』, 松香堂書店, 2014, 1032쪽. 한편 羽田亨의『滿和辭典』과 福田昆之의『滿洲語文語辭典』은 모두 tahūra를 'しほふき', 즉 해수조개인 바지락으로 번역하고 있다. 羽田亨編,『滿和辭典』, 彙文堂書店, 1937, 412쪽 ; 福田昆之編,『(補訂)滿洲語文語辭典』, FLL, 2008, 791쪽.

서 진주의 산출지가 해수인가 담수인가를 가지고 東珠=tana와 珍珠=nicuhe를 구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원상으로 살펴보면 東珠를 가리키는 만주어 tana는 몽골어 tana(현대 몽골어로는 Таһа)에서 유입된 어휘로 간주된다. 퉁구스 계통의 여러 언어들 역시 tana 계열의 어원을 공유하고 있어 언어적 연관관계를 시사한다.[16] 이에 비해 珍珠를 뜻하는 nicuhe의 경우 몽골어로는 subut(현대 몽골어로는 сувд)로 옮겨진다. 즉 東珠=tana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던 반면에 珍珠=nicuhe의 경우 지역별로 서로 다른 호칭으로 불린다는 차이점이 있다.[17]

만주어 이전의 여진어에서도 진주는 원래 '寧住黑', 즉 nicuhe에 가까운 발음이었다.[18] 이처럼 nicuhe가 여진인들이 본래 진주를 가리킬 때 쓰던 낱말이었다면, 몽골어에서 유래된 tana는 몽골인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전파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아울러 몽골어 tana가 大珠, subut가 小珠에 대응되는 것으로 본다면, 아마도 만주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tana가 고급 진주, nicuhe가 이보다 질이 떨어지는 진주로 별칭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19]

이렇게 명칭 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東珠=tana는 16세기 이후 여진과 明朝의 互市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인삼·초피와 함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인기 상품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 주지하듯이 14세기말 元이 몽골고원으로 물러난 뒤 만주에 거주하던 여진인은 明朝의 적극적인 招撫에 응하여 入貢하게 된다. 명측은 입조한 여진인에게 무관직을 수여하고 그 집단을 衛所制에 따라 파악하였다. 이렇게 衛所로 편성된 여진인들은 명측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놓였다기보다는 수십에서 수백

---

16) Gerhard Doerfer, *Mongolo-Tungusica*, Harrassowitz, 1985, p.142. ; William Rozycki, *Mongol Elements in Manchu*, Indian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Inner Asian Studies, 1994, p.201. 한편 티베트어에서는 염주를 ཐང་ག(thaŋa)라 하는데, 역시 몽골어 tana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17) 『元史』 권16, 世祖本記, 至元 27년 11월 갑진조에는 "回回以答納珠充獻及求售者還之"라는 기사가 있는데, 答納란 tana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18) Wilhelm Grube, *Die Sprache und Schrift der Jurčen*, Harrassowitz, 1896, p.30. 한편 조선측 문헌인 『北路紀略』에는 "紉出闊失猛安. 自慶興北行一日. 渡豆滿江, 南距斡東九十里. 其地有大澤, 出眞珠. 其俗以珠爲紉出闊失, 故爲地名"이라는 기사가 존재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紉出闊'가 여진~만주어 nicuhe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 『元史』 권78, 「輿服志」 冕服·天子質孫조. 夏之服, 凡十有五等, 服答納都納石失(綴大珠於金錦), 則冠寶頂金鳳鈸笠. 服速不都納石失(綴小珠於金錦), 則冠珠子捲雲冠. 여기에서 答納는 tana, 速不都는 subut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호 정도의 집락별로 거주하면서 정기적 입공과 교역 그리고 변경 방위에 종사하며 생활하였다.[20]

명조는 朝貢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역에서 얻는 이권으로써 여진인을 통제하였고 접경지역인 開原 부근에 互市場을 개설하여 물자를 교역하였다. 15세기에 들어서며 명의 궁정과 부유층을 중심으로 사치 풍조가 만연하면서 만주 일대에서 채집·생산되던 진주, 초피, 인삼과 같은 특산품에 대한 수요가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439(正統 4)년에 開原 南關에 추가로 互市場이 설치되었고 1464(天順 7)년에는 撫順에 互市場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명측은 衛所의 軍官에 임명할 적에 발급하는 勅書(ejehe)를 여진인의 입경·조공시의 신분증명서로 활용하였다. 사실상 勅書가 명조와의 교역허가서로 기능하게 된 셈이다.[21]

이에 따라 여진인 내부에서는 명과의 더 많은 교역 기회를 노리고 상대의 勅書를 탈취하려는 세력이 등장하며 격렬한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 누르하치 역시 그러한 군웅 중 한 명이었다. 『滿洲實錄』은 당시의 상황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분분히 일어나 각자 자신을 높여서 한·버일러·암반이라 하고 村마다 수장, 族마다 수령이 되어 서로 공격하고 전쟁하여 형제간에 죽이고 일족이 많고 힘세고 강한 사람이 약하고 무력한 자를 학대하고 빼앗고 약탈하여 크게 혼란해졌다"고 묘사한다.[22] 명측 기록은 이와 같은 무질서의 본질이 東珠를 둘러싼 경제적 이권의 쟁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 東珠·紫貂는 天下의 두터운 利이다. 利는 江夷[=울라(Ula)]에서 오는데, 곧 卜占台[=부잔타이(Bujantai)의 部落이다. 이 利는 원래 [松花]江 위에서 南關[=하다(Hada)]·北關[=여허(Yehe)]에 이르러서 판매하던 것인데, 開原人은 여기에서 큰 이득을 보았으나, 遼陽人은 그 이득을 나눠가질 수가 없었다. 奴酋[=누르하치]가 이 利를 도모하고자 南關의 猛骨卜羅[=멍거불루(Menggebulu)]를 사위로 맞이하였으니, 곧 猛酋[=멍거불루]가 江夷의 叔姪이었기 때문이었다. 猛酋가 비록 奴[=누르하치]의 사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江夷를 강제하여 貂珠之利를 奴에게 줄 수 없었다. 奴가 猛酋를 움직였으나 江夷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猛酋가 부인을 희롱하였기 때문

20) 明代의 衛所制度에 관해서는 川越泰博, 『明代中國の軍制と政治』, 國書刊行會, 2001 ; 于志嘉, 『明代軍戶世襲制度』, 學生書局, 1987 등을 참조.

21) 明代의 互市에 관한 기본 설명은 기본적으로 江嶋壽雄, 『明代淸初の女直史硏究』, 中國書店, 1999, 217-405쪽을 참조.

22) 『滿洲實錄』 권1, 35쪽.

> 에 猛酋를 살해하였다. 단 猛酋의 아들 吾兒忽塔[우르구다이(Urgūdai)]를 받아들여 딸을 배필로 삼았다. 그러나 奴酋가 江夷의 마음을 얻으려는 데 끝이 없었다. 세 딸을 차례대로 江夷 占台[=부잔타이]의 처첩으로 삼았으니 다 江夷의 貂珠之利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23]

이에 따르면, 당시 16세기 중엽의 만주에서 東珠를 둘러싼 경제적 이권은 明朝의 비호 아래 海西의 훌룬(Hūlun/扈倫) 4국이 주도하고 있었다. 즉 海西에서 가장 북쪽인 松花江 일대에 위치한 江夷=울라(Ula/烏拉)국이 생산한 東珠는 명과 접경한 南關=하다(Hada/哈達)국과 北關=여허(Yehe/葉赫)국에 옮겨졌다가 互市를 통하여 다시 漢地로 유통되었다.[24] 즉 누르하치에 의한 여진세력의 통합과정은, 달리 말하면 東珠의 이권을 둘러싼 海西 훌룬 4국 주도의 담합체제를 재편하려는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마침내 太祖께서 滿洲 주변에 위치한 각 부를 초무하여 복속시켜 모두 다 섬멸하여 평정하자 나라의 기운이 날로 강성해졌다. 明朝와도 通好하여 사신을 왕래하였고 500道의 勅書를 갖고서 연례의 金幣를 받았다. 본지에서 산출되는 明珠(genggiyen tana)와 人參(orhoda) 그리고 黑狐·元狐·紅狐·貂鼠·猞猁猻·虎·豹·海獺·水獺·青鼠·黃鼠의 가죽을 갖고서 撫順·淸河·寬奠·鞾陽의 네 關口에서 互市하여 교역하니 이로부터 滿洲의 민인들은 은성해지고 나라는 부유해졌다.[25]

對明 교역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윤은 이를 둘러싸고 여진인 재지세력 간의 무력 충돌을 격화시켰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중소규모의 집단으로 나뉘어 있던 여진인의 정치적 결속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누르하치에 의한 여진 통합과 만주 구룬(Manju Gurun)의 창립이란, 인삼·초피·동주와 같은 만주지역 자연자원의 배

---

23) 『籌遼碩畫』 권2, 「東北虜情議」. 遼東巡撫張濤議, 東珠·紫貂, 天下之厚利也. 利從江夷來, 是卜占台之部落也. 此利向從江上, 到南北關販賣, 開原人甚利之. 遼陽人不能分其利也. 自奴酋爲圖此利, 爲納南關猛骨卜羅爲壻, 以猛酋卽江夷叔姪也. 猛酋雖爲奴壻, 不能强江夷以貂珠之利與奴, 奴撼猛酋不爲他勾引江夷. 因猛酋調戲伊妾, 故殺猛酋. 但收猛酋之子吾兒忽塔, 妻之以女. 然奴酋利江夷之心, 未已也. 只得將三個女兒 次第與江夷占台爲妻妾. 只爲盡圖江夷貂珠之利.

24) 三田村泰助, 「ムクン·タタン制の研究：滿洲社會の基礎的構造としての」, 『淸朝前史の研究』, 東洋史研究會, 1965(原載：『明代滿蒙史研究』, 1963·『立命館文學』 223, 1964), 제3절과 제4절 참조.

25) 『滿洲實錄』 권2(90쪽).

타적 수취와 대외 교역에 그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만주인의 진주 소비와 그 특징

만주인들의 생활 속에서 진주는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었을까. 진주가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본장에서는 편의상 ⑴군주의 하사품, ⑵외국으로의 증정품, ⑶한에 대한 헌상품, ⑷冠服의 장식품 네 가지로 나누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⑴ 군주의 하사품

군주의 하사품으로서 진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13년 9월 초6일이다. 당시 여진세력의 통일에 한창이던 누르하치는 우수(usu)라는 성의 산탄(Santan)과 후시무(Hūsimu)라는 대인이 문을 열고 자발적으로 항복하자 자신이 쓰고 있던 '東珠 세 알이 달리고 金佛頭 장식이 박힌 冠帽(ilan tana sindaha šerin hadaha mahala) '를 벗어 주었다.[26] 홍타이지의 경우에는 귀순한 漢人 무장들에게 진주가 달린 冠帽를 하사하였다. 天聰 7년 명에서 귀순한 孔有德과 耿仲明에게 玉草로 만든 모자에 커다란 金佛頭와 東珠를 달아 하사하였다.[27] 이듬해 尙可喜가 귀순해 오자 홍타이지는 10리 밖까지 마중을 나가 환대한 뒤에 "玉草로 만든 冠帽 앞뒤에 東珠를 박고 金佛頭 장식을 단 冠帽"를 하나 하사하였다.[28] 沈志祥에게는 '嵌兩東珠金頂'[29], 祖大壽에게는 '嵌雙東珠紅寶石金頂朝帽'[30]를 하사하였다. 이상의 사례를 통하여 항복한 이들에 대한 환대의 표시로 東珠를 박아 넣은 冠帽를 하사하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료상에서 빈출하는 사례는 혼인하는 황실의 거거(gege)에게 지참금조

---

26) 『老檔』 萬曆 41(1613)년 9월 초6일조(61-62쪽). ; 『滿洲實錄』 권4, 175쪽.
27) 『天聰七年檔』 6월 초3일조(78쪽).
28) 『天聰八年檔』 4월 10일조(118쪽).
29) 『太宗實錄』 권 卷45, 崇德 4(1639)년 정월 기묘조.
30) 『太宗實錄』 권 卷61, 崇德 7(1642)년 7월 임신조.

로 하사하는 경우이다. 天聰 5년에 망굴타이(Manggūtai)의 딸은 카라친(Karacin)의 한인 라스킵(Laskib)과, 아바타이(Abatai)의 딸은 투메트(Tumet)의 다이 다르한(Dai Darhan)과 혼사를 맺게 되었다. 이에 홍타이지는 두 거거에게 '珍珠(nicuhe)를 단 女朝衣' 한 벌과 '珍珠(nicuhe)로 만든 귀고리' 네 쌍을 각각 내렸다.[31] 天聰 7년에는 홍타이지가 자신의 딸을 아오한(Aohan)의 반디 어푸(Bandi Efu)에게 시집보낼 때 '28개의 東珠로 만든 목걸이' 둘과 '큰 東珠를 단 금 귀걸이' 두 쌍· 작은 東珠를 단 금 귀걸이 네 쌍 그리고 머리에 꽂는 東珠 14개를 혼수로 보내고 있다.[32] 차하르의 에제이와 혼인한 마카타 거거(Makata Gege)의 경우 珍珠를 단 女朝衣와 珍珠로 된 염주를 주었다.[33]

⑵ 외국으로의 증정품

天聰 원년 홍타이지는 寧遠을 사이에 두고 대립관계에 있던 명의 袁崇煥에게 서신을 보내 화친을 제안하면서 매년 명측이 "금 1만냥, 은 10만냥, 비단 10만필, 毛青布 30만필"을 보내오면 본인은 "東珠 10개, 초피 1천장, 인삼 1천근"을 답례하겠다고 하였다.[34] 화친을 위한 증정품으로서 홍타이지는 동주·초피·인삼과 같은 만주의 특산품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홍타이지는 양국의 화친을 위한 표식으로 원숭환이 금·은·비단 등을 보내오면 동주·모피·인삼을 증정하겠다고 하고 있다.[35] 즉 외국과의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증정품을 교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려는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진주를 외국으로의 증정품으로 사용한 사례는 몽골 세력 중에서 코르친이 특히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홍타이지는 코르친의 만주시리 어푸(Manjusiri Efu)와 혼인하는 자신의 양녀에게는 東珠·綠松石·珍珠를 달아서 만든 冠帽를 하사하였다.[36] 이와

---

31) 『天聰五年檔』 정월 16일조(16쪽).

32) 『天聰七年檔』 4월 18일조(37-38쪽). 반디 어푸(Bandi Efu)에 관해서는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汲古書院, 2009, 177쪽 참조.

33) 『天聰九年檔』 9월 10일조(276-277쪽). 차하르의 에제이와 마카타 거거의 관계에 관해서는 임경준, 「清初 三藩의 亂과 盛京 지역 주변정세의 변화」, 『이화사학연구』 61, 2020, 145-148쪽 참조.

34) 『老檔』 天聰 원년 1월 초1일조(11-12쪽).

35) 『老檔』 天聰 원년 4월 초8일조(45쪽)

36) 『天聰七年檔』 7월 초9일조(99쪽). 만주시리 어푸(Manjusiri Efu)는 코르친부 좌익 자이상

함께 암마 마마(Amba Mama)[37]와 아지거 마마(Ajige Mama)[38]에 대한 증정 기사도 눈에 띈다. 암바 마마는 코르친부의 수장 망구스(Manggūs)의 부인으로 홍타이지의 正妃인 孝端文皇后의 생모이며, 아지거 마마는 망구스의 아들인 자이상(Jaisang)의 부인으로 홍타이지의 側妃인 莊妃, 즉 孝莊文皇太后의 생모에 해당한다.[39]

주지하듯이 청 황실과 코르친 수장가문과의 거듭된 혼인은 양측의 동맹 관계를 상징하는 요소였으며, 이에 따라 호르친 파벌은 특히 홍타이지의 盟友와 같은 존재였다.[40] 암바 마마와 아지거 마마는 청 황실과 코르친부를 연결하는 중추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홍타이지의 진주 증정은 양측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졌으리라 판단된다.

⑶ 한에 대한 헌상품

군주가 하사하거나 증정할 때의 예물로 진주를 즐겨 사용한 만큼이나 군주에게 진주가 헌상되는 경우도 많았다. 먼저 칼카(Kalka)의 바가다르한(Bagadarhan)은 귀순의 예로 '珍珠로 만든 염주(nicuhe i erihe)를 홍타이지에게 헌상하였다.[41] 차하르(Cahar)에서도 한의 부인이나 公主가 '珍珠로 만든 염주(nicuhe i erihe)'나 '東珠로 만든 목걸이'를 헌상하는 사례가 확인된다.[42]

몽골만이 아니라 정권 내부에서도 군주에게 진주를 헌상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컨대 홍타이지의 이복동생인 도도(Dodo)는 주연을 베풀어 준 답례로 '진주를 달아서 만든 금으로 된 腰帶(tana sindame araha aisin i imisun)'를 선물하였다. 이렇게 사적인 감사의 표시 외에 황실의 행사 때에는 八旗 별로 갖가지 헌상품을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예컨대 萬壽聖節과 千秋節에는 八旗마다 금이나 초피 이외에도

의 제4자이다. 그와 혼인한 거거는 본래 요토(Yoto)의 딸인데, 홍타이지가 양녀로 거두었다.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汲古書院, 2009, 78-79쪽.

37) 『太宗實錄』 권27, 天聰 10(1636)년 정월 기사조.

38) 『太宗實錄』 권27, 天聰 10(1636)년 2월 신사조.

39)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9, pp.78-86을 참조.

40) 청 황실과 호르친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71-112쪽을 참조.

41) 『天聰八年檔』 6월 29일조(190쪽).

42) 『天聰八年檔』 윤8월 18일조(275쪽). ; 『太宗實錄』 권32, 崇德 원(1636)년 11월 갑진조. ; 『太宗實錄』 권50, 崇德 5(1640)년 윤정월 기해조.

東珠를 하나씩 헌납하게 되어 있었다.[43]

⑷ 冠服의 장식품

[표 1] 淸初의 冠服 규정에서 東珠의 개수

(단위: 顆)

		숭덕원년	순치원년	순치2년	순치9년
친왕	冠頂	8	10(+2)	10	10
	金佛頭	4	5(+1)	5	5
	後金花	3	4(+1)	4	4
	腰帶	4	4	4	4
군왕	冠頂	7	8(+1)	8	8
	金佛頭	3	4(+1)	4	4
	後金花	2	2	3(+1)	3
	腰帶	0	2(+2)	2	2
패륵	冠頂	6	7(+1)	7	7
	金佛頭	2	3(+1)	3	3
	後金花	1	2(+1)	2	2
	腰帶	0	1(+1)	2(+1)	2
패자	冠頂	5	6(+1)	6	6
	金佛頭	1	2(+1)	2	2
	後金花	1	1	1	1
	腰帶	0	0	1(+1)	1
진국공	冠頂	4	5(+1)	5	5
	金佛頭	1	1	1	1
	後金花	0	0	0	0
	腰帶	0	0	0	0
보국공	冠頂	3	4(+1)	4	4
	金佛頭	0	1(+1)	1	1
	後金花	0	0	0	0
	腰帶	0	0	0	0
진국장군	冠頂	0	1(+1)		
	金佛頭	0	0		
	後金花	0	0		
	腰帶	0	0		

출전: 『八旗通志初集』 권59, 「典禮志」.

43) 『崇德二·三年檔』 崇德 3년 정월 20일조(207-208쪽). ; 『崇德二·三年檔』 崇德 3년 8월 19일조(293쪽).

제4장 만주인의 진주 채취와 국가 수취

淸朝가 성립된 이후 진주·모피·인삼과 같은 자연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특권은 국가의 엄격한 규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자연자원을 고정적으로 수취하고 이로부터 이윤을 얻을 수 있던 계층은 사실상 국가질서의 최상층부에 위치한 군주와 그 인척으로 이루어진 八旗旗王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반 旗人의 경우 專管大臣(enculehe amban)[44]이라 불리던 일부를 제외하면, 자연자원의 사적인 채취와 점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한과 旗王·專管大臣들은 자연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취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天命 7(1623)년 2월 초3일의 다음과 같은 사료를 참조할 수 있다.

> 초3일에 광녕에 주둔한 병사가 몰래 곡식을 가지고 온 몽골인을 쫓아내고 소 200마리를 얻었다. 그중 150마리를 보내오고 50마리를 병사에게 주었다. 갖가지 모피(furdehe), 東珠(tana), 담비(seke)를 포획했다. 원래 사냥할 때에는 원래 여덟 버일러의 가에서 장정 100명씩을 보내고, 얻은 물건은 각자 가졌었는데, 그렇게 하면 혼란스러울까 염려된다고 하여 壬戌(1622)년에 포획한 東珠, 貂皮, 스라소니, 호랑이, 늑대, 수달, 청솔모 등 그렇게 포획한 것을 八分하여 공평하게 나누었다.[45]

壬戌년, 즉, 1622(天命 6)년 이전까지는 수렵활동에 참여한 旗王의 家가 각자 포획하고 채취한 몫을 그대로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분배 방식에 대하여 '혼란'[46]스럽다는 염려가 제기됨에 따라 1622년부터는 종래의 방식을 개편하여 사냥에서 획득한 것들을 한데 모아 "八分하여 공평하게 나누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란'스러워 질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정확하게 어떠한 사태를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專管大臣의 사례를 통하여 주변 정황을 유추할 수는 있다. 새로 제정된 재화의

---

44) 專管大臣(enculehe amban)이란 소수의 만주인 유력 가계를 대상으로 1634(天聰 8)년과 이듬해인 1635(天聰 9)년 두 차례에 걸쳐 賦役을 면제하고 자연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일군의 집단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杜家驥, 『淸皇族與國政關係研究』, 中華發展基金管理委員會·五南圖書出版公司共同出版, 1998, 53-64쪽 ; 張晉藩·郭成康, 『淸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 遼寧人民出版社, 1988, 194-197쪽을 참조.

45) 『原檔』 天命 7(1623)년 2월 초3일조(제3책 「列字檔」 p.200 : 『老檔』 太祖, pp.30-31).

46) '혼란'으로 번역한 부분의 만주어 원문은 'facuhūn'으로 한자로는 흔히 '亂'으로 옮겨지며 '어지러워지다', '흐트러지다' 정도의 의미이다.

분배 방침은 旗王만이 아니라 專管大臣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47]

專管大臣의 경우 이전에는 旗王처럼 각자가 사냥하여 포획한 만큼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반면에 이제는 사냥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간에 각자의 지위에 따라 포획물이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즉 '혼란'이란 그 구체적 실체는 알 수 없으나, 그 단초는 旗王이나 專管大臣의 家가 개별적으로 채취하여 차지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배체계를 개편한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일률적인 수취와 재분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622년에 단행된 조치의 본질은 東珠와 같은 자연자원을 소수의 旗王이 개별적으로 편취하여 소유해 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적 수취체계 속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제도 수립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위의 사료에서는 "八分하여 공평하게 나누었다"고 명언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률적 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임명한 전담 관원이 필요하다. 실제 누르하치는 八旗 각기에 大臣 4명을 임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명령하고 있다.

> 여덟 버일러들의 가에서 사냥하여 얻은 東珠와 담비, 스라소니부터 청설모, 족제비까지 온갖 털가죽, 새 깃털, 먹을 과일을 비롯하여 八家(jakūn boo)에 들어갈 물건은 모두 각각 사냥한 주인의 이름, 얻은 물건의 숫자를 글로 적어 보내게 하라. 그것을 버일러당 네 명씩 임명된, 글을 목에 건 사람인 너희가 맞이하여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보아 값을 매긴 후에 八家에 똑같이 나누어 주라. 버일러들을 고려하지 말고 너희의 뜻대로 처리하라.[48]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旗王과 그 측근들을 배제하고 군주인 누르하치 자신이 직접 임명한 대신들이 재화의 관리와 재분배를 전담하게 한 것이다. 재분배의 방식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합한 재화를 단순히 동등한 갯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것을 보아 값을 매긴 후에 八家에 똑같이 나누어" 주도록, 다시

---

47) 이러한 방침은 旗王만이 아니라 專管大臣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原檔』 天命 7(1623)년 2월 초5일조(제3책 「列字檔」 p.202 : 『老檔』 太祖, p.43) "專管大臣들이 직위로 헤아려서 장정을 보내서 포획한 물건을 각자 가졌는데, 그렇게 하기를 그만두고 …… 장정을 보냈거나 보내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초6일에 總兵官 이하 備禦 이상에게 차례차례 지위를 헤아려서 주었다."

48) 『原檔』 天命 7(1623)년 2월 초7일조(제3책 「列字檔」 pp.215-216 : 『老檔』 太祖, pp.55-56).

말하여 그 금전적 가치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하여 八家 모두가 균등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국가 전체의 수렵과 자원채취를 통하여 획득된 재화는 국가의 완전한 통제 아래 관리되고 이에 따라 특정 旗王이 다른 旗王에 비하여 정해진 분량 이상의 재화를 차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자원의 수취 체계를 시계열에 따라 정리해보자. 康熙『大清會典』에 수록된 아래의 기사는 수취체계의 연혁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 무릇 [자연자원을] 採捕할 적에 國初에는 王 이하에서 公 이상은 壯丁을 烏喇 지방에 파견하여 東珠·貂鼠·人參과 같은 자원을 採捕할 수 있도록 허락했었다. 效力動勞大臣도 許遣壯丁을 파견하여 人參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락했었다. 順治 5년에 [效力動勞]大臣이 採參하는 것을 정지시켰다. 順治 7년에는 宗室과 公이 東珠·貂鼠과 같은 자원을 採捕하는 것을 정지시켰다. 順治 8년에 烏喇에서 採參할 수 있는 人數를 정하였다.[49]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본 사료에 보완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①國初에 "王 이하에서 公 이상"의 旗王과 "效力動勞大臣", 즉 專管大臣은 東珠를 비롯한 자연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다. ②1622(天命 6)년의 조치 이후 旗王과 專管大臣은 모두 개별적으로 채취한 자연자원을 일단 국가에 헌납한 뒤에 나눠 갖게 되었다. ③1648(順治 5)년에 專管大臣이 採參이 금지되었다. ④1650(順治 7)년에는 旗王도 專管大臣과 마찬가지로 채취가 금지되었다. ⑤이듬해인 1651(順治 8)년에 世職의 등급에 따라 채집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수를 조정하였다.

이러한 연혁은 旗王와 專管大臣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일찍이 누르하치는 복속시킨 재지세력의 주종관계를 존중하면서 이를 니루로 편성하여 旗王에게 분봉함으로써 八旗制를 조직하였다. 東珠를 비롯한 자연자원의 수취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旗王층과 大臣층 내부에서는 爵位에 따른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旗王층과 大臣층 간에도 차별화가 현저해지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그런 점에서 1622년의 조치는 旗王과 大臣이 그간 누려왔던 특권을 일부 회수하면서 자연자원의 관리를 개인에서 국가로 재편성하는 계기였다고 평

49) 康熙『大清會典』권133, 工部·都虞清吏司·採捕조. 凡採捕, 國初, 王以下·公以上, 許遣壯丁, 於烏喇地方, 採捕東珠·貂鼠·人參等物. 效力動勞大臣, 許遣壯丁, 採取人參. 順治五年, 停止大臣採參. 七年, 停止宗室公採捕東珠·貂鼠等物. 八年烏喇採參人數.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일률적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해서 이를 가지고 旗王 권력에 대한 군주의 억압이나 규제로 곧바로 연결시켜 이해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제도 정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자연자원의 채취와 획득을 위한 활동은 국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군주와 旗王의 家가 旗 별로 모여 구성된 八家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旗王의 사적 영역인 家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제5장 맺음말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고대 이래로 만주지역에서는 담수산 진주가 대표적인 특산물로서 알려져 왔다. 만주인은 진주를 가리켜 東珠=tana와 珍珠=nicuhe로 분별하고 있었는데, 전자가 몽골어에서 유래하여 널리 보급되었던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만주인의 고유한 어휘로서 한정적으로 쓰였다. 몽골어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東珠=tana가 고급 진주를 지칭하고 珍珠=nicuhe는 이보다 질이 떨어지는 진주를 가리키는 명칭 분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주 중에서도 東珠는 사치 풍조가 만연해 있던 명과의 교역에서 높은 상품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明末의 여진인 세력은 東珠를 교역하는 데서 비롯되는 막대한 이윤을 두고 치열한 세력 각축으로 돌입하였다. 16세기말 누르하치에 의한 여진 통일과 만주 정권의 건립은 東珠와 같은 인기 상품의 활발한 교역이 낳은 정치적 결과라 평가할 만 하다.

⑵ 만주인이 진주를 어떠한 용도로 소비하고 있었는지를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진주의 용도로서 사료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례는 군주의 하사품으로서 쓰이는 경우이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귀순한 무장에 대하여 진주가 이용된 물품을 사여하곤 하였다. 아울러 황실의 거거(gege)가 혼인하는 경우 거거와 사위에게 진주가 하사되었다. 외국에 대한 증정품으로서도 진주는 널리 이용되었다. 적대관계에 있던 명측의 무장이나 몽골의 수장층에 대한 사여가 확인된다. 진주 사여의 대상이 최상층부에 한정되어 있을뿐더러 그 숫자도 많지 않다는 점에

서 당시 진주가 가진 가치와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淸의 관복제도 규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冠服에 東珠를 착용할 수 있는 작위는 친왕에서 진국장군까지였고 그 숫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⑶ 청 정권은 당초 旗王과 專管大臣에게 東珠를 비롯한 자연자원에 대한 채취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누르하치 치세의 후반기부터 점차 그러한 특권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그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天命 6년, 즉 1622년에 내려진 조치였다. 이 조치에 따라 자연자원에 대한 사적인 점유가 불가능해지고 그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일견 旗王이나 專管大臣의 기득권이 삭탈되고 군주 중심의 집권적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태세 전환을 즉시 旗王 권력에 대한 군주의 견제책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旗王이나 專管大臣은 사적 영역인 家를 단위로 하여 東珠와 같은 자연자원의 채취에 가담하고 있었고 그 권한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後漢書』= 中華書局 影印本
『三國志』= 中華書局 影印本
『晉書』= 中華書局 影印本
『元史』= 中華書局 影印本
『籌遼碩畫』=『淸史資料』 제1집, 台聯國風出版社,

『老檔』= 김주원 외 역주,『만문노당 태조』, 전2책, 서울대학교출판부, 2019.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역주,『만문노당역주 태종』, 전4책, 소명출판, 2017.
『天聰五年檔』= 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譯註,『內國史院檔 天聰五年』, 全二冊, 財團法人東洋文庫, 2011.
『天聰七年檔』= 東洋文庫淸代史研究室譯註,『內國史院檔 天聰七年』, 財團法人東洋文庫, 2003.
『天聰八年檔』= 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譯註,『內國史院檔 天聰八年』, 全2冊, 財團法人東洋文庫, 2009.
『天聰九年檔』= 東洋文庫淸代史研究室譯註,『舊滿洲檔: 天聰九年』, 全二冊, 財團法人東洋文庫, 1972-75.
『崇德二·三年檔』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 崇德二·三年分』, 河內良弘譯註·編著, 松香堂書店, 2010.

『太宗實錄』= 中華書局 影印本.
『滿洲實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역주,『만주실록역주』, 소명출판, 2014.
『滿洲原流考』= 중국기본고적고 수록본.
『吉林外記』= 중국기본고적고 수록본.
『八旗通志初集』=『八旗通志初集』点校本, 全8冊,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5.
康熙『大淸會典』=『大淸五朝會典』, 線裝書局, 2006.
『北路紀略』= 고전종합DB 수록본.

『동방견문록』= 김호동 역주,『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1.

김선민,「청대 만주족 황실과 만주의 자연자원」,『명청사연구』46, 2016.
임경준,「淸初 三藩의 亂과 盛京 지역 주변정세의 변화」,『이화사학연구』61, 2020

杜家驥,『清皇族與國政關係研究』, 中華發展基金管理委員會･五南圖書出版公司共同出版, 1998.
王雪梅･翟敬源,「清代打牲烏拉的東珠採捕」,『北方文物』2012-2, 2012.
王雲英,「清代對東珠的使用和採捕制度」,『史學月刊』1985-6, 1985.
安寧,「略述清代東珠採捕與打牲烏拉」,『黑龍江民族叢刊』2015-3, 2015.
于志嘉,『明代軍戶世襲制度』, 學生書局, 1987.
李新宇,「淺析清朝對東珠的使用:以《康熙朝･黑圖檔》一份滿文檔案譯釋爲中心」,『吉林師範大學學報』2021-6.
莊吉發,「東珠生輝: 以東珠爲飾着清朝冠服制度的特徵」,『清史論集 25』, 文史哲出版社, 2016.
張晉藩･郭成康,『清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 遼寧人民出版社, 1988
趙雄,「關於清代打牲烏拉東珠採捕業的幾個問題」,『歷史檔案』1984.
叢佩遠,『東北三寶經濟簡史』, 農業出版社, 1989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汲古書院, 2009.
三田村泰助,「ムクン･タタン制の研究：滿洲社會の基礎的構造としての」,『清朝前史の研究』, 東洋史研究會, 1965(原載：『明代滿蒙史研究』, 1963･『立命館文學』223, 1964)
羽田亨編,『滿和辭典』, 彙文堂書店, 1937
福田昆之編,『(補訂)滿洲語文語辭典』, FLL, 2008.
川越泰博,『明代中國の軍制と政治』, 國書刊行會, 2001
和田清,「明初の滿洲經略(下)」,『東亞史研究』, 東洋文庫, 1955.

Allsen, Thomas T, *The Steppe and the Sea: Pearls in the Mongol Empi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9.
Doerfer, Gerhard, *Mongolo-Tungusica*, Harrassowitz, 1985.
Grube, Wilhelm, *Die Sprache und Schrift der Jurčen*, Harrassowitz, 1896,
Rozycki, William, *Mongol Elements in Manchu*, Indian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Inner Asian Studies, 1994.
Schlesinger, Jonathan, *A World Trimmed with Fur: Wild Things, Pristine Places, and the Natural Fringes of Qing Rul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

【토론문】

“타나(tana)와 니추허(nicuhe)”에 대한 토론문

김 선 민*

임경준 선생님의 논문은 명말 청초 시기에 여진-만주족이 진주를 채취하고 소비하는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청의 지배층이 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정 자연 물품을 장악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 초기 사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진주에 관한 다양한 명칭을 소개하고, 만주족이 진주를 이용한 방식을 유형화하여 분류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청 초기에는 만주지역의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장악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닌 팔기를 단위였음을 강조한 점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선생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동주가 만주 구룬 혹은 대청제국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시기적으로 계속 변화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진-만주의 성장과정에서 동주는 중요한 대외교역 물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천명6년(1622)부터 소수의 旗王이 개별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서 “국가적 수취체계 속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가 입관 후 순치7년(1650)에 이르러 宗室과 왕공 귀족은 더 이상 동주를 채취할 수 없게 됩니다. 光緒『大淸會典事例』의 禮部 冠服 규정에 따르면 강희49년(1710)에 이르러 一品 都統은 동주 1개를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하 문무관은 모두 동주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건륭44년(1779)이 되면 “真珠· 朝珠”는 황제만 사용할 수 있고 皇子· 親王· 郡王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王爵을 분봉할 때 반드시 진주를 상으로 내릴 필요가 없다는 규정까지 등장합니다. 동주는 명말 청초에는 값비싼 사치품으로 여겨지다가 점차 청대 귀족사회에서 정치적 신분의 표시가 되었고 18세기 말에는 마침내 황실의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청대에 동주의 채취 권한 및 사용 범위가 시기적으로 변화한 것은 무엇보다 동주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품의 생산량이 물품의 소비 방식과

* 고려대학교

그것이 지닌 정치 경제적 의미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주와 같이 만주족과 만주지역을 대표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생산, 채취, 유통, 소비를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만주지역과 그곳의 자연 물품 (나아가 자연 환경)이 청제국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동주는 만주족과 만주지역을 대표하는 물품이지만, 명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물품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한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유통되었을 것입니다 (Thomas T. Allsen이 설명한대로 이미 송대부터 “北珠”가 널리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만주실록이나 만문노당과 같은 만문 기록 뿐만 아니라『籌遼碩畫』와 같은 명의 한문 기록에 등장한 동주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대 기록에서 혹시 한인들이 동주나 진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만주족의 동주에 대한 인식과 한인의 동주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東北三寶” 가운데 인삼과 초피는 민간 시장에서 널리 거래되었고 이 때문에 불법 채취와 유통에 대한 금령이 다수 등장합니다. 반면 동주에 대해서는『대청회전사례』에서도 복식 규정 위반 외에는 금령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이 동주가 민간에서 유통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민간에서는 만주에서 생산된 동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진주를 이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청시대에 물품의 생산지는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로 크게 중시되었고 진주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티모시 브룩,『쾌락의 혼돈』; Jonathan Schlesinger, *A world trimmed with fur*). 만약 만주에서 생산되는 동주가 인삼이나 초피와 달리 민간에서 유통되지 않는 물품이었다면, 청대 동주는 시장에서의 상업적 가치는 없고 궁중에서의 정치 문화적 가치만 있는 물품이었는지, 혹은 한인 민인은 접근할 수 없고 만주족 황실에게만 중요한 상징적 사치품이었던 것인지, 청대 동주의 가치는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3) 선생님께서 소개하신대로 Thomas T. Allsen은 진주를 통해 몽골 제국의 정치 문화와 문화적· 상업적 물품의 유통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청제국에 남긴 유산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진주를 활용한 방식과 청제국이 활용한 방

식에 어떤 연관성과 차이점이 있었는지, 선생님은 Allsen의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진주 외에, 광활한 영토를 지배한 동유라시아 제국의 정치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물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원 선생님이 설명하시듯이, 몽골 제국의 해상 진출로 다양한 종류의 외래 약재가 중국에 소개되었습니다. 한편 명청시대 상업경제의 발달과 청의 영토확장에 따른 새로운 의학 지식의 도입으로 유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의학서의 출판과 보급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설명한 최근 연구도 있습니다 (He Bian, *Know Your Remedies: Pharmacy and Culture in Early Modern China*,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 진주와 같은 사치품 외에 약재나 의학지식 역시 전근대 동유라시아 제국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5발표】

17~19세기 조선관련 오라이모노(往来物)의 제작·유통과 일본 서민의 조선인식

허 지 은*

1. 머리말
2. 17~19세기 서민교육과 오라이모노
3.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제작·유통
4. 일본서민의 조선인식 변화
5. 맺음말

1. 머리말

오라이모노(往来物)는 11세기~19세기까지 일본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널리 사용되었던 교재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은 다양한 주제의 편지 문장을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에도시대에는 서민 가정과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 교육시설인 데나라이주쿠(手習塾)[1]에서 이용된 일종의 교과서를 모두 오라이모노라고 했다.

데나라이주쿠에서는 오라이모노를 활용하여 읽기와 쓰기, 산수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교육했다. 오라이모노의 내용은 일본의 역사, 풍습, 법규 및 제도를

* 서강대학교

1) 근세사회에서 서민교육을 담당했던 대표적 기관이었던 데나라이주쿠는 데나라이주쿠(寺子屋)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일본학계에서는 사원교육에서 자립한 서민의 학습활동 위에서 성립된 문자학습의 장이라는 의미에서 '데나라이주쿠'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이러한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데나라이주쿠를 사용하기로 한다.

비롯하여 지리, 상업, 교훈, 이학, 물산, 외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오라이모노는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는데, 이 시기에 일본에서 사용된 오라이모노가 약 7000종 이상[2]이었던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다. 오라이모노가 당시 일본 서민의 보편적 지식과 정보의 통로로서 폭넓게 이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내용과 제작·유통의 광범위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할 때 오라이모노가 갖는 사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라이모노에 대해서는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새로 발굴된 오라이모노를 소개하고 분류·해제하는 토대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3] 한편 교육학 분야에서 서민교육 시설인 데나라이주쿠에 주목하면서 그 교재로서 오라이모노를 언급하거나,[4] 여성용 교훈과 오라이모노를 중심으로 여성교육과 여성의 유교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룬 연구,[5] 도후쿠(東北)의 야마가타(山形) 지역에서 확인된 오라이모노의 출판지역 비교·분석을 통해 에도시대 야마가타에서의 서적유통 상황을 고찰한 연구가 이루어졌다.[6] 최근에는 역사학 분야에서 근세 일본서민이 해외관련 정보를 오라이모노를 통

---

2) 石川松太郎, 『往来物の成立と展開』, 雄松堂出版, 1988, 22쪽.

3) 石川謙著, 『往来物落穂集』, 文修堂, 1927, 石川謙·石川松太郎編, 『日本教科書大系·往来編』, 講談社, 1967~77, 『往来物分類集成』, 雄松堂フィルム出版, 1987, 石川松太郎監修·小泉吉永編, 『往来物大系』, 大空社, 1992~94, 石川松太郎·天野晴子編, 『往来物分類集成Ⅱ·女子用往来編』, 雄松堂フィルム, 1994, 小泉吉永編, 『江戸時代女性文庫』, 大空社, 1994~98, 石川松太郎監修、小泉吉永編, 『稀覯往来物集成』, 大空社, 1996~98, 小泉吉永編, 『江戸時代女性文庫·補遺「女筆手本類」』, 大空社, 1999~2000, 小泉吉永 編著·石川松太郎 監修, 『往来物解題辞典』, 大空社, 2001. 郡千寿子, 「長岡市立中央図書館文書資料室所蔵の往来物－横山家文書からの報告－」『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118, 2017;「新潟県立図書館所蔵の往来物資料 : 目的別分類の観点から」『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120, 2019;「石川県立図書館"川口文庫"所蔵の往来物資料」『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123, 2020.

4) 石川謙, 『日本庶民教育史』, 玉川大学出版部, 1998(1929년 初版), 소동호, 「日本近世庶民教育의 発達(Ⅰ):寺子屋의 起源과 그 発達에 대하여」『全北大学校 医科大学附設 看護専門大学 논문집』 6, 1980, 梅村佳代, 『近世民衆の手習いと往来物』, 梓出版社, 2002, 辻本雅史·沖田行司, 『教育社会史』, 山川出版社 , 2002, 辻本雅史, 「教育のメディア史」における「江戸」:「文字社会」と出版文化」『교육사학연구』 20, 2010, 여신호, 「전근대 일본사회의 교육제도와 이념－서민교육의 중심 寺子屋－」『교육문화연구』 16, 2010, 쓰지모토 마사시 지음·이기원 옮김, 『일본 교육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2011, 가타기리 요시오 외 지음, 이건상 옮김, 『일본 교육의 역사 : 사회사적 시각에서』, 논형, 2011.

5) 이미숙, 「에도 시대 여성교육과 리터러시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往来物)에 주목하여」『人文論叢』 72, 2015, 이기원, 「유교적 사회의 성립과 유교 프락시스(1)」『일본학연구』 48, 2016;「유교적 사회의 건립과 유교 프락시스(2)」『일본역사연구』 45, 2017.

6) 郡千寿子, 「山形における江戸時代の書籍流通について : 往来物資料の出版地域からの検討」『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109, 2013.

해 얻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도 나왔다.[7)]

기존 연구성과를 통해 7,000종이 넘는 오라이모노의 존재와 서지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서민 연구에서 오라이모노가 주요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첫째, 오라이모노를 서민 교화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교훈과 오라이모노에 주목하다보니 해외 각국과 관련된 오라이모노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다. 둘째, 일본 서민의 조선관련 정보원으로 오라이모노에 주목한 연구에서도 오라이모노를 내용별 분류에 따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저자나 제작배경, 유통양상과 서민들의 조선인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셋째, 아동 시기에 교육현장에서 습득하고 형성된 이미지·기억은 어느 시기보다도 깊이 뿌리를 내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식의 근저로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오라이모노에 수록된 삽화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17~19세기 일본에서 제작·유통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간행연대, 내용에 따른 분류, 간행지역, 작가를 중심으로 특징을 파악하고 내용·삽화의 분석을 통해 일본 서민이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었고,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외관계의 틀이 크게 바뀌어 일본 서민의 대외인식도 변화하는 17~19세기를 분석시기로 한다. 분석대상은 『오라이모노 해제사전』에 수록되어 있거나 사전이 출간된 이후 새롭게 발굴·확인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내용과 삽화를 중심으로 한다.

2. 17~19세기 서민교육과 오라이모노

17세기 일본의 서민교육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민들은 가족이나 공동체 집단에서 생활과 노동을 하면서 다양한 모방과 습득·수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기량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상업자본이 대두되고 문서주의가 확산되면서 문자를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이 필요해지자 자연스럽게 사설 교육시설인 데나라이주쿠가 발전하고 그 곳에서 실용 위주의 서민교육이 이루어졌다.

데나라이주쿠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후쿠이

7) 허지은, 「17~19세기 조선관련 오라이모노(往来物)와 정보의 유통」 『한일관계사연구』71, 2021;「『류큐오라이(琉球往来)』와 류큐 관련 지식·정보의 유통」 『전북사학』61, 2021.

(福井)현 쓰루가(敦賀)시에 남아 있는 유적 등 단편적인 단서를 통해 대략 16세기 중반에는 데나라이주쿠가 성립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후 데나라이주쿠는 점차 확산되어 17세기 중엽에는 에도·교토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죠카마치(城下町)까지 설치·운영되었고,[8] 18~19세기에는 데나라이주쿠에서의 교육이 본격화되었다.[9]

데나라이주쿠는 사원이나 촌장에 해당하는 쇼야(庄屋), 혹은 죠닌(町人) 등이 개인적으로 개설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적인 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적인 관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마을에서 데나라이주쿠 선생을 임용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마을의 적립금을 선생들의 사례금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마을이 데나라이주쿠의 유지에 관여하기도 했다.[10]

에도 막부의 경우 애초에 서민은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데나라이주쿠의 성립과 보급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다 8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재위 1716~1745) 때 막부는 처음으로 정책적으로 학문을 정치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미 보급되어 있던 데나라이주쿠에서 막부의 법도·후레가키(触書) 등을 통해 풍속·예의·충효 등을 가르침으로써 아동들을 교화시키도록 했다.[11]

이러한 서민교육의 정책적 이용이 에도막부 말기에 이르러 정치적인 공교육 구상으로 이어졌고 이후 메이지 정부의 근대 공교육 제도를 이루는 하나의 전제가 되었다.[12] 다만 막부의 관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데나라이주쿠가 사설기관이었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막부의 정책적 의도가 데나라이주쿠를 통해 일본 전역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비슷한 효과를 보았는가의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데나라이주쿠에서의 교육은 습자(習字)를 기본으로 하여 이로하, 숫자, 한자 순으로 가르쳤다. 보통 습자 교본은 강독 교본을 그대로 사용하여 연습했고, 한자를 배

---

8) 辻本雅史·沖田行司, 앞의 책(2002), 206~207쪽. 데나라이주쿠의 기원을 중세의 사원교육에서 본래 승려가 될 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在家의 무사나 평민의 자제에게도 초보적인 읽기 쓰기를 가르치던 것에서부터 찾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에도시대에 발생한 독특한 서민교육제도라는 견해도 있다.(여신호, 앞의 논문(2010), 8쪽)

9) 소동호, 앞의 논문(1980), 31~32쪽.

10) 辻本雅史·沖田行司, 앞의 책(2002), 209~210쪽.

11) 辻本雅史·沖田行司, 앞의 책(2002), 248~252쪽.

12) 辻本雅史·沖田行司, 앞의 책(2002), 263쪽.

운 후에는 실용문장이나 오라이모노를 모범으로 한 편지글을 연습했다.[13]

오라이모노는 11세기 중엽에 처음 만들어져 점차 교재로서의 형식이 갖추어져 갔다.[14] 오라이모노 중에서 고대·중세시기에 만들어진 것을 고오라이(古往来)라고 한다. 대표적인 초기의 오라이모노는 헤이안시대 유학자였던 후지와라 아키하라(藤原明衡)의 『아키하라오라이(明衡往来)』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귀족들이 주고받았던 편지 200여 통을 모은 문례집(文例集)으로 당시 귀족들의 일상생활, 의식, 민간의 연중행사, 물품의 증여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15]

13세기 중엽 이후엔 편지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단문부터 익힐 수 있는 형태의 오라이모노가 등장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능력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14세기에는 1월부터 12월까 매달 주고받는 편지문장(消息文)을 모아 놓은 『庭訓오라이』가 만들어졌는데, 상업 활동과 관련된 단어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서민들의 문자 학습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5세기에 접어들면 편지문체에서 역사, 지리 등 주제 별로 편집된 오라이모노가 등장했다.[16] 16~17세기에는 고오라이모노가 계속 출판되면서 간행본으로 대량 유포되었고, 이후 오라이모노의 신간서 출판이 현저히 증가했다.[17] 18~19세기에는 가정, 상가, 사회적 수요에 따라 비약적으로 증가한 데나라이주쿠에서 모두 오라이모노를 교재로 사용했다. 그렇다보니 전국적으로 역사, 지리, 사회, 산업, 교훈, 해외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된 다양한 오라이모노가 제작·출판·유통·소비되었다.

17~19세기 일본 전역에서 사용되었던 오라이모노의 종류는 7,000종 이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분량이나 책 크기가 제각각이고 형식과 내용도 다양하다. 데나라이주쿠의 교사가 각 지역의 특성과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성이 있는 교재를 개발·제작(편집)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본서민들은 오라이모노를 통해 문자를 습득하고 지식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18] 특히 해외관련 오라이모노는 에도막부가 정

13) 여신호, 앞의 논문(2010), 285쪽.
14) 辻本雅史·沖田行司, 앞의 책(2002), 56쪽.
15)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 1984~1994, 『世界大百科事典』, 平凡社, 2007.
16) 辻本雅史·沖田行司, 앞의 책(2002), 82~85쪽.
17) 辻本雅史·沖田行司, 앞의 책(2002), 133쪽.
18) 허지은(앞의 논문(2021))이 오라이모노를 일본인의 해외정보의 입수라는 시각에서 조선관

책적으로 해외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해외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일본서민들이 중국·조선·류큐·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로 중 하나였다. 또한 일본의 개국 이후 일본서민들의 서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에도 일본서민들이 다양한 서양 국가들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되었다.

오라이모노에 등장하는 해외국가들 가운데 조선은 지리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일본이 외교관계를 맺은 외국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에 대해 언급했거나 주로 조선관련 내용으로 되어 있는 오라이모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누가 제작했고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제작·유통

고이즈미 요시나가(小泉吉永) 編著·이시카와 마쓰타로(石川松太郎) 監修의 『오라이모노해제사전』에는 모두 3769종의 오라이모노의 제목, 저작, 연대, 출판지역, 판본, 해설, 소장처 등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고이즈미 요시나가가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사이트[19]인 '오라이모노구락부(往来物倶楽部)'에서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오라이모노해제사전』에 수록된 오라이모노와 사전 출간 이후 추가 발굴된 오라이모노 175종의 해제를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2789종의 오라이모노는 일본국문학연구자료관의 신일본고전총합(新日本古典籍総合) 데이터베이스 사이트[20]를 통해 원문이 제공되고 있다.

『오라이모노해제사전』에 수록된 오라이모노와 사전 출간 이후 추가로 발굴된 오라이모노, 총 3944종을 대상으로 17~19세기에 제작·유통되었던 조선관련 오라이모노를 추출하면 총 40종이다. 40종의 조선관련 오라이모노를 간행연대 순으로 간행

련 오라이모노를 처음으로 다루었다. 『오라이모노해제사전(往来物解題辞典)』에 소개되어 있는 조선이 언급되었거나 조선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오라이모노 33건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余師〉本朝三字経略解仮名列女伝』, 『〈絵入〉皇朝三字経』 등 몇 편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누락분과 『오라이모노해제사전』 출간 이후 추가로 발굴된 오라이모노를 포함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9) http://www.bekkoame.ne.jp/ha/a_r/indexOurai.htm

20) https://kotenseki.nijl.ac.jp/page/list-koizumiy.html?fbclid=IwAR3dvRHkWmINBZk-hqrvKM8zrMAgkyuLrRGaB5iTkQCPBb9u_kTGsuy3-OY

지역, 내용에 따른 분류, 작가,출판사, 소장처·소장자, 원문 확인 여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간행지역을 보면 17세기에는 교토, 18세기 전반에는 오사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는 에도에서 간행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에도뿐만 아니라 나고야, 교토, 오사카, 도치기(栃木, 노슈(野州)) 등지에서도 간행되고 있다. 한편, 연대에 따른 간행 건수는 17세기에 4종(10%), 18세기에 11종(27.5%), 19세기에 22종(55%), 연대불명 3종(7.5%)이다. 17세기의 간행 건수에 비해 18세기에 건수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19세기에 가장 많이 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업출판 문화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

에도시대의 간에이(寛永) 시기(1624~1644) 이전까지 인쇄 출판은 주로 사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의 상층 구게(公家)나 상급 사무라이 등 특권 계층을 위한 것이었다.[21] 그러나 간에이 시기부터 출판을 생업으로 하는 서점들이 생겨났고, 서적 제작 방법도 베껴서 옮기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활자를 조판하여 인쇄하는 정판(整板)인쇄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정판인쇄는 목판인쇄와 같은 인쇄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書写本의 가나(仮名), 또는 헨타이가나(変体仮名)에 의한 표기형식과 함께 삽화의 판화도 추가할 수 있어서 서적 제작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22] 또한 고활자판에 비해 책 제작·출판량·품질 등에 있어서 상업판매에 적합한 기술이었다.[23] 정판인쇄법의 도입은 상업출판 문화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 결과 출판의 거점이 교토·오사카·에도 등 이른바 삼도에서 점차 나고야·가나자와(金沢)·센다이(仙台)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가 나고야, 도치기 지역에서도 간행되었던 것이다.

또한 거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직접 책을 출판하여 판매하는 서점이 등장하여 전국에 6,000여개의 서점이 있었다.[24] 당시 지방판의 대부분은 교토·오사카·에도의 출판소로부터 판목을 구해 출판한 구판본이었다.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판목을 조달하는 편이 수고도 경비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25] 이들 서점에서 당초 출판된 것은 고전문학·역사서·불교서·유학서 등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출판이 대체로

21) 辻本雅史·沖田行司, 앞의 책(2002), 127~128쪽.
22) 長友千代治, 『江戸時代の図書流通』, 思文閣出版, 2002, 6쪽.
23) 長友千代治, 앞의 책(2002), 14쪽.
24) 辻本雅史·沖田行司, 앞의 책(2002), 126쪽.
25) 스즈키 도시유키지음·노경희 옮김, 『에도의 독서열』, 소명출판, 2020, 121~122쪽.

끝나자 당시 생활에 도움이 되는 修身書 ·교훈서·실용서로, 그 다음에는 읽고 즐기는 책과 오락서였다. 그래서 출판이 대체로 오락화·대중화 경향을 띠게 되었다.[26] 이로써 도서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오사카 서점인 아키타야 다이몬(秋田屋 太右衛門)과 쓰루가야 규헤(敦賀屋九兵衛)는 오라이모노의 지방 유통 강화라는 영업 방침, 지방 시장의 개척이라는 영업 전략이 관동 지역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례가 된다. 이 서점상들은 오라이모노의 유통을 위해 지방 도시의 서점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거점으로 삼고 사이고쿠(西国)나 호쿠리쿠(北陸)로의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다. 지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곳에서 교육 서적의 수요가 전국 규모로 확대되어 그 수요에 맞추거나 또는 그 수요를 더욱 불러일으킬 정도의 서적의 유통망이 전국 구석구석까지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27]

출판 서적의 유통은 습자(習字) 서적인 오라이모노의 출판증가를 촉진시켜 식자층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즉, 독자가 있어서 서적이 출판·유통된 측면과 함께 서적의 유통으로 습자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오라이모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18~19세기에 급격하게 출판량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19세기에 눈에 띄게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간행이 늘어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조선관련 오라이모노 저자를 통해서도 당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유통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희극작가로 활동하면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도 저술한 인물로 짓펜샤 잇쿠(十返舎一九, 1765~1831)가 있다. 그는 스루가노쿠니(駿河国:현재 시즈오카(静岡)현에서 출생하여 희극작가이자 화가로 에도·오사카에서 작품활동을 했다. 도카이도(東海道) 여행의 실상을 기록한 『도카이도츄히자쿠리게(東海道中膝栗毛)』로 일본 제일의 흥행작가가 되었다.[28] 1822년부터 1825년까지 짓펜샤 잇쿠의 이름을 붙인 30여종의 오라이모노가 간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인 『신공황후삼한평치오라이(神功皇后三韓平治往来)』(<표 1> 17번)도 있다. 진구(神功)황후의 삼한, 신라, 고구려, 백제 정벌의 대략을 독송풍으로 쓴 오라이모노이다.

에도시대에는 조선에서 파견된 통신사가 지나가는 길목에 사신 행렬을 보기 위해

---

26) 長友千代治, 앞의 책(2002), 6쪽.

27) 스즈키 도시유키지음·노경희 옮김, 앞의 책(2020), 72~77쪽.

28) 日本大百科全書

많은 구경꾼들이 모이기도 하는 등 조선에 대한 큰 관심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과 에도막부의 일본을 우위로 보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 예를 들면 통신사행의 닛코(日光) 참배 유도 등을 통해 조선멸시 의식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조선에 대한 멸시의식은 18세기 이후 신공황후 이야기와 더불어 통신사행을 조공사절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는데, 잇쿠 역시 이러한 일본 내 분위기를 반영하여『신공황후삼한평치오라이』를 저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희극 작가는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교훈을 가르치는 계몽가로, 뛰어난 문장력을 발휘하는 문장가로도 인식되고 있었다.[29] 일본 제일의 흥행작가였던 잇쿠의『신공황후삼한평치오라이』를 비롯한 몇몇 오라이모노는 에도시대부터 메이지(明治)시대에 걸쳐 에도와 도쿄에서 대중서를 제작·도매하던 야마구치야 도베(山口屋 藤兵衛)에 의해 간행되었다. 당시 야마구치야에서는 간행본에 그림이 들어간 채색 인쇄한 제첨(題簽:제목을 써서 붙인 종이)[30]을 붙이거나 책 첫 부분에 그림, 지도 등을 싣기 위해 우키요에 화가인 우타가와 구니야스(歌川国安)를 기용하는 등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노력했다.[31]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인『신공황후삼한평치오라이』가 당시 일본에서 얼마나 널리 유통되고 얼마나 많은 일본 서민들에게 읽혔을지를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이 상업출판 문화의 발달이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제작·유통·소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본 서민들의 대조선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9) 丹 和浩,『近世庶民教育と出版文化』, 岩田書院, 2005, 72쪽.

30) 제첨(題簽)은 일본책이나 중국책 표지에 제목과 권 수 등을 적어서 붙이는 종이 조각이다. 일본의 간행본 제첨에는 단책형(短冊型)과 방형(方型)이 있는데, 전자는 주로 표지의 왼쪽 윗부분에 붙이며, 후자는 표지 중앙 위쪽에 붙인다. 두 가지를 모두 붙이는 경우도 있다. 제첨의 문자를 직접 쓰는 경우, 문자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인쇄제첨)도 있다. 인쇄제첨의 경우 문자만 인쇄한 것과 문자 주변에 테두리를 두른 것, 제첨에 그림을 넣은 것(絵題簽)도 있다.(日本図書館情報学会用語辞典編集委員会 編,『図書館情報学用語辞典』第5版, 2013)

31) 丹 和浩, 앞의 책(2005), 73쪽.

4. 일본서민의 조선인식 변화

<표 1>을 보면 17세기에 제작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는 조선에서 간행된 서적의 내용을 편집하여 넣은 것이 많다. 1653~1654년에 간행된『유향열녀전』(<표 1> 2번)은『신각고열녀전(新刻古列女伝)』과『신속열녀전(新続列女伝)』의 합본이다.「신속열녀전」하권에 백제의 도미(都弥) 처, 고려의 안천륜(安天倫) 등 9명, 조선의 풍산김씨 등 5명의 모두 15명의 열녀들이 시대순·지역별로 실려 있다.

백제의 도미의 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미의 아내는 아름답고 행실에 절조가 있었다. 개루왕(蓋婁王:128~166년 재위)이 듣고 도미를 불러 "무릇 부인의 덕은 정결이 제일이지만, 만일 어두운 곳에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좋은 말로 꾀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하니, 도미가 대답하기를 "신의 아내 같은 사람은 죽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왕이 이를 시험하고자 하여 도미를 머물러 있게 한 다음 왕의 한 근신에게 왕의 의복을 입혀 밤에 도미의 집으로 보내어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도미와 내기를 하여 이겼다. 내일 너를 데려다가 궁인으로 삼을 것이다"고 하면서 덤벼들려 하니 도미의 아내가 말하길 "국왕이 망언을 하지 않을 것이니 제가 어찌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소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다. 물러나와 여종 하나를 단장시켜 모시게 하였다. 왕이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에게 죄를 씌워서 그의 두 눈을 뽑아 버리고 배에 태워 띄워 보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부인을 끌어 들여 억지로 간음하려 하니 부인이 "이제 남편을 이미 잃어 혼자 몸으로는 스스로를 부지할 수 없사온데 더구나 왕을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피해야 하니 청컨대 다른 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왕이 이를 믿고 허락하였다. 그녀는 곧 도망하여 강 어구에 이르렀지만 건널 수가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배가 와서 타자 천성도(泉城島)에 이르러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아직 죽지 않고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살고 있었다. 마침내 함께 고구려에 이르러 구차스럽게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삼강행실도』[32]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킨 도미의 처에 관한 이야기로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에

32)『유향열녀전』「新続列女伝」(국문학연구자료관, http://base1.nijl.ac.jp/iview/Frame.jsp?DB_ID=G0003917KTM&C_CODE=0339-015402)

따르지 않고, 끝가지 정절을 지킨 도미 처의 일부종사(一夫従事)의 덕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 끝 부분에 『삼강행실도』[33]를 근거로 했다고 되어 있다.

조선은 유교사상을 정치이념으로 삼아 건국되어 충(忠)과 열(烈), 즉 의리와 절개를 중요하게 여겼다. 『삼강행실도』는 충(忠)·효(孝)·정(貞)의 삼강(三綱)을 세우고 유교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백성들의 교육을 위한 조선시대의 윤리·도덕 교과서 중 제일 먼저 발간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이 읽혔다.[34]

17세기 초에 성립된 에도막부는 중앙집권체제가 아닌 막번체제라는 지방분권제로 각 번(藩)은 번주(藩主)인 다이묘(大名)을 중심으로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다이묘도 막부에 대항하기 어려웠으며, 군신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충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사농공상의 신분으로 나누어 사무라이에게 절대적인 지배권을 부여했고, 농공상인에 대해서는 주어진 본분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이러한 에도막부의 기본적인 정치제도, 도덕규범에는 유교사상이 바탕이 되었다. 에도막부도 유교사상을 통치의 보편원리로 삼아 사회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조선에 대한 관심에서 여성교육용 교재로서 『유향열녀전』이 간행되고 유통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서민여성들은 『유향열녀전』 속 「신속열녀전」에 실린 백제, 고려, 조선의 열녀 이야기를 통해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열녀의 모범을 보았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 지명, 국왕 이름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반도 국가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17세기 조일 관계는 1635년 야나가와(柳川)사건 이후 조·일간의 통교체제가 정비·재편되어 평화로운 관계가 지속되었던 시기이다. 당시 일본에 파견된 조선의 사행이 지나가는 길목에는 사신 행렬을 보기 위해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고, 에도 등에서는 관객석이 설치되기도 하는 등 조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조선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데나라이주쿠에서 『유향열녀전』을 교재로 선택·이용하게 하는 하나

33) 『삼강행실도』는 1434년에 세종의 명령으로 설순(偰循)이 고려의 권부(權溥) 등이 저술한 『효행록(孝行録)』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부자·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모아 편찬한 언행록이자 교훈서이다. 1490년에 본문의 상단 여백에 한글 번역을 추가한 언해본이 간행되었고, 1580년과 1608년 경 重刊되어 지속적으로 간행과 보급이 이루어졌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991.)

34) 『삼강행실도』에 관해서는 김항수, 「삼강행실도 편찬위 추이」『진단학보』85, 1998, 김동식, 「《三綱行実図》보급의 社会史的 고찰」『진단학보』85, 1998, 참조.

의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가이바라 에키겐의 『천자유합』(<표 1>의 5번)은 『천자문』을 익힌 뒤에 배우는 책이었다. 가이바라 에키겐(貝原益軒;1630－1714)은 『천자유합』(<표 1>의 5번)의 저자로 유학자이자 서민교육자였다. 그는 후쿠오카(福岡)번에서 출생했으며, 8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고쿠라(小倉)번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3년간 산촌에서 생활을 했다.[35] 19세 때부터 후쿠오카번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후에 나가사키(長崎)에서 의학 공부 후 1655년 에도로 와서 번의 의사(藩医)로 근무했다. 1657년 의사직을 그만두고 교토와 에도에서 주자학과 본초학을 공부했다.[36] 이 때 大學頭 집안 출신 유학자 하야시 가호(林鵞峰;1618~1680), 일본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야마자키 진사이(山崎 闇斎, 1618~1682), 유학자 기노시타 준앙(木下順庵;1621~1699))과도 교류하였다.[37] 1664년 번의 儒官으로 후쿠오카로 돌아와 다이묘(大名)와 번사들을 상대로 유학을 강의했다.[38] 1682년에는 조선에서 파견되어 온 통신사행을 응대했는데, 통신사들과 조선의 이퇴계, 권근, 왕인 등의 인물과 학교, 과거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필담을 나누었으며, 1719년 통신사행 때에도 사행들과 필담을 나누었다.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 후쿠오카 번에 표착한 조선인들에 대한 필답조사도 담당했다.[39]

『천자유합』은 1692년에 가이바라 에키겐이 조선의 유학자 서거정(徐居正;1420~1488)이 지은 『유합(類合)』에 있는 한자 1512자에 48자를 보충하여 1560자로 편집한 어휘·어구 관련 글씨본이다. 에키겐은 『천자유합』 첫 면에 '조선국정본(朝鮮国正本)'이라고 해서 『천자유합』의 원본이 조선의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에키겐이 서거정의 『유합』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에키겐이 언제 어떠한 책을 읽었는지를 기록한 『완고목록玩古目録』이라는 독서 기록을 보면 그가 특히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온 중국이나 조선판의 경서 주석서를 입수하여 적극적으로 읽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40] 『유합』도 같은 경로를 통해 입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5) 츠치모토 마사시 지음·이기원 옮김, 『일본인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배우는 자의 권리를 찾아서-』, 지와 사랑, 2009, 38~39쪽.
36) 日本大百科全書,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37) 三宅英利 지음·손승철 옮김, 앞의 책, 1991, 276쪽.
38) 日本大百科全書,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39) 三宅英利 지음·손승철 옮김, 앞의 책, 1991, 276쪽.
40) 츠치모토 마사시 지음·이기원 옮김, 앞의 책(2009), 40~42쪽.

한편 『천자유합』은 『유합』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의미내용에 따라 수목(数目)·천문(天文)·중색(衆色) 등으로 유별하고 4언으로 대구를 만들어 놓은 『유합』과 달리, 発端·乾坤·歳時·地理·衆艸·植木·五穀·菜蔬·羽族·毛群·鱗虫·人品·都邑·人倫·身体·居所·調度·貨財·食器·雑器·饌具·服用·人事·物態 등 24항목을 390구로 배열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1]

<그림 1> 『유합(類合)』

<그림 2> 『천자유합』

에키겐은 서문에서 "우연히 조선 사람이 천자를 종류에 따라 구별하여 새김과 독음을 붙여 모아 놓은 『유합』을 보고 채록해서 편집한 것이 모두 민생의 일용할 문자여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글자를 배울 때 이것을 먼저 쓰고 외우고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2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천자유합』를 엮었다"[42]고 저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천자유합』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편집되어

41) 三次市立図書館／「往来本」デジタルアーカイブ(https://trc-adeac.trc.co.jp/WJ11F0/WJJS07U/3420905100/3420905100200010/mp000349/?Word=%e5%8d%83%e5%ad%97%e9%a1%9e%e5%90%88)

42) 三次市立図書館／「往来本」デジタルアーカイブ(https://trc-adeac.trc.co.jp/WJ11F0/WJJS07U/3420905100/3420905100200010/mp000349/?Word=%e5%8d%83%e5%ad%97%e9%a1%9e%e5%90%88)

있으며, 아이들이 읽기 쉽도록 한글로 새김과 독음을 달아 놓은『유합』처럼 한학에 소양이 없는 아이들도 읽기 쉽도록 가에리텐(返り点), 오쿠리가나(送り仮名) 등의 훈점이 표시되어 있다.

일본의 서민들은『천자유합』을 배우기 시작할 때 첫 면에 있는 '조선국정본'이라는 문구와 서문에 있는 조선의『유합』이라는 책을 바탕으로『천자유합』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통해 조선인들이 어떻게 글자를 익히는 지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에 제작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에는 우키요에(浮世絵) 화가 기타오 도키노부(北尾辰宣, 생몰년 미상)의『대선용문삼한장(大船用文三韓蔵)』이 있다. 1763년 오사카 간행본과 1779년 교토 간행본, 그리고 필사자, 간행년도 불명의 한국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있다.[43] 연중행사와 일상과 관련된 消息文 38통이 수록된 표지 포함 27매로 되어 있는 오라이모노인데 조선관련 삽화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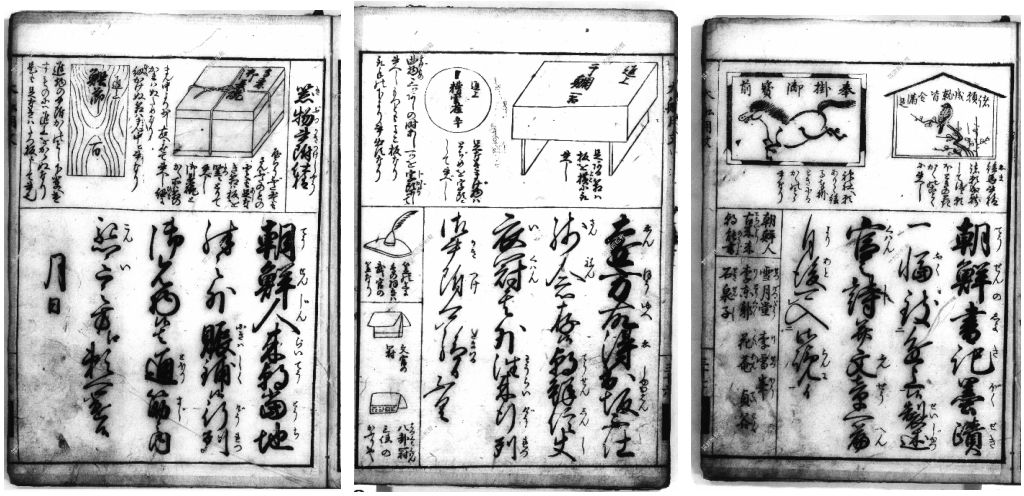
한국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2~5쪽에 삽화「대선도(大船図)」「조선국신사해람도(朝鮮国信使解纜図)」가 들어가 있고, 6쪽 상단의 <조선명소> 부분에는 경기, 금강산, 장백산, 압록강, 요동, 기자사(箕子祠) 여섯 곳과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있다. 6쪽 하단의 <조선토산명물> 부분에는 인삼, 낭모필(狼毛筆), 백추지(白硾紙;나무를 원료로 만든 표면이 희고 단단한 종이), 도자류, 해동청(海東青), 우어(牛魚), 해표피(海豹皮) 등 일곱 가지 물건이 씌여 있고 각각에 대해 설명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약종(薬種), 장신구(小間物)류가 조선에서 들어온 것이 많고, 서물(書物)은 종이가 거칠고 인쇄(板行)도 좋지 않아서 일본의 인쇄에 미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7쪽<조선인 조공의 시작(朝鮮人朝貢の濫觴の事)> 부분에는 조선인의 조공은 스진(崇神) 천황 때 임나국에서 사자를 보내 조공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삼한 가운데 신라가 먼저 왕자 아마노 히호코를 보내 일곱 가지 물건을 바치며 조공하기 시작했고, 이어 백제가 일본의 무위에 굴복하여 대대로 복종했다는 내용이 있다.『고사기(古事記)』,『일본서기(日本書紀)』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44]

---

43) 허지은, 앞의 논문(2021), 18~19. 판본과 관련해서는 오사카간행본과 에도간행본의 내용을 비교·검토한 北村 欽哉의 연구가 있다.(『朝鮮通信使研究ノート寺子屋で學んだ朝鮮通信史-『大船用文三韓藏』』, 羽衣出版, 2017.)

44) 허지은 앞의 논문(2021), 20~21쪽.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3>과 같이 7쪽 하단에는 “조선인 래조 때 이곳은 매우 떠들썩합니다. 행렬을 구경하려면 지나가는 길 안의 친절한 분께 부탁하셔야 할 것입니다”[45]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통신사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연도(沿道)에서의 분위기와 이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사행의 에도방문을 ‘来朝’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내조’의 사전적 의미는 ‘외국·속국의 사자 등이 조정에 와서 예물을 헌상하는 것’,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해 오는 것’이다. 조선사행에 대해 당시 ‘외국에서 사절이 예물·공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来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46] 오라이모노에 사용된 ‘내조’라는 용어는 일본 서민들에게 조선의 통신사행을 조공사절로 인식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와 같이 8쪽 하단에는 “먼 곳이라 갈 수 없어 유감입니다. 조선신사 의관과 그와 왕래 행렬 문서를 내려주십시오. 갖추지 못합니다.”[47]내용이 있고, 왼편에 “모자 위에 새 깃털이 있는 것은 무관의 모자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무관의 모자가

45) 朝鮮人来朝当地殊之外賑鋪候行列御見物候者通筋之内懇意之方江頼可遣候 月 日

46) 반면에 류큐사행의 에도방문은 ‘목적하는 지점에 가서 이르는 것’이라는 ‘到着’과 ‘다이묘(大名)가 에도에 산킨코타이(参勤交代) 하러 가는 것’, 또는 ‘에도에 가는 것’이라는 ‘산뿌(参府)’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은 도착한다는 뜻의‘산차쿠(参着)’와 ‘산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허지은, 「조선 류큐사행, 네덜란드인의 에도방문과 막부의 법령·선례-『享保撰要類集』「朝鮮琉球阿蘭陀人之部」를 중심으로-」『일본공간』 24, 2018, 152쪽.)

47) 遠方故得出坂不仕残念存候朝鮮信使衣冠其外往来行列御書附可給候不具

그려져 있다. 그 아래에 무관의 모자와, 삼사(三使)의 모자라는 설명과 함께 팔괘관(八卦冠)이 그려져 있다. <그림 5>와 같이 9쪽 하단에는 “조선 書記의 필적 한 폭을 진상합니다. 제술관(製述官)의 시와 문장 한 편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48] 조선 사행단 중에 서기의 필적만 상급자에게 진상하고, 제술관의 시와 문장은 보여주기로 한 데에서 특별히 글을 잘 짓는 자로 선별되어서 가는 제술관의 수준을 도키노부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선용문삼한장(大船用文三韓蔵)』의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1쪽 가운데 10쪽이 조선 관련 내용으로 약 20%에 해당된다. 특히 조선의 통신사행이 이용했던 선박과 문관, 무관, 삼사의 모자 그림은 직접 통신사행을 볼 수 없었던 지역의 일반 서민들에게 통신사행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되고, 통신사행을 조공사절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일반 서민들의 조선멸시관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19세기에 간행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는 개국을 전후하여 이전에는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임진전쟁, 조선으로부터의 헌상과 공납 등에 관한 내용이, 이후에는 세계 각국의 명칭, 인구, 무역품, 물산 등과 함께 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1825년에 간행된 짓펜샤 잇쿠의 『신공황후삼한평치오라이(神功皇后三韓平治往来)』가 있다.

서문에 “삼재도회(三才図会)에 이르기를 武王이 조선에 기자(箕子)를 봉하고부터 중국의 礼楽詩書医薬卜筮가 모두 이곳으로 흐르고 衛門, 管制, 의복 모두 중국을 따랐다…오잡조(五雑粗)에 이르기를 이적 제국은 예의가 조선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일본 또한 예의가 있어서 신라의 반란을 쳐서 꺾었다. 이 책은 황태후의 신위(神威;신의 위엄, 감히 범할 수 없는 거룩한 위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서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모든 이적보다 예의가 있으며, 예의가 있는 일본의 신공황후가 신라의 반란을 제압하여 신위를 드러냈다고 되어 있다.

48) 朝鮮書記墨跡一幅致進上候製述官之詩并文章一遍自後可入御覧候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6>과 같이 제목 상단에는 <異国冠帽> 삽화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는 <그림 7>과 같이 신공황후가 삼한을 平治하고 츠쿠시(筑紫;규슈(九州))의 陣으로 돌아온(帰陣) 모습을 그린 삽화가 있다. 이어 쥬아이(仲哀) 천황의 부인인 신공황후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기도하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가서 신의 보호를 받아 삼한을 평정했으며, 이후에 신라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진압하여 삼한평치를 이루었으니 神国의 余光으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서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조선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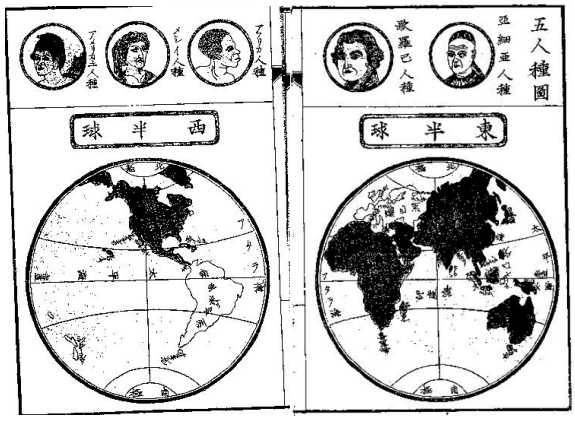
본문의 상단에는 <그림 7>과 같이 <朝鮮国之記> 항목이 있다. 시작 부분에는 "옛날에는 鮮卑라고 불렀고, 주나라 때 조선이라고 이름하고 신라, 백제, 고려 이것을 삼한이라고 했다. 지금 통일되어 조선이라고 부른다. 동쪽 해다 나오는 땅이라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어서 소항목으로 백제, 고구려, 신라, 후백제, 후고려가 있고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리고 <朝鮮儒仏之始>, <日本来貢之始>, <朝鮮之国語>, <異国土産> 등의 항목과 내용이 있다. <異国土産> 항목에는 소항목으로 大冤(타이완)国, 交趾(중국 한나라 때의 군의 하나), 東京, 占城, 太泥, 六甲, 満剌加, 暹羅, 咬?吧, 渣泥, 麻離抜, 揺葛利 등이 있고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구미 열강의 선박이 빈번하게 일본 각지의 연안에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서민들 사이에 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조선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1872년 간행된 가타야마 쓰토무(片山勤)의 『<내외기장> 지구국명(〈内外旗章〉地球国名』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지구국명범례>

부분에 “각국에 이어지는 서술은 대체로『地球説略』이라는 책에 근거하여 이것을 썼지만, 중간에 다른 책에서 한 둘 보충하여 넣은 것이 있고”라고 있다. 미국 선교사 리챠드 웨이(Richard Q. Way)의『지구설략』을 주된 근거로 하여『<내외기장>지구국명』이 저술된 것을 알 수 있다. 리챠드 웨이는 1844년 중국에 와서 1852년 무렵부터 1858년까지 일명 ‘華花書房’으로 불린 華花聖経書房(The Chinese and American Holy Classic Book Establishment)을 운영하면서 많은 서적을 출판하였고 훗날 芝江大学으로 합쳐지는 義塾(당시에는 남학생기숙학교)을 운영하여 중국인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그는 宣教와 教育의 효과를 겨냥한 서적들을 출판했다.『지구설략』은 1848년에 그가 낸『地球図説(Illustrated Geography)』을 보강하여 1856년에 다시 출간한 책이다.[49]

『지구설략』은 중국에서 발간된 후 1860년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교재로 이용되었다. 도쿄 료쿠칸(老皀館)에서 미츠쿠리겐포(箕作阮甫)의 훈점본(訓点本)으로 간행된 것이 일본간행본의 초판이다. 일본판에는 중국판에서 눈에 띄는 선교적 취지의 문장이 삭제되어 있었지만, 지도는 물론이고 풍물과 동물을 보여주는 판화도와 삽도들이 모두 실려 있다.[50] 여기에는 <그림 9>와 같이「五人種図」및「東･西半球図」가, <그림 10>과 같이 각국의 국기가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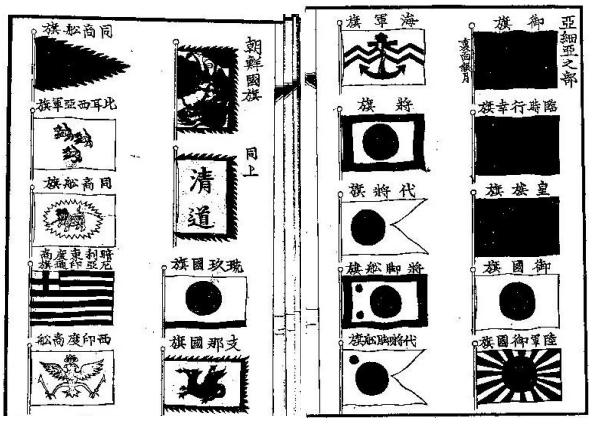
<그림 9>「五人種図」,「東･西半球図」



49) 고연희,「19세기 ‘地球’와 ‘世界’에 대한 시각적 인식:集玉齋 수입서적『地球説略』을 중심으로」『韓国古地図研究』제11권 제2호, 2019, 140쪽.

50) 고연희, 앞의 논문(2019), 150쪽.

<그림 10> 각국의 국기



각 국의 국기 가운데 조선의 국기는 형명기(形名旗)와 청도(清道) 깃발을 그려놓았다. 그런데 형명은 군에서 여러 종류의 기휘를 통해 명령을 전달하는 신호체계를 말한다.[51] <그림 11> 통신사행렬도에 형명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명칭은 교룡기(交竜旗)로 누른 바탕에 용틀과 구름 모양이 그려져 있고, 기의 언저리에 있는 붉은 빛깔은 불꽃을 의미한다. 국왕이 친림 사열할 때에 5영을 명령하는 깃발이다.[52] 그리고 <그림 12>에 묘사된 교룡기는 바탕이 누런색과 푸른색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왜 두 가지 바탕색의 교룡기가 사용되었는지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림 11>

1711年(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図、登城行列②中

5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52) 『万機要覧』군정편 1 / 形名制度

<그림 12>

1711年(正德度)朝鮮通信使行列絵巻(佐賀県教育員会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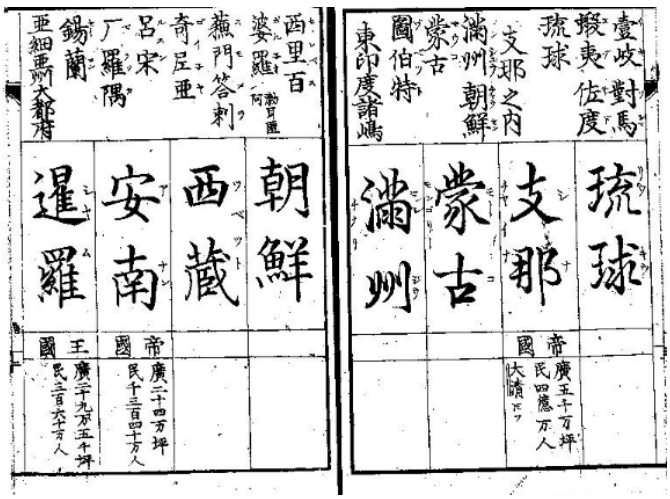
한편 청도기는 조선의 군사들이 행군 때 맨 앞에서 인파를 물리치며 길을 열 때 사용하는 깃발이다. 청도기는 2면인데, 바탕은 청색이며, 언저리는 적색이고, 청도 두자를 썼으며, 불꽃이 달렸다. 기는 4방 4척이며, 깃대의 높이는 8척. 영두(纓頭)·주락(珠絡)이 있으며, 행군할 때에는 앞에서 도로를 깨끗하게 한다.[53] 통신사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이 깃발이 행렬의 가장 앞에 있었고, 이 깃발로 전체 행렬에서 조선인 행렬의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었다.

『<내외기장>지구국명』이 간행된 1872년 시점에 조선에는 국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타야마 쓰토무는 조선의 통신사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용되었던 교룡기와 청도 깃발을 조선의 국기로 인식하여 이 두 가지 깃발을 조선의 국기로 묘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 13>과 같이 육대주를 東半球部 아세아주(亜細亜洲), 구라파주(欧羅巴洲), 아프리카주(阿非利加洲), 오스트리아주(澳大利亜洲), 西半球部 북아메리카주(北亜墨利加洲), 남아메리카주(南亜墨利加洲)로 나누고 각 주 별로 해당 국가를 구분하고 주 안에서는 상단에 지역별 해당 국명과 대도시, 중단에는 국명, 하단에는 나라 이름과 帝国 또는 王国이라는 통치형태, 넓이, 인구, 기타 사항을 적어놓았다.

53) 『万機要覧』군정편 1 / 形名制度

<그림 13>



아세아주의 경우 일본, 지나, 동인도제도를 기재했고, 지나 안에 만주, 조선, 몽고, 티벳(図伯特)이 있다고 되어 있고 지나는 帝国, 즉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넓이는 오천만평, 인구는 4억명, 大清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다. 티벳의 경우 하단에는 西藏으로 한자가 표기되어 있다. 조선의 경우는 국명만 표기되어 있을 뿐, 왕국이라는 통치형태를 비롯한 다른 기재사항이 없다. 반면 구라파 지역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각 항목의 내용이 비교적 빠지지 않고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조선에 대한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 서구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타야마 쓰토무가 <범례>에서 "이 책에 지구국명이라고 이름붙인 것은 세상에서 처음 배우는 지리학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며 자세히 읽는 것(熟読)을 그만두지 않는 것을 마치 지구가 밤낮 둥글게 돌아 그치지 않는 것처럼 하게하고 싶어서 감히 그 뜻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걸어가면 각국의 국경(封境) 역대 연혁을 아는 데 이르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라고 했다. 이제 일본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은 동아시아에 한정되지 않는 지구 전체이며, 그 곳에 있는 모든 국가의 이름을 알아야 하며 쉬지 않고 꾸준히 외우기 시작하면 세계 각국의 이름과 역대 연혁까지도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저자의 취지는 이 오라이모노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일본 서민 아동들에게 세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학습 동기를 부여받아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시각을 넓혀 세계 각국에 대해 공부하고 대외인식을 형성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임진전쟁·정유전쟁 이후 국교가 재개되고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조선의 유교 이데올로기적인 조선의 서적을 이용한 오라이모노가 나타났다. 통신사행 파견 등 평화로운 조일관계가 이루어지던 18세기에는 조선에서 파견된 통신사의 방문과 관련된 제반 준비와 조선관련 공적 업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18세기 후반 외국선박이 일본연해로 접근해오면서 외압을 의식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반발로 주변 지역에 대한 영토확장론이 활발하게 되면서 19세기 중반 조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져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임진전쟁, 조선으로부터의 헌상과 공납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다 개국 이후 19세기 중후반에는 서구 국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의 명칭, 인구, 무역품, 물산 등을 정리하면서 조선에 관해 일부 다루는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5. 맺음말

아동 시기에 교육현장에서 습득하고 형성된 지식과 이미지·기억은 어느 시기보다도 깊이 뿌리를 내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식의 근저로서 작용한다. 일본 각지의 일반 서민들은 각 가정에서 또는 데나라이주쿠에서 교재로 이용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조선 관련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 나름의 조선관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집단적 학습과 기억화는 이후 근대에 형성된 일본의 민족주의적 조선관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천자유합』
『유합(類合)』
『유향열녀전』「新続列女伝」
『대선용문삼한장(大船用文三韓蔵)』
『신공황후삼한평치오라이(神功皇后三韓平治往来)』
『<내외기장>지구국명(〈内外旗章〉地球国名』
『万機要覧』군정편 1 / 形名制度

石川謙·石川松太郎編,『日本教科書大系·往来編』, 講談社, 1967~77.
石川松太郎,『往来物の成立と展開』, 雄松堂出版, 1988.
三宅英利 지음·손승철 옮김,『근세한일관계사연구』, 1991
石川松太郎監修·小泉吉永編,『往来物大系』, 大空社, 1992~94.
石川謙,『日本庶民教育史』, 玉川大学出版部, 1998(1929년 初版).
小泉吉永 編著·石川松太郎 監修,『往来物解題辞典』, 大空社, 2001.
梅村佳代,『近世民衆の手習いと往来物』, 梓出版社, 2002.
辻本雅史·沖田行司,『教育社会史』, 山川出版社 , 2002.
長友千代治,『江戸時代の図書流通』, 思文閣出版, 2002.
丹 和浩,『近世庶民教育と出版文化』, 岩田書院, 2005.
吉野 誠 저·한철호 역,『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 2005.
츠치모토 마사시 지음·이기원 옮김,『일본인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배우는 자의 권리를 찾아서-』, 지와 사랑, 2009.
北村 欽哉,『朝鮮通信使研究ノート寺子屋で學んだ朝鮮通信史ー『大船用文三韓蔵』』, 羽衣出版, 2017.
스즈키 도시유키지음·노경희 옮김,『에도의 독서열』, 소명출판, 2020.

소동호,「日本近世庶民教育의 発達(Ⅰ):寺子屋의 起源과 그 発達에 대하여」『全北大学校 医科大学附設 看護専門大学 논문집』6, 1980.
김항수,「삼강행실도 편찬위 추이」『진단학보』85, 1998.
김동식,「《三綱行実図》보급의 社会史的 고찰」『진단학보』85, 1998.
郡千寿子,「山形における江戸時代の書籍流通について : 往来物資料の出版地域からの検討」『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109, 2013.

辻本雅史,「教育のメディア史」における「江戸」:「文字社会」と出版文化」『교육사학연구』20, 2010.

여신호,「전근대 일본사회의 교육제도와 이념ㅡ서민교육의 중심 寺子屋ㅡ」『교육문화연구』16, 2010.

쓰지모토 마사시 지음·이기원 옮김,『일본 교육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2011.

가타기리 요시오 외 지음, 이건상 옮김,『일본 교육의 역사 : 사회사적 시각에서』, 논형, 2011.

이미숙,「에도 시대 여성교육과 리터러시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往来物)에 주목하여」『人文論叢』72, 2015.

이기원,「유교적 사회의 성립과 유교 프락시스(1)」『일본학연구』48, 2016;「유교적 사회의 건립과 유교 프락시스(2)」『일본역사연구』45, 2017.

고연희,「19세기 '地球'와 '世界'에 대한 시각적 인식:集玉齋 수입서적『地球說略』을 중심으로」『韓国古地図研究』제11권 제2호, 2019

허지은,「17~19세기 조선관련 오라이모노(往来物)와 정보의 유통」『한일관계사연구』71, 2021.

_____,「『류큐오라이(琉球往来)』와 류큐 관련 지식·정보의 유통」『전북사학』61, 2021.

【토론문】

“17~19세기 조선관련 오라이모노(往来物)의 제작·유통과 일본 서민의 조선인식”에 대한 토론문

이 기 원*

1. 본고의 의의

본 연구는 전근대 일본의 교육 시설이었던 데나라이주쿠(手習塾)의 텍스트 ‘오라이모노(往來物)’중에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를 소재로 오라이모노의 제작, 유통, 소비라는 측면에서 전근대 서민들에게 조선 관련 정보나 이미지가 어떠한 형태로 제공, 수용되면서 내적 변용이 일어났는가를 검토했다.

현재 ‘오라이모노’에 대한 연구는 방대한 ‘오라이모노’에 비해 연구는 상당히 미진하다. 현재 주로 데나라이주쿠의 교육적 실태 조사, 서민들의 문자 학습 방법과 내용, 데나라이주쿠에서 주로 사용된 오라이모노 등의 실태 파악에 주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지리, 사회, 어휘, 소식, 산업, 역사, 산수, 대본 등의 방대한 오라이모노 내용 파악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방대한 오라이모노중에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를 통해 데나라이주쿠에서 ‘조선’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교육의 소재로 삼았으며 그것이 전근대 일본 서민들의 조선에 대한 이미지나 조선 문화관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오라이모노의 의의를 정보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것, 근세 일본의 ‘조선이미지의 형성과 변용, 담론의 형성’이라는 신선한 시점을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강원대학교

2. 조선 관련 오라이모노의 제작, 유통, 소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료는『오라이모노해제사전』이다. 이 사전에 수록된 오라이모노와 사전 출간 이후 추가로 발굴된 오라이모노, 총 3,944종을 대상으로 17~19세기에 제작·유통되었던 조선관련 오라이모노는 40종이 된다고 한다.

조선 관련 오라이모노의 40종의 저자의 시기별 분류(유학자, 국학자, 오라이모노 작가, 서예가, 희작가, 난학자, 교육자 등), 간행지역별 분류(교토중심에서 점차 오사카, 에도로 확장되어 갔다는 점), 기술 내용적 분류(중국, 조선 등에서 간행된 여성 관련 서적의 편집, 번역, 통신사 관련 내용,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임진전쟁, 19세기 중반 이후의 세계 각국의 명칭, 인구, 무역품, 물산 등)로 정리했다.

발표문에서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내용 변화에는 이 시기 조일관계와 동아시아의 정세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오라이모노의 저자들이 조선 및 동아시아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라이모노에 기술된 조선 관련 내용 중에는 사실에 입각한 것도 있지만 사실과 상관없이 전해 내려오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기술한 것들도 있다.

시대적 상황이 오라이모노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때 40종에 이르는 조선 관련 오라이모노의 기술의 특징이나 변용, 이 오라이모노가 어느 데나리이주쿠에서 사용되었으며, 나아가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저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조선에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三韓平治往来』의 편자 짓펜샤 잇쿠(十返舎一九, 1765~1831)는 희극작가였으며, 데나라이주쿠를 경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상당히 많은 오라이모노를 작성했다.『三韓平治往来』는 “일본은 신국(神國)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그의『三韓平治往来』(1825, 60세)는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아이들의 습자본으로 사용한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물론 열녀전의 내용을 기술한 나카에 토주의『감초』, 가이바라 에키켄의『천자유합』. 데나라이주쿠의 선생이었던 호리 류스이켄의 조선통신사 관련 내용을 기술한『서찰수본』,『태평오라이』 등은 실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데나라이주쿠에서 사용된 오라이모노에 조일관계나 동아시아 정세가 반영되었다고 본다면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저자들의 의도가 중요해질 것이다.

3. 일본서민의 조선인식 문제

발표문에 의하면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제작과 유통에는 17~19세기 일본의 대조선 관계와 구미 열강의 움직임과 이에 대한 일본 서민들의 관심정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문제는 서민들에게 제공된 정보의 사실문제이다.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三韓平治往来』의 조선 관련 기술에서 “옛날에는 鮮卑라고 불렀고, 주나라 때 조선이라고 이름하고 신라, 백제, 고려 이것을 삼한이라고 했다. 지금 통일되어 조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삼한을 신라, 백제, 고려라 하는 부정확한 정보는 『萬物名數往來』(1795년)와 같은 ‘사회과 오라이모노’에서도 발견된다. 부정확한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부정확한 정보는 왜곡된 채로 사실로 편향 확증된다. 『萬物名數往來』에는 인도와 중국, 일본을 삼국이라 한다고 하여 당시 일본인들의 세계관에 조선은 잘 보이지 않는 나라였다고 볼 수 있다. 오라이모노에서 보이는 조선에 대한 신공황후담처럼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그 내용들에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라이모노의 작자들은 어떠한 경로로 조선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고 보는가?

4. 조선상의 형성과 변용 문제

조선관련 오라이모노로 인해 근세 서민들의 조선상은 어떻게 변모했다고 보는가의 문제이다. 서민들에게 조선멸시관이라는 ‘지’를 이미지화시킨 것의 대표적인 것은 신공황후담이다. 신공황후담과 관련하여 발표문에도 있는 『三韓平治往来』 역시 신공황후담에 의한 ‘일본조공사’로서의 조선통신사의 이미지화, 『大船用文三韓蔵』의 조선통신사 행렬을 ‘일본조공사’로 왜곡시킨 것 등에서 볼 수 있다. 1872년 간행된 가타야마 쓰토무(片山勤)의 『内外旗章 地球国名』에 나타난 세계 각국에 대한 설명과 인식의 확장은 상대적으로 ‘조선’의 협소화 또는 무시화(멸시화) 경향이 보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40종의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의 절반 정도는 메이지기에 간행된 것들이다.

조선관련 오라이모노에서 보이는 ‘조선상’은 왜곡, 변용되면서 일본 서민에게 멸시적인 ‘조선상’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근세의 조선멸시관에서 근대의 정한론으로 계승되어지는 구도와 조선관련 오라이모노를 통해 형성되는

조선상과의 상위성(相違性)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결론부분에서 '민족주의적 조선관의 형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6발표】

기호품의 수입과 도시문화의 변화

— 청말민초 상하이의 정백당·커피 수입액 변화를 중심으로 —

정 영 구*

서론
Ⅰ. 後漢 中後期 自然災害·內亂과 財政
Ⅱ. 黃巾 蜂起 이전 재정 파탄과 '流民 대책'
Ⅲ. 中平 2년 洛陽宮 화재의 後果
결론

1. 머리말

동아시아의 근대전환기를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충돌 혹은 융합과정을 통해 이야기한다면 상하이의 도시문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광둥무역체제가 작동하는 동안 광저우에서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광저우가 문화의 충돌 혹은 융합과정에 관한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항 이후의 상하이에서는 약 1세기 가량 진행되었던 광저우에서의 변화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큰 규모로 문화 간 충돌 혹은 융합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하이가 문화변용 연구의 대상으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상하이는 아편전쟁의 선후처리로 맺은 조약에 의해 개항되었다. 1845년에 『上海土地章程』이 체결되자 이를 근거로 상하이에 중국 최초로 조계가 설립되었다. 1853년 이전 상하이의 조계는 외국인들의 거류지를 의미했다. 1853년에서 1855년 까지 일어난 소도회의 봉기로 인해 조계 내에 거류하는 중국인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華洋

* 안동대학교

分居"는 유지되지 못하였고 1854년 통과된『上海租界地皮章程』를 근거로 "華洋雜居"가 공인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조계는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에 의한,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문화의 큰 줄기는 중국의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중국문화와 확연하게 다른 문화를 보유한 조계에 중국인 거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필연적으로 두 문화의 충돌 혹은 융합을 초래했고, 그 결과 독특한 근대 상하이의 도시문화가 형성되었다.

흔히 문화는 전파되고, 교류하며 그 일부가 수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제 문화론에 의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문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화는 어느 한 집단의 삶의 형태(Designs for living)를 말한다. 문화가 변하는 방식으로는 내부에서 별명/발견되거나 외부의 충격으로 외래문화가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외래문화가 수용되는 방식을 문화변용(acculturation)이라고 한다.[1] 문화변용(혹은 문화접변현상)의 고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화변용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각각의 집단이 직접적인 접촉을 지속하면 나오는 결과인데 이 때 한쪽 혹은 양쪽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존문화의 변화를 동반한다. 이러한 문화변용은 문화의 보급이나 문화의 흡수와는 다르며 수용, 적응, 반발 등으로 귀결된다.[2] 이것은 단순히 전파-수용으로 말해지는 한 방향의 문화이동을 뜻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외래문화가 전파되면, 필요성과 적합성이라는 필터를 거쳐 선택되어 수용되는데, 수용된 문화가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3] 상하이의 도시문화를 이러한 이론의 틀만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상하이의 도시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이자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1845년 이후에 계획되고 건설된 조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향유하고 소유하는 주체는 공통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 틀을 통해 그 단면을 살펴보는 것이 전혀 의미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변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근대 상하이의 도시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문화변용의 원인 혹은 전개 과정을 설명하기보다 문화변용으로 초래된 결과를 뭉뚱그려서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

1) 히라노 겐이치로 저, 장인성·김동명 역,『국제문화론』, 풀빛, 2004, 28-29쪽.

2)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936, pp. 149~152.

3) 히로노 겐이치로, 앞의 책, 89쪽.

문화변용은 그 원인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주요 원인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특성상 그 변화양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물류의 유통이라는 가시적인 현상를 통해서 문화변용의 현상을 일부나마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근대 상하이 도시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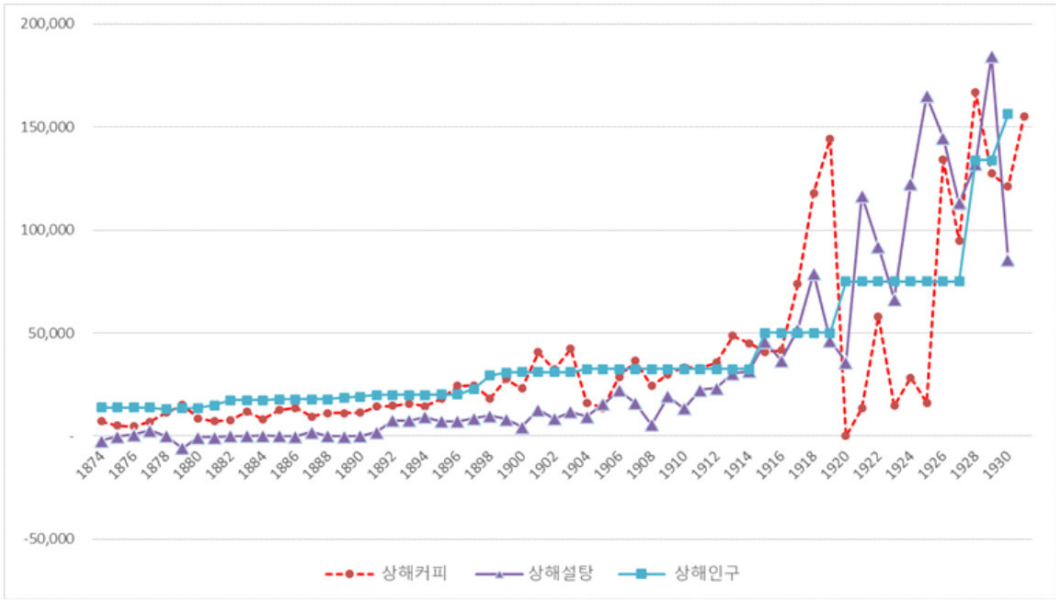
우선 본고에서 주목하는 물품은 수입정백당과 커피이다. 설탕은 唐 貞觀年間 이후부터 중국에서도 생산, 유통, 소비했던 상품이지만 서구에서 생산하는 정백당과는 사뭇 다르다. 서구에서 생산하는 정백당은 기계당이라고도 불리는데 잡맛이 없고 단맛이 강한 희고 깨끗한 설탕이다.[4] 근대전환기에 "설탕의 소비량은 문명수준의 척도"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었는데 이는 서구의 정백당이 도시화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커피 역시 근대를 상징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 근대로의 이행을 주도한 공론장으로써 커피하우스가 주목되면서 중국사에서 근대의 맹아를 찾으려는 연구에 의해 커피가 자연히 부각된 측면도 있지만, 커피가 서양인들이 중국으로 가져온 대표적인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근대화의 지표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 즉 커피=서양=근대라는 도식화가 우리의 인식 안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상하이의 정백당 수입현황과 커피 수입현황 그리고 상하이의 인구증가량을 비교하면 상하이의 근대화 양상의 일부를 갸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먼저 상하이의 정백당과 커피의 수입양상을 분석하고 비교한 뒤 그 변화양상을 상하이의 음식문화의 변화양상과 연관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작업을 단순히 물류의 유통상황과 도시문화에서 보이는 특정 사건을 연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러한 물류의 이동이 한 도시의 문화변용현상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정백당이란 정제당(refined sugar)과 백설탕(white sugar)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이 시기 중국인들은 수입정제당과 수입백설탕을 별도로 구분하여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분석대상을 수입정백당으로 했다.

2. 도시의 형성과 서양음식의 유입

상하이는 아편전쟁 이후 명실공히 중국 최대의 무역항으로 자리매김했고, 지금까지 중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대표도시라는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하이의 도시발전 양상과 문화형성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근대도시로서의 상하이의 문화는 단순히 어느 한 가지 측면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며, 몇 가지 사례만으로 그것을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이 도시에서 일어났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수입정백당과 커피의 수입 양상 역시 근대도시 상하이의 서로 다른 측면을 서술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이 두 상품을 수입하고 소비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상품의 소비 양상에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이 두 상품의 유통양상이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상품 모두 상하이의 도시문화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그림 1> 상하이의 커피 수입액, 수입정백당 수입액, 인구변화,

출처: 『中國舊海關史料』에서 발췌 / 단위: 커피 海關兩, 설탕(정백당) 100 海關兩, 인구 : 20명

<그림 1>은 상하이의 인구 변화와 수입정백당과 커피의 수입액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은 각 항목을 나타내는 단위를 조정하여 각 항목의 변화를 나타내는 꺾은선이 가급적이면 겹치도록 표기함으로써 각 항목의 변화양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했다.

<그림 1>에서 세 가지 꺾은 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대략 2가지 변곡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대략 189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이고, 둘째는 1915년에서 1917년 즈음이다. 편의상 첫 번째 변곡점 이전을 1기, 첫 번째 변곡점과 두 번째 변곡점 사이를 2기, 두 번째 변곡점 이후를 3기라고 부른다면, 1기의 완만하고 지루한 성장세와 2기의 기복이 있지만 성장을 지향하는 양상, 그리고 3기의 요동치는 가운데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은 각 기간 별로 상하이의 문화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상하이의 인구변화와 수입정백당의 수입액, 그리고 커피의 수입액이 상하이의 도시문화 형성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며 서로 연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이 3가지를 분석한다면 근대도시 상하이의 변화과정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을 통해 추정한 시기 구분은 근대 상하이에 형성된 사회단체들을 분석한 小濱正子의 시기구분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그녀는 개항 이후 남경정부 설립 이전까지 근대도시 상하이의 변화양상을 3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1기는 1843년부터 1900년까지이다. 도시 건립기에 해당한다. 2기는 1900년에서 1914년까지이다. 중국인의 상하이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3기는 1914년에서 1927년까지이다. 민족자본이 증가하고 민족운동과 자치활동이 증가하며 근대도시로 발전하는 시기이다.[5] 이러한 시기구분은 근대도시 상하이의 사회단체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시도한 것이지만, 상하이에서 발생한 객관적 지표를 분석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도 큰 무리없이 적용된다. 楊劍龍은 張仲禮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하이 도시와 도시문화의 변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시기구분하였다. 1843년부터 1911년까지가 1기, 1912년부터 1927년까지가 2기, 1927년부터 1949년까지가 3기이다. 이러한 시기구분에 대해 그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년도만으로 얼핏보면 청말-민초-남경정부 수립 등 정치적인 이슈로 상하이의 도시발전 시기를 구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물론 정

5) 小濱正子, 『近代上海の公共性と國家』, 東京:研文出版, 2000, 33~43쪽.

6) 楊劍龍, 『都市上海的發展和上海文化的嬗變』, 上海:上海文化出版社, 2012, 11쪽. 楊劍龍이 시기구분에 사용한 논문은 張仲禮, 『近代上海城市研究』, 上海人文出版社 1990, 11쪽.

부의 교체가 당시 가장 선진화된 도시인 상하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시기구분으로 상하이의 특수성을 잘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의 변화는 지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熊月之는 그의 저서에서 상하이의 서학 수용과정을 시기별로 나누거나[7] 상하이에서 출간한 간행물에 대한 시기구분을 하기도 했지만[8] 청과 민국의 경계를 허물지는 않았다.

<그림 2> 1873~1890년 상하이 수입정백당 수입액/海關兩

출처:『中國舊海關史料』

이러한 시기구분을 염두에 두고 수입정백당과 커피의 수입현황을 살펴보자. 다음 <그림 2>는 1873년부터 1890년까지의 상하이 수입정백당 수입현황이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1873년부터 1880년까지 수입정백당의 수입기록은 불완전했음을 알 수 있다. 총 18년 중 8개년도가 마이너스 수입액을 기록했다.[9] 이러한 현상은 상인들이 중국산 백설탕을 수입정백당으로 속여서 다른 항으로 이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

7) 1기는 墨海書館과 美華書館 시기로 1843~4868년이다. 2기는 飜譯館과 廣學會시기로 1868~1900년이다. 3기는 일본에서 번역한 서학책이 수입되는 시기로 1900-1911년이다. 熊月之 主編,『上海通史9, 晚淸文化』, 上海人文出版社, 1999, 100쪽.

8) 1기는 발전기로 1850~1872년이다. 2기는 성숙기로 1872-1895년이다『申報』의 창간을 지표로 삼았다. 3기는 발전기로 1895-1911년이다. 馬關條約을 기준으로 했다. 熊月之, 앞의 책, 39~40쪽.

9) <부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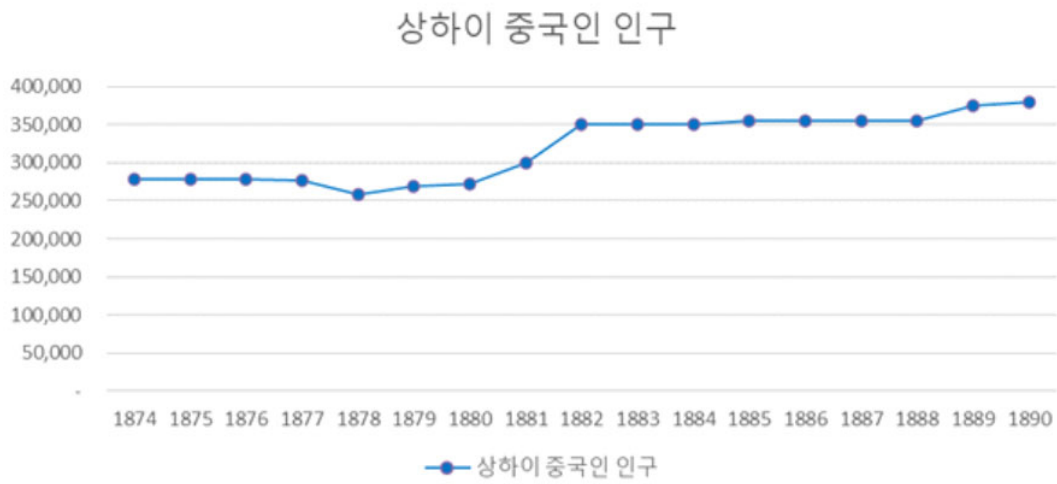
로 보인다. 1883년 蕪湖關 해관보고를 보면 산터우에서 생산된 설탕이 홍콩을 경유하면서 수입설탕으로 둔갑한 사례가 나오는데[10] 수입설탕에 부과되는 세금이 중국산 설탕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상하이에서 발생한 사건도 이것과 유사한 이유로 인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 상하이에서 수입정백당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과 아직까지 중국인의 입맛은 수입정백당보다 중국산 백설탕에 익숙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이 기간의 수입정백당 수입액이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수입정백당의 수입현황만을 놓고 본다면 이 시기 상하이의 도시문화는 아직 중국문화의 연장선에 서있다고 판단된다.

그럼 같은 시기 상하이의 커피 수입액을 검토해 보자. <그림 3>을 보면 상하이의 커피 수입액은 비록 부침은 있지만 수입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 <그림 4>는 같은 시기 상하이의 인구증가 추세를 나타낸 도표이다. 이 그림을 보면 상하이의 중국인 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그림 3> 1873~1890년 상하이의 커피 수입액 / 海關兩

출처:『中國舊海關史料』

10)『中國舊海關史料』10-164쪽.



<그림 4> 1874~1890년 상하이의 중국인 인구/명,

출처:『中國舊海關史料』

이러한 완만한 인구증가세는 커피수입현황 보다는 수입정백당의 수입액과 더 밀접해 보인다. 그렇다면 커피수입액이 부침을 가지며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하이 최초의 커피숍은 1866년에 세워진 虹口咖啡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11] 그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1909년판『上海指南』에는 주점만 1개가 있을 뿐이라고 되어 있고, 1918년판『上海指南』에 비로소 전문 커피숍 1개가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1909년과 1918년 사이에 전문커피숍이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虹口咖啡館에서 황맥주와 흑맥주도 함께 팔았기 때문에 1909년판에 기재된 주점 1개가 虹口咖啡館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12] 또한 비록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문적인 커피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음식점이나 회사, 호텔과 같은 건물에 부속시설로 운영되는 커피숍은 있었다.[13] 이 시기에 수입한 커피는 주로 서양음식의 후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4] 그렇다면 187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커피 수입액은 서양식 음식점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860년대에서 1870년대에 상하이에는 서양인이 경영하는 서양음식점이 있었는데

11) 雍君,「海派咖啡文化的前世今生」,『上海企業』2021年 第8期, 98쪽.
12) 江文君,「從咖啡館看近代上海的公共空間與都市現代性」,『史林』5(중국잡지), 2017, 31쪽.
13) 薛理勇,『舊上海租界史話』,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2002, 281쪽.
14) 徐珂,『清稗類鈔』12, 北京:中華書局, 1984, 6270쪽.

주 고객층이 외국인이나 중국인 매판이었다. 이 시기 서양음식을 番菜, 西餐이라고 불렀지만, 서양요리가 대개 전채, 본채, 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로 大菜라고 불렀다.[15] 이 서양음식점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은 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을 가졌거나, 서양문물을 무조건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서양요리를 먹었지 음식이 입에 맞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서양음식의 대표적인 요리가 소고기로 된 스테이크인데, 일단 평범한 중국인들은 소를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또한 칼과 포크를 이용하여 피가 줄줄 흐르는 스테이크를 잘라먹는 것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16]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것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서양음식점이었다. 대략 1876년 전후로 중국인들이 서양음식점을 많이 개업했는데 서양인이 운영하는 곳과 같이 커피를 후식으로 제공했다. 이 시기 커피의 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서양음식을 통해 커피를 경험하고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7]

상하이의 서양음식점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1880년에 개업한 一品香이다. 一品香의 모든 것은 서양식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중국인이 운영하던 식당이었고 음식은 영국과 프랑스식 요리라고 말하며 판매했지만 요리사는 광둥요리 주방장이었다. 일품향에서는 서양요리를 중국인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조리했다.[18] 일품향은 음식값이 매우 비싼 최고급 음식점이었지만 장사가 잘되었던 것 같다. 이후 普天香(1880), 同香樓(1881), 一家春(1883), 海天春(1885), 同然春(1887) 등 서양음식점이 四馬路에 밀집하여 개업했는데 모두 중국인이 경영하는 서양음식점이었다.[19] 그러므로 <그림 3>을 보면 1876년부터 커피수입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식 서양음식점이 인기를 끌면서 커피소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서양음식의 소비는 서구문화를 수용한 것이지만 중국인의 입맛을 바꾸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을 모방하는데만 그쳤기 때문에 수입정백당 수입액이 커피의 수입액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수입정백당으로 둔갑한 중국

15) 江文君, 앞의 글, 138쪽.

16) 鄭澤青 等,『老上海僑民生活』, 上海:中國福利會出版社, 2004, 4쪽; 餘之,『摩登上海』, 上海:上海書店出版社, 2003, 5쪽; 唐艷香,「飯店與上海城市生活(1843-1949)」, 복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19쪽; 章開源 主編,『西俗東漸記-中國近代社會風俗的演變』, 長沙:湖南出版社,1991, 164-1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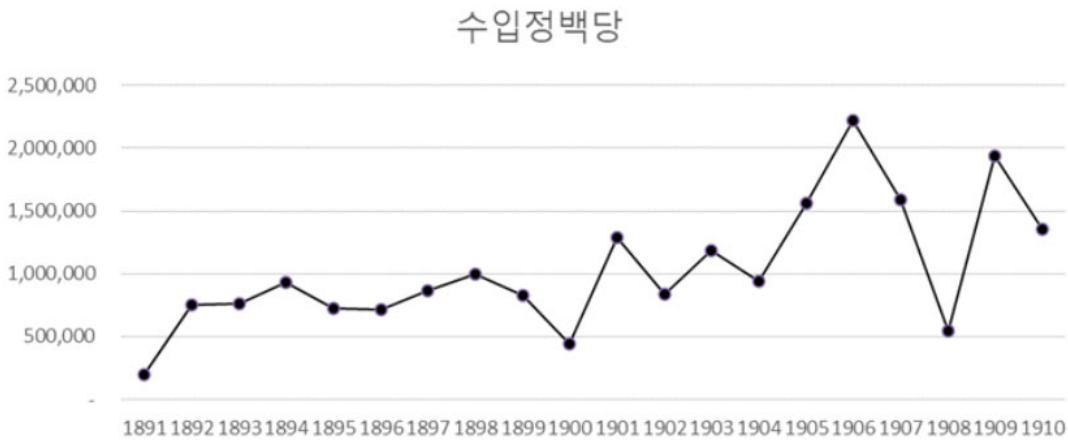
17) 薛理勇, 앞의 책, 281쪽.

18) 唐艷香, 田春明,「一品香與近代上海社會」,『理論界』, 2008年 第6期, 128쪽.

19) 唐艷香, 앞의 글, 111-112쪽.

백설탕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891년부터 1910년까지의 수입정백당과 커피수입액 그리고 인구변화추세를 살펴보자. <그림 5>는 상하이의 수입정백당 수입액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 코하마 마사코는 190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상하이가 성립하는 시기로, 그 이후부터 1915년을 중국인의 상하이가 형성되는 시기로 나누었는데 과연 그러한지 도표를 통해 확인해보자.



<그림 5> 1891~1911년 상하이 수입정백당 수입액/海關兩,

출처:『中國舊海關史料』

상하이의 도시발전을 생각한다면, 특히 도시화와 설탕소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개항장에 외국인 공장을 세울 권리를 획득하는 馬關條約이 체결된 1895년을 기점으로 수입정백당 수입액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 5>의 꺾은 선은 적어도 상하이의 음식문화에는 이 사건이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 1882~1930년 상해의 중국인구통계와 외국인기업수·외국인수

구분	1891.12.31		1901.12.31		1911.12.31		1921.12.31		1930
	외국 기업	인구	외국 기업	인구	외국 기업	인구	외국 기업	인구	인구
중국		40만		62만		65만		150만	3,033,856
외국	280	4,956	432	8,296	643	30,292	1,741	31,393	59,295

출처: 徐雪筠 譯編, 『上海近代社會經濟發展概況(1882-1931)-《海關十年報告》譯編』, 上海: 上海科學院出版社, 1985, 3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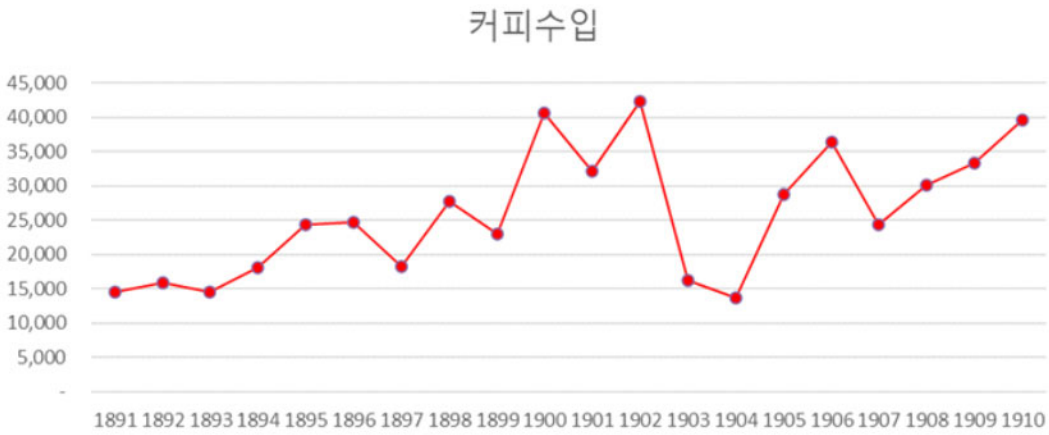
<표 1>은 상하이의 중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기업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189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하이에 설립된 외국인 기업의 총 숫자가 280개이고 외국인이 4,956명이었는데 1901년 12월 31일에는 기업의 숫자는 432개로, 외국인의 숫자는 8,296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중국인의 숫자는 40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수입정백당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상하이의 음식문화가 여전히 중국인의 전통적인 입맛 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민들의 음식문화는 도시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1901년부터 1910년까지 수입정백당 수입액은 부침을 거듭하며 크게 증가하였다. 1890년대와 1900년대의 수입정백당 총액을 비교해보면 1891년부터 1900년까지는 7,203,311 海關兩인데 1901년부터 1910년까지는 13,453,985 海關兩이다.[20] 대략 2배 정도 수입총액이 증가했다. 이는 코하마 마사코가 분류한 상하이의 시기구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런데 <표 1>에 의하면 1891년에서 1901년까지 중국인이 12만 명 증가했고 다음 10년간은 3만 1천명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1900년대의 수입정백당 수입액이 이전 10년보다 2배가량이 증가했으니 이는 인구의 증가와 관계없는 음식문화의 상당한 변화가 상하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같은 기간의 커피 수입액을 나타낸 <그림 6>을 보면 수입정백당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1901년부터 꺾은 선이 크게 부침을 반복하며 전체 수입액이 증가했지만 1895년부터 1900년까지의 수입액 역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21] 이는 <표 1>에 나타난 커피

20) 『中國舊海關史料』 江海關 자료 참조.

21) <부표 1> 참조.

의 주 소비층인 외국인들의 숫자와 외국인 기업의 증가가 커피수입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6> 891~1910년 상하이의 커피 수입액 / 해관냥

출처:『중국구해관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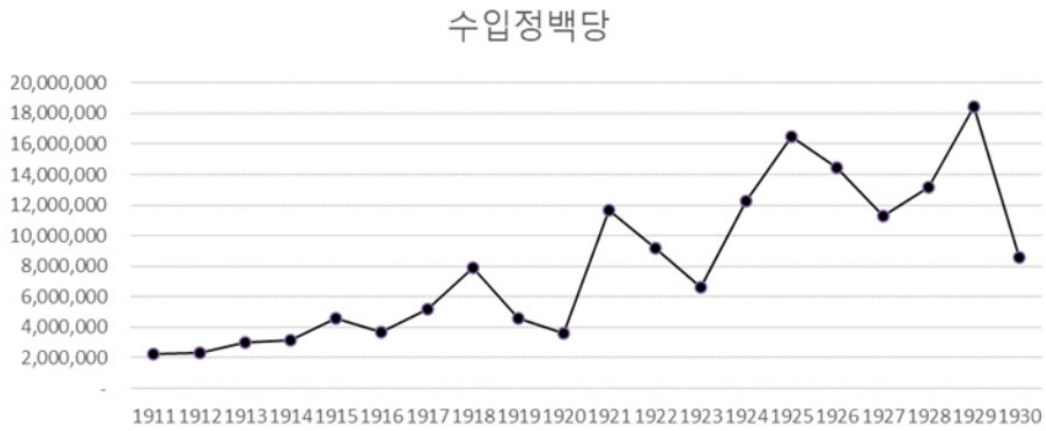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커피의 주요 소비처는 서양음식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상하이에서는 서양음식점들이 난립했다. 四馬路로 일대에만 10여 개의 서양음식점이 있었다.[22] 이 시기의 서양음식점에는 春자가 많이 들어갔다. 錦谷春, 吉祥春, 江南春, 杏花春, 玉林春, 玉樓春, 品香春, 普天春, 萬家春 등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음식점을 통칭해서 "無邊春色"이라고 했다.[23] 이 시기에 서양음식은 상하이 음식문화의 하나로 정착하게 되며 문명의 상징처럼 치부되었다. 상층인사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서양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서양식 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다. 서양음식을 먹는 것은 점점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다.[24] 이러한 서양음식의 유행은 커피소비량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이 시기 인구증가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음에도 수입정백당의 소비가 증가한 것은 수입가격이 하락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서양음식에 점점 상하이 음식문화의 일부가 되어가면서 요

22) 郭立珍, 「民國時期上海餐飮業發展對農村經濟變遷的影響考察」, 『農業考古』, 2013年 4期, 263쪽.
23) 唐艷香, 앞의 글, 112-113쪽.
24) 鄭澤靑 等, 앞의 책, 3~4쪽.

리에도 중국설탕 대신 수입정백당을 사용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이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새로운 생각의 등장과 음식문화의 변용

1910년대가 되면 중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크게 변하게 된다. 신해혁명, 공화국 수립, 총선거, 복벽, 신문화운동, 1차대전 참전, 5·4운동 등 거대한 파급력을 가진 굵직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 사건들이 벌어진 시기에 과연 상하이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까? 먼저 수입정백당의 수입현황을 보자. <그림 7>을 보면, 수입정백당의 수입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꺾은선의 추세가 부침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1910년대에서 수입액이 가장 낮은 1911년의 수입액이 2,237,015 海關兩인데 1890년대에 수입액이 가장 높은 해인 1906년의 수입액이 2,222,386 海關兩이다.[25] 이는 이 시기의 수입정백당 소비액이 이전 시기 소비액과 비교도 못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이 시기 수입액의 최고점(18,454,997 해관냥, 1929년)이 최저점의 약 9배 가량 많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26] 이 시기 안에 어떠한 커다란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꺾은선의



<그림 7> 1911~1930년 상하이 수입정백당 수입액/海關兩,

출처:『中國舊海關史料』

25) <부표 1>참조.

추세만으로 변화의 시점을 추정한다면 부침이 심해지면서 수입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1917년 즈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관 10년보고에는 1912년과 1916년, 그리고 1920년의 텐진, 따리엔, 한커우, 상하이 등 몇몇 주요 개항장의 수출입기록과 재수출기록을 분석했는데, 1916년부터 각 개항장에서 외국물품을 직접수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상하이의 재수출 비율이 대폭 하락했다고 했다. 예를 들면, 1912년의 상하이의 경우 재수출을 제외한 순수한 수입액이 73,067,301 해관냥인데 1921년은 217,285,647 해관냥을 기록했다. 또한 재수출을 제외한 상하이의 순수출액이 1912년 81,716,738 해관냥인데 1921년에는 275,954,482 해관냥에 달했다.[27] 이러한 현상은 상하이가 중계무역형 상업도시(무역도시)에서 수출형 공업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 상하이의 도시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정백당 수입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1919년과 1920년에 수입액이 감소했는데, 이는 1919년 유럽 일어난 대규모 설탕부족현상이 설탕의 국제시세를 4배가량 상승시켰기 때문이다.[28]

상하이가 공업도시로 변모한 것은 인구증가 추세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표 1>을 보면, 상하이의 인구는 중국인의 경우 1911년 651,000명에서 1921년 1,500,000명으로 증가했고 외국인 기업은 643개소에서 1,741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30,292명에서 31,39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1920년대의 수입정백당 수입량은 대대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도 부침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해관에서 해관 10년 보고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 항목을 따로 만들어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20년대에는 설탕 수입액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주요 원인이 2가지인데 하나는 인구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자바의 백설탕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설탕가격은 하락하고, 품질은 좋아져서 소비가 대폭 증가했다. 다만 정제당의 경우 일반적인 판매보다 전문적인 수요층이 있어서 일반 대중이 소비하는 추세와 서로 연동하지는 않지만 중국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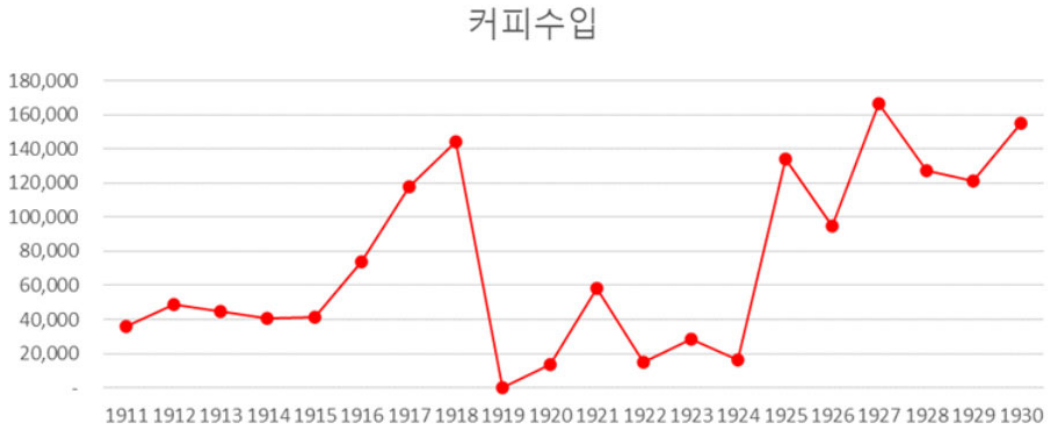
26) <부표 1>참조.

27) 徐雪筠 譯編, 『上海近代社會經濟發展概況(1882-1931)-《海關十年報告》譯編』, 上海: 上海科學院出版社, 1985, 176쪽.

28) 정영구, 「1902~1930년 중국 백설탕시장의 성격」, 『중국사연구』121, 2019, 188쪽

설탕생산량이 너무 감소했기 때문에 수입설탕에 대한 수요가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상하이의 가난한 계층도 수입설탕을 먹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소비량은 설탕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연동하게 되었고, <그림 7>처럼 큰 폭의 부침이 나타나게 되었다.[29] 앞의 <표 1>을 보면, 1921년부터 1930년까지 상하이의 인구는 중국인의 경우 150만에서 300만으로 2배 증가했고, 외국인의 경우 31,393명에서 59,23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910년대와 1920년대의 수입정백당 수입총액을 살펴보면, 1910대에 40,277,038 해관낭에서 1920년대 122,234,198 해관냥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30] 해관 10년 보고에서는 설탕 수입총액이 2배 증가했다고 했는데, 수입정백당으로 한정하면 약 3배 증가했으니 이는 상하이의 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설탕이 흑설탕에서 정백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커피수입현황을 살펴보자. <그림 8>을 보면, 1919년부터 1924년까지 갑자기 커피수입량이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1911년부터 1915년까지는 답보세를 보이고, 1916년부터 1918년까지 3년간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이것은 수입정백당의 사례처럼 1916년을 기점으로 상하이가 공업도시로 변모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림 8> 1911~1930년 상하이의 커피 수입액 / 海關兩

출처:『中國舊海關史料』

※ 1919년 상하이의 커피 수입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수입/이출 기록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9) 徐雪筠 譯編, 앞의 책, 256-253쪽.

30) <부표 1> 참조.

1910년대에 상하이가 공전의 발전을 하기 시작하자 서양음식은 더욱 유행했다. 처음엔 조계의 일부 지역에만 생겼던 서양음식점이 점점 많아지면서 조계 외곽까지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는 서양음식점에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하나는 중국식 서양요리가 지방요리와 정식으로 결합하는 현상이다. 1890년대에 유행한 서양음식점은 서양음식을 중국입맛에 맞춰서 변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음식임을 표방하고 판매했다면 이 시기의 서양음식점은 자신들의 요리를 廣東大菜, 寧波大菜, 上海大菜라고 불렀다.[31] 상하이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각지에서 모여든 이주민에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각지역을 대표하는 요리들이 발달했다. 川菜, 京菜, 粵菜, 揚州菜, 蘇州菜, 無錫菜, 杭州菜, 寧波菜, 徽菜, 閩菜, 湖南菜, 豫菜, 素菜, 本幇菜 등 여러 종류의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발달했다.[32] 이러한 방파의 요리가 서양요리를 모방하다 자신들 요리만의 특징을 혼합하여 독특한 요리로 발전시켰다. 광둥식 서양요리, 닝포식 서양요리, 상하이식 서양요리라는 상하이만의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양사람들이 직접 경영하는 정통서양식당도 상당히 늘었다는 점이다. 1914년판『上海指南』에는 서양인이 운영하는 10곳의 음식점과 일본인이 운영하는 2곳의 음식점을 소개했다.[33] 이렇게 중국식 서양음식점 뿐만 아니라 정통서양음식점이 다수 개업하게 된 것은 상하이 시민들이 정통서양음식에서 느끼는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념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부녀관련 잡지의 창간이다. 1915년에 창간된『中華婦女界』는 1년 6개월 동안 월간으로 발행되다가 정간된 잡지이다. 정간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려져있지 않다. 이 잡지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잡지에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기재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가계부를 쓰는 방법, 요리법, 위생에 관한 것, 육아에 관한 것 등이 거의 매 호마다 실려있다. 특히 잡지에는 많은 서양식 생활방식을 소개하고 있다.[34] 이것 뿐만 아니라 1915년 1월에『婦女雜志』도 월간으로 창간되었다. 이『婦女雜志』는 상하이 상무인서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여성을 독자로 한 종합적인 성격의 대형잡지이다. 1931년에 상무인서관이

31) 鄒振環,「西餐引入與近代上海城市文化空間的開拓」,『史林(중국잡지)』, 2007年 4期, 146쪽.
32) 이 음식점들의 특징은 陳伯海 主編,『上海文化通史』, 上海:上海文藝出版社, 2001, 162-169쪽 참조.
33) 唐艷香, 앞의 글, 114-115쪽.
34) 張哲溶,「民國初年上海家庭生活研究-以《中華婦女界》爲中心」,『當代教育實踐與教育研究』, 2017년 11월, 208쪽.

일본군에 의해 피폭되면서 17년 만에 정간되었다.[35] 이 『婦女雜志』에는 『Mother's magazine』에 기재된 서양요리법을 번역해서 게재한 「新食譜」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을 게재한 작가는 鴛湖寄生인데 이 글 이외에 『Mother's magazine』에 게재된 많은 글을 번역하여 『婦女雜志』에 개재했다. 「新食譜」는 1917년 10월부터(3권 10호)부터 연재했는데 부정기적으로 게재되었다. 「新食譜」의 첫 편에서 작가는 서양풍속을 숭상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져서 심지어 작은 음식까지도 힘을 다해 모방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며 이 시기 상하이에서 서양음식이 매우 유행하고 있음을 언급했다.[36] 이러한 것은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변형시키지 않은 서양음식도 상하이 시민들에게 무리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1916년부터 1918년까지의 커피수입액이 증가한 원인의 하나로 상하이 시민들의 입맛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잡지로 인해 중국인의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음식을 통해 중국인의 입맛이 변한 정도를 가늠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음식문화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추정해볼 수는 있다. 서양음식문화가 중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맥주, 포두주, 커피 등 음료수가 식탁에 올려지는 것이고, 둘째가 육류나 유제품의 소비가 증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위생과 영양에 관한 관념이 생긴 것이다.[37] 이 중 위생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다. 상하이의 젊은이들이 비싸도 서양음식점을 찾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위생상태 때문이었다. 蔡元培(1868~1940)의 경우 중국의 음식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지만 위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양의 방법으로 중국음식을 먹을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서양처럼 다른 접시에 각자의 음식이 나오지 않고 중국식으로 한 군데에 음식을 담아 내놓더라도 요리에 공용 숟가락과 공용 젓가락을 두어 그것으로 음식을 떠먹으면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고 음식도 골고루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38] 『時事新報』의 한 글에서는 식사법을 3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가 구식방법, 두 번째가 신

35) 中華婦女界社 편, 『中華婦女界』1冊(影印本), 北京:綫裝書局, 2007, 4-5쪽.

36) 『婦女雜志』 3권 제10호 「學藝門 新食譜」, 上海:商務印書館, 1917, 216쪽.

37) 鄒振環, 앞의 논문, 143-145쪽.

38) 高平叔 編, 『蔡元培全集』 6, 北京:中華書局, 1988, 74쪽. 「三十五年來中國之新文化」 "吾國食品的豊富, 烹飪的優越, 孫中山先生在學說中, 曾推爲世界各國所不及…共食時匙箸雜下, 有傳染疾病的危險…于是有以西餐方式食中饌的, 有仍中餐舊式而特設公共匙箸, 隨意分取的; 旣可防止傳染, 而各種成分, 也容易分配."

식방법, 세 번째가 절충방법이었다. 구식방법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한 그릇에 있는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만약 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염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신식방법은 서양식 식사법으로 각자의 그릇에 각자의 음식을 담아서 먹는 것이다. 매우 위생적인 방법이지만 매우 귀찮은 방법이라고 설명해놓았다. 마지막으로 절충방법은 각자 숟가락 2개 젓가락 1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숟가락 1개와 젓가락 1개는 공통 접시에 있는 음식을 가져올 때 사용하고 가져온 음식은 나머지 숟가락 1개에 올려서 입에 넣는 방식이다.[39] 이는 蔡元培가 제시한 방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음식문화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사람들의 입맛 역시 바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 커피 수입단가 / 1근당 해관냥

년도	커피수입단가
1918	0.19
1919	0.21
1920	0.21
1921	0.20
1922	0.38
1923	0.31
1924	0.39
1925	0.42
1926	0.45
1927	0.49
1928	0.48
1929	0.47
1930	0.49

출처:『중국구해관사료』에서 발췌하여 계산함

그런데 왜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커피수입량이 대폭 감소한 것일까? 수입정백당의 경우는 국제수요와 연동되기 때문에 심한 부침을 겪었지만 상하이의 커피수입량은 그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수입정백당과 원인이 같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중국의 커피수입단가를 나타낸 <표 2>를 보면 1918년 이후 커피수입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단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특별히 이 시기에 수입을 적게할 이유가 없다. 커피의 수입량이 너무 적다보니 해관보고서에도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갑자기 수입이 줄어든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전 3개년도의 수입량이 다소 많았기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입축소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시기 원두커피가 유통되는 커피의 전부도 아니었고, 개항장만이 유일한 수입루트도 아니었다. 세계적인 커피브랜드 네슬레의 경우 1880년대에 윈난성 쿤밍에 커피숍을 열고, 1908년에 상하이에 판매처를 세웠다. 이 커피의 판매가 나쁘지 않았는지 1920년에는 홍콩에 지사를 세웠다.[40]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커피수입액만을 가지고 이 시기 상하이의 커피소비경향을 단정할 수

39) 天廬,「論"喫"」,『時事新報』1932. 12. 16. (鄒振環, 앞의 논문, 120쪽 재인용)
40) 陳芬森,『西方飮食在中國』,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188쪽.

없다.

1925년부터는 커피수입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5·4운동을 지나면서 중국의 새로운 세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많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상하이에 거류하면서 상하이의 서양문화는 더욱 발전했다. 특히 1920년을 전후하여 많은 유학생들이 상하이를 통해 귀국하면서 상하이에 거류하며 활동하는 유학생들이 증가했다. 그들은 주로 집필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유학했던 나라의 문화를 중국에 전파하였다. 그들은『日記』나『游記』같은 형식의 글을 써서 서양의 문화를 전파했는데 이는 중국인들에게 서양문화를 더 익숙한 것으로 느끼게 해주었다.[41] 이 시기에 중국에서 초콜릿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그것의 전파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5·4운동 이후에 귀국한 유학생이라고 한다.[42]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상하이 시민들로 하여금 서양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

1920년대의 또 하나의 특징을 들자면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러시아식 식당 및 커피숍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자 백계 러시아인들이 상하이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1922년 이후에는 그 수가 더욱 많아졌다. <표 1>에 의하면 1911년 상하이에 거주 외국인은 30,292명이고 1921년에는 31,393명이기 때문에 별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분류해놓은 해관자료를 살펴보면 러시아인이 275명에서 3,145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43] 러시아인들은 상하이에 정착하며 러시아 음식점과 러시아 커피숍을 운영했다. 러시아 음식점은 다른 서양음식점보다 저렴했고 음식의 수준도 높아서 많은 상하이 시민이 이용했다.[44] 러시아 음식점을 羅宋大餐이라고 불렀는데 羅宋은 Russia를 음차한 것이다. 상하이 시민들은 러시아 요리 중 보르쉬를 매우 좋아해서 이것을 羅宋湯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모방한 요리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다. 다만 붉은 순무 대신 양배추를 넣고 붉은 색을 내기 위해 토마토을 썰어 넣거나 토마토 케첩을 넣었으며 소고기 덩이 대신 간 소고기를 넣거나 그것도 없으면 소시지를 넣어서 끓여 먹었다.[45] 러시아 커피

41) 熊月之,『上海通史 10권 民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99, 18-21쪽; 章開源 主編, 앞의 글, 53쪽.
42) 陳芬森, 앞의 책, 188쪽.
43) 徐雪筠 譯編, 앞의 책, 317쪽.
44) 蔣爲民 主編,『時髦外婆』, 上海:上海三聯書店, 2003, 98-99쪽.
45) 魏水華,「西餐在中國」,『飮食文化』, 2020年 第11期, 74쪽.

숍은 다른 유럽 커피숍과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애용했다. 1920년대에 세워진 러시아 커피숍 중 가장 유명한 곳이 DDS와 르네상스이다.[46]

1917년 黃楚九가 상하이에 大世界를 지을 때 그 옥상에 커피숍을 설치한 이래로 1920대까지 상하이에는 커피숍이 급증했다. DDS, 르네상스, 발칸, 트카첸코, 콘스탄티노폴리스, 빅토리아, 설리번, 설리번 분점, DDS카페, 飛達, 凱司令(Kaisiling), 皇家, 바르셀로나, 사이베니아, 리더, 公啡, 上海珈 등이 이 시기에 생긴 커피숍이다.[47] 이렇게 커피숍이 급증했다는 것은 서양요리의 후식으로서 취급되었던 커피가 하나의 상품으로 독립했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상하이에서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림 8>에 보이는 1920년대의 커피 수입액의 증가는 커피문화가 상하이의 음식문화로써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서 1930년대 커피숍은 문인들의 독특한 문화의 장이 되기도 하고 左聯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48] 이 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커피숍이 공론형성의 장으로써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49]

4. 맺음말

개항 이후 상하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조계가 생기고 華洋雜居가 시작되자 중국의 전통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섞이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은 전통문화의 기반 위에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서양의 음식문화도 그 가운데에 포함되었다. 본고에서 주목한 서양 음식문화의 매개체는 수입정백당과 커피였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상품의 수입액의 변화양상과 서양음식문화가 남긴 흔적들을 서로 맞추어가며 문화의 변용과정을 추적해보았다. 수입정백당의 경우 상하이의 도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인구가 늘어나고 공업화가 진행될수록 수입액은 증가했다. 특히 상업도시에서 공업도시로 변하는 1916년 전후와 인구가 급증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1920년

46) 餘之, 앞의 책, 14쪽.
47) 江文君, 앞의 논문, 31쪽.
48) 復旦大學歷史係, 『新文化史與中國近代史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9, 87-88쪽.
49) 江文君, 앞의 논문, 38-39쪽.

전후에 수입량이 급증했다. 수입정백당은 서양 음식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현황이 음식문화의 변용양상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 대체로 인구증가나 도시규모의 확대에 비례하여 수입량이 증가했다.

커피수입액은 설탕과 달리 근대도시 상하이에 유행했던 서양의 음식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상하이에 중국식 서양 음식점이 세워지며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1876년을 전후로 커피의 수입액이 늘어났고, 서양인들이 운영하는 정통서양 음식점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중국인의 입맛에 서양음식이 익숙해지는 1915년을 전후로 수입액이 더욱 증가했다. 그리고 독특한 상하이만의 음식이 생겨나거나 러시아를 비롯한 서양 각국의 정통음식이 상하이 문화의 일부가 되는 1920년대부터 커피는 서양음식의 후식이 아닌 단일 상품으로 취급되었고, 많은 커피숍이 개업했다. 그리고 상하이 커피숍만의 독특한 문화가 발생하자 도시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상에서 검토한 것처럼 수입정백당과 커피, 이 두 가지 기호 상품은 같은 수입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는 양상이 달랐다. 상하이가 서구화되면서 성장하자 기존에 사용되던 중국설탕은 근대도시에 더 적합한 수입정백당으로 대체되었는데 별도의 커다란 저항은 없었다. 또한 수입설탕이 잔뜩 들어간 청량음료나 초콜릿, 케이크, 디저트 등은 중국인들에게 적응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음식이었다. 즉 필요성과 적합성의 필터를 통과한 이 음식문화는 현지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며 그대로 중국의 음식문화로 안착했다.

반면 커피의 경우 서양 음식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인들에게 거부감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질적인 서양 음식문화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커피 역시 같은 상황에 놓였다. 서양의 음식문화는 설탕과는 달리 적합성과 필요성의 필터를 통과하기 어려웠다. 이 문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거나 서양문물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결국 서양의 음식문화는 두 가지 형태로 적합성과 필요성이라는 필터를 통과했다. 하나는 중국식 서양음식의 개발 즉 서양음식이 현지인에 입맛에 맞게 변용되는 형태였고 다른 하나는 서양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서양음식을 수용하는 형태였다.

<부표 1> 1873~1930년 상하이 커피수입액, 수입정백당 수입액 / 해관냥, 상하이 거주 중국인 인구/ 명

연도	커피수입	수입정백당	상하이 중국인 인구	연도	커피수입	수입정백당	상하이 중국인 인구
1873	7,152	-230,906		1902	42,321	835,532	620,000
1874	5,041	-223,360	278,000	1903	16,220	1,185,442	620,000
1875	4,566	-8,503	278,000	1904	13,658	939,070	651,000
1876	7,024	57,943	278,000	1905	28,683	1,559,275	651,000
1877	11,390	268,273	276,000	1906	36,438	2,222,386	651,000
1878	15,089	9,271	259,000	1907	24,324	1,592,120	651,000
1879	8,693	-575,175	269,000	1908	30,083	544,251	651,000
1880	7,117	-50,469	272,234	1909	33,411	1,936,932	651,000
1881	7,746	-64,145	300,000	1910	39,517	1,350,261	651,000
1882	11,841	784	350,000	1911	35,668	2,237,015	651,000
1883	8,198	7	350,000	1912	48,661	2,318,863	651,000
1884	12,694	17,316	350,000	1913	45,031	3,040,367	651,000
1885	13,610	-910	355,000	1914	40,941	3,150,693	651,000
1886	9,441	-15,419	355,000	1915	43,572	4,569,808	1,000,000
1887	11,221	192,747	355,000	1916	73,779	3,659,522	1,000,000
1888	11,119	12,069	355,000	1917	117,906	5,174,682	1,000,000
1889	11,448	-9,561	375,000	1918	144,194	7,907,041	1,000,000
1890	14,192	15,146	380,000	1919		4,624,273	1,000,000
1891	14,614	197,339	400,000	1920	13,433	3,594,774	1,500,000
1892	15,817	756,271	400,000	1921	58,087	11,658,401	1,500,000
1893	14,535	758,568	400,000	1922	14,748	9,201,247	1,500,000
1894	18,039	927,442	400,000	1923	28,274	6,649,245	1,500,000
1895	24,332	722,732	405,000	1924	16,176	12,238,487	1,500,000
1896	24,619	719,361	405,000	1925	134,021	16,495,218	1,500,000
1897	18,317	862,578	457,000	1926	94,815	14,470,673	1,500,000
1898	27,756	992,779	586,000	1927	166,662	11,302,132	1,500,000
1899	23,054	826,712	615,300	1928	127,404	13,206,050	2,677,100
1900	40,571	439,529	620,000	1929	121,122	18,454,997	2,674,447
1901	32,227	1,288,716	620,000	1930	155,002	8,557,748	3,124,212

출처:『中國舊海關史料』에서 발췌함.

참고문헌

1. 사료

高平叔 編,『蔡元培全集』6, 北京:中華書局, 1988,

徐珂,『清稗類鈔』, 北京:中華書局, 1984.

中國舊海關史料編輯委員會 編,『中國舊海關史料(1848-1948)』1-170, 北京:京華出版社, 2001.

『婦女雜志』3권 제10호「學藝門 新食譜」, 上海:商務印書館, 1917.

中華婦女界社 편,『中華婦女界』1冊(影印本), 北京:綫裝書局, 2007.

2. 저서

히라노 겐이치로 저, 장인성·김동명 역,『국제문화론』, 풀빛, 2004.

復旦大學歷史係,『新文化史與中國近代史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9.

徐雪筠 譯編,『上海近代社會經濟發展概況(1882-1931)-《海關十年報告》譯編』, 上海: 上海科學院出版社, 1985.

薛理勇,『舊上海租界史話』,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2002.

楊劍龍,『都市上海的發展和上海文化的嬗變』, 上海:上海文化出版社, 2012.

餘之,『摩登上海』, 上海:上海書店出版社, 2003.

熊月之 主編,『上海通史9, 晚清文化』, 上海人文出版社, 1999.

熊月之,『上海通史 10권 民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99.

章開源 主編,『西俗東漸記-中國近代社會風俗的演變』, 長沙:湖南出版社,1991.

蔣爲民 主編,『時髦外婆』, 上海:上海三聯書店, 2003.

鄭澤青 等,『老上海僑民生活』, 上海:中國福利會出版社, 2004.

陳伯海 主編,『上海文化通史』, 上海:上海文藝出版社, 2001.

陳芬森,『西方飲食在中國』,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小濱正子,『近代上海の公共性と國家』, 東京:研文出版, 2000.

3. 논문

정영구,「1902~1930년 중국 백설탕시장의 성격」,『중국사연구』121, 2019.

江文君,「從咖啡館看近代上海的公共空間與都市現代性」,『史林』5(중국잡지), 2017.

郭立珍,「民國時期上海餐飲業發展對農村經濟變遷的影響考察」,『農業考古』, 2013年 4期.

唐艷香,「飯店與上海城市生活(1843-1949)」, 복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唐艷香, 田春明,「一品香與近代上海社會」,『理論界』, 2008年 第6期.

雍君,「海派咖啡文化的前世今生」,『上海企業』2021年 第8期.

魏水華,「西餐在中國」,『飮食文化』, 2020年 第11期.

張哲溶,「民國初年上海家庭生活研究-以《中華婦女界》爲中心」,『當代教育實踐與教育研究』, 2017년 11월.

鄒振還,「西餐引入與近代上海城市文化空間的開拓」,『史林(중국잡지)』, 2007年 4期.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936

【토론문】

“기호품의 수입과 도시문화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강 진 아*

정영구 선생님의 글은 상해 조계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상해 도시 문화에서 나타난 문화변용 현상을 “수입정백당”과 “커피”의 수요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은 크게 청 말에 해당하는 (1) “19세기 후반에서 1900년대”, 그리고 민국 초기에 해당하는 (2) “1910년대와 1920년대” 두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상해의 정백당 수입량과 커피 수입량의 변화를 해당 시기 상해 도시 사회 문화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인구 변화, 서양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의 숫자 변동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먼저 (1) 시기는 다시 세 시기로 나뉜다.

1873-1890년까지 정백당은 수입이 적었는데, 이는 국산 재래식 설탕이 입맛을 지배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시기 커피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저자는 서양식 음식점의 증가 때문으로 파악했다. 소비층은 주로 서양인이었으나, 중국식 서양음식점의 등장으로 서양을 동경하는 중국인들이 모방 소비 역시 늘어났다. 저자는 그렇다고 해도 이 시기는 진정한 입맛을 바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았다.

1891년-1900년 시기 역시 수입 정백당 소비는 크게 안 늘었다. 이 시기는 1895년 외국인 상해 공장 개설권 획득 및 상하이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가 크게 이뤄진 시기이지만(외국인 인구, 회사, 중국인 인구 모두 크게 늘어) 그런데도 수입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인의 설탕 소비 입맛이 여전히 전통적이고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보았다. 반면 커피는 상당히 증가했는데, 설탕과 달리 커피는 1895년 상해 공

* 한양대학교 사학과

장 개설권 획득과 외국인 회사 인구 증가의 영향을 직접 받은 사례 받았다고 해석하였다.

1901-1910년 사이 설탕 소비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하지만 상해 인구는 별로 안 늘어났던 시기이다. 따라서 설탕 소비에 있어서, 인구 증가와 별 관계없이 음식 문화가 변화한 사례로 해석하였다. 커피 역시 소비가 크게 늘어났는데, 서양 음식의 유행과 커피 소비량 증가 두 가지 요소가 수입 정백당 소비를 자극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민국 시기 (2) 1911-1930년은 설탕과 커피를 나누어 전체적으로 연대별로 분석하였다.

설탕 소비는 대폭 증가한다. 1910년대에 다른 개항장으로 재이출이 줄었어도 상해 자체로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해가 중계무역형 상업도시가 아니라 수출형 공업도시로 변한 것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1920년대 설탕 수입량은 대대적으로 성장하나 부침은 컸는데, 이 시기 상해의 하층민 역시 수입 설탕을 소비하게 되면서, 설탕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1920년대에 이르러 상해의 설탕 소비는 완전히 흑설탕에서 정백당으로 옮겨갔다.

한편 커피 소비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서양 음식점의 대폭 증가와 함께, 지식인들의 위생과 영양의 강조에서 서양 음식에 대한 선호가 전파되었고, 입맛 역시 서양화되었다. 1920년대 커피숍이 급증하면서. 커피는 후식에서 단독 상품으로 독립하여, 커피 문화가 보편화되었다. 다만 1920-1924년에 커피 수입량의 감소는 그 전 시기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것일 듯하다고 추측했다. 1925년 이후 커피 수입 급증은 오사세대 유학생들의 귀국,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인 이주로 상해에 커피 문화가 더욱 유행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가 되면 커피는 상해 음식문화로 정착했고, 1930년대는 커피전문점이 좌파, 문인의 공론 형성의 장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정백당은 서양 음식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이지만, 수입 동향은 음식문화의 변용 양상과 거의 관계가 없다. 대체로 인구증가나 도시규모의 확대에 비례하여 수입량이 증가했다.

2) 커피는 정백당과 달리 근대 상해의 서양의 음식문화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 정영구 선생님은 설탕과 커피라는 기호품으로 근대 상해가 어떻게 서양 (음식) 문화를 수용해 나가는 지 추적하면서, 수입량을 바로미터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도시사, 일상사, 문화사, 경제사를 기호품이라는 주제 안에 복합적으로 녹여내어 많은 흥미와 시사점을 주었다. 설탕 수출입을 해관통계를 이용해 꼼꼼히 분석해온 정영구 선생님의 작업이 문화사, 도시사 영역으로 확대되어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논문의 완성에 아래의 질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그림 2> 1873년부터 1890년까지의 상하이 수입정백당 수입현황(5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마이너스는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것이 더 많다는 의미인지? 단위는 톤? 담? 정확하게 어떤 표인지 잘 이해가 안 갔다. 한편 이와 대조하는 <그림3> 같은 시기 커피 수입액은 단순 수입액이라서, 두 표의 성격이 다르므로 곡선 모양으로 비교가 어렵다. 커피 수입량은 단위는 톤? 담?

2. (8쪽) “이 시기(1873-1890) 서양음식의 소비는 서구문화를 수용한 것이지만 중국인의 입맛을 바꾸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을 모방하는데만 그쳤기 때문에 수입정백당 수입액이 커피의 수입액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그 대신 수입정백당으로 둔갑한 중국백설탕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였는데, 정백당 수입량에 서양 음식점 숫자 및 커피 소비 증가에 어느 정도 연관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다. 정백당 수입량에 양과자, 소다(음료수) 공장 등 다른 지표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3. 저자는 설탕과 달리 커피는 지속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12쪽) 그림 8 1911~1930년 상하이의 커피 수입액을 보면 커피는 1916년-1918년 급성장하다가, 1920년 거의 바닥을 치고. 1918년 피크는 1928년 이후 찾아왔다. 이를 보면 커피 역시 정백당과 마찬가지로 수입량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서구 음식 문화의 지속적 확산 외에, 제1차 세계대전과 20년대 상해의 “경기 변동” 등 경제적 요인이 더욱 설명력이 있지 않을까?

4. 전체적으로 서양 음식 문화의 확산이 정백당 소비와 커피 소비를 증가시키고, 두 물품의 수입량도 증가시켰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

증감량을 바로 두 물품 소비 증감으로 해석하는 글의 전개 방식에 관해서는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저자가 지적한 “재이출 구조의 변화”, “스톡량에 따른 수입량 조절” 등의 요소에 더해서, 공급자 측인 제당업자의 생산 및 유통 구조상의 변동, 기계식 정제당과 흑설탕의 시세 문제, 정치 변동(북벌, 전시 수요 등등)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한 항구의 정제당 수입량에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모두 일일이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홍콩 테고당방의 월별 delivery 보고서를 보면 분기, 아니 달별로 상황이 엎치락뒤치락한다. 따라서 연별 전체 추세와 도시 문화 변동을 병렬적으로 서술하다보면 예외가 너무 많아지고, 예외는 추측으로 설명해서 메워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된다.

5. 결론에서 “1917년, 상하이가 서구화되면서 성장하자 기존에 사용되던 중국설탕은 근대도시에 더 적합한 수입정백당으로 대체되었는데 별도의 커다란 저항은 없었다. 즉 필요성과 적합성의 필터를 통과한 이 음식문화는 현지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며 그대로 중국의 음식문화로 안착했다. / 반면 커피의 경우 서양 음식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이 문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거나 서양문물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었다. / 그러나 결국 서양의 음식문화는 두 가지 형태로 적합성과 필요성이라는 필터를 통과했다. 하나는 중국식 서양음식의 개발 즉 서양음식이 현지인에 입맛에 맞게 변용되는 형태였고 다른 하나는 서양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서양음식을 수용하는 형태였다.”의 마지막 문단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린다.

第41回(2022) 冬季研究討論會

동유라시아 세계의 물품이동과 문화변용

印刷 : 2022年 1月 13日
發行 : 2022年 1月 13日
發行 : 東洋史學會
會長 : 차 혜 원